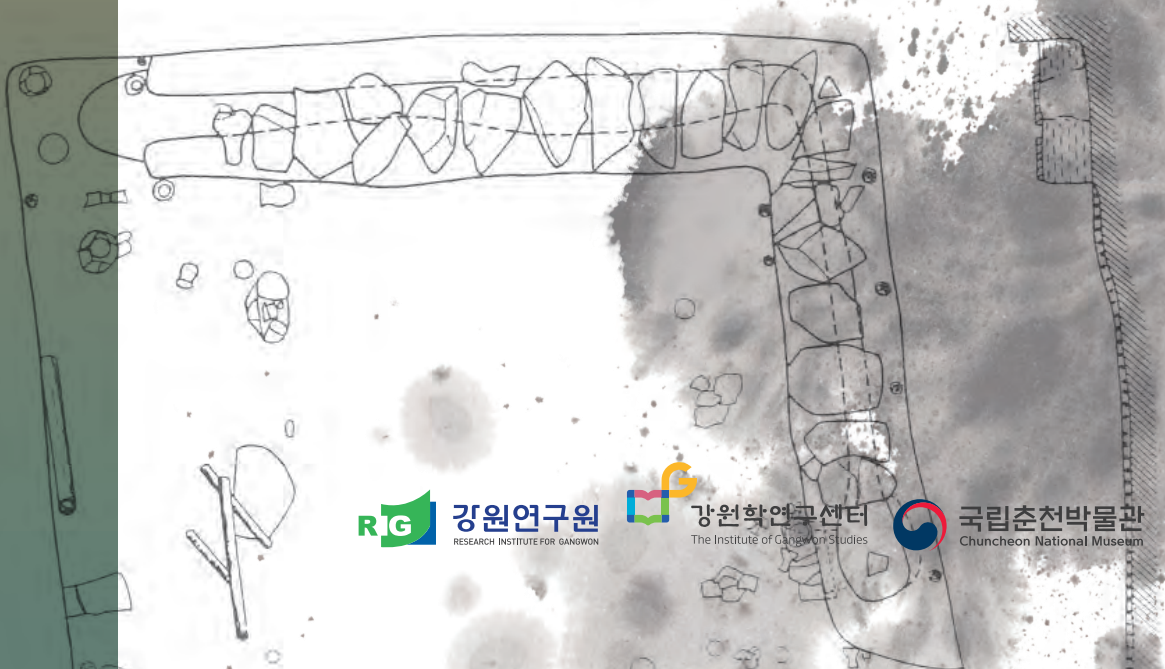


#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

文獻 考古資料 古代 江原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

## 일러두기

- \* 이 책은 2020년 6월 19일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가 공동개최한 제3회 강원 고대 문화 연구 심포지엄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에서 발표, 토론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 심포지엄 주제 발표자 중 김무중(기양고고학연구소)의 논고는 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총서에서 제외하였다.

#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

文獻 考古資料 古代 江原



## 발간사

---

이 책은 2020년 6월 19일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와 국립춘천박물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제3회 강원 고대문화 연구 심포지엄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의 성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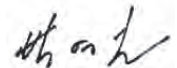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와 국립춘천박물관은 고대 강원문화의 종합적 이해와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위해 강원 고대사 집중연구 3개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2018년에는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를, 2019년에는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를 발간하였고, 2020년에는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중도문화의 토기, 묘제, 수공품 등에 대한 고고학과 문헌사의 융복합적 접근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해 주신 내용과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내용을 담아내었다.

심포지엄과 이 책의 발간을 기획, 주관해 주신 강원학연구센터 장정룡 센터장님과 국립춘천박물관 홍진근 관장님,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과 출판을 맡아주신 산책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 12

강원연구원장







## 목차

---

### 연구논문

- 009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기원과 전개  
박경신 / 숭실대학교
- 051 中島文化の鉄器の特質とその系譜  
村上恭通 / 愛媛大学
- 093 중도문화 묘제의 성립과 전개  
정치영 / 한성백제박물관
- 119 중도문화 수공품 생산경제에서 위세품 소비의 사회적 의미  
허진아 / 전남대학교
- 145 1~3세기 한반도 중서부지역 정치체의 동향  
김창석 / 강원대학교
- 175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와 한성 별도의 건설  
여호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 녹취자료

- 207 종합토론 녹취록  
좌장 노태돈 / 서울대학교  
토론 정인성 / 영남대학교  
박중국 / 한강문화재연구원  
김상민 / 목포대학교  
김재홍 / 국민대학교  
박준영 / 서울대학교  
오영찬 / 이화여자대학교  
임기환 / 서울교육대학교



•

#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기원과 전개

박경신

#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기원과 전개

박 경 신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Contents

- I. 머리말
- II.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권
- III.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기원과 구조 및 발전
- IV. 중동부문화권 취락의 전개 양상
- V. 맺음말

# I

## 머리말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주제 키워드는 ‘중도문화’이다. 그러나 중도문화로 규정할 경우 연천, 가평, 양평, 이천을 경계로 한 동쪽의 영서지역에 한정된 개념으로 영동지역을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동부문화권을 설정한다. 중동부문화는 2개의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중도유형과 가평리유형이다.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취락의 특징은 여·철자형주거, 중도식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의 물질자료가 공통된다. 그러나 주거의 평면형태, 노시설의 구조, 분묘 형식에서 유형별로 구조, 시기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은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취락의 등장, 변화, 전개 양상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중도유형권과 가평리유형권의 전개 양상에 시차가 보이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 범위는 원삼국시대에 한정한다. 원삼국시대 상한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낙랑군설치 이후의 시기부터를 원삼국시대로 본다. 그리고 물질자료의 구성 차이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세분할 수 있다.<sup>1</sup> 중부지역 삼국시대의 국가체는 백제가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취락의 양상으로 볼 때 지역별로 원삼국시대 문화요소가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한성백제 시기에 원삼국문화가 지속된다는 개념으로 ‘한성백제병행기’(金成南 2006: 47)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분석 대상 공간은 여·철자형주거가 확인되는 지역에 국한한다. 지역적으로는 연천, 포천, 가평, 서울, 양평, 광주, 이천을 경계로 동쪽 지역과 영동지역을 포괄하는 중동부문화권이다. 이에 비하여 방형주거, 분구묘 및 주구토광묘가 분포하는 중서부문화권은 중동부문화권과 주거, 묘제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영남 북부 내륙 및 동해안 지역에서 중동부문화권 요소가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중동부문화권의 확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서부문화권과 중동부문화권의 차이, 접이시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중서부문화권의 물질자료도 일부 검토하도록 한다.

---

1 원삼국 I 기는 BC 1C ~ AD 1C(I-1기:BC 1C 전반, I-2기:BC 1C 후반, I-3기:AD 1C 전반, I-4기:AD 1C 후반), 원삼국 II 기는 AD 2C(II-1기:AD 2C 전엽, II-2기:AD 2C 중엽, II-3기:AD 2C 후엽) 원삼국 III 기는 AD 3C(III-1기:AD 3C 전반, III-2기:AD 3C 후반)로 세분된다(박경신 2019a: 63). 아울러 100년을 기준으로 2분(전반, 후반), 3분(전엽, 중엽, 후엽), 전엽의 빠른 시점을 초, 후엽의 늦은 시점을 말로 정의한다(박경신 2015: 42).

## II

###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권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는 크게 2개의 문화권과 4개의 유형권으로 대별된다. 2개의 문화권 경계는 양평과 이천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동서를 비스듬하게 가르고 있다. 북쪽으로는 남양주, 가평, 포천, 연천을 경계로 한다. 현재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경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묘향산맥과 예성강이 북쪽과 서쪽의 지리적 경계로 추정되고, 추가령구조곡을 포함한 이남 지역이 문화적 경계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권의 경계는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전기에는 연천과 여주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중기에는 연천과 남양주를 경계로 한다고 보고 있다(송만영 2013a, 2013b). 특히 송국리유형권과 비송국리유형권의 경계(조진선 2013: 그림 22; 서현주 2017: 70-77)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이 주목된다(도면 1). 그리고 초기 철기시대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분포권도 이러한 지리적 분포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울러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여·철자형주거의 분포권도 이러한 지역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권의 지리적 경계가 이미 청동기시대 이래의 토착세력 간 분포권과 일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를 처음으로 정의한 것은 박순발(1996: 172)이다. 그는 ‘여자형주거지(주거), 경질무문토기(토기),<sup>2</sup> 증석식적석묘(분묘)<sup>3</sup>’를 표지로 하여 중부지역 원삼국시대를 ‘中島類型文化’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類型(하위단위)과 文化(상위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박경신 2018b: 47-49). 따라서 뚜렷한 지리적 경계와 물질자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권을 대별한 후 각 문화권 물질자료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다시 유형을 세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양평과 이천을 경계로 중서부문화권과 중동부문화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중동부문화권은 여·철자형주거, 중서부문화권은 방형 내지 원형주거로 구성되어 있어 확연한 지역색을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의 분석 대상인 중동부문화권은 물질자료의 조합 양상을 토대로 세분이 가능하다. 먼저 임진·한탄강, 영

2 이 글에서는 증도식무문토기(崔秉鉉 1998) 명칭을 사용한다.

3 이 글에서는 적석분구묘 명칭을 사용한다.

서, 낙동강 상류역(문경)은 중도식무문토기, 평면형태가 다양한 여·철자형주거, 외줄구들 및 부뚜막, 적석분구묘가 확인된다. 이에 비하여 영동지역은 여·철자형주거의 평면형태가 단순하고, 외줄구들과 부뚜막이 확인되지 않으며, 적석분구묘가 존재하지 않는다.<sup>4</sup> 따라서 중동부문화권은 2개의 지역 유형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한편 중서부문화권은 방형 내지 원형계 주거를 사용하는 공통점 이외에 분묘의 형식이 지역별로 상이한 점을 기준으로 역시 2개의 지역 유형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전고(박경신 2019a: 25)를 통해 2개의 문화권과 각 2개의 유형권으로 세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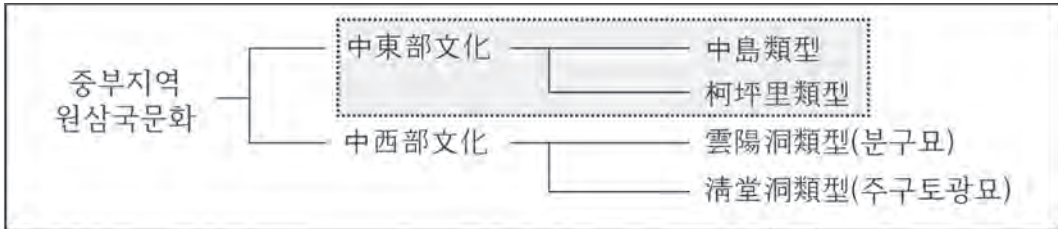
우선 중동부문화권은 임진·한탄강, 영서, 낙동강 상류역은 춘천 중도 유적의 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부터 여·철자형주거의 개념이 정착하기 시작한 점에서<sup>5</sup> ‘中島類型’으로 정의하였다(박경신 2018b: 48). 영동지역은 처음 조사된 가평리 유적을 표지로 하여 ‘柯坪里類型’으로 설정하였다. 중서부문화권은 최종규(2017: 415-417)의 분류안을 참조하여 2개의 유형권으로 세분하였다. 우선 중부 서해안을 따라서는 분구묘가 분포하는데 이형토기가 공반되는 특징이 있다. 이 지역을 ‘雲陽洞類型’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분구묘와 적석분구묘 분포권 사이의 경기 남부 내륙지역에서는 주구토광묘가 분포하는데 초기에 유개대부호가 공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지역을 ‘靑堂洞類型’으로 정의하였다(도면 2~3).



도면 1 송국리문화권 분포도  
(조진선 2013: 그림 22 전제)

4 현재까지 영동지역에서 적석분구묘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강릉 하시동리 적석군을 적석분구묘로 보기도 하지만(홍영호 2018: 103)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석분구묘가 주로 강가에 면해 있는 점에서 입지조건도 상이하다. 따라서 조사 선례가 없는 현재로서는 적석분구묘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다.

5 여·철자형주거가 최초로 조사된 것은 1979년 수원 서둔동 유적이다(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0).



도면 2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권 분류도(박경신 2019a: 그림 2-1 부분 수정)

특히 중서부문화권은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 분화가 활발히 진행되던면서 마한 형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조건이 축적되어 왔다. 그 결과 동북지역, 낙랑, 중서부문화권, 중동부문화권이 각각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차별화된 생활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낙랑의 통제하에 있었던 영서지역을 대표로 하는 중도유형 권은 낙랑으로부터 직접적인 물질자료 공급·재생산의 대상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은 낙랑 분묘와 동일한 유물이 공반된 가평 달전리 및 춘천 우두동 낙랑 목관묘 등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낙랑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중서부문화권은 동북지역에서 서해안을 따라 형성된 환황해노선을 통한 교역로를 장악하면서 기항지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유통 시스템이 적용된 지역이 되었다.<sup>6</sup> 그리고 그 유통 범위는 서해안 일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내륙지역에서는 물질자료의 유통이 AD 3C 화성 기안리 유적에 유이민이 유입되기 이전까지는 경색일로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서부문화권은 낙랑문화의 직접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양 문화권 형성과 전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경제적 유통망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6 낙랑계유물과 취락 간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임진·한탄강과 북한강을 동일 성격으로 파악하고, 낙랑계 주민의 집단적인 이주 혹은 직접 교섭의 결과로 이해하였으나(金少映 2012: 55), 유물 성격의 차이와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임진·한탄강 유역권과 북한강유역은 상호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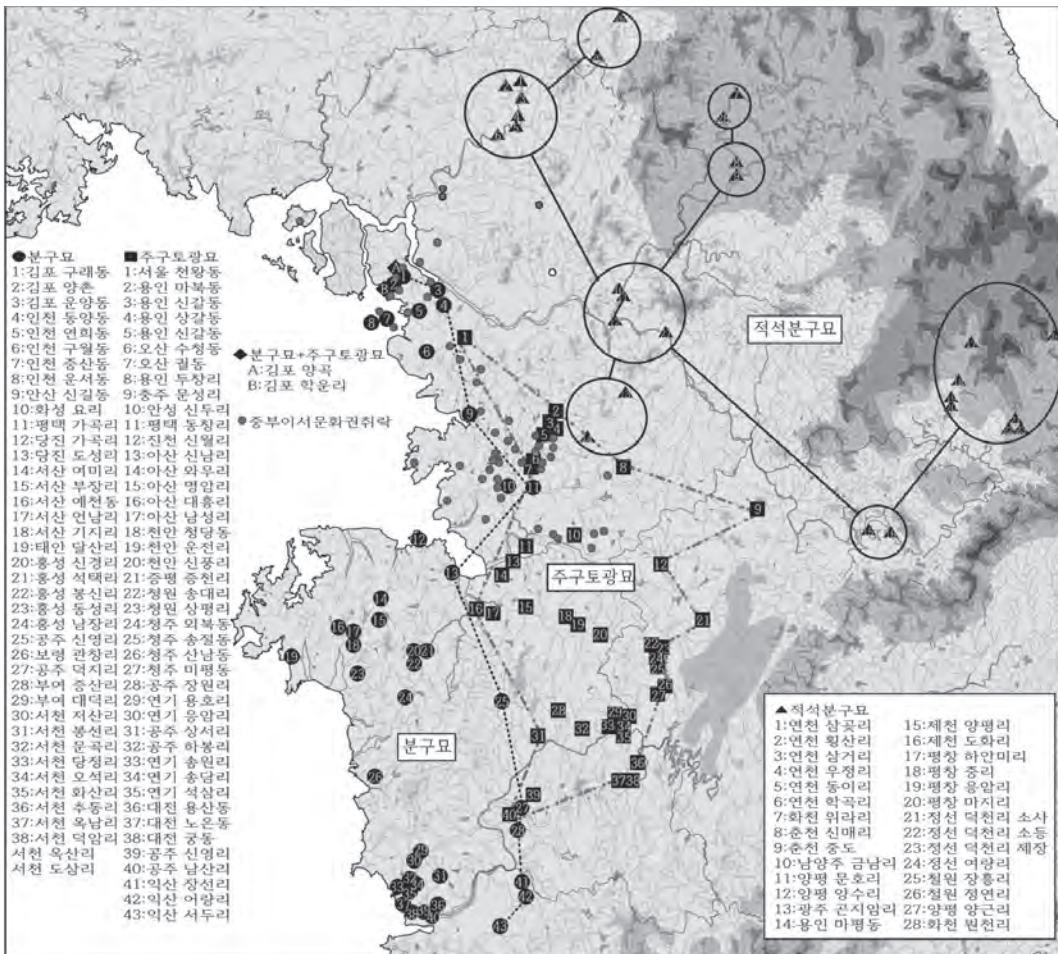


### III

##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기원과 구조 및 발전

### 1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기원

중동부문화권은 여·철자형주거로 대표된다. 여철자형 주거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가 한반도 동북지역에 위치한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을 주목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입지조건과 평면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강가, 하안층적대지, 해안가에 대규모 취락이 만들어지고, 출입구가 부가된 주거지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중동부문화권 여·철자형주거



도면 3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분묘 분포권(박경신 2019a: 그림 2-2 부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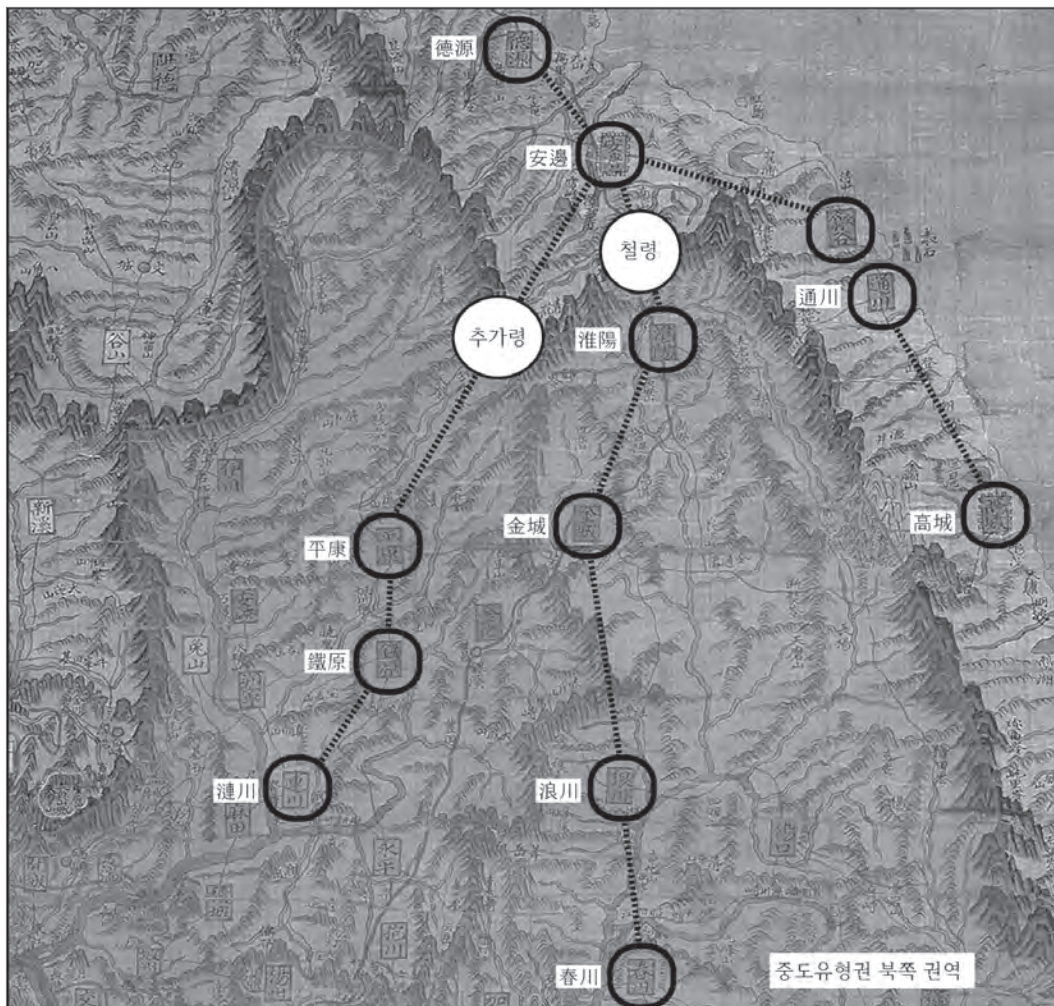
의 직접적인 기원지로 보고 있다(Anastasia Subbotina 2005: 81; 유은식 2006; 박경신 2019a: 347).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기법이 동일한 중도식무문토기, 외줄구들 등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중도식무문토기의 기원지에 대해서 단결-크로우노브카와 관련된다는 점(國立中央博物館 1980: 85; 盧懋眞 2004; 유은식 2004; Anastasia Subbotina 2005)에는 현재 큰 이견이 없다.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가 한반도 중부지역에 유입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북한지역의 취락 조사 정보가 매우 소략하여 정확한 루트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단결-크로우노브카→동북한→중동부문화권의 루트와 단결-크로우노브카→서북한→중동부문화권의 루트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북한 지역으로의 유입 경로에는 낙랑으로 대표되는 한사군과 중서부문화권의 마한이 점유하고 있던 지역으로 유이민의 유입이 쉽지 않은 정치적 역학구도가 존재했다. 이에 비하여 동북한 지역은 낙랑이 AD 30년을 전후하여 영동7현을 포기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치체가 성장하지 못한 환경이 참고된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서북한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경로는 중동부문화권과의 접촉 동선이 지나치게 길다. 특히 서북한을 경유할 경우 태백산맥을 넘어 영동지역까지 유입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한지역에서의 유입 경로는 해안을 따라 원산과 안변을 지나 고대 교통로를 통해 손쉽게 중동부문화권과 접촉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의 유입 경로로는 비교적 유입이 용이한 동북한지역 경유 루트가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제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북한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가 뚜렷하게 확인될 경우에 유효하다. 현재로서는 동북한지역 경유 루트를 가정하여 유입 경로를 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단결-크로우노브카 지역에서 동북한지역을 경유하여 중동부문화권에 여·철자형주기가 유입되는 경로는 고려시대 이후 정착된 역로제의 교통로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원산 지역과 중동부문화권 지역 간 교통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박경신 2019a: 346-351). 이 가운데 가평리유형권은 덕원-안변-통천-고성으로 연결된 교통로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 특별한 장애물 없이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산과 중도유형권간에는 2개의 경로가 확인된다(도면 4). 우선 산맥 북쪽의 안변과 남쪽의 회양을 연결하는 철령이 있다. 철령은 이미 『三國志』 魏書東夷傳에 각 지역 정치체의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에 자주 등장한다. 이후 『高麗史』에서는 구체적인 기사가 전한다. 따라서 고대부터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철령은 고려시대 함길도와 한양, 또는 함길도와 개성을 잇는 매우 중요한 교통로였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읍지에 따

라 경로 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정요근 2008: 54). 안변-철령-회양-금성-김화-철원-영평-포천-양주-한양의 노선과 회양-남곡-평강-철원-연천-장단-개성의 노선이 확인된다.<sup>7</sup> 그런데 회양에서 평강으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광주산맥이 가로놓여 있어 선사시대의 교통로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추가령<sup>8</sup>을 통해 안변과 평강을 연결하는 노선이 보다 가깝고 편리하다(박경신 2019a: 347-348).



도면 4 중동부문화권 여·철자형주거 유입 경로(박경신 2019a: 그림 5-9 부분 수정)

7 『高麗史』 卷82, 兵2 站驛; 『經國大典』 卷1, 吏典 外官職(정요근 2008: 표 2 재인용)

8 강원도 평강군 고삼면과 함경남도 연변군 신고삼면을 연결하는 고개이다(신정일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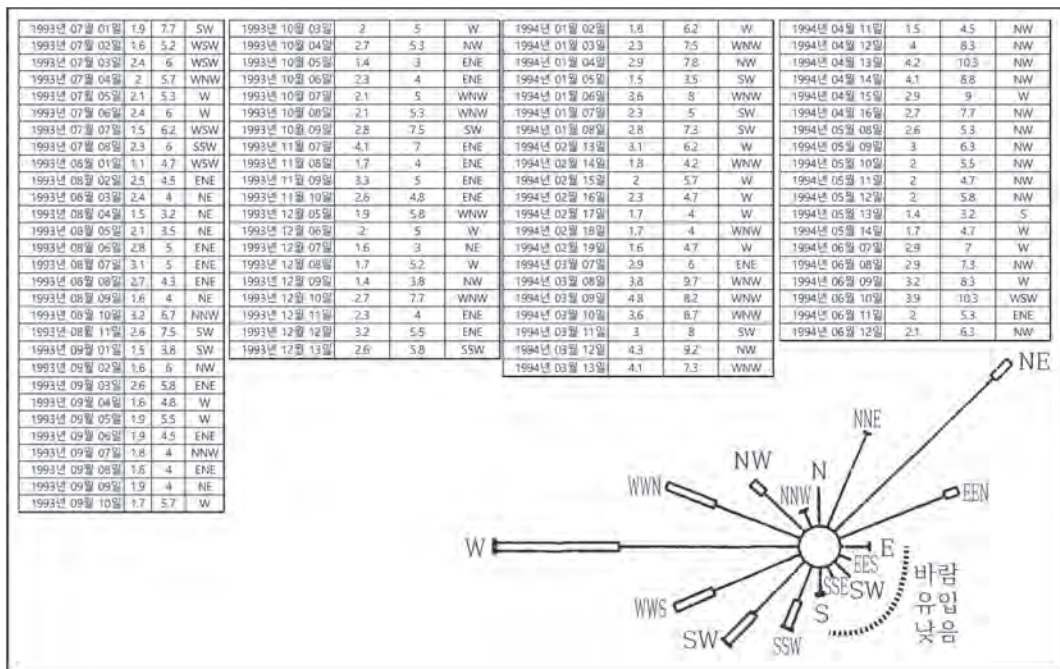
추가령에 대해서는 이미 고고학계에서 함북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인식되고 있다(이청규 2002). 추가령에 대한 문헌 기록은 『朝鮮王朝實錄』 정조 12년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추가령에서 평강을 지나 임진강까지 연결되는 기록이 전한다. 특히 6C 중엽 신라가 고구려와 대치한 지역으로 당시 전선은 임진강-한탄강-추가령구조곡으로 연결되어 있었다(윤성호 2019: 54). 결국 철령과 인접한 추가령을 통해 평강-철원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상정된다(이민부·전종한 2005: 51). 추가령을 이용한 교통로는 덕원-안변-(추가령)-평강-철원-연천-개성으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철령을 이용한 교통로는 덕원-안편-(철령)-회양-김화-낭천-춘천으로 연결된다. 이 노선은 4C 말엽 고구려의 남정루트로도 알려져 있다(盧泰敦 1997: 8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동부문화권 여·철자형주거는 동북한의 안변을 정점으로 3개의 루트를 통해 영동과 영서지역으로 과급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도면 4). 그리고 평강-철원-연천-개성의 경로에서 임진·한탄강을 따라 확산된 경기북부의 중도유형권과 회양-김화-낭천-춘천에서 한강(북한강과 남한강)을 따라 확산된 영서지역의 중도유형권이 각각 확산되는 과정에서 토착세력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변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 두 지역의 중도유형은 좀 더 세분하여 각 지역별 특징 등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은 현재 북한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한 경로로서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 2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주축방향

선사시대 주거의 주축방향은 하천의 흐름방향과 평행하거나 직교하여 방위 보다는 자연지형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중동부문화권 주거의 주축방향은 방위를 우선 조건으로 하였다. 중동부문화권의 원삼국시대 주거는 여·철자형주거이다. 특히 중도유형권 주거의 주축방향은 편서향을 띠는 점이 특징인데 삼국시대가 되면서 남북방향으로 주축방향이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박경신 2012: 105). 그리고 가평리유형권 주거에서는 이러한 편서향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특히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에서 발견된 원삼국, 한성백제기 주거지의 주축방향이 모두 N7.82W~N33.49W 사이에 분포함으로써 중도유형권 보다도 균일한 주축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시기별로 중도유형권 취락은 시기에 따라 주축방향이 편서향에서 남북 방향으로 변화하는 변화가 확인되는데, 가평리유형권은 시기와 관련 없이 신라의 주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편서향을 띠는 차이가 관찰된다. 주거의 주축방향이 편서향을 띤다는 것은 여·철자형주거의 출입구가 남동쪽에 위치함을 의미한다.<sup>9</sup> 출입구 방향의 선택은 한반도가 자리잡고 있는 위도에서 부는 편서풍과 관련이 있다. 편서풍은 위도 30도~65도 사이의 중위도 지방에 부는 바람으로 겨울철에 더 강하게 분다. 중동부문화권 여·철자형주거의 주축방향은 대부분 북서-남동향을 띤다. 이는 편서풍 파동의 영향을 1차적으로 고려한 주축방향 선택의 결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수직방향 출입 방식에서 수평방향 출입방식으로의 변화(박경신 2019b: 38) 과정에서 지구 환경적 요소(편서풍)에 적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간 서울 지역 풍향의 변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도면 5).



도면 5 서울의 1년간 풍향 변화와 바람 장미(金成東 1995: 그림 1, 표2 수정 전제)

분석결과 7월부터 9월까지의 서남서, 동북동,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서남서, 동북동, 1월부터 3월은 서남서, 서북서, 서, 4월부터 6월까지의 북서풍이 가장 많이 분다. 결국 계절과 관계없이 서남서, 동북동 및 북서풍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남동풍의

9 오세연(1995: 51)은 여·철자형주거의 출입구 기능에 대하여 '바람'이라는 요소에 주목하였으나 기후적인 측면에서의 편서풍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여·철자형주거의 출입구 위치와 일치한다. 결국 편서풍에 대비하여 주거의 주축방향이 편서향을 띠게 되었으며, 바람의 영향이 가장 적은 남동쪽으로 출입구를 시설한 것은 편서풍의 영향에 대비한 환경적 선택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서지역과 같이 산지가 많고, 동해를 면하고 있는 영남지역의 경우에도 편서향의 시간 대별 변화 양상은 비교적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의 주축방향이 지형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수직방향의 출입 방식이 선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편서풍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서부문화권, 호남지역, 영남지역의 주거지들과 공통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랭한 기후와 편서풍을 극복하기 위해 여·철자형주거의 주축방향이 편서향을 띠는 점은 출입 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외줄구들 및 새로운 노시설의 등장

외줄구들은 중도유형권에서만 발견된다. 외줄구들의 등장은 원삼국시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반도의 AD 2C~3C 중엽의 원삼국시대는 한랭지수 8로 최고조를 보일 정도로 한랭한 시기였음이 사서(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검토된 바 있다(김연옥 1985, 1998). 이러한 점은 이 시기 해수면이 낮았다는 분석 결과(한국해양연구소 1994: 41-48; 정유진 2010: 20 재인용)로도 방증된다. 결국 외줄구들의 등장은 이러한 한랭기후의 적응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도입된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다(박경신 2019a). 노 시설의 획기적 변화 및 선택은 기후 가운데 한랭지수와 연동된다고 분석한 결과가 참고된다. 다만 오세연(1995: 50)의 분석 당시에는 외줄구들 자료의 편년 연구와 조사 사례가 많지 않아 주로 ‘부석형노지’를 한랭기후의 적응 사례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중도유형권에서 다종 다양한 외줄구들이 발견되면서 노 보다는 외줄구들이 한랭한 기후에 적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외줄구들은 후벽부 외줄구들과 측벽부 외줄구들로 대별된다(박경신 2016: 5). 후벽부 외줄구들은 영서지역, 측벽부 외줄구들은 임진·한탄강, 한강 하류 및 그 지류 지역에서 먼저 확인되며 각각의 지속기간에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외줄구들의 요소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으로 본다면 원 기원지가 상이한 것 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다양한 확산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추가령과 철령의 유

입 경로가 다원화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북한 지역에서 철령으로 우선 파급된 것이 후벽부 외줄구들, 추가령으로 후에 파급된 것이 측벽부 외줄구들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10</sup> 이와 같이 동일 기원지를 갖는 외줄구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상이한 유입 경로를 통해 중부지역에 이식된 것은 당시 사회·경제적인 역학구도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즉, 철령을 통해 춘천까지의 루트에는 비교적 느슨한 영서지역 정치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임진·한탄강 유역 및 한강 하류 등은 마한과 한사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속박이 비교적 약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줄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줄구들의 기원지에 대해서는 고구려(정찬영 1966; 장경호 1985), 한반도 서북한(이홍종 1993: 19), 전국계(최병현 1998: 109-110)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러한 외줄구들은 흉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이불가, 두레니, 버러(보로) 등의 주거 유적에서 방형의 반지하식 수혈 주거에 시설된 외줄구들이 발견되었는데 남쪽에 출입구를 시설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버러 유적은 AMS 연대측정치가 BC 200~기원전후의 시기로(Ch. 유롤·에르테네 2018: 102-103) 초기 흉노의 정착민들이 살던 수공업 주거 유적이다(G. 에렉젠·양시는 2017: 100). 그러나 한반도와의 거리로 볼 때 외줄구들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버러 유적은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가 북서쪽과 한반도로 확산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현상으로 이해된다(박경신 2019a: 247). 최근 오승환(2018)은 허베이성 탕산 동후안투오(河北省唐山東歡坨) 지역에서 내몽고, 서북한, 단결-크로우노브카 지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신석기시대부터 짧은 부뚜막을 사용하다가 점차 외줄구들로 구조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전제이다. 그러나 그가 사례로 든 동후안투오 지역의 주거지들은 짧은 부뚜막을 시설한 것으로 외줄구들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또한 전국 燕과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는 상이한 발전 단계를 경험한 점에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또한 부뚜막에서 외줄구들로 신석기시대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하였으나 부뚜막과 외줄구들의 기능을 동일한 계보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샤자텐(夏家店) 하층문화기의 외줄구들 출현을 한반도와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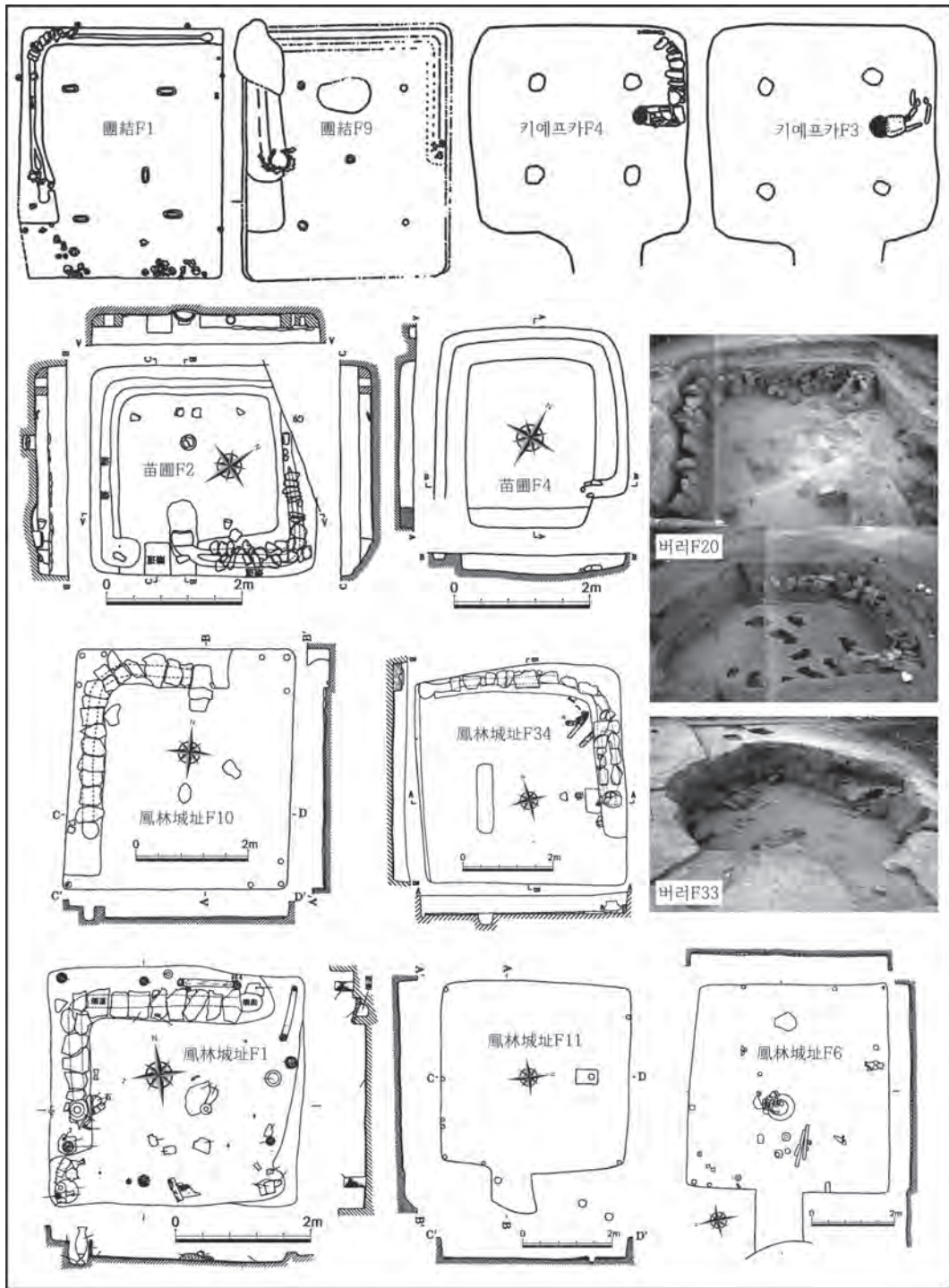
10 필자는 전고(2016: 36)에서 두 외줄구들 형식이 상이한 출자와 유입시기를 논한 바 있다. 특히 측벽부 외줄구들의 기원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동북한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두 외줄구들의 기원지는 동일하나 시기차로 인해 두 가지 형식의 외줄구들이 상이한 유입 경로를 통해 중부지역에 이식될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기타 박중국(2016)은 지린 동투안산(吉林 東團山)유적 철자형 주거의 우측벽에 시설된 3줄의 외줄구들을 측벽부 외줄구들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시원을 부여 고구려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유적은 그가 밝힌 바와 같이 漢·魏 시대 유적으로만 알려져 있고,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리고 후벽부 외줄구들의 기원지로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 속하는 헤이룽장성 유이현 평린성지(黑龍江省 友誼縣 鳳林城址) 주거들은 모두 위진남북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들로(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0a, 2000b, 2004, 2013, 2016) 시기적으로 중부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평린성지에서 확인된 철자형 주거 역시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에 후행하는 시기로서 관련성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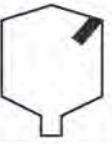


최근에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서 주거, 토기, 외줄구들 등 물질자료 요소가 종합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송기호 2006; 유은식 2006, 2014, 2015; 강인욱 2007; 송만영 2015; 박중국 2016). 다만 주거와 외줄구들이 동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 중부지역에서 여·철자형주거와 외줄구들의 출현 시점 사이에는 10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심재연(2018: 143)의 지적과 같이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 속하면서 한반도 두만강과 접해 있는 투먼시 취웨이 미야오푸(吉林 圖們市 曲水 苗圃) 유적(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3)은 외줄구들이 시설되어 있으나 주거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토기의 성격, 외줄구들의 구조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중부지역과 유사점이 상당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외줄구들과 주거 형태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각각은 시차를 두고 중부지역에 이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도면 6).

후벽부 외줄구들과 측벽부 외줄구들은 배연 방식에서 기존이 가구 구조와 연동되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초기 후벽부 외줄구들은 북한강 유역, 초기 측벽부 외줄구들은 경기 북부 및 임진강유역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줄구들의 유입 경로가 다원화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부지역과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를 매개하는 북한지역에 대한 조사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기원지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원류에서 멀어지면서 중간 지역에서 변형되어 중부지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줄구들의 원류는 단결-크로우노브카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간 기착지 내지 유입경로로 동북한지역(박경신 2016: 36)을 상정하는 수준의 논의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도면 6 한반도 북부 외줄구들 및 철자형주거 사례

시기	중도식로		외줄구들(후)		외줄구들(측)		지각식로		부뚜막		아궁이식로		부뚜막식로	
	중도	가평리	중도	가평리	중도	가평리	중도	가평리	중도	가평리	중도	가평리	중도	가평리
AD 100	■		■	無	■	無	■	無	■	無				無
AD 200	■		■		■		■		■		■			
AD 300	■	■			■				■		■	■		
AD 400	■	■							■	신라	■	■		■
														

도면 7 중동부문화권 노시설 양상

한편 중동부문화권에서는 무시설식, 중도식로가 공통된다. 그리고 중도유형권의 지각식로, 가평리유형권의 아궁이식로와 부뚜막식로 등도 여타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같은 중동부문화권 내에서도 지각식로와 부뚜막식로는 각각의 유형권 내에서만 발견된다. 그런데 아궁이식로는 가평리유형권과 중도유형권에 속하는 남한강유역에서도 확인되어 유형권 간 교류 양상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뚜막은 중도유형권에서 원삼국III-1기, 가평리유형권에서는 신라 주거가 정착하는 AD 5C 중엽 이후부터 등장하여 유입 시기와 계통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중동부문화권의 주거는 유형권에 따라 세부 구조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도면 7).

#### 4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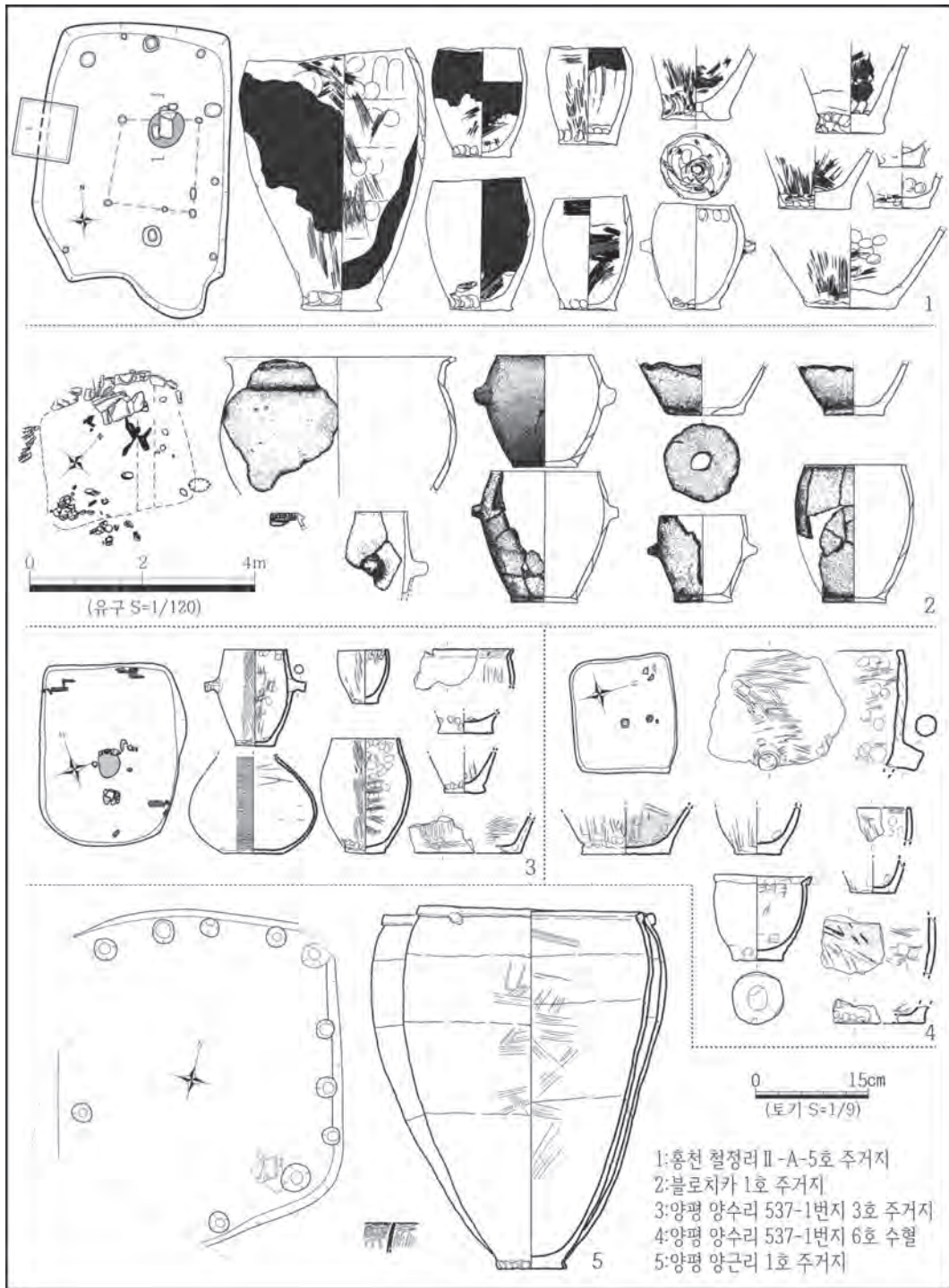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변화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전통적인 방형 주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중도식무문토기가 새롭게 추가되는 시기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양상은 여·철자형주거의 등장 전후한 시점까지 지속된다(도면 8~10).

이 시기는 중도유형권에 중도식무문토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이다. 중도유형권에서 확인되는 초기 주거지 형태로 참고가 될 만한 것은 홍천 철정리II-A-5호 주거지로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운데 남북 한쪽에 출입구 시설과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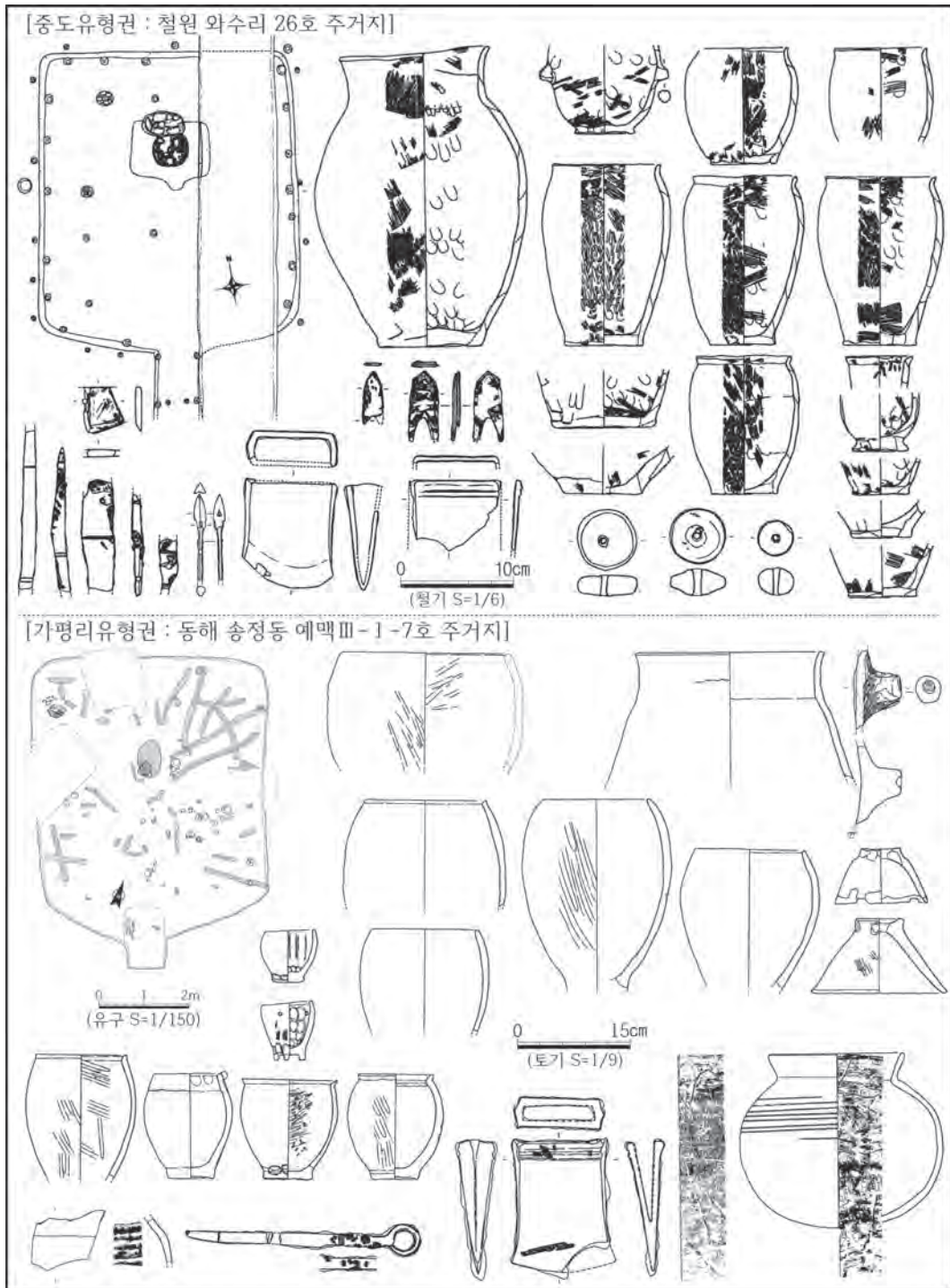


도면 8 함평 경흥 웅기 송평동 패총 주거지 외출구들 및 출토 유물(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편집)





도면 9 중도유형권 초기 주거지 및 공반유물



도면 10 여 · 철자형 주거 등장 시기의 주거지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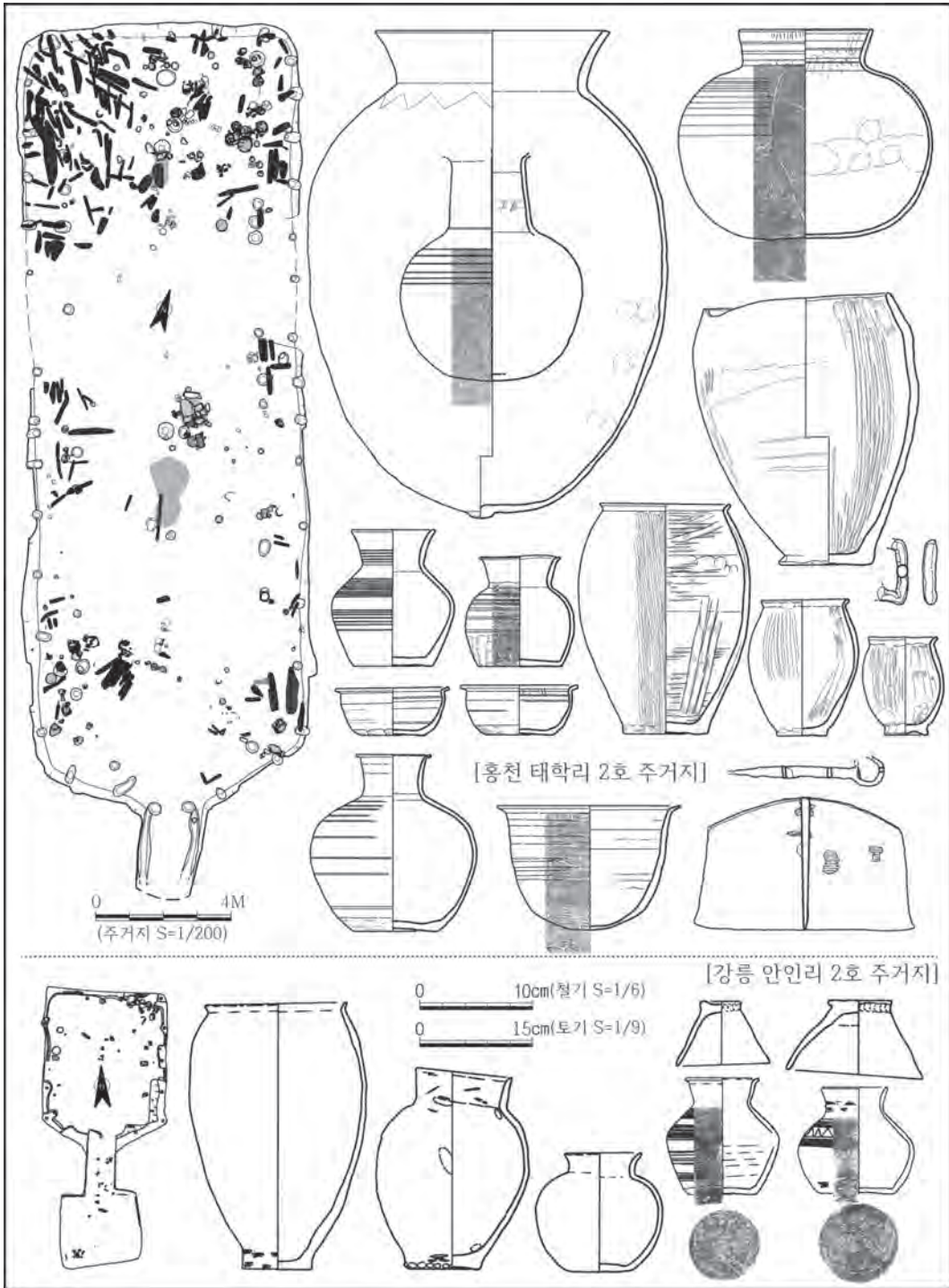
양에서 우측벽으로 약간 치우쳐 노시설이 있는데 여·철자형주거의 노시설이 주로 주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출토유물은 러시아 블로치카 1호 주거지의 조합양상과 공통되며, 모두 내만구연토기만 출토된다. 중도식무문토기의 저부는 축약굽이 잔존하는 형식이 다수를 차지하며, 소형 중심으로 조합양상을 보이는 점 역시 특징이다. 이렇게 방형에 가까운 구조에 노시설이 한쪽으로 치우친 양상은 인천 운북동, 가평 대성리 전기취락(경기) 유적 등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양평 양수리 537-1번지 유적(한양문화재연구원 2018)과 양평 양근리 493-3번지 유적(국토문화재연구원 2019)도 참고된다. 양수리 537-1번지 유적에서는 방형 주거지<sup>11</sup>에서 중도식무문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포개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양근리 493-3번지 유적에서는 방형의 평면 형태를 탈피하여 오각형으로 추정되는 주거에서 퇴화된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공반되었다. 이 가운데 점토대토기는 전형적인 점토대토기용의 기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토대가 장방형으로 퇴화되고, 태토가 중도식무문토기와 같이 굽은 석립이 다량 포함된 태토를 사용하는 가운데 경도가 이전의 점토대토기보다 단단하고, 치밀하게 외면 정면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점토대토기 기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중도식무문토기 제도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판단된다. 위의 양상으로 볼 때 여·철자형주거가 유입되기 이전에는 중도식무문토기가 일정기간 점토대토기와 함께 사용된 시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방형을 탈피한 주거형태가 새롭게 등장한 직후까지 이러한 현상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평리유형권도 전통적인 방형 주거에 여·철자형이 등장하는 초현기까지는 중도식무문토기와 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동해 송정동 예맥-III- I-6호 및 7호 주거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주거지는 공반유물의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평면 형태가 방형과 철자형이라는 차이만이 있다. 두 주거의 편년적 위치를 참고할 때 가평리유형권에는 원삼국 I-4기부터 여·철자형주거가 등장하여 방형 주거와 일정기간 병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도유형권에 비해 점토대토기의 잔존 시기가 비교적 길었음이 확인된다.

두 번째 시기는 여·철자형주거에 새로운 노시설인 외줄구들이 결합되면서 평면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물질자료로는 외부로부터 낙랑계토기, 철기 등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시기이며, 중동부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평저장경호의 출토 빈도가 증가한다(도면 11). 이 시기부터 두 유형권에서 여·철자형주거의 형태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된다.

11 수혈로 보고되었으나 사진상 중앙에서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무시설식의 소토범위가 확인되는 점에서 방형의 주거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1 원삼국 II기 중도유형권(상단)과 가평리유형권(하단) 주거지와 출토 유물

특히 주거의 세장도가 중도유형권에서 커진다. 이에 비하여 가평리유형권에서는 여·철자형주거의 평면형태에 큰 차이가 없이 장방형의 형태가 지속된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중도유형권에 외줄구들이 등장하는 시기로 양 유형권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다만 후벽부 외줄구들이 등장한 시기에는 평면형태상 변화가 심하지 않았지만 측벽부 외줄구들이 등장하면서 평면형태가 매우 세장한 형태로 변화한다. 또한 중도유형권 여·철자형주거에는 주거의 중앙을 따라 열을 지어 여러 개의 노를 설치하는 형식이 새롭게 등장하는 점 또한 주목된다. 두 번째 시기의 시작 시점은 대체적으로 원삼국Ⅱ-1기부터이다.

세 번째 시기는 여·철자형주거의 후벽이 둔각을 띠면서 육각형의 평면형태가 완성되는 시기이다.<sup>12</sup> 이러한 평면형태는 중도유형권과 가평리유형권에서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또한 주거 평면형태의 변화는 새로운 노시설의 채용과 복합되는 점이 주목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노시설은 두 유형권에서 각각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지역색을 띤다.

우선 중도유형권은 부뚜막이 채용된 이후 후벽이 곡선을 띠다가 각진 육각형으로 완성된다. 중도유형권의 부뚜막은 원삼국Ⅲ기와 함께 등장한다. 부뚜막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에는 우측벽과 후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시설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후 후벽을 따라 중앙 내지 1/3지점에 부뚜막을 시설하는 형식이 일반화 된다. 4C 이후에는 화성 발안리 26호 주거지와 같이 우측벽에 부뚜막이 시설되는 변형된 형태도 등장한다. 그러나 6C 전후하여 신라 주거지가 등장하면서 중도유형권에서 부뚜막은 사라지고 신라식의 구들이 확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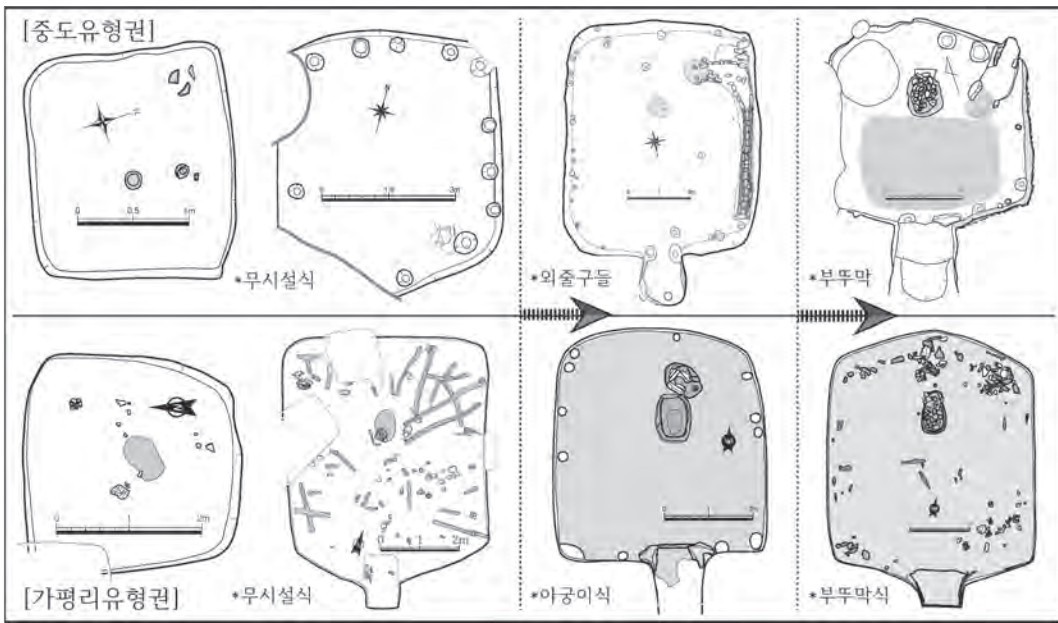
그런데 가평리유형권에서는 한성백제병행기에도 부뚜막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여·철자형주거의 평면형태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대부분의 주거가 전벽이 둔각상을 띠는 오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초기부터 한성백제병행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다가 여·철자형주거의 아궁이식로가 채용되고, 후벽이 곡선을 띠면서 평면형태에 변화가 나타난다. 동해 망상동 유적의 사례로 볼 때 아궁이식로가 등장하는 시기는 한성백제병행기에 해당하는 AD 4C 후반이다. 이후 가평리유형권에 중도식로, 부뚜막식로가 새롭게 등장하는 AD 5C부터 후벽이 곡선에서 각이진 둔각상을 띠는 육각형 형태로 발달한다. 그러나 AD 5C 후반부터 구들을 갖춘 방형의 신라주거가 여·철자형주거를 대체하면서 가평리유형권에서 여·철자형주거는 완전히 소멸한다(도면 12).

12 여·철자형주거는 후벽의 형태가 직선에서 곡선을 띠다가 둔각상으로 발달한다는 경향성이 확인된다(송만영 1999). 이에 비하여 전벽의 형태는 직선을 띠는 형태와 둔각상을 띠는 형태가 오랜 기간 혼용된다. 따라서 전벽의 직선과 둔각화를 기준으로 주거의 시기를 편년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중동부문화권에서 중도유형권과 가평리유형권의 원삼국문화의 시작은 중도식무문토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주거는 전통적인 방형을 일정 기간 그대로 사용한다. 이후 기원전후 시점에 새롭게 여·철자형주거가 등장하면서 중동부문화권의 요소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원삼국Ⅱ기에 도입된 새로운 노시설인 외줄구들, 원삼국Ⅲ기에 도입된 부뚜막의 채용을 계기로 중도유형권과 가평리유형권 간 지역색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중도유형권에 적석분구묘가 결합되면서 양 지역간 물질자료의 구성요소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도면 13).



도면 13 중동부문화권 주거 평면형태 변화 양상

## IV

### 중동부문화권 취락의 전개 양상

#### 1 중부지역 내 외래유물의 유입과 주거의 변화

중동부문화권에서는 평양에서 확인되는 초기 낙랑의 목관묘가 원삼국시대 시작 시점부터 전실묘 등장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하여 중서부문화권은 원삼국

Ⅲ기에 이르러서야 낙랑의 목관묘가 확인되는데 파주 갈현리 유적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이러한 분묘 문화의 차이는 중동부문화권과 낙랑의 직접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중도유형권에 한정되며, 가평리유형권에서는 별다른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중서부문화권에서 주구토광묘와 분구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고, 중동부문화권(중도유형권)은 적석분구묘를 사용하여 양 지역 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외래유물의 유입 양상에서도 문화권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낙랑토기를 모방하여 제작한 낙랑계토기는 대부분이 중동부문화권에서 제작 및 유통된다. 이에 비하여 중서부문화권에서는 교역품의 운반용으로 사용된 백색토기, 목관묘에서 출토된 소형 단경호를 제외하면 낙랑계토기의 출토 사례가 전무하다. 또한 중서부문화권은 제철을 바탕으로 철기생산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중동부문화권은 주거 내 단야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양 문화권 간 철기생산 성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금속류 가운데 오수전은 중서부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이에 비하여 철경동축은 중도유형권에서 주로 출토된다. 중서부문화권에서 오수전이 출토되는 유적은 인천 운북동, 운남동 패총, 시흥 오이도 등 환황해노선상에 위치한 기항지적 성격의 유적들에서 한정적으로 출토될 뿐 대다수의 취락이 분포하는 내륙 지역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 중동부문화권의 경우 춘천 천전리·율문리 유적에서 출토된 서한 오수전을 제외하면 극소수 유적에서 동한 오수전이 출토되고 있어 중부지역 전체에서 오수전이 실제 유통되었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중서부문화권의 취락 내에 오수전이 유통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도유형권에서는 다수의 취락에서 철경동축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기항지에서만 발견되는 중서부문화권과 대조된다.

이러한 차이는 양 지역에 존재한 정치체 및 교역의 형태가 상이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우선 중서부문화권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이어진 마한의 고지로서 목지국을 맹주로 한 마한세력이 강력하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중동부문화권은 특별한 정치체의 존재가 불투명한 가운데 예(맥) 정도의 정치체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랑은 마한을 견제하며 원거리교역에 집중하였는데 환황해노선이 마한에 장악되면서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비해 중동부지역은 내륙교역로를 중심으로 낙랑과 진변한을 매개하였다(박경신 2018a). 결국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유형)권은 정치체와 사회경제적 이익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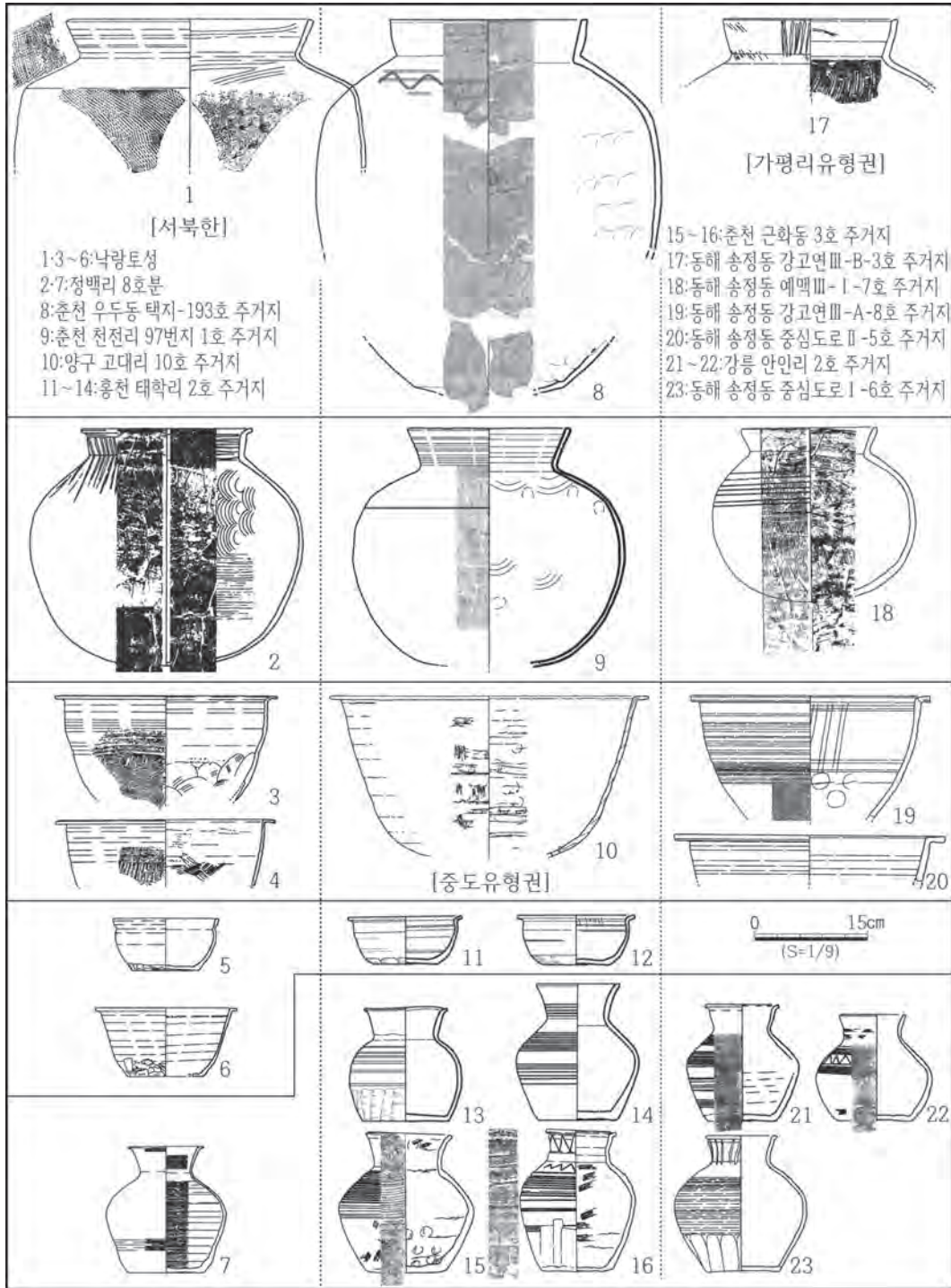
중동부문화권 취락은 먼저 유입된 중도식무문토기를 기반으로 여·철자형주거를 도입하면서 완성된 형태의 원삼국문화권을 형성하여 나간다. 여기에 새로운 제도기술인 낙랑계토기가 등장, 제작되면서 토기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시기 중동부문화권은 낙랑계 단경호와 평저장경호를 대표적인 기종으로 채용하게 된다. 그러나 가평리유형권에서는 낙랑토성에서 확인되는 건부타날판문토기, 경부철대호(박경신·이재현 2011: 105, 204; 박경신 2019a: 155-157)가 확인되지 않으며,<sup>13</sup> 낙랑계토기의 중심 기종인 소형 단경호의 출토 빈도가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아직까지 화분형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교역품의 운반용기(무역도기)로 보고 있는(정인성 2014: 45) 백색토기용도 가평리유형권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없다(도면 14).

중동부문화권에 새롭게 유입된 금속 유물은 환두소도와 이조철대주조철부, 소형제형주조철부, 삽날 등이다. 그러나 한경 및 방제경은 중도유형권에서 출토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가평리유형권에서는 동해 송정동(관동대) 파경 재가공품 1점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출토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철경동촉, 다릉촉, 철서, 산도 등도 중도유형권에서만 출토되었다. 오수전의 경우 중도유형권에서는 원삼국Ⅱ-1기에는 확인되고 있으나, 가평리유형권에서는 원삼국Ⅲ기(초당동 강릉고-1호 주거지)에나 확인되어 양 유형권이 시차를 보인다. 반면, 가평리유형권에서만 출토된 철기로서 용도미상의 사슬형 철기는 이형마구(권도희 2013: 696) 또는 금속용기의 사슬모양 손잡이로 추측하고 있다(도면 15). 위의 유물들은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철기류로 낙랑을 통해 중동부문화권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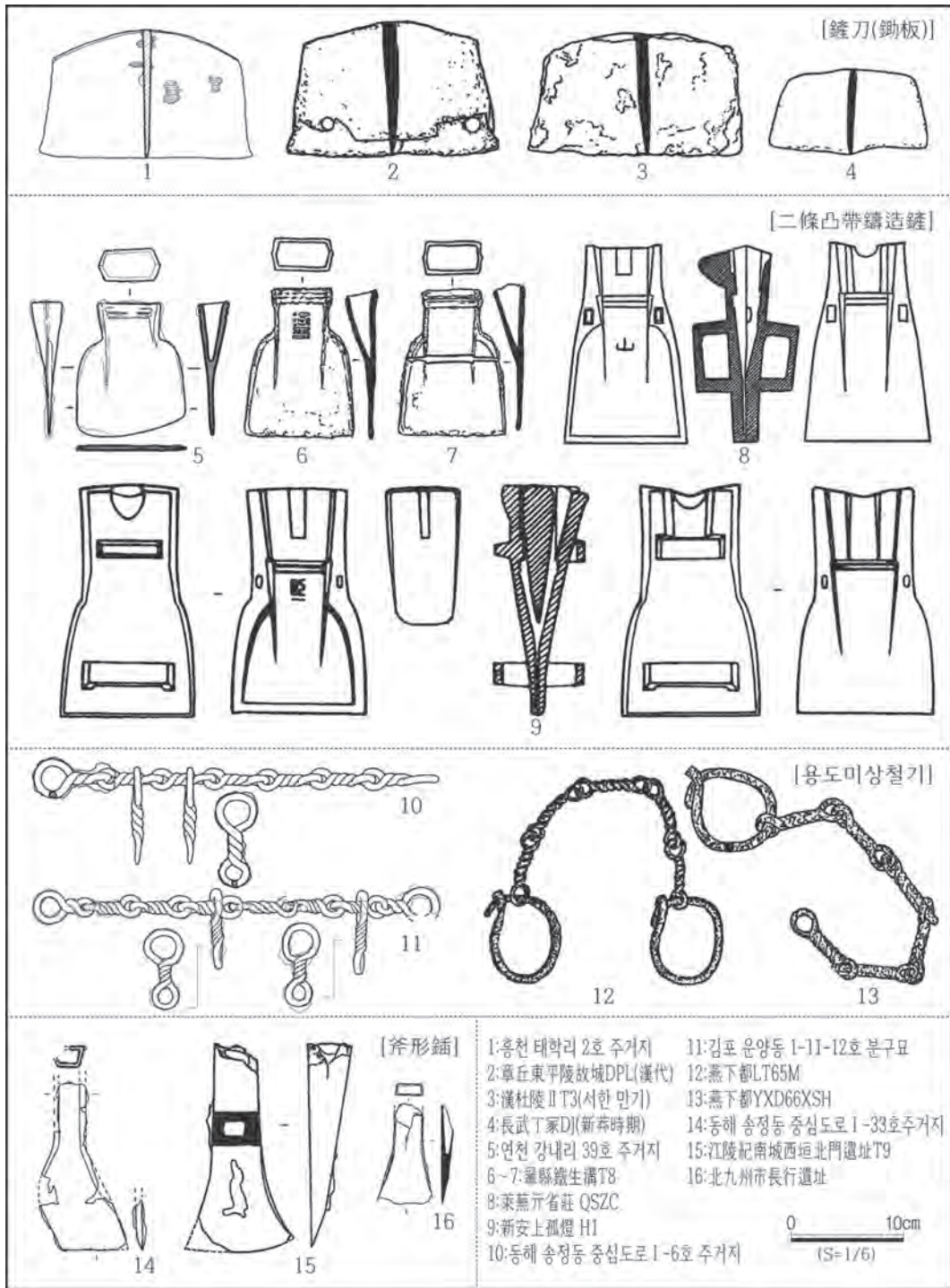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종합 해 볼 때 양 유형권에 유입된 외래 물질자료는 종류와 유입 경로가 상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평리유형권의 낙랑계토기의 유입지역에 대해서는 함흥의 소라리토성 지역으로 본(심재연 2012: 66) 점에서 향후 동북한과 서북한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면 다양한 유입 경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표 1).

13 중도유형권 낙랑계토기 단경호의 경부에서 관찰되는 특징으로, 강릉 안인리 2호 주거지 출토 평저장경호의 경부에서 보이는 돌대와는 다르다.





도면 14 서북한, 중도유형권, 가평리유형권 출토 낙랑(계)토기



도면 15 중동부문화권 출토 외래 유입 특수 금속기

〈표 1〉 중동부문화권 외래 물질자료 공반 양상

기종 유형권	토기										금속기											
	평저장경호	중형단경호	분형토기	소형단경호	견부타날판문토기	백색토기웅	화분형토기	경부철대호	완	유견대호	환두소도	이조철대주조철부	소형제주조철부	삼날	오수전	한경	철서	철경동족	다릉족	철산	산도	
중도 유형권	●	●	●	●	●	●	●	●	●	●	●	●	●	●	●	●	●	●	●	●	●	●
가평리 유형권	●	●	●	-	-	-	-	-	-	-	●	●	●	●	동한	▲	-	-	-	-	-	-

한경은 중서부문화권의 파주 독서리(국립중앙박물관 2010) 유적에서 내행화문경의 주연 부편 1점이 출토되었을 뿐 대부분의 한경은 중도유형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의 다뉴세 문경이 호서 및 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호남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한경의 유통 흔적이 관찰되는데 1957년 신고품인 익산 연동리 반룡경, 영광 수동 방제경 2점 등이 있다. 여기서 연동리 반룡경은 그 출토 위치가 불분명하여 출토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호남지역도 전남 일부 지역(영광)을 제외하면 한경의 유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 산지항에서 내행화문경을 방제한 방제경과, 평연경이 출토되었고, 영남지역에서는 분묘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한경의 존재가 확인된다. 따라서 한경의 유통에 있어서 중서부문화권, 호남 지역이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도유형권에서 확인된 한경은 하남 미사리 한A-1호 주거지(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1994), 춘천 울문리 군부대 계류장(2-2지역) 4호 주거지(호남문화재연구원 2019), 춘천 중도 레고A4구역 8호 주거지(한강문화재연구원 2020) 출토품이 있다. 춘천 중도 레고A4구역 8호 주거지 출토품은 일광경 등 3개체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광경 2점으로 완형에 가까운 일광경은 주연부의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인데 이와 동일한 경식이 중국 칭저우시(靑州市)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한경은 서한 중기(BC 1C 전반)부터 동한 중기(AD 2C 전반)까지 제작된 경식이다(宋少輝 2017: 68). 그러나 중도 주거지에서 공반된 유물이 대체로 타날문토기 취사용기와 공반되는 점에서 한경과의 시간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주거지의 연대와 연동해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파주 독서리 한경 역시 공반유물이 부재한 채집품으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춘천 율문리 군사시설 계류장(2-2지점) 4호 주거지 출토 환경은 소형의 方格規矩鳥文鏡<sup>14</sup>에 해당한다. TLV경은 초기 대형에서 늦은 시기에는 방격 중앙에 4개의 T자형 모형만이 남는 형태로 간략되는 특징을 보인다(한국고고학회 2007: 그림 146). 그리고 8개의 뉴에서 4개로 간소화된다. 그리고 그 하한은 AD 1C 대를 하회하지 않는다. 율문리 출토 환경의 편년적 위치는 이보다 간략화가 더욱 진행된 장안한묘(長安漢墓) M5호분 출토 간화박국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환경은 뉴와 T자를 제외한 도안이 모두 사라진 형태로서 율문리 출토품보다 후행하는 형식이다. 그 연대는 동한 중기~후기(AD 2C)에 해당한다(陳靜 2006: 31-32). 그리고 뤼양 사오거우한묘(洛陽 燒溝漢墓) M20호 출토 간화박국경은 동한 후기에 해당하는데(陳靜 2006: 57-58) 도안도 간소화 되면서 4뉴가 모두 사라진 점 등으로 볼 때 역시 율문리 출토품보다 간소화가 더욱 진행된 경식으로 판단된다. 이 보다 앞서는 경식으로 사오거우한묘 M25호 출토품은 중앙 방격이 원격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4뉴가 있다. 시기적으로 동한 전기에 해당한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235-239). 이와 동일한 거울 형식이 부여 하황리에서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동한 중기로 보고 있다(成正鏞·南宮丞 2001: 42). 그러나 위의 비교자료들은 형태적으로 율문리 출토 환경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춘천 율문리 출토품과 가장 유사한 형식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품(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b: 26·197)으로 T자형 상단에 4개의 선문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형식이다. 이 거울은 1924년 우메하라 스에치(梅原末治)가 개인 소장품으로 소개한 거울과 동일한 것으로서(梅原末治 1924: 82·圖版 第四-2) 北朝鮮 발견품으로 소개된 유물이다. 따라서 낙랑지역과 춘천지역의 직접 교역을 통한 유입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북한 지역 출토 박국경 등은 대체로 환경의 제작 연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李陽洙 2006: 44). 종합해 볼 때 율문리 환경은 장안한묘나 사오거우한묘 보다 빠른 동한 전기(AD 1C 후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도면 16).

다음으로 미사리 한A-1호 주거지 방제경의 연대에 대해서는 AD 2C 후반으로 보는 견해(湖巖美術館 1995: 48-49; 朴淳發 2003: 9, 2014: 91-94)와 AD 4C 이후로 보는 견해(김일규 2015: 101-105)가 있다. 박순발은 간화박국경에서 방격사유경으로의 변화 시점을 동한 중기(AD 76~146년)로 편년되는 뤼양 시자이오(洛陽 西郊) 7011호묘(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洛陽師範學院河洛文化國際研究中心 2007)를 근거로 들고 있다.<sup>15</sup> 김일규는 뤼양 시지

14 일본에서는 TLV鏡, 중국에서는 鳥獸文博局鏡으로 불리운다.

15 박순발이 제시한 <도면 3-4>는 1024호묘 출토 동경으로서 인용 오기이다.





도면 16 중도유형권 출토 환경과 비교 자료

아오 7011호묘를 AD 3C 초로 늦춰 보고 추가장 결과 사유경은 曹魏代~西晉代에 매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박국경에서 사유경으로의 전환과 사유경 가운데 유 좌우측면에 호선이 부가된 것에서 간략화되어 사유만 남는 형식으로 변화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결국 사유경의 등장 시점, 간략화 시점 등을 통해 미사리 한A-1호 방제경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사유경이 박국경과 공반되는 양상은 뤼양 시지아오 7011호묘가 처음이다. 뤼양 시지아오 7011호묘는 도기, 화폐, 동경 등의 형식을 근거로 동한 중기(5형식)로 편년된다. 그리고 3177

호묘와 같이 이 유형 외의 묘장(6형식)은 ‘位至三公’鏡<sup>16</sup>을 근거로 동한 만기로 편년한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44-45). 보고서에는 어디에도 뤼양 시지아오 7011호묘가 동한 만기라는 기술이 없다. 따라서 뤼양 시지아오 7011호묘의 연대는 동한 만기로 하향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식은 장쑤성 창조우 윤지아둔(江蘇省常州 惲家墩) M7호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동한 중만기에 해당한다(江蘇常州博物館 2011). 뤼양 시지아오 7011호묘 보다는 간략화가 더욱 진행된 것으로서 후행하는 형식이다. 위의 사례들은 2중의 방곽 구조와 四乳 구조는 동일하나 유의 좌우측에 다중 곡선이 존재하는 점에서 미사리 방제경 보다는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보다는 한 단계 늦은 동한 만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중도유형권에는 동한경 내지 방제경만이 유통되었다. 서한경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李陽洙 2006: 51) 영남지역과 차이를 보인다(도면 17).



도면 17 중도유형권 출토 방제경 및 비교자료

16 동한 만기의 대표적인 鏡式이다(張從軍 2012: 66).

## 2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지방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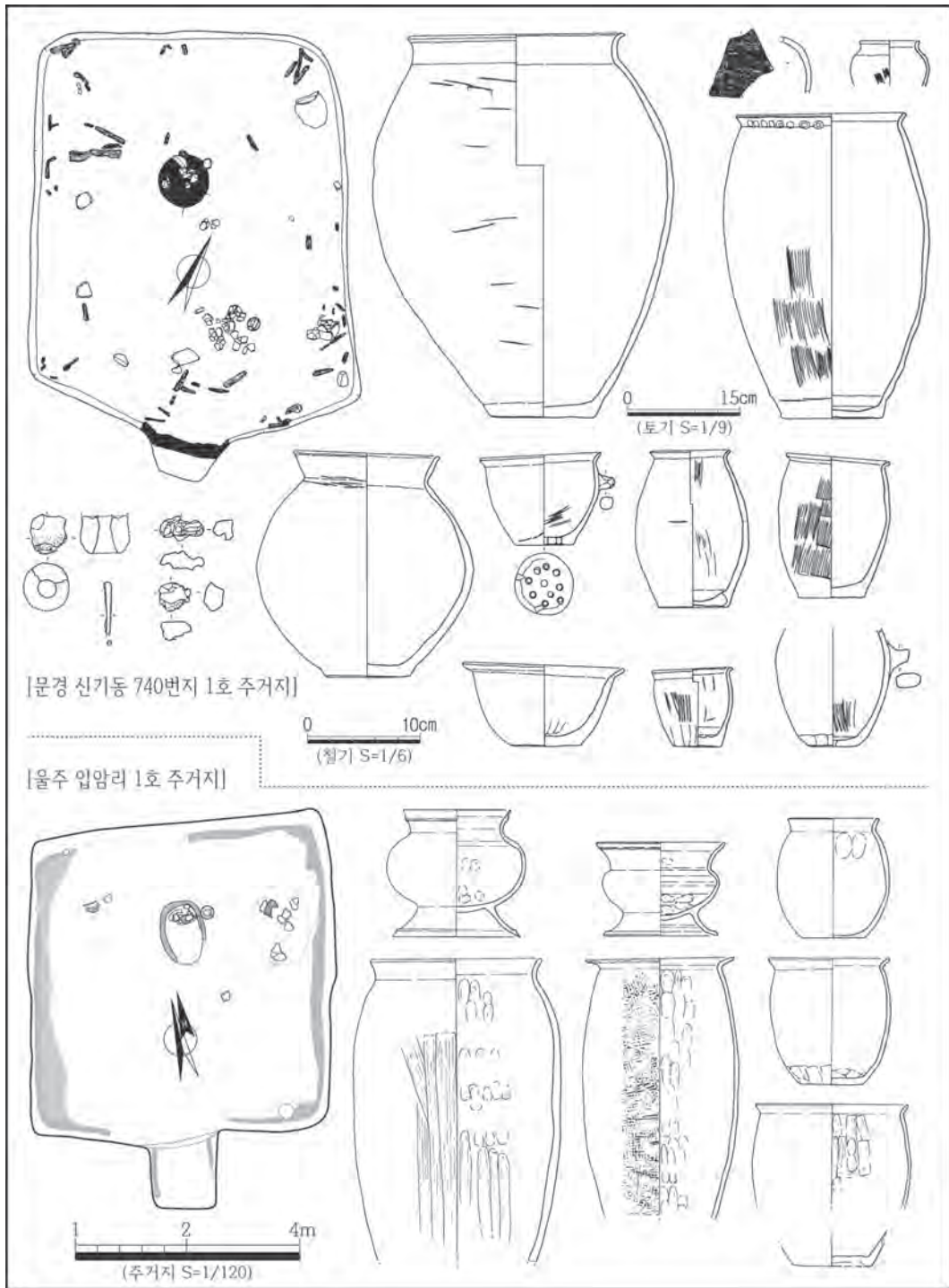
중도유형권 주거는 한강, 임진·한탄강 등 중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3C부터 소백산맥을 넘어 낙동강 상류의 문경·점촌지역까지 확대된다. 특히 외줄구들과 단야를 기반으로 한 철기생산 취락들이 증가한다. 결국 중도유형권이 영남지역으로 확산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도유형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중부내륙노선상의 철기유통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박경신 2018a). 중요한 것은 이천부터 남쪽 지역까지는 남한강의 동안에서만 중도유형권이 발견되고, 서안에서는 중서부문화권의 주거가 축조된다. 이러한 분포권은 철기생산 교역권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정치체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환되는 것은 백제가 충주지역(탑평리 일대)을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면서 부터이다. 이후부터 남한강 서안에서도 여·철자형주거가 확산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중도식무문토기가 소멸하고, 타날문토기 생산체제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으로 중도유형권과는 관계가 없이, 백제의 지방 확산 결과로 해석된다.

가평리유형권 주거도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등 영동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4C 이후에는 울진, 울주, 영주지역까지 확대된다. 중도유형권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주거 형태는 여·철자형을 차용하였으나 생활토기는 지속적으로 영남지역 토기를 사용하는 특징이 관찰된다(도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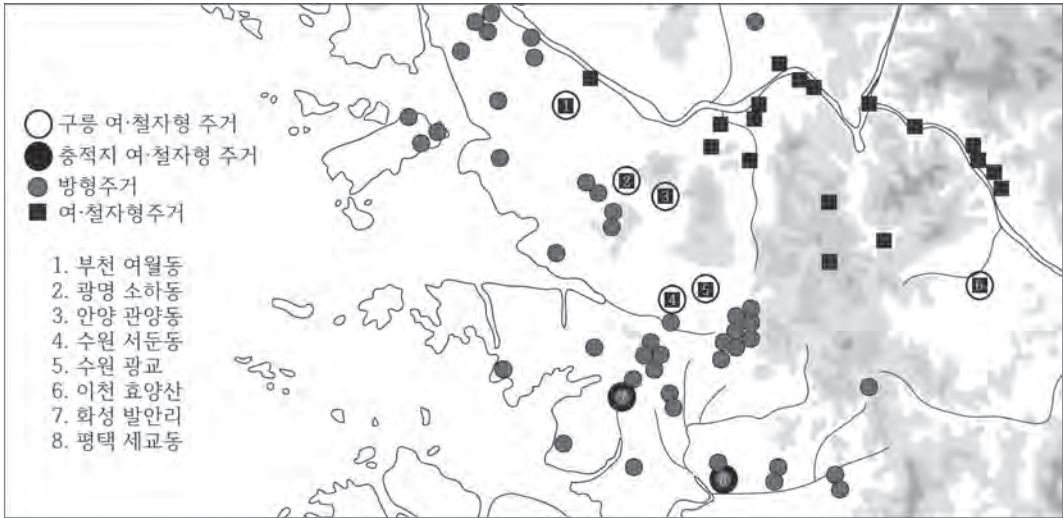
한편 중도유형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변형된 형태의 여·철자형주거가 확인되는 지역이 확인된다. 주로 중도유형권과 중서부문화권의 접이지대에 해당하는데 부천 여월동, 광명 소하동, 안양 관양동, 수원 서둔동, 수원 광고, 이천 효양산 등에서 확인된다. 중도유형권과 다른 점은 축적대지가 아닌 구릉상에 여·철자형주거를 축조하고 있는 점인데 주축방향이 편서향을 띠는 점은 공통된다. 중서부문화권 내에서 확인되는 중도유형권 주거로는 화성 발안리, 평택 세교동 등의 취락이 있는데 중도유형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서부문화권 취락인 양주 옥정동 취락의 성격과 같이 중도유형권 물질자료가 점적으로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화성 발안리는 발안천, 평택 세교는 안성천을 배경으로 한 해상 교역의 매개 지역에 위치하는 공통점이 있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인 유통망의 확장을 위해 전략적 진출을 꾀한 결과로 추정된다(도면 19).

이와는 달리 여·철자형주거의 평면형태를 모방한 사례가 호서, 호남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중도유형권과 다른 점은 주축방향이 편서향을 띠지 않는 점, 주의 평면형태가 방형이면서 4주식 구조를 띠고 있는 점, 구릉상에 주거를 축조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는 전형적인 중서부문화권 주거의 직접적 확산 결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호서지역에서는 갈매





도면 18 중도유형권 및 가평리유형권 주거의 지방 확산 양상



도면 19 중동부문화권과 중서부문화권의 점이지대 분포 변형 여·철자형주거

리(고려대), 용원리, 송절동(테크노폴리스), 탑평리, 언남리, 지족동, 복룡동 당산마을, 석봉동 등에서 출입구가 부가된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호남지역은 익산 부송동 242-73번지, 전주 중인동, 전주 동산동, 완주 신평, 완주 용흥리, 전주 장동 유적 등에서 돌출된 출입구를 갖는 주거지들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갑천변의 용원리와 갈매리 유적은 토착적 주거 문화에 백제의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서 백제의 세력 확장 결과로 해석된다(張德元 2009: 45-46; 신연식 2016: 25 재인용). 위 취락들은 近肖古王이 남정을 벌인 AD 4C 중엽 이후로 편년(도문선 2018: 104)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호남지역에서도 출입구가 돌출된 주거를 백제의 영역확장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김은정 2019). 결국 중동부문화권의 여·철자형주거와 유사한 평면형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중도유형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도면 20).

중동부문화권이 원삼국시대 초기부터 낙랑으로 대표되는 한군현과의 경제적 상호관계속에서 내륙 교역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경기도 지역에 자리잡은 중서부문화권(마한 세력)이 낙랑과 대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은 초기 철기시대부터 이어진 환황해노선이 경색되면서 교역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sup>17</sup> 중국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까지 연결된 교역로 상에서 중서부문화권의 교

17 육로 교역의 경우 대치관계에 있던 각 정치체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 연안바닷길로 이어진 교역을 대체 교역로로 설정할 수 있는데(김병준 2018: 226-227) 산동-묘도열도-요동반도-낙랑 및 한반도의 서해안 기항지로 연결된 연안항로가 참고된다.





역 단절은 낙랑의 해상 교역 루트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중부내륙노선으로 이어진 중동부문화권의 취락 유적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올랐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원삼국Ⅱ기 단계에 중서부문화권(서울·경기) 내에서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중동부문화권 가운데 중도유형권은 원삼국Ⅱ기에 가장 활발하게 낙랑계토기가 생산 및 유통된다. 중서부문화권에서 낙랑계토기가 확인되는 시기는 AD 3C 초 철기생산 세력의 집단 이주로 대표되는 화성 기안리 유적이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이후 중서부문화권에서 백색토기용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단절된 환황해노선이 새롭게 복원·재편된 시대상황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반대로 중동부문화권은 AD 3C부터 낙랑계토기가 급격하게 소멸하고, 타날문토기 생산체제가 빠르게 정착하며, 일상 생활용기는 지속적으로 중도식무문토기를 사용한다. 이는 낙랑을 매개한 내륙교역로의 중요성이 환황해노선의 복원과 더불어 점차 퇴색해지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중동부문화권의 성장, 발전, 쇠퇴의 동력은 사회·경제적 교역 동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에 비해 정치체와 관련된 정치적 역학관계는 부차적인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 V

### 맺음말

지금까지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부 지역은 이미 청동기시대 이래 양평과 이천을 경계로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특히 원삼국시대에는 이를 경계로 중동부문화권과 중서부문화권으로 뚜렷하게 양분된다. 그리고 중동부문화권은 여·철자형주거, 중도식무문토기, 타날문토기라는 공통점 이외에 세부 물질자료 구성에서 중도유형권과 가평리유형권으로 세분된다.

중동부문화권의 여·철자형주거와 외줄구들은 한반도 동북지역의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서 유입되었다. 그러나 동북한지역의 안변에서 영동지역(동해안), 춘천(철령), 철원(추가령) 등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단일하지 않았다. 초기 원삼국시대 중동부문화권의 주거는 전통적인 방형과 새로 유입된 여·철자형주거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점토대토기와 새로 유입된 중도식무문토기도 함께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존 점토대토기 문화에 새로운 원삼국시대 요소가 접목되면서 점차 완성된 원삼국문화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한편, 중동부문화권의 여·철자형주거는 중서부문화권 및 선사시대 주거들과 달리 주축방향이 편서향을 띠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에 따라 수직방향의 출입에서 수평방향의 출입으로 변화하면서 바람의 유입이 가장 적은 남동쪽에 출입구를 시설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중동부문화권의 노시설은 중도유형권의 외줄구들, 지각식로, 부뚜막과 가평리유형권의 아궁이식로, 부뚜막식로가 지역색을 띠고 존재하였다. 특히 새로운 노시설의 채용은 주거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기존 단순구조의 노시설에서 길이가 증가한 노시설이 등장하면서 주거의 규모도 이례적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중도유형권에 한정되며, 가평리유형권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중도유형권에서는 오각형구조의 여·철자형주거에 부뚜막이 채용된 이후 점차 육각형 평면형태로 변화한다. 가평리유형권의 경우에는 아궁이식과 부뚜막식이 등장하면서 점차 육각형구조로 변화하지만 5C 후반 구들 구조를 갖춘 신라의 방형 주거로 대체되면서 여·철자형주거는 소멸한다.

여·철자형주거는 내부시설과 물질자료의 채용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도유형권을 매개로 내륙교역에 나섰던 낙랑의 존재가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원삼국II기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낙랑계 물질문화(토기, 금속기)는 사회·경제적 취락 구조의 재편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중서부문화권과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여·철자형주거는 중동부문화권을 넘어 영남지역까지 폭넓게 확산된다. 중도유형은 낙동강 상류의 문경 지역으로 확산되고, 가평리유형권은 울진, 울주, 영주까지 확산된다. 이러한 지방으로의 확산 배경에는 각각의 철기생산 취락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경제적 교역 루트가 재편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원삼국시대 중동부문화권 주거는 기존의 토착세력과의 공존, 새로운 물질자료의 유통을 통한 사회·경제적 유통망의 확충 과정에서 주거의 구조 변화 및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향후 동북한지역에 대한 발굴성과가 소개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기며 글을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저서

- 강인옥, 2007,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노브카문화의 확산과 전파」,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유패널 발표자료집, 韓國考古學會.
- 권도희, 2013, 「운양동 12호 분구묘 출토 이형 轡에 대하여」, 『김포 운양동 유적』 1, 유적조사보고 제42책, 한강문화재연구원.
- 김병준, 2018, 「문헌기록으로 본 고대 산동성과 한반도의 교류」, 『한중교류의 관문 산동』, 2018 국제교류전 도록, 한성백제박물관.
- 金成南, 2006, 「百濟 漢城時代 南方領域의 擴大過程과 支配形態 試論」, 『百濟研究』 4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金成東, 1995, 「首都圈의 風向別 總浮遊粉塵 濃度變化에 關한 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少映, 2012, 「中部地方의 原三國時代 樂浪系遺物 出土 住居遺蹟 分析」, 江陵原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연옥, 1985, 『한국의 기후와 문화』, 초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연옥, 1998, 『기후 변화』, 초판, 서울: 민음사.
- 김은정, 2019, 「만경강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자료의 검토」, 『막여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국립전주 박물관 완주 지역특별전 기념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전주박물관.
- 盧泰敦,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기사 검토」, 『경주사학』 16, 경주사학회.
- 盧熾眞, 2004, 「中島式土器의 由來에 대한 一考」, 『湖南考古學報』 19, 湖南考古學會.
- 도문선, 2018, 「충청지역 주거지의 구조와 출토유물」, 『마한·백제 주거지의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2018년 마한연구원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마한연구원.
- 박경신·이재현, 2011, 「제2장 유물집성 - 중국(초기철기·원삼국시대)-」, 『한국 출토 외래유물』, 주요 유물 종합보고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박경신, 2012,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취락 구조」, 『고고학』 11-2, 중부고고학회.
- 박경신, 2015, 「북한강유역 원삼국시대 취락 편년」, 『崇實史學』 34, 崇實史學會.
- 박경신, 2016,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외줄구들의 편년과 전개양상」, 『고고학』 15-3, 중부고고학회.
- 박경신, 2018a, 「原三國時代 中部地域과 嶺南地域의 內陸 交易」, 『考古廣場』 23, 釜山考古學會.
- 박경신, 2018b, 「북한강 상류역 원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 『고고학』 17-2, 중부고고학회.
- 박경신, 2019a,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신, 2019b, 「경기도 마한·백제 주거 구조와 출토유물」, 『마한·백제 주거지 비교 검토』, 마한연구원 총서 6, 학연문화사.
- 박순발, 1996, 「漢城百濟 基層文化의 性格」, 『百濟研究』 26,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朴淳發, 2003, 「漢城百濟 考古學의 研究 現況 點檢」, 『고고학』 3-1, 서울경기고고학회.
- 박순발, 2014, 「한강유역 및 중서부지역 원삼국 및 백제토기 편년과 관련하여」, 『쟁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한성백제기 물질문화 편년』, 제11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자료집,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박중국, 2016, 「중부지역 쪽구들 문화의 계통과 전개」, 『고고학』 15-1, 중부고고학회.
- 서현주, 2017, 「마한 토기의 지역성과 그 의미」, 『동북아시아에서 본 마한토기』, 마한연구원 총서 4, 학연문화사.
- 신정일, 2012,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 송기호, 2006, 『한국 고대의 온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만영, 1999,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編年的 基礎」, 『韓國考古學報』 41, 韓國考古學會.
- 송만영, 2013a,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초판, 서울: 서경문화사.
- 宋滿榮, 2013b, 「欣岩里式 土器 發生의 再檢討」, 『韓國上古史學報』 79, 韓國上古史學會.
- 송만영, 2015, 「中島式 住居 외출구들의 變化와 意味」, 『古文化』 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신연식, 2016, 「금강유역 원삼국~백제시대 취락양상」, 『금강·한강유역 원삼국시대 문화양상』, 호서고고학회·중부고고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심재연, 2012, 「강릉 안인리유적의 취락양상」, 『강릉 안인리유적을 통해 본 강원 영동지역 철기시대 문화양상』, 강릉 안인리유적 발굴 20주년 기념 하굴대회 발표자료집,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강원고고문화연구원.
- 심재연, 2018, 「토론문」, 『접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여명』, 제15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자료집,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Anastasia Subbotina, 2005, 「鐵器時代 韓國과 러시아 沿海州의 土器文化 比較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오세연, 1995,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 2018, 「구들의 起源과 韓半島 擴散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Ch.유를·에르데네, 2018, 「흉노의 도시유적」, 『흉노고고학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2, 초판: 과천, 진인진.
- 유은식, 2004, 「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 연구」, 崇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유은식, 2006, 「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와 중부지역 원삼국문화」, 『崇實史學』 19, 崇實史學會.
- 유은식, 2014, 「한반도 북부지방 토기문화를 통해 본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의 계통」, 『고고학』 13-3, 중부고고학회.
- 유은식, 2015, 「동북아시아 초기 쪽구들의 발생과 전개」, 『고고학』 14-3, 중부고고학회.
- 윤성호, 2019, 「삼국 항쟁기 강원지역 재지세력의 동향」, 『신라사학보』 46, 신라사학회.
- 이민부·전종한, 2005, 「楸哥嶺 지명에 관한 지형학 및 역사지리적 해석」, 『문화역사지리』 17-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이청규, 2002, 「철기문화-(1)생업-」,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 이흥중, 1993, 「부뚜막시설의 등장과 지역상」, 『嶺南考古學』 12, 嶺南考古學會.
- 張慶浩, 1985, 「우리나라 煖房施設인 溫突(구들)形成에 對한 研究」, 『考古美術』 165, 韓國美術史學會.
- 張德元, 2009, 「錦江流域 原三國~三國時代 부뚜막과 쪽구들에 대한 研究」,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정요근, 2008, 「조선초기 驛路網의 전국적 재편」, 『朝鮮時代史學報』 46, 조선시대사학회.
- 정유진, 2010, 「식물유체를 통해 본 원삼국시대 도작의 성격」, 『韓國上古史學報』 69, 韓國上古史學會.
- 정찬영, 1966,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 66-4, 사회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 정인성, 2014, 「樂浪·帶方과 馬韓諸國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고자료 검토」, 『백제의 성장과 중국』, 정점백 제사 집중토론 학술회의 V, 한성백제박물관.
- 정지훈·조리나, 2010, 「한반도 상공의 편서풍 변화 경향」, 『기후연구』 5-1,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 조진선, 2013, 「동북아시아에서 울산지역의 청동기문화」, 『삼한시대 문화와 울산』, 울산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울산문화재연구원.
- G.에렉젠·양시은, 2017, 『흥노』, 초판, 과천: 진인진.
-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 『韓國考古學報』 38, 韓國考古學會.
- 崔鐘圭, 2017, 「平澤 佳谷里 遺蹟의 文化的인 歸俗」, 『平澤 佳谷里 遺蹟』, 三江文化財研究院.
- 한국해양연구소, 1994, 『제4기 해수면 변화의 모델 개발 및 퇴적환경 변화에 대한 환경 종합연구』Ⅲ,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홍영호, 2018, 「강릉 하사동 돌무지무덤 소개와 역사성 검토」, 『博物館誌』 24,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 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1980, 『中島 -進展報告 I-』,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十二冊.
- 국토문화재연구원, 2019, 『양평 양근리 493-3번지 유적』, 유적조사보고 제12책.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吉林圖們市曲水苗圃遺址의發掘」, 『考古』 第11期, 科學出版社.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0, 『水原 西屯洞 遺蹟』.
- 한양문화재연구원, 2018, 『楊平 兩水里 537-1番地 遺蹟』, 한양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서 第5冊.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0a, 「黑龍江友誼縣鳳林城址二號房址發掘報告」, 『考古』 第11期, 科學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0b, 「黑龍江友誼縣鳳林城址1998年發掘簡報」, 『考古』 第11期, 科學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黑龍江友誼縣鳳林古城址의發掘」, 『考古』 第12期, 科學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黑龍江友誼縣鳳林城址2000年發掘簡報」, 『考古學報』 第4期.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黑龍江友誼縣鳳林城址1999年發掘簡報」, 『北方文物』 第4期.

※ 기타 간접 인용 보고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

# 中島文化の 鉄器の特質とその系譜

村上恭通

# 中島文化の鉄器の特質とその系譜

村上恭通  
愛媛大学

## Contents

1. はじめに－中島式土器にともなう鉄器文化とその周辺－
2. 燕系鉄器と楽浪系鉄器
3. 中島文化における鉄器の受容と展開
4. 結語

## はじめに—中島式土器にともなう鉄器文化とその周辺—

### 1 韓半島中部地域の鉄器文化

韓半島の中部地域、すなわち漢江流域、嶺西、嶺東地域において開発にともなう発掘調査が増加した結果、原三国時代併行期の遺跡に対する発掘調査が促進された。その成果を受けて、近年、金武重氏らの研究が当該地域における鉄器文化の内容を急速に明らかにしている〔金武重2012、2017、2018など〕。この鉄器文化は江原道春川市中島遺跡を名祖とする中島式土器文化圏（以下、中島文化）に重なるものであることはいままでの間もない。韓国の北部と東北縁に広がるこの文化圏は、あたかも河川と海岸に沿って形成されたもののようでもあるが、見方によればより広汎に、面的に形成された文化の一部あるいは縁辺と捉えることも可能である。つまり、この地域の北側にも中島式土器に類似する文化やそれにとともなう鉄器文化が広がっており、その南縁の現象を漢江流域・東海沿岸地域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これは北韓（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おける考古学的な現状が不詳であるため、それ以上の検討を阻んでいる。

そのように考えると、中島式土器にともなう鉄器文化について論ずるためには、韓半島における初期鉄器時代から原三国時代併行期の鉄器文化の範囲とその階梯を整理することがまず重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 2 韓半島の初期鉄器普及と西海岸

韓国における最古段階の鉄器は半島西海岸に沿うように出土しており、新式の韓国式銅剣や多鈕細文鏡に共伴している。それらすべてが副葬品である点は注意が必要である。その実年代については諸説あり、包括すれば紀元前3世紀末葉から紀元前2世紀前葉の範囲に収まる。この段階の鉄器は鑄造鉄器が主体であり、横断面形が梯形傾向を見せる片刃状大型鉄斧（中国では鑿）、そして鑿、鎌がある。これを仮に第1段階の鉄器群と呼ぶと、この次の段階に鎌を欠落しながら、鑄造鉄斧あるいは鍛造の素環頭刀子あるいは鉈をとともなう段階を設定できる。その次に羅州・徳



谷遺跡 2号墓に代表されるような矛、袋状鉄斧、板状鉄斧、鉈などからなる鍛造鉄器を主体とする第2段階がある。板状鉄斧は燕の領域に起源があるものの、先述した第1段階までの西海岸では見られず、この第2段階になって登場する。以後、第2段階における鉄器組成は、韓国式銅剣をともなう昌原・茶戸里墳墓群最古段階のように嶺南地域でも出土するようになる。

以上のように韓半島における初期鉄器の普及は、副葬品によって語られることが最大の特徴であった。その後の鉄器組成の連続的な変化は西岸域でこそ把握が可能であり、それ以降は内陸を通過したのか、南岸に沿ったのかは断定できないものの嶺南地域にいた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経路はすなわち韓国青銅器の主たる分布域である。『概説 韓国考古学』〔韓国考古学会編2010、庄田・山本訳2013〕に示された多鈕細文鏡の分布図（図1）におけるドットの濃淡が韓半島西北地域に由来する鉄器の通路を如実に表現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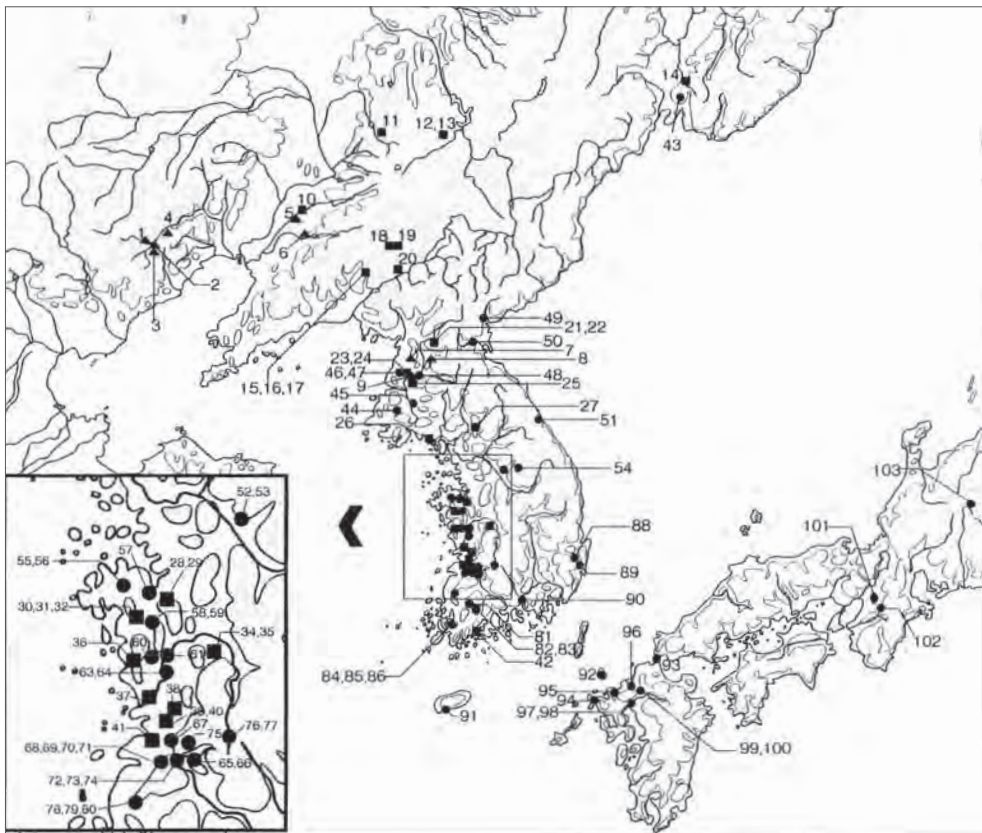


図1

### 3 韓半島東北部～ロシア極東の状況

『概説 韓国考古学』では、初期鉄器時代の韓半島のほぼ全体が南城里―草浦里類型に包摂され、その北方に西から細竹里―蓮花堡類型、大海猛―泡子沿類型、団結―クロウノフカ類型が広がっている（図2、3）。中島式土器が東海沿岸にも広



文化類型と分布圏（李清圭2005）Ⅰ：細竹里―蓮花堡類型、Ⅱ：大海猛―泡子沿類型、Ⅲ：団結―クロウノフカ類型、Ⅳ：南城里―草浦里類型

図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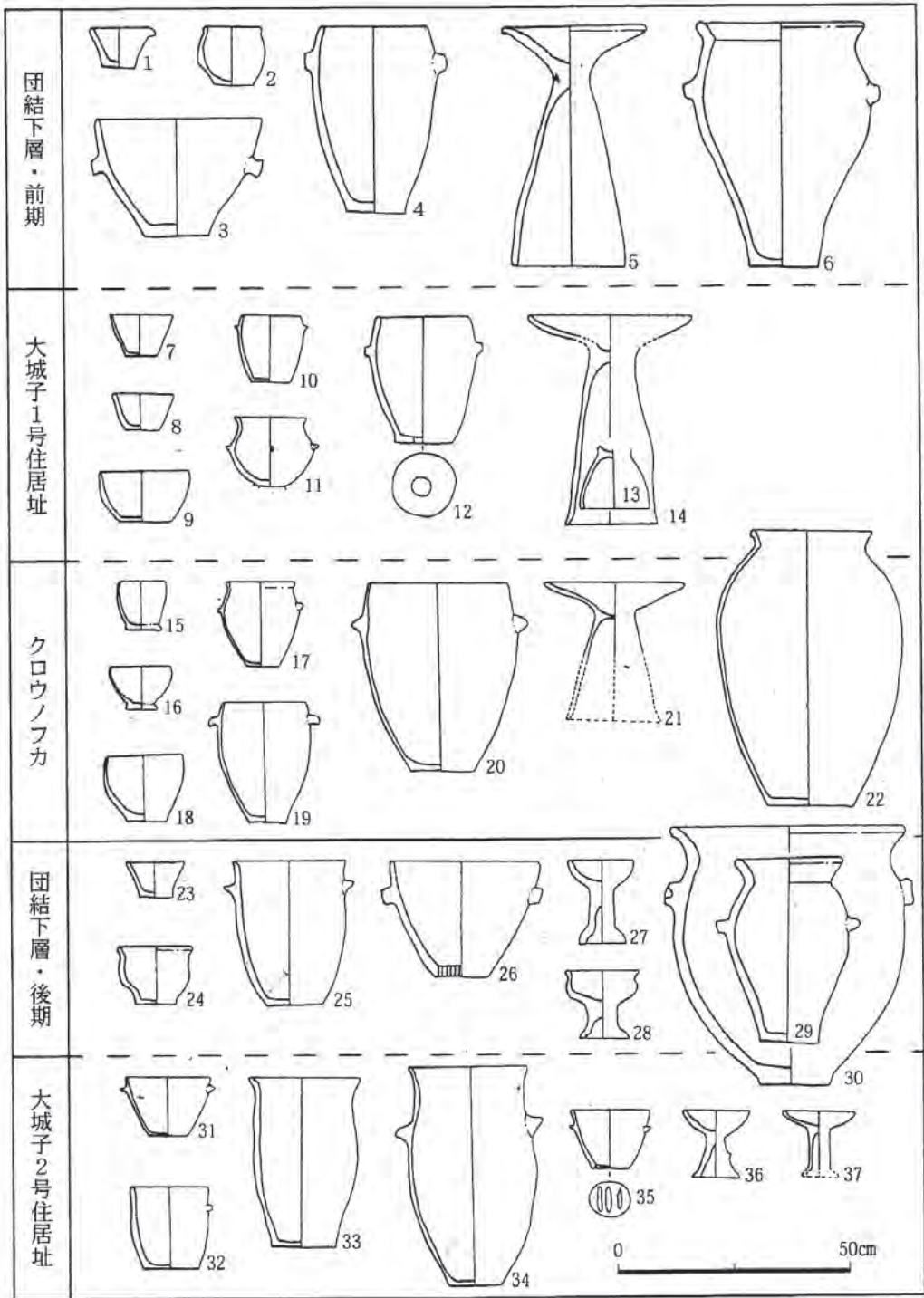


图 3



がることから図中、空白地帯となっている北韓東北部や団結－クロウノフカ類型の  
 関係についても検討しておく必要がある。事実、中島式文化に特有の「凸」字形ま  
 たは「呂」字形の竪穴住居の系譜を団結－クロウノフカ類型に求める考え方もある  
 [韓国考古学会編2010、庄田・山本訳2013]。団結－クロウノフカ文化は中国・  
 黒龍江省の団結遺跡、ロシア極東地方のクロウノフカ遺跡を名祖とする文化であ  
 り、前漢代～後漢代に併行する。鉄器化の階梯を示す資料については、むしろロシ  
 ア極東地方が充実している。先行するヤンコフスキー文化段階（戦国時代～前漢代  
 併行）には鑄造鉄斧とその再加工品が主体であり（図4－1～7）、クロウノフカ  
 文化になるとそれらに剣、鉈など漢民族系の鍛造品を再加工した鉄器が加わるこ  
 とがわかっている（同8～15）[村上1987、1994、2010]。有孔の無茎三角形鏃  
 などは在地での鍛造鉄器生産を想定させるが、その生産規模はきわめて限定的であ  
 り、漢代鉄器の再加工品を主体として構成されてい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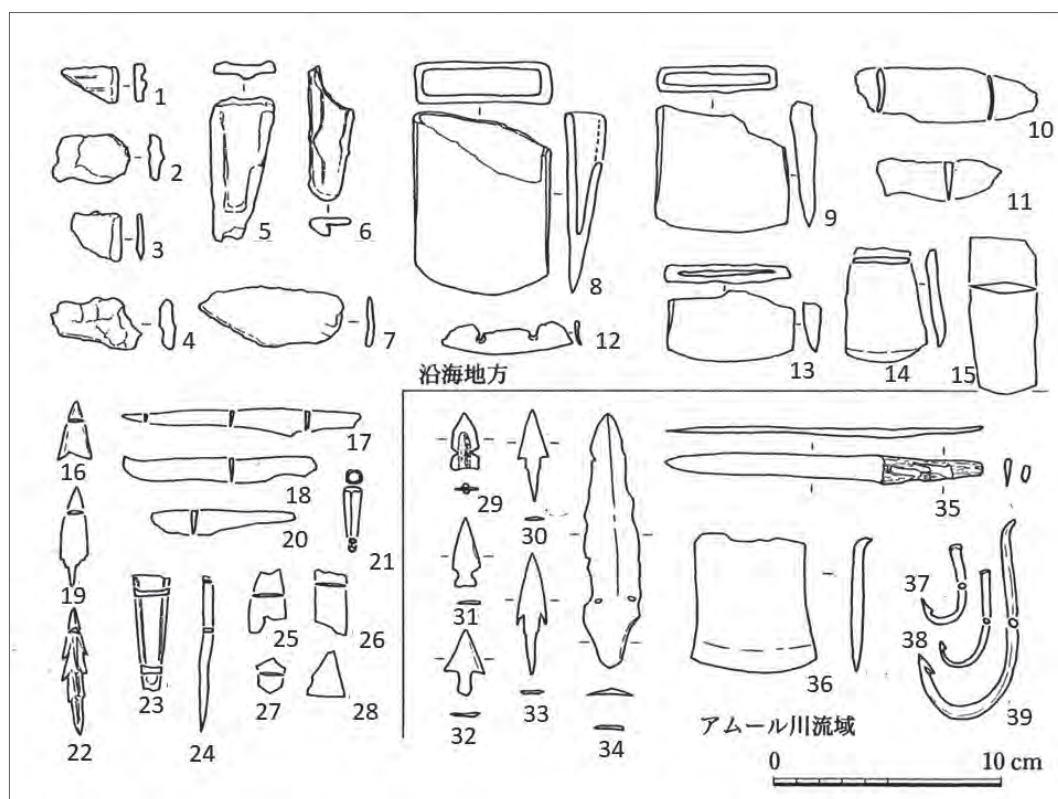


図4

この文化の南縁は北韓東北部にあたり、豆満江流域の咸鏡北道茂山虎谷洞遺跡は重要な遺跡である。虎谷洞遺跡第6文化層の土器群は団結－クロウノフカ文化類型に属する。しかし鉄器はクロウノフカ文化よりも豊富であり、鑄造鉄斧のほか、土掘り具の鑄造刃先（鋤）や鍛造鉄鎌も含まれている（図5）〔村上1987〕。これらは前漢代以降に中国東北地域に普及を始める器種である。注目すべきは鑄造鉄斧であり、袋の内部が非常に深く、その端部は刃部付近にまで及んでいる。このような特徴を有する鑄造鉄斧は、ロシア極東地方においてクロウノフカ文化に後続するポリツェ文化にもみられることから、韓半島西海岸を中心に普及した燕系鑄造鉄器とは異なる系統の在来鑄造技術が東北方面にも展開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団結－クロウノフカ文化の鉄器は、前漢社会の東北方面における活動範囲の拡張がもたらしたものであり、東へ、北へ進むにつれてその物量も減少し、技術も低下していった。このクロウノフカ文化が中島文化を含めた韓半島南方に向けて影響を与え、中島式土器をともなう鉄器文化の基礎となったとは現状では考えられ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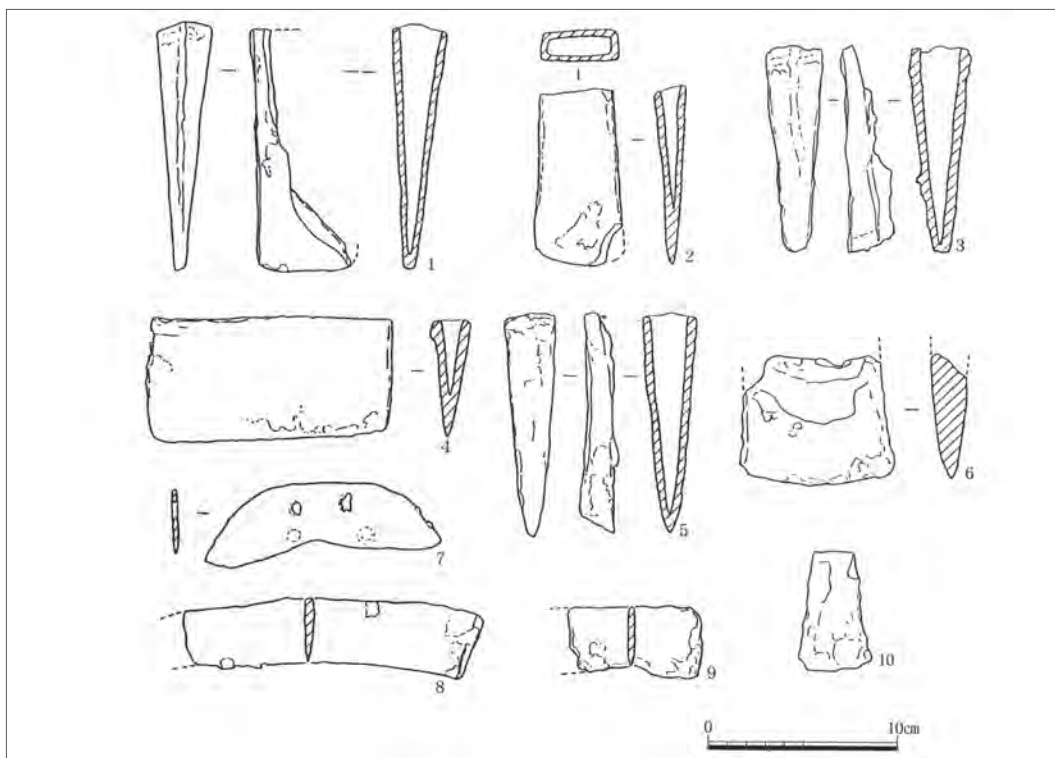


図5



#### 4 中島式土器にともなう鉄器文化の系統性

以上のように整理すると、中島式土器にともなう鉄器文化の起源と展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従来から主張されている中国戦国時代の燕国関連拠点あるいは楽浪郡という韓半島西北部からの影響を想定することがまず妥当である。ただし、鄭仁盛氏の議論にあるように楽浪郡設置を厳密な鉄器普及の画期とするのではなく、戦国時代末期から楽浪郡設置の間にも新たな鉄器文化の胎動があったという評価は重要である〔鄭2013〕。また鄭氏がその整理、報告を行った楽浪土城址の鉄製品は、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鉄器の特徴を知るうえでとりわけ意義深い〔鄭2007、村上2007b〕。そのなかで報告されたある種の鑄造鉄斧の一型式は金武重氏によって「小型鑄造梯形斧」と称され、周知のように中島文化の主流的な鉄器の一つと確実に繋がった〔金武重2012〕。さらに各種鍛造鉄器についても類似性が検討されており、楽浪地域の鉄器に対する理解が中島文化の鉄器の検討に重要であることがわかる。

以下、今一度、燕系鉄器、楽浪地域出土鉄器の検討を行い、可能な限り、各段階の鉄器の特質を整理したうえで、中島式土器をともなう鉄器文化の展開と鉄器生産の様相について検討したい。

## 2

### 燕系鉄器と楽浪系鉄器

#### 1 燕系鉄器について

中国戦国時代の鉄器には鑄造品と鍛造品とがあり、鑄造品の素材は銑鉄（鑄鉄）、鍛造品の素材は鋼と銑鉄を脱炭して作られた鑄鉄脱炭鋼の二種類があった。鑄造鉄器は炭素分が高い分、堅固で脆いため、実用するためには特殊な密閉式の炉を用いて、長時間かけて脱炭して鋼化させる必要がある。銑鉄（鑄鉄）を脱炭して鋼素材にして、それを鍛造するという技術もあったが、その生産量には限界があり、鋼製の強靱な鉄器を作るためには、直接製鉄炉内で鋼をする方法がより高度か

つ有効な方法であったといえる。戦国時代に銑鉄も生産し、鋼も豊富に直接生産し得た地域は長江中・下流域であり、黄河流域はその影響を受けて鋼生産を開始することとなる。したがって、鉄器全体の量に対する強靱な鍛造鉄器の量が占める比率は南の方が高く、北が低い。そうすると燕国は長剣、矛という武器を除くと、農工器具類のほとんどの器種は鑄造せざるを得なかった。素環頭刀子のような工具類でさえ燕国では鑄造され、鍛造化したのは戦国時代後半を迎えて以降である。

戦国時代の燕国産鉄器のうち、遺存状態が最も良好な資料が平安北道渭原郡龍淵洞遺跡出土鉄製品であり、そのうち大型片刃鉄斧(鏃) 2点、鋏、鋤、鎌、石庖丁型鉄器が鑄造鉄器である。これらは合範(合わせ型)製であり、鑄型の一方のみに陰刻が施され、一方には陰刻がない単合範で鑄造されている。鋏、鋤のように反りのある鉄製品は一方の鑄型にもわずかな陰刻と陽刻が施された。大型片刃鉄斧は、燕国に通有の横断面梯形を呈し、さらに遺存状況が良好であるための観察所見であるが、その表面は粗面を呈し、刃部にはわずかな摩耗を見せることから脱炭が施され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当然のことながら両側面には鑄型の合わせ目の痕跡はない。

一方、1990年以降、韓国では扶余・合松里、唐津・素素里、長水・南陽里など西南部で韓国式青銅器群にともなう鑄造鉄製品が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最も多い袋状鉄斧は片刃あるいは片刃傾向をもちながらも、単合範ではなく双合範製であることが想定できるようになった(図6)。このことは加平・大成里遺跡B地区で出土した大型片刃鑄造鉄斧の発見により決定的となった(図10-1~7)。同時に遺存状態のよい大成里B地区出土鉄斧は稜線、刃部、合範部分の鑄張りが明瞭であることも燕国の鑄造鉄斧とは異なっている。一般的に、表面を脱炭・軟化して実用された鑄造鉄斧は鍛造剥片のような薄層が表面から剥落する。その際、鑄型に起因する稜線や鑄張りはその鋭さや明瞭さを失い、やや朦朧となる。また刃部の摩耗も顕著には遺さない。このことは後述する同遺跡A地区から出土した小型鑄造梯形斧(図11-16、17、32、34)と比較すると一目瞭然である。

以上のことから、鑄造大型片刃鉄斧については①双合範で鑄造されている点と②鑄造後の脱炭が施されていないか脱炭が弱いという点が指摘できる。①は燕国における鑄型の使用法が変容したために生じたと考えられる。韓半島では鉄器出現前、青銅斧が双合範で鑄造されており、鑄造鉄器が韓半島に流入する際にその生産技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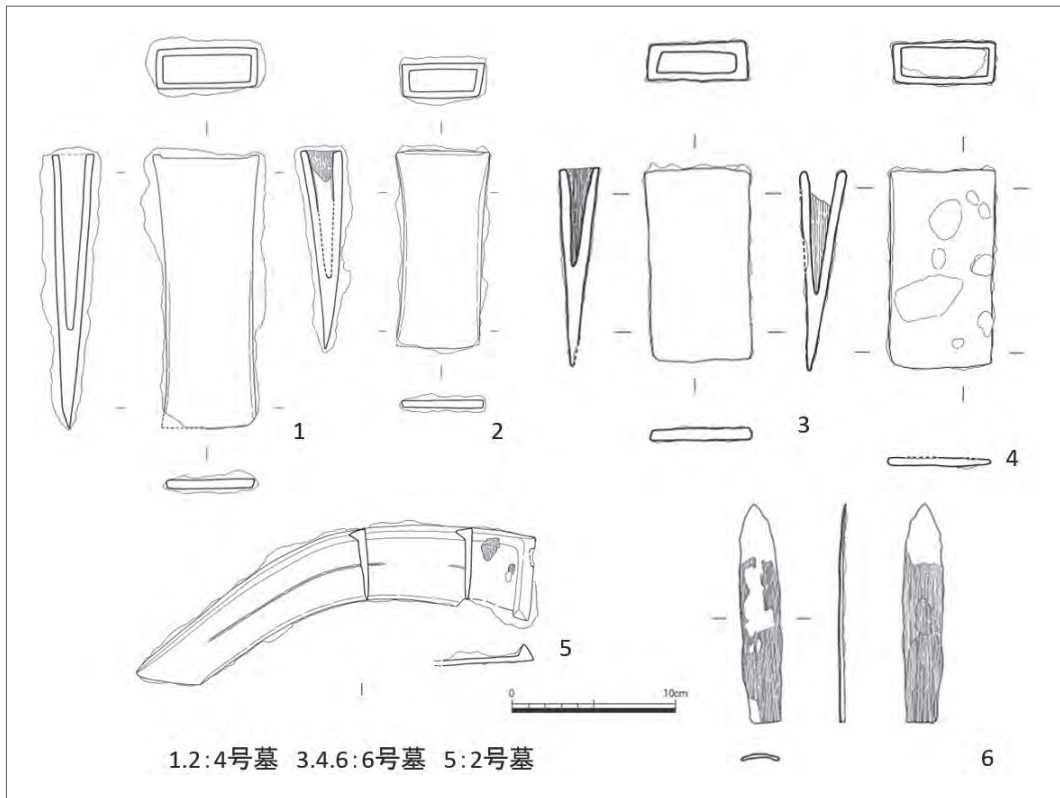


図6

と融合したと推測される。②については燕国の領域から鉄器生産技術が流入する際に脱炭技術が欠落したと考えられる。この点に関しては、鑄造鉄斧の出土量が韓国に比べてごく少量である北韓の現状では具体的な議論はできない。今後の発見や情報に期待するしかないが、韓国出土鑄造鉄斧と燕国鉄器の比較から示しうる燕系鉄器とは以上の通りである〔村上2003、2011、2017〕。

## ② 楽浪系鉄器について

### ① 楽浪漢墓・土壙墓と楽浪土城址出土鉄器

楽浪地域の鉄器について、かつては研究対象が楽浪漢墓あるいは土壙墓（以後、楽浪墓と略称）出土の副葬品に限られていた。楽浪墓副葬鉄器は斧も含めてほとんどが鍛造化しており、戦国時代からの変化を読みとることは容易である。同時に、

楽浪郡設置前後には旧燕国領域で鉄斧の鍛造化が見られないことから、その現象が生まれた背景についても十分な説明ができない状況であった。

また楽浪地域の鉄器の解釈にとって、楽浪土城址出土品の研究成果が新たな視点をもたらした〔鄭2007〕。遺跡の性格上、出土遺物の時期決定について副葬品ほどの厳密さを欠いてはいるが、それでも後続する時代の鉄器の様相と比較してもその違いは明らかであり、楽浪郡時代の産物として評価することには問題はない。したがって、楽浪系鉄器を楽浪墓と楽浪土城址とに分けて検討してみたい。

## ② 楽浪墓出土鉄器の系譜—鍛造斧を中心に—

楽浪墓では剣、矛、鎌に伴って大小2点の鍛造袋状鉄斧が出土し、この基本組成が維持されて嶺南地方に伝わるのが指摘されている〔村上1992b〕。楽浪墓出土の袋状鉄斧は鍛造品とはいえ、台城里6号土壙墓出土品のように鍛接の痕跡が見えないほど精巧に製作されており、袋部、刃部ともに重厚である(図7)。製作技術も複雑であり、袋部と刃部を別々に作り、刃部の上端を袋下端に挿入し、挿入部分を丁寧に鍛打して仕上げられている(図8-1)。楽浪墓出土品は刃部がやや広がっており、製作技法を維持しながら、羅州・亀基村2号土壙墓出土品のように刃部がやや狭くなる。そして亀基村9号土壙墓出土例のように、袋部上端部に突起を設け、その部分を取り巻くように袋部を鍛接する有肩鉄斧が現れる(図8-2)。斧の形態変化は別造りという原則を維持しつつも、技術的な弛緩を表している。

楽浪墓に副葬が始まる別作りの袋状鉄斧は、先述のように鍛造技術が希薄な華北や東北地域にその起源を求めることは難しく、まして高度かつ特異な技術はその起源を限定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その候補地は中国の長江下流域である。別造りの鍛造袋状鉄斧は長江中流域で春秋時代には登場し、その後、前漢代にいたるまでには江蘇省から四川省まで広汎な分布域を形成する(図7、四川・沙坝墓地6号墓例参照)。つまり、楽浪墓の副葬鉄器生産に関しては、旧燕国の領域外—端的に言えば中国・長江流域—に生まれた技術が組み込ま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

また板状鉄斧の存在も重要である。板状鉄斧が燕の領域に起源があるものの、先述した第1段階までの韓国西海岸ではみられず、羅州・亀基村2号土壙墓例のように第2段階になって登場する。以後、第2段階における鉄器組成は、韓国式銅剣をともなって昌原・茶戸里墳墓群最古段階の嶺南地域でも出土するようになる。



図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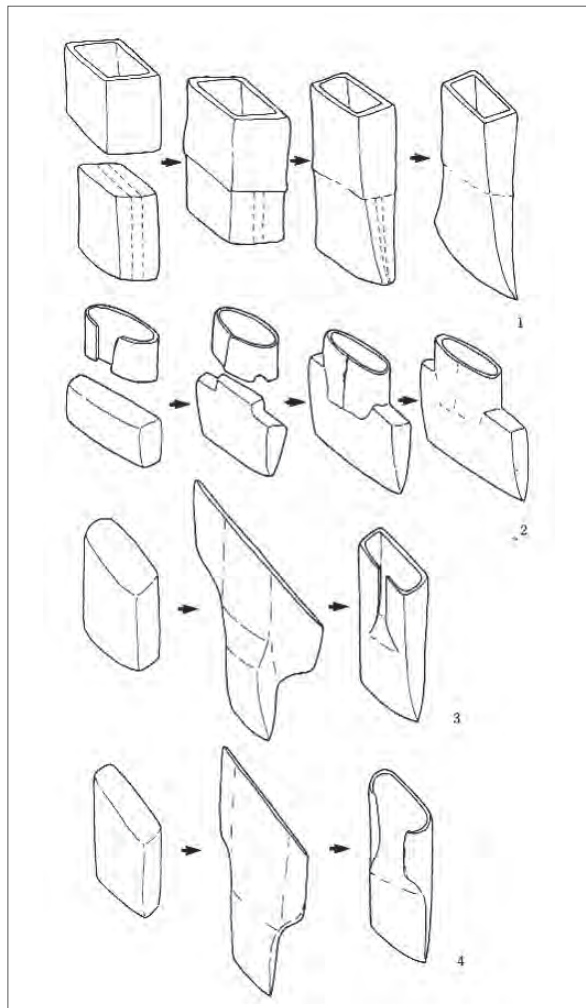


図8

### ③ 楽浪土城址出土鉄器

楽浪土城址から出土した鉄器は袋状斧、鉄鏝に鑄造・鍛造の双方がある以外すべて鍛造品である。そのうち、鑄造鉄斧、鍛造鉄斧、刀子、棒状鉄製品について説明したい(図9)。

鑄造鉄斧 片刃で、横断面形が梯形を呈する袋状斧に大小二種類があり、とくに注目したいのは全長10~12cm程度の小型品である(2、3)。金武重氏が「小型梯形斧」と呼んだものであり〔金武重2012〕、後述するように中島文化に多く見ら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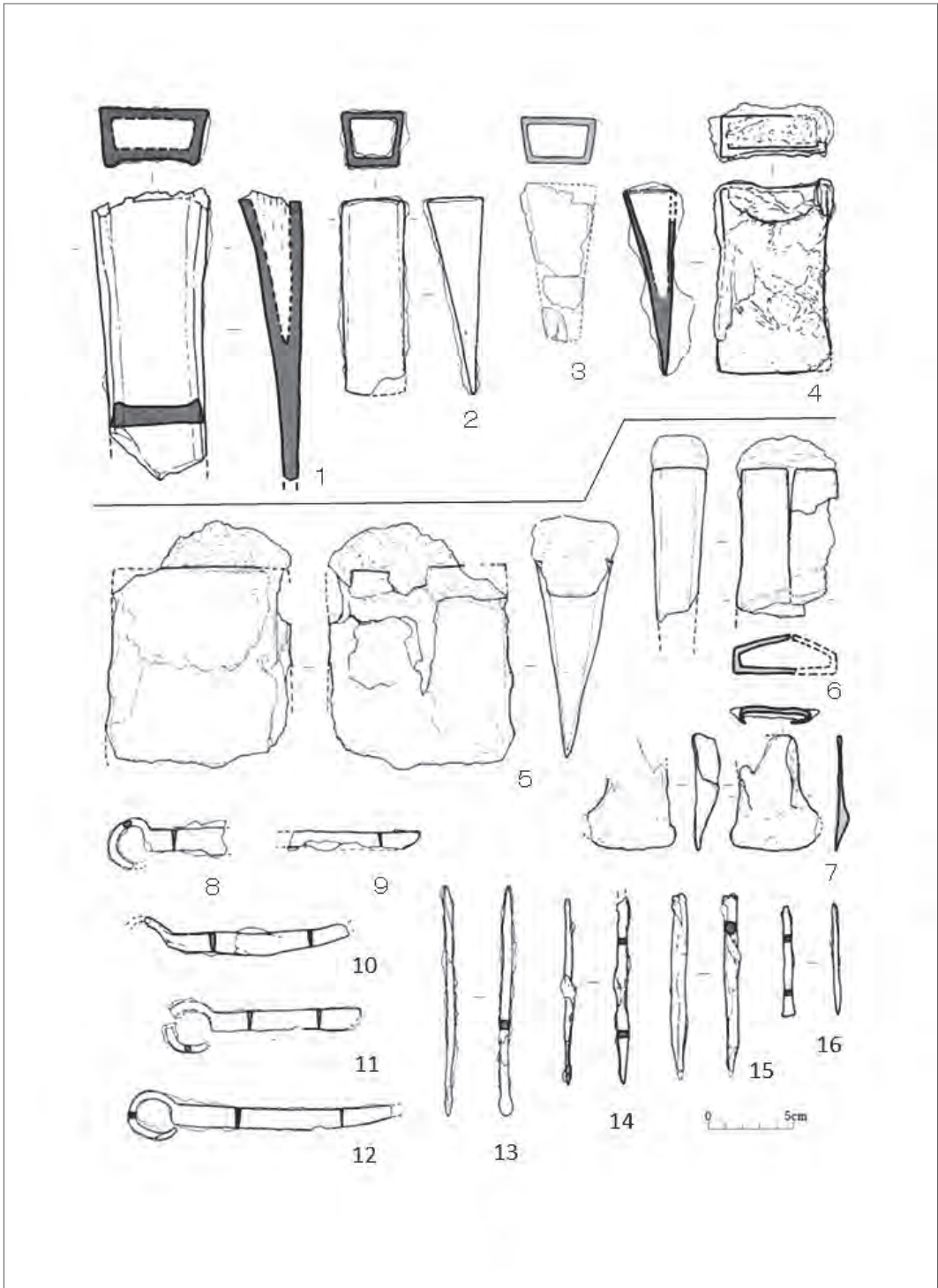


图 9

る鉄器である。加平・大成里遺跡A地区や春川・牛頭洞遺跡から出土した遺存状況が良好で、十分な表面観察が可能な小型梯形斧は摩耗による刃部変形が進行し、身部の稜線も朦朧としている。この特徴は、使用により刃部が摩耗する程度に炭素分が減じていること、稜線が朦朧となる程度に表面から脱炭層が剥落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つまり脱炭処理を経たことの証拠である。また金武重氏が咸鏡南道咸興の所羅里土城址出土品の一つをこの小型梯形鑄造鉄斧と評価した点は重要であり、所羅里土城址と楽浪土城址とを繋ぐラインが現状での分布の北限である。

鍛造鉄斧 全長14cmを測り、平面形が正方形に近い大型袋状斧（5）は袋部の合わせ目が確認できないほど丁寧に製作されているが別造りではない。刃部を欠損する中型の斧（6）は袋部の厚みを均等になるように鍛延されており、袋の合わせ目がほぼ密着するように作られている。小型の鉄斧（7）は刃部が広く、厚くなっている。袋内部は狭く、折り返しもわずかであったと考えられ、前二者に比較すると極端に簡単な作りとなっている。

刀子 柄を遺す刀子はすべて素環頭を有している（8～12）。

棒状鉄製品 横断面が方形を呈する細い鉄棒の先端を研いで細くしたり（14、15）、鍛延して刃部を設けている（13、16）。それぞれ錐や平刃・弧刃切削具の機能を有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 ④ 楽浪鉄器文化成立の背景

楽浪墳墓から出土する鉄製品のほとんどが鍛造品であることは鄭白雲氏がいち早く指摘しているが〔鄭1960〕、前漢代を迎えても旧燕国の領域が鑄造品を主体とすることを考慮するとその由来はきわめて重要な問題である。貫入的とさえ評価できるこの鍛造鉄器文化を中国の江南地域起源とする背景は別の観点からも検討が必要であろう。

その観点は樋口隆康氏による楽浪漢墓の成立に関する検討成果に求められる〔樋口1975、1983〕。樋口氏は楽浪木槨墳と中原地域を含む各地の前漢代の墓制とを比較し、江蘇省の木槨墓が最も類似性が高いことを突き止めた。また原田淑人氏が取りあげた後漢・桓帝の頃の王符が記した『潜夫論』を引用し、樋口氏は楽浪木槨墓の棺材が江南地方から運び込まれたものであると考えた。そして「楽浪古墳の被葬者たちが、華中・華南系の文化をうけつぎやすい所から来ていることを示すもの

であって、私はその本願の地を江蘇省を中心とし、琅邪、東海などの諸郡からきたもの」と結論づけた。

漢系官人の楽浪郡への派遣が該地における行政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疑うべくもないが、それにともなって彼らが使用する調度品の生産・供給体制も移入されたことは十分に想定される。そのなかに鍛冶(鍛造鉄器生産)集団が含まれ、官人層に供給する鉄器や生活のさまざまな場面で消費される日用鉄器を生産す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さらにはそれ以前から存在した鑄造鉄器も、より実用性を高めたものへと改良され、楽浪地域全体としては鍛造鉄器と鑄造鉄器からなる新たな鉄器組成を形成してい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 3 燕系鉄器から楽浪系鉄器へ

戦国時代後期における燕国鑄造鉄器群をモデルに生産された燕系鑄造鉄器は、やや不合理な合わせ方の鑄型で製作され、元来備わっていた効果的な脱炭技術を欠落していた。したがって実用場面における機能性については十分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この燕系鉄器に鍛造品が含まれていた可能性は、燕国産鉄器に鉋や素環頭刀子が含まれていることから想定できるが、現状では資料的な限界があり、今後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る。

これが楽浪系鉄器段階になると、鑄造鉄器のみでなく、鍛造鉄器が増加し、その器種も豊富になることがわかった。しかも小型梯形斧が示すように鑄造後の脱炭を経て、機能性を高めていた。鋼化し、機能性を高めた鑄造鉄器を使用できる段階を迎えていた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一言で楽浪系鉄器と表現したものの、実際には楽浪墓に見る鉄器の様相と楽浪土城址に見る鉄器の様相が必ずしも同じではない点は、その背景も含め一層の検討を要する。この現象は、鉄器の供給目的に応じて、生産体制が異なっていたことが最大の原因であろう。すなわち高度な鍛造技術で製作された楽浪墓副葬鉄器群は楽浪地域の高い階層に供給され、機能性を高めた鑄造鉄器や多様な鍛造鉄器を併せもった楽浪土城址出土鉄器は城内のさまざまな生活場面で使用すべく広く供給された可能性が想定されよう。

## 3

### 中島文化における鉄器の受容と展開

#### ① 中島式土器以前の段階

中島式土器の成立前段階における鉄器群は加平・大成里遺跡B地区が代表的である(図10)〔金武重2012〕。鑄造鉄斧は大型片刃鉄斧であり(1~13)、先述の燕系鉄器の特徴をもっている。鑄造鉄器には縁辺に隆線を有する鉄板もあり(18~22、29)、それらは平面形が長い梯形を呈する鋤(31、32)に復元できる。鎌状鉄器(23、24)、棒状鉄器(25~27)のような鍛造鉄器も共伴しており、わずかではあるが小型鍛造品の利用も無視はできない。また鑄造鉄器片を物理的に加工して再利用した痕跡も指摘されている。

#### ② 中島式土器成立以降

##### ① 代表的な鉄器群

中島式土器の成立と鉄器普及の画期との連動性については明解な説明はできない。しかし中島式土器成立以降、大成里遺跡B地区を典型とする段階の様相が大きく変化し、鉄器の系譜と器種の多様化、在来鉄器生産が顕著となる。ここで漢江流域の大成里遺跡A地区、嶺西地域の春川・牛頭洞遺跡から出土した鉄器を例に挙げて検討したい(図11)。

鑄造鉄斧 まず両者に共通するのは小型梯形鑄造鉄斧(16、17、32、33)と鉞形二条突帯斧(1、2、18、19)の存在である。前者は脱炭を経ており、刃部の変形が実用の痕跡をよく表している。ただし、この小型梯形斧は工具、農具のいずれとも想定され、機能の限定が困難である。その分布域は漢江流域中流域から嶺東まで及んでいる。また北限は西が樂浪土城址、東が所羅里土城址である点は上述の通りである。

後者の鉞形二条突帯斧は後漢代以降、漢領域における各地の鉄官で生産され、東北地域では吉林省、そして遠くはロシア・アムール川流域のポリツェ遺跡まで波及している〔村上1988、1992、1994〕。小型梯形斧とは異なり、漢の領域で生産され、中島文化の分布域にもたらされた鉄器である。鉄斧の使用法に関して注目され



圖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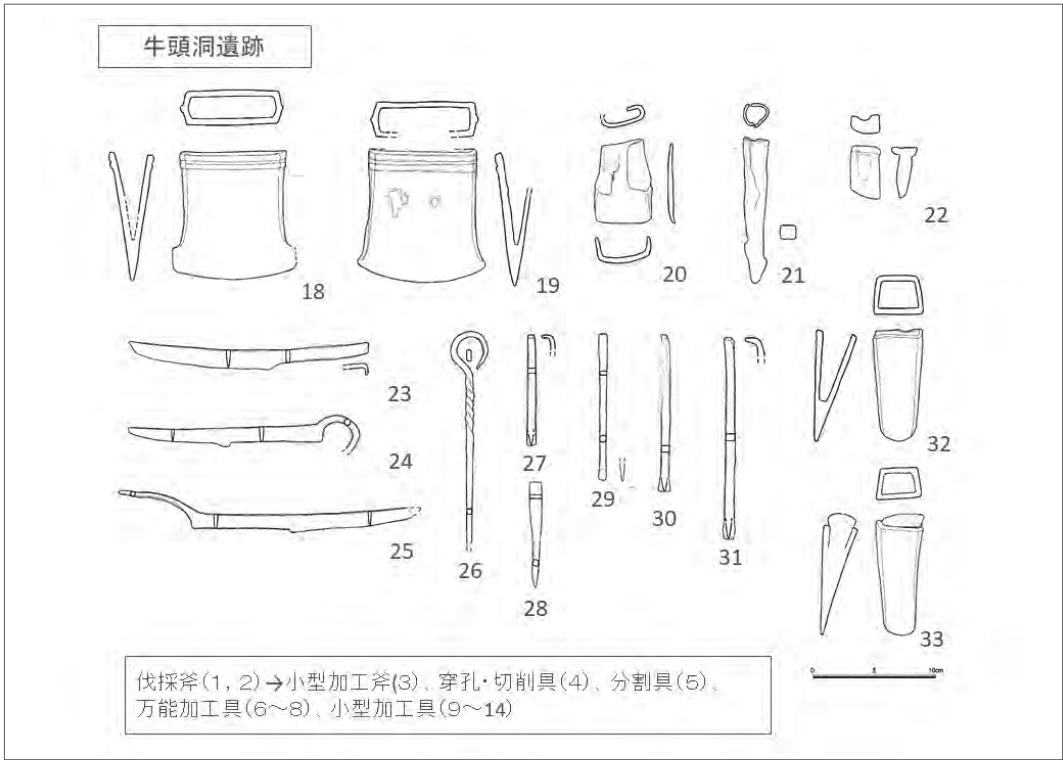
るのは、刃部の両端を鍛打により反りをもたせ、丸鑿状の刃をもつ手斧（横斧）に仕上げられている例である（2）。これは鑄造後の脱炭により、刃部が軟化していることを熟知していなければできない改造である。当然、完形例（1、18、19）は伐採斧（縦斧）として機能していたであろう。その分布域は金浦・陽谷里遺跡が西端、江陵・橋項里遺跡、東海・松亭洞遺跡が東端にあり、中島文化と重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金武重2012〕。嶺南地方の陝川・苧浦里、咸安・末山里、金海・大成洞例や済州島・龍潭洞例がすべて副葬品であることからすると、中島文化における二条凸帯斧の性格は対照的である。なおこの鉄斧の破片は鍛造や研磨による再加工の痕跡が指摘されており、脱炭処理を経た鑄造鉄器が溶融が困難であるという特質が理解されていたために、物理的な改変を行って使用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

鍛造鉄斧（3～5、20）鍛造鉄斧は楽浪墓を特徴付ける別造りの斧や重厚な斧はみられず、簡単な技術（図8-4）で製作されている。ただし、刃縁に反りをもたせて丸鑿状に仕上げた例があり（3、4、20）、平刃の鉄斧（5）とは異なった機能が与えられている。中島文化の袋状鉄斧は大成洞遺跡A地区、牛頭洞遺跡出土品に限らず、簡単な技術で製作した例が多く（図12）、その形態や刃部の厚みに多様性があり、このことは在地生産品であることを暗示している。

鑿・鑿 鍛造袋状鑿（6、21）は穿孔、切削用工具であるが、大成里遺跡A地区出土の大型鑿（6）は柄切り用として十分な機能を備えていたであろう。東海・松亭洞遺跡にも類例がある。鑿（7、22）は切断具であり、頭部には打撃を受けてできたつぶれを顕著に残している。

刀子 鍛造の刀子には有茎刀子（9～11）と素環頭刀子（24、25）がある。有茎刀子は茎部末端をわずかに折り曲げており、小型品は曲げない例が多い。素環頭刀子は牛頭洞遺跡以外にも新梅里遺跡でも出土例があり、春川に多いという傾向がある。牛頭洞遺跡では茎端部を細く鍛延する過程や丸く折り曲げる直前の段階（25）を示す素環頭刀子の未製品が多く出土しており、金武重氏が指摘したように在地生産の重要な証左である〔金武重2018〕。

鉈状鉄器 大成里遺跡A地区では、断面三角形の薄い刃部を強く折り曲げた鍛造の鉈状鉄器が集中的に出土している。刃部と身部の幅・厚みに大きな差がない型式と刃部と細い茎部からなる型式（8）がある。韓半島の他地域で見られる鉈（図10-35、36）とは形態が異なっており、鉈が変容したものなのか、機能が特化した結果



☒ 11



各種 鍛造 農工具의 分布와 地域性

1. 加平 項沙里 가 10號 2. 加平 項沙里 나 9號 3. 南楊州 長峴里 80號 4. 加平 大成里 14號
5. 加平 大成里 25號, 6. 仁川 中山洞 11地區 2號 墓, 7. 仁川 雲南洞 A區, 8. 仁川 雲南洞 B區
9. 始興 烏耳島, 10. 水原 西屯洞 2號, 11. 原州 加峴洞 25號, 12. 堤川 陽坪里, 13. 堤川 桃花里 積石墳丘墓, 14. 丹陽 垂陽介, 15. 寧越 八槐里, 16. 東海 松亭地區 住宅敷地, 17. 東海 松亭洞 II-4號
18. 東海 望祥洞 4號, 19. 東海 望祥洞 18號, 20. 洪川 下花溪里 6號, 21. 春川 牛頭洞 3號, 22. 加平 蓮田里

圖 12

生まれた器種なのか不明である。

棒状鉄器 鍛造品であり、横断面が方形を呈する細い鉄棒の先端を研いで細くしたり（12、28）、鍛延して刃部を設け、平刃の切削具となっている（13～15、27、29～31）。

### 3 中島文化の機能分化した鉄器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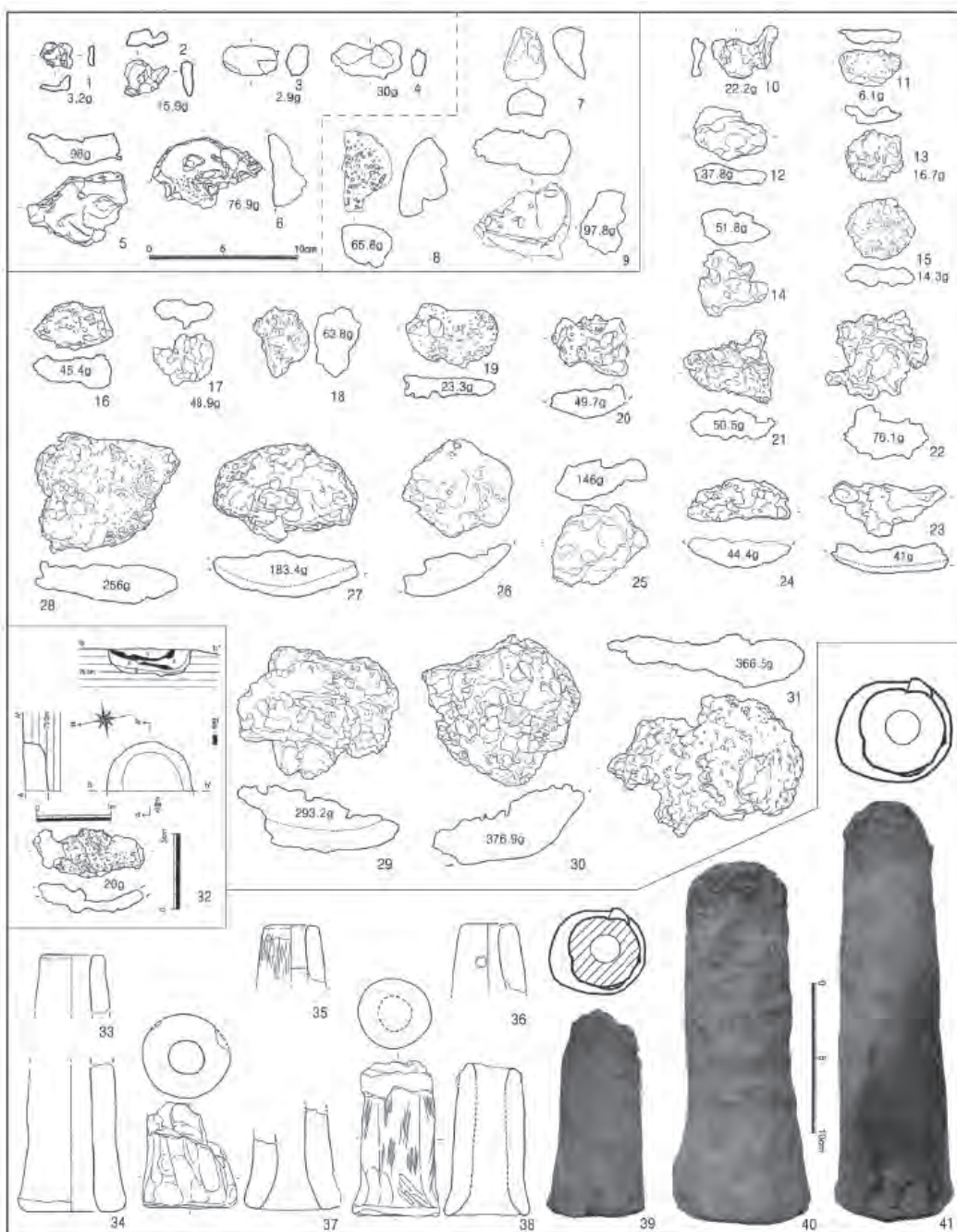
以上の検討を通じて、中島文化の鉄器群が鑄造品と鍛造品からなり、機能分化の進行が顕著であることを認めることとなった。例示した大成里遺跡A地区と牛頭洞遺跡の鉄器が木工具であるとすれば、木の伐採、分割、製材、加工、細部加工といったすべての工程に対応する機能を有していた。また刀子は万能工具であり、木工に限らず生活の多様な場面において使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本稿で論及しなかった農具も鍛造U字形鋤・鋤先、鑄造字形鋤・鋤先、鎌と農耕の各工程に対応する器種が完備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中島文化におけるあらゆる生活の場面に鉄が浸透していたことを理解できよう。

### 4 鉄器生産をめぐって

中島文化における鉄器生産には今のところ鑄造は認められないので、鑄造鉄器は外部に依存し、交易品として入手せざるを得なかった。したがって中島文化の主たる鉄器生産は鍛造であった。そのことを示すように各地で鍛冶炉が検出され、鞆羽口、鉄滓、鍛造剥片、粒状滓や未製品などの鉄器生産関連遺物が豊富に存在する〔金2012、2018〕

春川・牛頭洞遺跡では鉄器製作の工程を示す未製品が数多く発見された。なかでも重要な資料が素環頭刀子の未製品（図11-25）であり、細く鍛延した柄尻を曲げる直前段階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な小型鉄器の場合、鍛延し、折り曲げて造形するような工程では鍛造剥片、粒状滓、鍛冶滓などはほとんど発生しない。鍛造剥片に関して厳密に言えば、発生するものの薄く軽いため鉄器に付着したままか、あるいはその後、土中で溶けて遺存しないかのいずれかである。したがって、こういった副産物を生成しない鍛冶の最終工程が確実に存在した。そしていわゆる椀形滓（図13：14～31）を生成するような工程があり、この段階には薄く





椀形滓わ 小口径送风管

[加平 大成里(京畿)(1. 14號, 2・6. 19號, 3・4. 25號, 5. 8號), 加平 大成里(겨레)(7. 10號, 8・9. 4號), 春川 牛頭洞(漢江)(10・28. 43號, 11・18. 42號, 12・26・30・33・35・36. 45號, 13・29. 44號, 14・15. 30號, 16・23. 205號, 17・27. 50號, 19. 84號, 20. 19號, 21・22. 48號, 32. 120號, 24・34. 124號, 25. 46號, 27. 50號, 31. 133號), 37・38. 哲亭A-3號, 達川 三巨里(39. 11號, 40. 15號, 41. 2號)]

図 13



ても土中で遺存する程度の鍛造剥片がともなっていたはずである。また還元し、表面がガラス化した炉底も発見されており、さらに高温で操業された鍛冶炉の残骸と判断できる資料もある。鍛造剥片はその検出が容易ではないことから遺漏される可能性もあるが、鉄滓や炉底については考古学的な観察でも鍛冶工程との対応が十分に検討可能である。その検討によって牛頭洞遺跡では少なくとも3工程の鉄器生産が確認できた。小型鉄滓を伴う竪穴遺構内での鉄器生産址は確実にあったことが判明しているため、高温操業の炉を備えた鍛冶工房の形態が今後の課題となろう。この点については漣川・三串里遺跡や東海・望祥洞遺跡など、確実に認定された鍛冶炉を基準に、鍛冶工程と副産物との対応関係を把握しておくことが肝要と考える。

さて中島文化圏においては鉄器の生産・流通に関して域内関係と域外関係が議論されるようになった。域内関係の例としては、漣川・三串里遺跡が臨津江流域において鍛冶集落様相を呈し、拠点的に鉄器を生産し、周辺集落に供給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金2012〕。嶺西では牛頭洞遺跡が、嶺東では東海・望祥洞遺跡遺跡などが拠点的な鉄器生産集落となるのであろう。同時にいずれの地域にも小規模な鍛冶の痕跡が認められるため、鉄素材を獲得して自家消費的な鉄器生産も行われていたとみられる。こうなると鉄素材の供給が中島文化にとってきわめて重要な問題となってくる。中島文化圏で製鉄炉は発見されておらず、鉄素材は域外関係の構築なくして獲得できなかった。

中島文化の荷担者が濊であったことは一般的な理解となっている。その濊と鉄との関係が中国の正史、『三国志』魏書東夷伝弁辰条に描出されていることはあまりにも有名である。「国出鉄韓濊倭皆從取之諸市買皆用鉄如中国用錢又以供給二郡」。この一文は、「(弁辰) 国は鉄を産し、韓・濊・倭はそれぞれここから鉄を手に入れている。物の交易にはすべて鉄を用いて、ちょうど中国で錢を用いるようであり、またその鉄を楽浪と帯方の二郡にも供給している」と訳されている〔今鷹・小南訳1993〕。濊、すなわち中島文化の人々が南の弁辰から鉄を入手していたと解釈できるのである。

弁辰における製鉄の痕跡は、慶州・隍城洞遺跡で判明しており、製鉄から鑄造・鍛冶にいたる一連の工程が確認されている〔金権一2009〕。ここで生産され、濊が獲得した鉄はいかなる性質をもっていたのであろうか？そもそも韓国の製鉄炉は、

1 基の製鉄炉で銑鉄と鋼双方の生産が可能であった。製鉄操業前半には、炉壁の浸食が進行していないため、炉内は狭く、高温を維持できるために銑鉄ができる環境を維持し、炉外に銑鉄を流出させる。そして操業後半には炉内が浸食により拡大するため温度が低下し、直接鋼が炉内に形成され、流出しきれなかった銑鉄と一緒に操業後炉を壊して取り出される。炉外に流出した銑鉄は鑄造炉（溶解炉）に投入されたのちに鑄型に注がれ鑄造鉄器となるだけでなく、炒鋼炉（図14）に投入して脱炭されて鋼化し、鍛造鉄器の素材ともなる。つまり間接製法の鋼素材である。一方、操業後、炉から取り出された鋼は小割してそのまま鍛冶の素材となり、銑鉄は鑄造炉や炒鋼炉に投入され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濊が入手した弁辰産鉄とは、一つは炒鋼炉



図 14

で脱炭された間接製法の鋼であり、もう一つは製鉄炉内で直接生成された鋼であった。前者であれば、鍛冶操業時に鉄滓はほとんど生成しない。一方、直接製鋼の鋼は、表面に付着した製錬滓を除去した形で弁辰から入手した物であれば、鍛冶工房で生成する鉄滓は少なかったはずである。しかしながら中島文化の鍛冶工房で実際に出土する鉄滓は相当量であるため、小割した鉄塊には多くの鉄滓が付着していたと推測できる。

ただし、中島文化で消費される鉄は弁辰産のみとは限定できな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金武重氏の指摘によれば、3世紀以降になると忠州を中心とした南漢江上流域との交易関係が顕著になるという〔金武重2012〕。三国時代に向けてますます鉄の自己消費が進む嶺南地域から、内陸の大鉄産地に交易相手を切り替えようとする濊社会の意図が読みとられる。交易相手が忠州に変わったことによって生じる鉄器や鉄器生産の変化も今後の検討課題となろう。

## 4

### 結語

本稿では、中国東北部からロシア極東地方にかけての初期鉄器文化までを視野にいれ、中島文化における鉄器の系譜、特質、生産について検討した。その結果、中島文化はその前段階に燕系鑄造鉄器を導入し、中島文化の段階以降は楽浪地域あるいは所羅里土城址のある咸興地域との域外関係で楽浪系あるいは漢系鑄造鉄器を受容したことを確認した。また楽浪土城址と多くの接点をもつ鍛造鉄器類については製品を受容するだけでなく、中島文化圏内で生産し、自給していることも豊富な鍛冶資料に基づいて理解できた。その結果、中島文化は器種が多様に分化した、鑄造品と鍛造品からなる鉄器組成を生み出し、鉄が十分に浸透した社会を実現したと解釈した。また鉄器生産については、操業の特質を明らかにし、鉄産地である弁辰地域からの鉄素材供給についても具体的に論じた。

中島文化における鉄器の様相を検討して痛切に感ずるのは、これまでの韓半島における鉄器研究との異質性である。初期鉄器時代、原三国時代の鉄器研究といえば、ほとんど副葬品を対象としてきた。墓の被葬者に添えられた副葬品から、人や社会の現世を深く理解することはきわめて困難である。しかし中島文化の鉄はそういった認識からしばし解放してくれた。北韓における鉄関連資料の限界性、韓国南部における集落出土鉄器の稀少性という現状が急激には変化することはないであろう。中島式土器をともなう鉄器文化は韓半島における社会と鉄の実質的な関係を顕示しており、両者の関係モデルを唯一構築可能としている。今後、この地域でしかできない研究をさらに深化させることはきわめて有意義であり、その発展が大いに期待される。

本稿を擲筆するに際し、金武重先生と金尚泰先生の学恩に衷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 文献

- 今鷹真・小南一郎訳（陳寿著）1993『正史 三国志4 魏書IV』
- 韓国考古学会編2010『概説 韓国考古学』
- 漢江文化財研究院2017『春川牛頭洞遺蹟』遺跡調査報告66
- 金権一2009「慶州隍城洞遺跡製鉄文化に対する研究」『嶺南文化財研究』22、嶺南文化財研究院
- 金武重2012「原三国時代の鉄器生産と流通」『一般社団法人日本考古学協会2012年度福岡大会研究発表資料集』日本考古学協会2012年度福岡大会実行委員会
- 金武重2017「韓半島中部地域初期鉄器～原三国時代鉄器生産～北漢江流域を中心に～」『2017年度中部考古学会学術大会』
- 金武重2018「韓半島中部地域初期鉄器～原三国時代鉄器生産～北漢江流域を中心として～」『土器・金属器の日韓交渉』
- 京畿文化財研究院2009『加平大成里遺蹟』学術調査報告103
- 湖南文化財研究院2005『完州葛洞遺蹟』
- 湖南文化財研究院2009『完州葛洞遺蹟（II）』湖南文化財研究院学術調査報告116
- 黄基徳1975「茂山虎谷遺跡発掘報告」『考古民俗論文集』6
- 庄田慎也・山本孝文訳（武末純一監修）2013『概説 韓国考古学』
- 鄭仁盛2007「楽浪土城の鉄器」『東アジアにおける楽浪土城出土品の位置づけ』平成17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研究代表者：早乙女雅博
- 鄭仁盛2013「衛満朝鮮の鉄器文化」『白山學報』96
- 鄭白雲（朴文国訳）1960「朝鮮における鉄器使用の開始」『朝鮮学報』17
- 樋口隆康1975「楽浪文化の源流」『歴史と人物』9（『展望アジアの考古学－樋口隆康教授退官記念論集－』1983に再録）
- 村上恭通1987「東北アジアの初期鉄器時代」『古代文化』39-9
- 村上恭通1988「東アジアの二種の鑄造鉄斧をめぐって」『たたら研究』29
- 村上恭通1992a「ポリツェ文化について」『平井尚志先生古稀記念考古学論攷』
- 村上恭通1992b「朝鮮半島の副葬鉄斧について」『信濃』44-4
- 村上恭通1994「ロシア極東初期鉄器文化における外来系文物－クロウノフカ文化・ポリツェ文化について－」『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史学>』119
- 村上恭通2000「団結文化と滾克嶺文化」『東夷世界の考古学』
- 村上恭通2003「黄海をめぐる鉄技術・文化の展開－戦国時代の燕、朝鮮半島の三韓・三国時代を中心に－」『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学 III 交流と交易』
- 村上恭通2007a『古代国家成立過程と鉄器生産』
- 村上恭通2007b「楽浪土城の鉄製品」『東アジアにおける楽浪土城出土品の位置づけ』平成17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研究代表者：早乙女雅博
- 村上恭通2010「北東アジアの初期鉄器文化」『北東アジアの歴史と文化』北海道大学出版会
- 村上恭通2011「中国における燕国鉄器の特質と周辺地域への展開」『愛媛大学東アジア古代鉄文化研究センター第4回国際シンポジウム 戦国燕系鉄器の特質と韓半島の初期鉄器文化』
- 村上恭通2017「鑄造鉄斧」『ものと技術の古代史 金属編』

## 中島文化 鐵器의 特質과 그 系譜

무라카미 야쓰유키(村上恭通, 애히메대학)  
번역 | 정종호(애히메대학 석사과정)

### Contents

1. 머리말 - 중도식토기에 공반하는 철기문화와 그 주변 -
2. 燕系 철기와 樂浪系 철기
3. 중도문화에 대한 철기 수용과 전개
4. 결론



# 1

## 머리말

- 중도식토기에 공반하는 철기문화와 그 주변 -

### 1 한반도 중부지역의 철기문화

한반도의 중부지역, 즉 한강유역, 영서, 영동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가 증가한 결과, 원삼국시대 병행기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촉진되었다. 그 성과를 받아서 최근 김무중씨 등의 연구가 이 지역에 있어서 철기문화의 내용을 빠르게 밝히고 있다(김무중 2012, 2017, 2018 등). 이 철기문화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유적을 지표로 하는 중도식토기 문화권(이하, 중도문화)과 겹쳐지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북부와 동북쪽 경계에 퍼진 이 문화권은 흡사 하천과 해안을 따라 형성된 것 같지만, 보기에 따라 광범하게 면적으로 형성된 문화의 일부 혹은 주변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컨대 이 지역의 북쪽에도 중도식토기와 유사한 문화나 그에 동반하는 철기문화가 확산하였으며, 그 남쪽 경계의 현상을 한강유역·동해안지역의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고고학적인 현상이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검토를 저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도식토기와 동반하는 철기문화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병행기 철기문화의 범위와 그 단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2 한반도의 초기철기 보급과 서해안

한국에 있어서 최고 단계의 철기는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가듯이 출토하고 있으며, 신식의 한국식동검과 다뉴세문경과 공반되고 있다. 그것들 모두가 부장품이라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실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며, 포괄적으로 기원전 3세기 말엽부터 기원전 2세기 전엽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 단계의 철기는 주조철기가 주체이며, 편인 형태의 대형철부(중국에서는 鑊), 그리고 끝(鑿), 낫(鎌)이 있다. 이것을 제1단계의 철기군이라 부르고, 다음의 단계에 낫(鎌)이 빠지면서 주조철부 혹은 단조의 소환두도자 혹은 鈹를 동반하는 단계가 설정된다.

그 다음으로 나주시 덕곡리 구기촌 2호묘로 대표되는 것처럼 矛, 鍛造有鑿鐵斧, 觀象鋤  
 部, 鉏 등으로 이루어진 단조철기를 주체로 하는 제2단계이다. 관상철부가 연의 영역에 기  
 원이 있을 뿐, 앞서 기술한 제1단계까지 서해안에서는 보이지 않고 제2단계에 이르러 등장  
 한다. 이후 제2단계의 철기 구성은 한국식동검을 동반하는 창원 다호리분묘군 최고 단계와  
 같이 영남지역에서도 출토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에서 초기철기의 보급은 부장품에 의해 언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었다. 그후 철기조성의 연속적인 변화는 서해안 그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제2단계 이  
 후는 내륙을 통과하였는가, 남해안을 따라 갔는가 단정할 수 없을 뿐, 영남지역에 이르렀다  
 고 생각된다. 이 경로는 즉, 한국청동기의 주된 분포 지역이다. 『개설 한국고고학(개정신판  
 한국고고학강의의 일본어판)』(한국고고학회편 2010, 庄田·山本역 2013)에 제시된 다뉴세  
 문경의 분포도(도 1)에서 점의 농도가 한반도 서북지역에 유래하는 철기의 통로를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 3 한반도 동북부~러시아 극동의 상황

『개설 한국고고학』에는 초기철기시대 한반도의 전체가 대략 남성리-초포리유형에 포섭  
 되며, 그 북방에 서쪽부터 세죽리-연화보유형, 대해맹-포자연유형, 단결-크로우노프카유형  
 이 분포하고 있다(도 2, 3). 중도식토기가 동해안 연안에 확산되는 점에서 지도에는 공백지  
 대로 되어 있는 북한 동북부와 단결-크로우노프카유형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둘 필요  
 가 있다. 사실, 중도식문화 특유의 「凸」자형 또는 「呂」자형의 수혈주거의 계보를 단결-크  
 로우노프카유형에 구하려는 견해도 있다(한국고고학회편 2010, 庄田·山本역 2013). 단결-  
 크로우노프카문화는 중국·흑룡강성의 단결유적, 러시아 극동지방의 크로우노프카유적을  
 표지로 하는 문화이며, 전한대~후한대에 병행한다. 철기화의 단계를 나타내는 자료에 대  
 해서는 오히려 러시아 극동지방이 충실하다. 선행하는 안코프스키문화단계(전국시대~전  
 한대 병행)에는 주조철부와 그 재가공품이 주체이며(도 41~7), 크로우노프카문화가 되면  
 그것에 검, 鉏 등 한민족계의 단조품을 재가공한 철기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동  
 8~15)(村上 1987, 1994, 2010). 유공의 무경삼각형촉 등은 재지에서의 단조철기생산을 상  
 정시키지만 철기 생산 규모는 극히 한정적이며, 한대 철기의 재가공품을 주체로서 구성되  
 어 있었다.

이 문화의 남쪽 경계는 북한 동북부 근처, 두만강유역의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유적이 중

요하다. 호곡동유적 제6문화층의 토기군은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철기는 크로우노프카문화 보다도 풍부하며, 주조철부 외에 굴지구인 주조삽날(鍤)과 단조 철검도 포함되어 있다(도 5)(村上 1987). 이것들은 전한대 이후에 중국동북지방에 보급되기 시작한 기종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주조철부이며, 공부 내측이 매우 깊고, 인부 근처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주조철부는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크로우노프카문화에 후속하는 빨체문화에도 보이는 점에서 한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보급된 연계 주조철기와는 다른 계통의 재래주조기술이 동북방면에도 전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철기는 전한사회의 동북방면에 있어서 활동범위의 확장이 가져다준 것이며 동으로, 북으로 나아감에 따라 그 물량도 감소하고, 기술 수준도 저하되어 갔다. 이 크로우노프카문화가 중도문화를 포함한 한반도 남방을 향해 영향을 주어 중도식토기를 동반하는 철기문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생각되지 않는다.

#### 4 중도식토기에 동반하는 철기문화의 계통성

이상과 같이 정리하면 중도식토기에 동반하는 철기문화의 기원과 전개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주장되고 있는 중국 전국시대의 燕國관련 거점 혹은 낙랑군이라는 한반도 서북부로부터의 영향을 상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다만 정인성씨의 논의에 있는 것처럼 낙랑군 설치를 엄밀한 철기보급의 획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시대 말기부터 낙랑군 설치의 사이에도 새로운 철기문화의 태동이 있었다는 평가는 중요하다(정인성 2013). 또한 정인성씨가 정리 보고한 낙랑토성지의 철제품은 한반도 서북부에 있어서 철기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특히 의의가 크다(정인성 2007,村上 2007b). 그중에서 보고된 모종의 주조철부 중 한 형식은 김무중씨에 의해 「소형주조제형철부」로 칭하며, 주지하는 것처럼 중도문화의 주류적인 철기의 한 종류로 확실히 이어졌다(김무중 2012). 게다가 각종 단조철기에 대해서도 유사성이 검토되었으며, 낙랑지역의 철기에 대한 이해가 중도문화 철기의 검토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다시 한번 연계철기, 낙랑지역 출토 철기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각 단계의 철기의 특질을 정리한 다음 중도식토기를 동반하는 철기문화의 전개와 철기 생산의 양상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 燕系 철기와 樂浪系 철기

#### 1 燕系 철기에 대하여

중국 전국시대의 철기에는 주조품과 단조품이 있고, 주조품의 소재는 주철(銑鐵), 단조품의 소재는 鋼과 선철을 탈탄하여 만들어진 주철탈탄강의 두 종류가 있다. 주조철기는 탄소량이 높은 부분, 단단하면서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실용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밀폐식의 노를 써서 장기간에 걸쳐서 탈탄하여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선철(주철)을 탈탄하여 강소재로 하여 그것을 단조한다는 기술도 있었으나, 그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鋼製の 강인한 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제철로 내에서 강을 생산하는 방법이 보다 고도의 유효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시대에 선철도 생산하고 鋼도 풍부하게 직접 생산한 지역은 長江中·下流域이며, 황하유역은 그 영향을 받아 鋼 생산을 개시하게 된다. 따라서 철기 전체의 양에 대하여 강인한 단조철기의 양이 접하는 비율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그렇다면, 燕國은 장검(長劍), 모(矛)같은 무기를 제외하고, 농공구류 대부분의 기종은 주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환두도자처럼 공구류조차 연국에서는 주조되고, 단조화는 전국시대 후반 이후였다.

전국시대 燕國產 철기 중 유존상태가 가장 좋은 자료는 평안북도 위연군 용연동유적 출토철제품이다. 그 중 대형편인철부(鏹)2점, 괭이(鍬), 호미(鋤), 낫(鎌), 石刀形鐵器가 주조철기이다. 이것들은 합범제이며, 거푸집의 한쪽만 음각을 새기고, 반대쪽은 음각하지 않은 단합범으로 주조되었다. 괭이, 호미처럼 휘어진 철제품은 한쪽의 용범에 약간의 음각과 양각이 새겨져 있다. 대형편인철부는 연국 특유의 횡단면이 사다리꼴(梯形)을 나타내며 유존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관찰소견이지만 표면은 거칠고, 인부에는 약간의 마모가 보이기 때문에 탈탄이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다. 당연한 것이지만 양측면에는 합범흔은 없다.

한편, 1990년 이후, 한국에서는 부여 합송리, 당진 소소리, 장수 남양리 등 서남부에서 한국식청동기군과 함께 주조철제품이 알려지게 되었다. 가장 많은 有鏹鐵斧는 편인 또는 편인 형태를 가지면서도, 단합범이 아닌 쌍합범인 점이 상정되었다(도 6). 이것은 가평 대성리유적 B지구에서 출토된 대형편인철부의 발견에 의해 더욱 확실해졌다(도 10-1~7). 동시에 유존상태가 양호한 대성리 B지구출토 철부는 稜線, 인부, 합범흔이 명확한 점에서도 연국 주조철부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표면을 탈탄, 연화해서 실용화된 주조철부는 단조박

편 같은 얇은 층이 표면에서 박리된다. 이때 거꾸집에 기인하는 突線과 합범흔은 날카로움과 뚜렷함을 잃고 점점 희미해진다. 또 인부의 마모도 뚜렷하게 남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후술하는 가평 대성리 A지구에서 출토된 소형주조제형부(도 11-16, 17, 32, 34)와 비교하면 일목요연하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주조대형편인철부에 대해서는 ① 쌍합범으로 주조된 점과 ② 주조 후 탈탄이 안됐거나 탈탄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은 燕國의 용범 사용법이 변용되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철기 출현 이전 청동부가 쌍합범으로 주조되었고, 주조철기가 한반도에 유입할 때 청동기 생산기술과 융합되었다고 추측된다. ②에 대해서는 연국의 영역으로부터 철기 생산기술이 유입할 때 탈탄 기술이 누락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주조철부의 출토량이 한국에 비해 극히 적은 북한의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후의 발견과 정보를 기대할 수 밖에 없지만, 한국 출토 주조철부와 연국 철기의 비교에서 확인되는 연계철기는 위와 같다(村上 2003, 2011, 2017).

## 2 낙랑계철기에 대해서

### ① 낙랑한묘, 토광묘와 낙랑토성지 출토철기

낙랑지역의 철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연구대상이 낙랑한묘 혹은 토광묘(이후 낙랑묘로 약칭) 출토 부장품으로 한정되었다. 낙랑묘 부장철기는 철부를 포함 대부분이 단조화되었고, 전국시대부터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용이하다. 동시에 낙랑군 설치 전후에는 옛 연국(舊燕國)영역에 철부의 단조화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그 현상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낙랑지역 출토 철기의 해석에 있어서 낙랑토성지 출토품의 연구 성과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다(정인성 2007). 유적의 성격상 출토유물의 시기 결정에 대하여 부장품만큼 엄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후속되는 시대의 철기 양상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분명하여 낙랑군시대의 산물로 평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낙랑계 철기를 낙랑묘과 낙랑토성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싶다.

### ② 낙랑묘출토 철기계보 - 단조철부를 중심으로 -

낙랑묘에서는 검(劍), 창(矛), 낫(鎌)과 함께 대소 2점의 鍛造有蓋鐵斧가 출토하며, 이 기본조성이 유지되면서 영남지방에 전해진 것이 지적되고 있다(村上 1992b). 낙랑묘 출토의



有鑿鐵斧는 단조품이라 하지만 태성리 6호 토광묘 출토품처럼 단점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공부, 인부 모두 무겁고 두텁다(도 7). 제작기술도 복잡하며, 공부와 인부를 따로 만들어 인부의 상단을 공부 하단에 끼우고, 삽입 부분을 치밀하게 두드려 마감하였다(도 8-1). 낙랑묘 출토품은 인부가 약간 벌어진 형태이며, 제작기법을 유지하면서 나주 구기촌 2호 토광묘 출토품과 같이 인부가 약간 좁아진다. 그리고 같은 구기촌 9호 토광묘 출토 예와 같이 공부 상단부에 돌기를 만들고, 그 부분을 둘러싸듯이 공부를 단점한 유견철부가 나타난다(도 8-2). 도끼의 형태 변화는 별도제작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도 기술적인 이완(弛緩)이 나타나고 있다.

낙랑묘에 부장이 시작되는 별도제작한 有鑿鐵斧는 앞서 말했듯이 주조기술이 희박한 화북, 동북지역에서 기원을 찾는 것은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지역에 기원을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보지로는 중국의 장강유역이다. 별도로 제작한 有鑿鐵斧는 장강(長江)중류역에서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하여 이후 전한대에 이르기까지 강소성에서 사천성까지의 광범위한 분포지역을 형성한다(도 7, 四川·沙垠墓地 6호묘 예 참고). 즉 낙랑묘의 부장철기생산에 관해서는 舊燕國의 영역 외 -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장강유역 - 에서 생겨난 기술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상철부의 존재도 중요하다. 관상철부는 연의 영역에 기원이 있지만, 앞서 기술한 제1단계까지 한국 서해안에서는 보이지 않고, 나주 구기촌 2호 토광묘처럼 제2단계가 되어서 등장한다. 이후, 제2단계의 철기구성은 한국식동검과 함께 창원 다호리분묘군 가장 오래된 단계인 영남지역에서도 출토하게 된다.

### ③ 낙랑토성지 출토철기

낙랑토성지에서 출토된 철기는 有鑿鐵斧, 철촉(鐵鏃)은 주조, 단조 모두 존재하며, 그 외에는 모두 단조품이다. 그 중 주조철부, 단조철부, 도자(刀子), 봉상철제품(棒狀鐵製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도 9).

주조철부 편인으로, 횡단면이 제형(梯形)을 나타내는 有鑿斧에는 대소 2종류가 있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길이 10~12cm 정도의 소형품이다(2, 3). 김무중씨가「소형제형부」라고 부르는 것으로(김무중 2012), 후술하는 것처럼 중도문화에 많이 보이는 철기이다. 가평 대성리유적 A지구와 춘천 우두동유적에서 출토된 잔존 상태가 양호하여 충분히 표면 관찰이 가능한 소형제형부는 마모에 의해 인부변형이 진행되고 신부의 능선도 희미하다. 이러한 특

징은 사용으로 인부가 마모될 정도로 탄소 양이 줄어든 점, 능선이 희미해질 정도로 표면에서 탈탄층이 박리된 것을 나타낸다. 즉, 탈탄처리를 거쳤다는 증거이다. 또한 김무중씨가 함경남도 함흥 소라리토성 출토품 중 한 점을 소형제형주조철부로 평가한 점은 중요하며, 소라리토성지와 낙랑토성지를 연결하는 라인이 현재 분포의 북쪽 경계가 된다.

단조철부 길이 14cm, 평면형이 정방형에 가까운 大型有蓋鐵斧(5)는 공부의 접합흔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제작되었으나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부가 결손된 중형의 철부(6)는 공부의 두께를 균등하게 단연(鍛延)되었으며, 공부의 합흔은 거의 밀착되도록 만들어졌다. 소형의 철부(7)는 인부가 넓고, 두꺼워져 있다. 공부 안쪽은 좁고, 구부린 부분도 미미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의 두 점과 비교하면 매우 간단하게 제작되었다.

도자 자루가 남아있는 도자는 모두 소환두이다(8~12).

봉상철제품 횡단면이 방형을 이루고, 가는 철봉의 선단을 마연해서 가늘게 만들거나(14, 15), 단연해서 인부를 갖추었다(13, 16). 각각 송곳이나 평인(平刃)·호인(弧刃) 절삭구(切削具)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④ 낙랑철기문화 성립의 배경

낙랑분묘에서 출토하는 철제품의 대부분이 단조품인 것은 정백운씨가 재빨리 지적하고 있으나(鄭 1960), 전한대가 되어서도 옛 연국의 영역이 주조품을 주체로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유래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관입적(사이에 끼어든)이라고 평가되는 이 단조철기문화를 중국의 강남기원이라 하는 배경은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 관점은 히구치 다카야쓰(樋口隆康)에 의한 낙랑한묘의 성립에 관한 검토 성과에 보여진다(樋口 1975, 1983). 히구치씨는 낙랑목곽분과 중원지역을 포함한 각지의 전한대의 묘제를 비교하고, 江蘇省의 목곽묘가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씨가 살피낸 후한 桓帝때 王符가 기록한 『潛夫論』을 인용하여 히구치씨는 낙랑목곽묘의 관제가 강남지방에서 운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낙랑고분의 피장자들이 華中·華南系의 문화를 이어받기 쉬운 곳에서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여 나는 그 본원의 땅을 강소성을 중심으로 한 琅邪, 東海 등의 諸郡에서 왔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漢系 관인의 낙랑군으로 파견이 해당지역에 있어서 행정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은 의심할 바 없으나, 그에 수반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사용도구(調度品)의 생산·공급체제도 이입되었던 것은 충분히 상정된다. 그중에 단야(단조철기생산)집단이 포함되어 관인층에 공

급하는 철기나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 소비되는 일용철기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그 이전부터 존재한 주조철기도 보다 실용성을 높은 것으로 개량되어, 낙랑지역 전체로서는 단조철기와 주조철기가 얹힌 새로운 철기조성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 3 연계 철기에서 낙랑계 철기로

전국시대 후기에 있어서 燕國 주조철기군을 모델로 생산된 燕系 주조철기는 약간 불합리한 거푸집의 결합방법으로 제작되었고, 원래 갖추고 있던 효과적인 탈탄 기술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기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연계철기에 단조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연국산철기 鈹와 소환두도자가 포함된 점에서도 상정되지만, 현재로선 자료적 한계가 있어 앞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이다.

이것이 낙랑계철기 단계가 되면 주조철기뿐만 아니라, 단조철기가 증가하고, 기종도 풍부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소형제형철부가 보여주듯 주조 후 탈탄을 거쳐 기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鋼化하고 기능성을 높인 주조철기를 사용되는 단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낙랑계 철기라고 표현했을뿐, 실제로는 낙랑묘에서 보이는 철기의 양상과 낙랑토성지에서 보이는 철기양상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점은 그 배경을 포함해 더욱 검토를 요한다. 이 현상은 철기의 공급목적에 따라서 생산체제가 달랐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즉, 고도의 단조기술로 제작된 낙랑묘 부장철기군은 낙랑지역의 높은 계층에 공급되었고, 기능성을 높인 주조철기와 다양한 단조철기를 겸비한 낙랑토성지 출토철기는 성내의 다양한 생활장면에서 사용되도록 널리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 3

### 중도문화에 대한 철기 수용과 전개

#### 1 중도식토기 이전 단계

중도식토기의 성립 이전단계에 대한 철기군은 가평 대성리유적 B지구가 대표적이다(도 10)(김무중 2012). 주조철부는 대형편인철부이며(1~3), 앞서 기술한 연계철기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주조철기에는 가장자리에 융선을 가진 철판도 있고(18~22, 29), 그것들은 평면 형이 긴 제형을 나타내는 호미(鋤)(31, 32)로 복원할 수 있다. 낫모양(鎌狀) 철기(23, 24), 봉상철기(25~27)와 같은 단조철기도 공반되고 있어, 조금이지만 소형단조품의 이용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주조철기편을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재이용한 흔적도 지적되고 있다.

## 2 중도식토기 성립 이후

### ① 대표적인 철기군

중도식토기의 성립과 철기보급의 획기와의 연동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도식토기 성립 이후, 대성리유적 B지구를 전형으로 한 단계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철기의 계보와 기종의 다양화, 재래의 철기생산이 현저해진다. 한강유역의 대성리유적 A지구, 영서지역의 춘천 우두동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예로 들어 검토하고자 한다(도 11).

주조철부 먼저 양자에 공통하는 것은 소형제형주조철부(16, 17, 32, 33)와 월형이조돌대부(鉞形二條突帶斧)(1, 2, 18, 19)의 존재이다. 전자는 탈탄을 거쳤으며, 인부의 변형이 실용의 흔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단, 이 소형제형부는 공구, 농기구로 모두 상정되어, 기능의 한정이 곤란하다. 그 분포지역은 한강유역 중류역에서 영동까지 미치고 있다. 또한 북쪽 한계는 서쪽의 낙랑토성지, 동쪽의 소라리토성지라는 점은 위에서 서술한 바 있다.

후자인 월형이조돌대부는 후한대(後漢代)이후, 한(漢)영역 각지의 철판에서 생산되어, 동북지역은 길림성, 그리고 멀게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인 빨체유적까지 파급되었다(村上 1988, 1992). 소형제형철부와는 달리 한나라 영역에서 생산되어 중도문화의 분포지역으로 가져온 철기이다. 철부의 사용법에 관하여 주목되는 것은 인부의 양단을 단타(鍛打)에 의해 구부리고, 둥근 끝모양의 날을 가진 손도끼(手斧, 橫斧)로 마감한 예이다(2).

이는 주조 후 탈탄에 의해, 인부가 연화(軟化)되고 있음을 숙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개조이다. 당연히 완형 예(1, 18, 19)는 벌채도끼(伐採斧, 縱斧)로 기능했을 것이다. 분포 지역은 김포 양곡리유적이 서쪽 끝, 강릉 교항리, 동해 송정동유적이 동쪽 끝이며, 중도문화와 겹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무중 2012). 영남지방의 합천 저포리, 함안 말산리, 김해 대성동 예와 제주도 용담동 예가 모두 부장품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도문화에 있어서 이조돌대부의 성격은 대조적이다. 또한, 철부 파편은 단조나 연마를 통한 재가공 흔적이 지적되었고, 탈탄처리를 거친 주조철기가 용융이 어렵다는 특질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개변을 통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조철부(3~5, 20) 단조철부는 낙랑묘를 특징지우는 별도제작 철부나 두께가 있는 철부는 보이지 않고 간단한 기술(그림 8-4)로 제작되었다. 단, 날 끝을 구부려 둥글게 만든 예가 있으며(3, 4, 20), 평인철부(平刃鐵斧)(5)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도문화의 有鏃鐵斧는 대성리유적 A지구, 우두동유적 출토품에 한정되지 않고 간단한 기술로 제작한 예가 많으며(그림 12), 형태나 인(刃) 부분의 두께가 다양성이 있어 재지생산품임을 암시하고 있다.

鑿·鑿 鍛造有鏃鑿(6, 21)은穿孔, 절삭용공구이지만, 대성리유적 A지구 출토 대형착(6)은 베기용(柄切)으로 충분한 기능을 갖추었을 것이다. 동해 송정동유적에도 유례가 있다. 착(7, 22)은 절단도구이며, 두부(頭部)에 타격에 의해 닳아서 줄어든 흔적이 남아있다.

刀子 단조도자는 유경도자(9~11)와 소환두도자(24, 25)가 있다. 유경도자 슴베 말단을 약간 꺾어 구부렸으며 소형품은 구부리지 않은 예가 많다. 소환두도자는 우두동유적 이외에도 신매리유적에도 출토 사례가 있고, 춘천에 많은 편이다. 우두동유적에는 경단부(莖端部)를 가늘게 단연하는 과정이나 둥글게 구부리기 직전의 단계(25)를 보여주는 소환두도자 미제품이 많이 출토되어 김무중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재지 생산의 중요한 증거이다(김무중 2018).

鉤狀鐵器 대성리유적 A지구에서는 단면삼각형의 얇은 인부를 강하게 접어 구부린 단조의 사형(鉤形)철기가 집중적에 출토되고 있다. 인부와 신부폭, 두께에 큰 차이가 없는 형식과 인부와 좁은 경부로 이루어진 형식(8)이 있다.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사(鉤)(그림 10-35, 36)와는 형태가 달라 사(鉤)가 변용된 것인지, 기능이 특화된 결과 생겨난 기종인지 알 수 없다.

棒狀鐵器 단조품으로, 횡단면이 방형을 이루는 가는 철봉의 선단을 갈아서 가늘게 만들거나(12, 28), 두드려서 인부를 만들고 평인의 절삭구로 만들었다(13~15, 27, 29~31).

### 3 중도문화의 기능 분화된 철기군

이상의 검토를 통해, 중도문화의 철기군이 주조품과 단조품으로 이루어지고, 기능분화의 진행이 현저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예시한 대성리 A지구와 우두동유적의 철기가 목공구라고 한다면, 나무의 벌채, 분할, 제재, 가공, 세부가공 따위의 모든 공정에 대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도자는 만능 공구로써, 목공에 한하지 않고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논급하지 않은 농구도 鍛造 U 字形鋤·鋤先, 鑄



造U字形鋤・鍬先, 鎌과 농경의 각 공정에 대응하는 기종이 완비되어 있다. 이처럼 중도문화에 있어서 모든 생활의 장면에 철이 스며들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4 철기생산을 둘러싸고

중도문화의 철기생산은 현재로서는 주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조철기는 외부에 의존하여 교역품으로 입수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도문화의 주된 철기생산은 단조였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듯 각지에서 단야로가 검출되고, 韃羽口, 철재(鐵滓), 단조박편(鍛造薄片), 입상재(粒狀滓)와 未製品 등의 철기 생산관련 부산물이 풍부하게 존재한다(김무중 2012, 2018)

춘천 우두동유적에서는 철기제작 공정을 보여주는 미제품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 중 중요한 자료가 소환도자의 미제품(도 11-25)이며, 가늘게 단연된 손잡이를 구부리기 직전 단계를 보여준다. 이처럼 소형철기의 경우, 단연하고, 구부러서 조형하는 공정에서는 단조박편, 입상재, 단야재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조박편에 관하여 엄밀히 말하면 발생하지만 얇고 가볍기 때문에 철기에 부착된 채, 혹은 그 후 땅속에서 부식되어 남아있지 않거나 증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단야의 최종공정이 확실히 존재하였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완형재(도 13-14~31)를 생성하는 공정이 있으며, 이 단계에는 얇아도 땅속에 남아있을 정도의 단조박편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또한 환원하여 표면이 유리질화된 노 바닥도 발견되었으며, 더욱이 고온에서 조업된 단야로의 잔해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단조박편은 검출이 용이하지 않은 점에서, 유탈될 가능성도 있지만, 철재와 爐 바닥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관찰로도 단야공정과 대응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그 검토에 따라 우두동유적에서는 최소 3공정의 철기 생산이 확인되었다. 소형철재를 동반한 수혈유구 내 철기생산지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판명되고 있어 고온조업의 노를 갖춘 단야공방의 형태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천 삼꽃리유적과 동해 망상동유적 등 확실하다고 인정된 단야로를 기준으로 단야공정과 부산물과의 대응관계를 파악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도문화권에 있어서 철기의 생산, 유통에 관하여 역내관계와 역외관계가 논의되게 되었다. 역내관계의 예로는 연천 삼꽃리유적이 임진강유역에 대한 단야취락양상을 보이고, 거점적으로 철기를 생산하여 주변 취락에 공급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김무중 2012).

영서에서는 춘천 우두동유적, 영동에서는 동해 망상동유적 등이 거점적 철기생산취락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어느 지역에서든 소규모 단야 흔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철 소재를 획득해 자가소비적인 철기 생산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철소재의 공급이 중도문화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도문화권에서 제철로는 발견되지 않았고, 철소재는 역외관계 구축 없이는 획득할 수 없었다.

중도문화의 담당자가 예(濊)였음은 일반적인 이해이다. 예와 철의 관계가 중국의 정사,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에 묘사되어 있는 점은 매우 유명하다. 「國出鐵韓濊倭皆從取之諸市買皆用鐵如中國用錢又以供給二郡」. 이 한 문장은 「변진(辰弁) 나라에서는 철을 만들고 한, 예, 왜는 각각 여기서 철을 얻고 있다. 교역에는 모두 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또 철을 낙랑과 대방 두 군에도 공급하고 있다」고 번역되고 있다(수鷹·小南 訳 1993). 예(濊), 즉 중도문화의 사람들이 남쪽의 변진(弁辰)으로부터 철을 입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변진에서 제철의 흔적은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제철부터 주조, 단야에 이르는 일련의 공정이 확인되었다(김권일 2009). 여기서 생산되어 예가 획득한 철은 어떤 성질을 지녔을까? 애초에 한국의 제철로는 1기의 제철로에서 선철과 강을 모두 생산할 수 있었다. 제철 조업 전반에는 노벽 침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노내는 좁고, 고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철이 생기는 환경을 유지하고, 爐 밖으로 선철을 유출시킨다. 그리고 조업 후반에는 노내가 침식에 의해 보다 확대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고, 직접 강이 노내에 형성되어 유출되지 못한 선철과 함께 조업 후 노를 부수고 들어낸다. 노 밖으로 유출된 선철은 주조로(용해로)에 투입된 후 거푸집에 부어 주조철기가 될 뿐만 아니라, 초강로(그림 14)에 투입하여 탈탄시켜 강화하여 단조철기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즉 간접제법의 강소재이다.

한편, 조업 후 노에서 꺼낸 강철은 작게 쪼개 그대로 단야의 소재가 되고, 선철은 주조로와 초강로(炒鋼爐)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가 입수한 변진산 철이 하나는 초강로에서 탈탄된 간접제법의 강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철로 내에서 직접 생성된 강이었다. 전자라면, 단야조업시에 철재는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도문화의 단야공방에서 실제로 출토되는 철재는 상당량이기 때문에 작게 분할된 철괴에는 많은 철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중도문화에서 소비되는 철은 변진산 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김무중씨의 지적에 따르면 3세기 이후에는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상류지역과의

교역 관계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김무중 2012). 삼국시대를 향해 점점 철의 자기 소비가 진행되는 영남지역에서 내륙의 대철산지로 교역상대를 전환하려는 예 사회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교역 상대가 충주로 바뀌면서 생기는 철기나 철기생산의 변화도 향후 검토 과제가 될 것이다.

## 4

###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 동북부에서 러시아 극동지방에 걸쳐 초기철기문화까지를 고려하여 중도문화의 철기계통, 특질, 생산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도문화는 그 이전 단계에 燕系 주조철기를 도입하였고, 중도문화 단계 이후에는 낙랑지역 혹은 소라리토성지가 있는 함흥지역과의 역외 관계로 낙랑계 혹은 漢系 주조철기를 수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낙랑토성지와 많은 접점을 가진 단조철기류에 대해서는 제품 수용뿐만 아니라 중도 문화권 내에서 생산하여 자급하고 있는 점도 풍부한 단야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도문화는 기종이 다양하게 분화된 주조품과 단조품으로 이루어진 철기 조성을 만들어냈고, 철이 충분히 침투된 사회를 실현했다고 해석했다. 또 철기 생산에 대해서는 조업의 특질을 밝히고 철산지인 변진지역의 철소재 공급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중도문화의 철기양상을 검토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어서 철기 연구와의 이질성이다.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의 철기연구라고 하면 대부분 부장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무덤의 피장자에게 곁들여진 부장품을 통해 사람과 사회의 현세를 깊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도문화의 철은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잠시 해방시켜 주었다. 북한의 철관련 자료의 한계성, 한국남부의 취락출토 철기의 희소성이라는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도식토기를 동반한 철기문화는 한반도에서 사회와 철의 실질적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양자의 관계모형을 유일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한다. 향후, 이 지역밖에 할 수 없는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그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본고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김무중선생님과 김상태선생님의 학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중도문화 묘제의 성립과 전개

정 치 영



# 중도문화 묘제의 성립과 전개

정 치 영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 Contents

- I. 머리말
- II. 적석총에 대한 인식과 명칭
- III. 적석총의 분포상과 특징
- IV. 중도문화 적석총의 구조와 개념
- V. 중도문화 묘제의 성립과 전개
- VI. 맺음말

# I

## 서론

중도문화의 묘제 문제는 그 실체와 개념 양측면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는 과제의 하나이다. 한강수계의 ‘적석총’이 그 실체로 지목되어 왔지만, 반론과 이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견도 극명하다. 분묘가 문화상을 대표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부 논란의 중심에 놓인 현상은 중도문화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의 원인은 적석총의 분포와 구조에 대한 부족한 정보에 기인하는 바 크다. 지표조사로 알려진 유적의 진위문제는 유적의 분포권과 밀도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 발굴조사된 유적이 적을 뿐 아니라 발굴되었더라도 미완에 그치거나 파괴가 심하여 전모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조를 오해한 연구의 토대가 되는 1차 자료의 기반이 그리 튼튼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도문화의 묘제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었지만 그 반론 또한 첨예한 한강수계 적석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관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한강수계의 적석총에 대한 기왕의 견해에 함의된 분묘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용어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어 이러한 적석총을 중도문화의 묘제로 인식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분포 양상과 주요 유적의 구조적 특징을 재검토하고 개념을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조사 성과와 함께 기왕에 조사된 유적에 대한 다시 보기에 그 실마리가 있다. 아울러 적석총의 구조적 측면에서 계통적 연계성과 적석총 이외의 중도문화 묘제에 대한 단상을 부연할 것이다.

# II

## 적석총에 대한 인식과 명칭

### 1 한강수계 적석총에 대한 관점

‘中島文化’라는 개념은 춘천 중도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中島式土器文化’에서 도출되었다. 타날문토기, 철기와 공반된 새로운 양식의 ‘중도식 무문토기’를 표지로 하는 문화양상을 개념화한 것이다.

박순발(1996)은 토기 뿐 아니라 주거, 분묘의 공통분포권을 검토하여 중도식토기와 동의인 경질무문토기, ‘모’자형 주거지, 종래 무기단적석총으로 불리던 좁석식 적석묘가 복합체를 이루어 영위된 문화를 ‘중도유형문화’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그 문화를 영유한 주체는 靺鞨과 동일시 되는 濊로 보고 한강유역 원삼국문화의 한 축으로 이해하였다. 박순발의 견해는 한강 상류와 중류 및 임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원삼국기~백제 한성기의 기층문화를 설명하는 모델로 자리매김 되었다. 하지만 최종규(2008, 2017)는 범주가 다른 ‘유형’과 ‘문화’를 혼용한 모순을 지적하며 ‘중도문화’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그 내적 요소에 대한 이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동희는 적석총과 모자형 주거지의 시·공간적 불합치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화요소를 濊에 귀속시키는 견해에 반대하였다. 경질무문토기를 반출하는 모자형 주거지와 타날문토기를 공반하는 적석총을 동일 문화의 산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동희 2008). 이러한 견해는 문제의 적석총들을 고구려계로 보는 관점(李東熙 1998)을 기저에 두고 있다. 박중국(2010)은 서해안지역을 제외한 중부지역에서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한예집단의 고고학적 문화를 중도문화로 규정하고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를 공유하되 ‘모’자형 주거지만을 그 배타적인 표지로 이해하였다. 적석총은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중부지역 내에서 지역적인 요소일 뿐 중도문화의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반면 박경신(2018)은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지역권을 중동부문화와 중서부문화로 구분하고, 중동부 문화는 영동의 가평리유형과 중도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중도유형은 임진·한탄강, 영서, 낙동강 상류역에 분포하는 중도식 무문토기, 외줄구들과 부뚜막을 포함한 모·뿔자형 주거지, 적석분구묘 즉 적석총 등 토기, 주거, 분묘의 조합상을 정의한 개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문화의 묘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실체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인하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긍정론에서는 주거, 토기 등 다른 요소와 시·공간적 분포가 일치함을 근거로 하였다. 부정론은 구조와 분포상에 주목하고 있지만, 과거의 미진한 조사와 오해에서 기인한 착시 현상임을 미리 밝혀둔다. 이 점에 대해서는 III장과 IV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 2 적석총의 계통과 명칭 문제

남·북한강,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에 대한 계통과 명칭에 대한 논의는 크게 네 갈래로 개진되어 왔다.

첫째, 이들을 고구려계의 적석총으로 본 관점이다. 권오영(1986)은 춘천 중도, 제원 양평리, 도화리 적석총을 입지, 구조와 축조방식, 매장양식 등 여러 측면에서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계 무기단식 적석총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동희(1998)는 연천 삼꽃리 적석총과 양평 문호리 적석총을 기단식 적석총으로 파악하고, 그 외의 적석총들은 입지, 규모 등에서 고구려 적석총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변형 무기단식 적석총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연천 삼꽃리 적석총의 조사단은 고구려 유이민 집단이 건국한 백제의 지방형 적석총으로 해석하였는데(尹根一·金性泰 1994), 이들의 견해는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매우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재론되고 있다(金性泰 2002, 2018; 崔珍碩 2008). 축조 집단은 경기 북부 지역의 마한 소국으로 보되 민족적 연원을 고구려로 본 견해도 있다(김병곤 2007).

둘째, 이러한 분묘의 적석층을 ‘적석’이 아니라 ‘즁석’으로 이해하여 고구려 적석총과 차이가 있다고 본 관점이다. 강인구(1989a: 51)는 하부가 모래나 점토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한 겹 또는 두 겹 정도의 얇은 돌이 덮여 있어 적석이라기 보다는즁석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순수한 적석층으로 구성된 고구려 적석총과 다를 뿐 아니라 적석총이라고 하기에 부적합하며 오히려 양자강 유역의 토돈묘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인한 ‘즁석묘’라는 용어(강인구 1989b; 崔秉鉉 1994)에는 결국 고구려 적석총과 구조적 관련성을 배제한 관점이 녹아 있는 것이다. 임영진(1995: 45) 역시 이러한 분묘가 고구려 적석총과 다른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백제의즁석봉토분과도 구분하되 30~6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반영하여 ‘葺石塚’이라 칭하였다. 박순발(1994:5)은 넷들을 석재로 써서 사구 위에 1~2겹 내지 7~8겹 가량만 깐 점, 자연사구 바로 위에 넷들을 한 겹 정도 깔아 매장주체부를 마련한 점 등을 지적하며 ‘즁석식 적석묘’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축조 세력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靺鞨 즉, 濊族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기왕의 적석층을 ‘적석분구묘’로 인지하고 호칭한 관점이다. 자연 사구를 정지하고 7-8겹의 적석층을 조성하여 분구의 효과를 낸 고분으로 이해한 것이다. 적석시설은 외피에 불과한 것으로 본보는 관점은 ‘즁석’론과 상통한다. 고구려를 포함한 穢貊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매장개념에 따라 축조된 묘제로 보는 견해(李盛周 2000)와 고구려 적석총과 구조상 차이를 지적한 견해(최병현 2011)가 있다.

넷째, 분구묘의 개념이 내포된 것을 인정하지만, 적석층으로 분류하는 관점이다. 강현숙(2001)은 사구를 이용한 분구의 고대 효과를 꾀한 점은 고구려와 차이가 있으나 5-8겹의 적

석부에 매장부가 있는 점은 고구려 적석총에서도 보이는 특징으로, ‘즙석’이 아니라 ‘적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적석총을 고구려계로 보는 점에는 선을 긋고 있다(강현숙 2005). 임영진(2002, 2003)은 ‘적석분구묘’라는 인식에 동의하나 무덤의 크기, 다른 분구묘와의 명확한 구분 등을 근거로 ‘적석총’이라는 용어의 타당성을 피력하였다.

한편, 이동희(2008)는 분구 주변의 얇은 즙석이 수해방지용 또는 경사면으로 흘러내린 낙석에 불과하므로 ‘즙석묘’라는 용어는 부당하다고 여긴다. 다만 ‘즙석석 적석묘’라는 용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고구려 적석총과 제반 속성이 유사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명칭인 ‘적석총’을 견지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적석총은 사구 위에 축조되어 높다란 분구 경관을 연출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연천 황산리 적석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구형 토단은 성토가 아닌 자연 사구를 삭토하여 조성한 것으로 중부지역의 성토분구와 차이점이 있다. 매장주체부도 복수의 소형 묘곽이 연결된 양상을 보인다. 매장방법에 대해서는 목곽 또는 목곽 주위에 강돌을 둘러고 상부에도 돌을 쌓아 마감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강현숙 2005). 상부의 적석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적석의 양이나 매장양상을 고려할 때 즙석이 아닌 적석으로 보아도 무방한 근거가 다분하다. 고구려의 적석총을 분구묘의 일종으로 인식하는데 동의한다해서 ‘적석총’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만큼 그 특성을 더 잘 구현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문제의 분묘를 ‘적석총’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에 큰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용어도 이를 따르고자 한다.

### III

## 적석총의 분포상과 특징

### 1 분포 현황

중도문화의 묘제로 인식되어 온 적석총은 한강 중·상류와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1기 또는 2~3기가 독립적으로 분포하며 고분이 위치한 유적간의 이격거리는 최소 수km에 이른다. 북한강 유역에서는 상류인 화천, 춘천과 하류인 양평과 남양주에서 존재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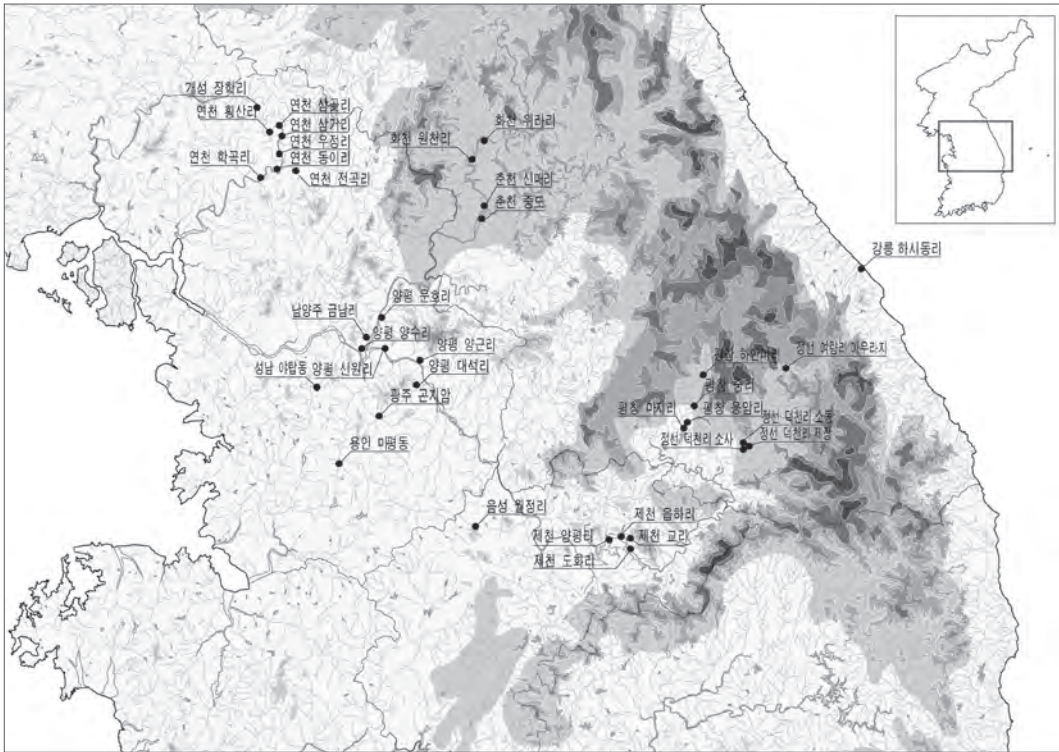
고 있다. 남한강 유역에서는 평창강과 동강이 흐르는 평창, 정선, 영월에서 다수의 적석총이 알려졌으며 중류역의 제천에도 분포하고 역시 하류의 양평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제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도화리와 양평리 외에 교리 적석총이 지표조사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읍하리 적석총은 충주댐 수몰지구 발굴조사 당시 ‘신담’으로 불린 유적으로 마을의 제사터였다. 보고자는 적석총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車勇杰 1983), 검토 결과 적석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포함하였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개성 장학리를 최북점으로 하여 연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한탄강 유역에는 임진강과 합류되는 하류역의 전곡리 적석총에 대한 기록만 있다. 중상류지역인 철원 일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존재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경기 남부의 지류인 경안천 유역의 광주 곤지암리와 용인 마평동은 적석총의 분포권이 경기 남부에 이른다는 점을 환기시켜 준다. 특히 탄천변의 성남 야탑동은 백제 도성권에 인접한 지역이라 더욱 주목되지만 여타 적석총과 비교해 볼 때 진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례적으로 영동지역인 강릉 하시동에서 적석총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알려져 있지만(홍영호 2017; 장한길로 2018) 그 진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검증된 중도문화권의 적석총은 춘천 중도, 양평 문호리, 정선 여량리, 평창 응암리, 제천 양평리, 도화리, 광주 곤지암리, 용인 마평동, 개성 장학리, 연천 횡산리, 삼곶리, 삼거리, 학곡리 등 13개 유적이다. 지표조사로 발견되어 적석총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지금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적석총은 화천 위라리, 춘천 신매리, 연천 우정리, 동이리에 이어 최근 발견한 화천 원천리, 양평 양근리를 합하여 6개 유적에 있다. 양평 양수리, 남양주 금남리, 양평 대석리, 연천 전곡리 적석총은 회자되고 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정보도 빈약하다.

화천 간척리, 춘천 상중도, 산천리, 음성 월정리와 평창, 정선의 대다수는 중도문화의 적석총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거나 성격이 의심스러워 이른바 ‘疑似 적석총’으로 분류되고 있다(심재연 2010, 2017). 하지만 ‘의사’라는 비칭을 벗어난 평창 응암리,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을 감안할 때 남한강 상류가 적석총의 분포권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성남 야탑동, 양평 신원리의 사례는 발굴조사 되었지만 구조상 중도문화 적석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양평 문호리 적석총은 1917년 고적조사 당시에도 이미 인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朝鮮總督府 1918).



도 1 한강 중상류역 적석총(疑似 포함) 분포도(정치영·윤정현·최진석 2019 편집)

표 1 한강 수계 적석총 분포

연번	유적	수량	크기(m)	형태	석재	유물, 특징	출전	眞疑	存否
	북한강-상류								
1	화천 위라리	1			강돌 할석		심재연 2003	○	○
2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	1	42.5×15.5×1.5 (수면 노출부분)	적석 분구 위에 석축 분봉 연결	할석 강돌	타날문 호, 경질 호 심발형토기	정치영 외 2018	○	○ (수중)
3	화천 간척리	1				지표조사	조동걸 1967 김남돈 1996	?	?
4	춘천 신매리	1			강돌	지표조사	심재연 2003	○	○
5	춘천 중도	2	경14×고5.5	원형	강돌		朴漢高·崔福奎 1982	○	○
6	춘천 상중도 고산	1				지표조사	江原大學校 博物館, 1984	×	?
7	춘천 산천리					상부에 지석묘	朴漢高·崔福奎 1982	×	×
	북한강-하류								

연번	유적	수량	크기(m)	형태	석재	유물, 특징	출전	眞疑	存否
8	양평 문호리	1	11m	방형(잔존)	강돌	발굴	黃龍潭 1984	○	×
9	양평 양수리	1			강돌	지표조사	黃龍潭 1984	△	×
10	남양주 금남리	1			강돌	지표조사	黃龍潭 1984	△	×
남한강-상류									
11	평창 하안미리	1	65×26×1.5~2.3	타원형	강돌		崔福奎 외 1987	?	
12	평창 여만리						한림대학 아시아 문화연구소 1986	?	
13	평창 중리	2	11.6×19.5× 2.5 8.3×14×2.5		강돌			?	○
14	평창 중부리	1	경60.5×고3			무문토기 편	崔福奎 외 1987	?	
15	평창 응암리	1	경25×고1~2	부정 타원형		지표, 시굴 타날문 호(완형) 철도자, 타날문토기	崔福奎 외 1987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	○
16	평창 마지리	1	경15~20×고2.5		강돌		崔福奎 외 1987	?	○
17	정선 여량리 아우라지	1		장타원형	강돌	연접식 묘곽 51기 잔존	정상민 2018 江原文化財研究所 2019	○	○
18	정선 덕천리 소사	6	경2.3~6× 고 1~2.1	2호·3호-3단		반경 35m 범위. 초기철기시대 토기편	백흥기 외 1996	?	×
19	정선 덕천리 제장		10.2×5.2×2.2	장타원형	강돌		백흥기 외 1996	?	
20	영월 삼옥리						백흥기 외 1996 심재연 2017	×	○
남한강-중류									
21	제천 도화리	1	30×25×4.5	타원형 3단?	강돌	묘곽-골편, 철도자 주변-청동환·팔찌, 철검, 철부, 단경호, 타날문토기편	崔夢龍·李熙濬·朴 洋震 1984	○	수물
22	제천 교리	1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	?	수물
23	제천 읍하리 (신담유적)	1	95×30×4.5	장타원형	강돌	청동방울	車勇杰 1983	○	수물
24	제천 양평리	3	1호:25×29×7.2	타원형	강돌	청동환, 청동방울, 철도자, 승석문토기	裴基同 1982, 1983	○	수물
			2호: 60×57×9	원형?	강돌	청동환, 철검, 철봉, 골, 관옥			
			3호: 지표조사				裴基同 1983		
25	음성 월정리	1						?	○

연번	유적	수량	크기(m)	형태	석재	유물, 특징	출전	眞疑	存否
	남한강-하류								
26	양평 대석리					지표조사	黃龍潭 1984	△	×
27	양평 양근리	1	105×60×5~9	장방형	강돌 할석(기저)	철검, 타날문토기 편	정치영 외 2019	○	○
28	양평 신원리		16.5×15.8×0.5	방형	할석	타날문토기	유태용 2007	×	×
	경안천								
29	광주 곤지암	1	54.9×34 (1,800㎡)	타원형	강돌 할석 소수	관옥, 환옥, 구슬	이강호 2018 김진영 2019	○	○
30	용인 마평동	1	30.5×23.8×2.2	장방형	할석 강돌 소수	단경호, 난형호, 철도자, 연미형철모	이건총 외 2018	○	○
	탄천								
31	성남 아탑동	9	42×20 범위 경4~5×고1	방형	할석	적석 상부에 대형 판석 1~2매, 회청(흑)색 경질토기편.	金基雄 1991 유태용 2011	×	×
	임진강								
32	개성 장학리	1	17×0×2.7	장방형	강돌 할석	기단 5단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6	○	○
33	연천 황산리	1	58×28×5.8	장타원형	강돌	타날문 호, 철검, 철검, 철모, 철촉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	○
34	연천 삼곡리	1	28×11×1.3	장방형	강돌	유사승석문 단경호, 경질무문토기편, 철촉, 마노옥, 청동환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2	○	○
35	연천 삼거리 (선곡리)	1				승석문 연질토기, 무문토기편, 마노구슬, 석촉	金聖範 199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1	○	×
36	연천 우정리	2	1호: 35×22×4	장타원형	강돌 할석	석제옥, 승석문 연질토기, 청동팔찌, 경질무문토기편	경기도박물관 2001	○	○
37	연천 동이리	1	41×24×6	장타원형	강돌 할석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	○
38	연천 전곡리	1	잔존 경10m	잔존 원형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	×
39	연천 학곡리	1	25×10×1	장타원형	강돌	평저호, 타날문호, 구슬, 골제장신구, 청동환, 청동방울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	○
	영동지역								
40	강릉 하시동리	1					홍영호 2017 장한길로 2018	?	○

## 2 분포상의 특징

전반적으로 적석총은 한강 상류에서 중류역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하지만, 특정지역에 밀집한 대신 다소 긴 구간에 걸친 단절양상도 보인다(도 1). 북한강 중류역인 가평 일원에서는 아직 인지되지 않고 있다. 치악산 동쪽 주천강 유역과 서쪽 섬강 유역의 횡성, 원주 일원과 이 일대의 하천을 합수한 남한강 본류의 충주, 여주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음성 월정리의 것은 장호원을 거쳐 본류로 향하는 노선에서 유일한 사례이지만 진위 판별이 필요하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는 양평 일대에서 다수의 분포상을 볼 수 있지만 양수리 일대를 끝으로 한강 본류에서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임진강 유역에서도 개성 장학리부터 연천 학곡리에 이르기까지 다소 규칙적인 분포상을 보이지만 이보다 하류 지역인 파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탄강 유역도 최하류인 연천 전곡리가 알려진 바 있지만 포천과 철원 일대에서는 분포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도 2 제천 읍하리 적석총(신담유적) (車勇杰 1983)

현재까지의 양상으로 보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일부 구간에는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발견으로 분포도와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래 남한강유역의 제천지역에서는 도화리와 양평리 적석총만 주로 거론되어 왔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리와 읍하리 적석총을 상기하면 분포도는 훨씬 높아진다. 또한 양평리에는 탐색조사만 이루어진 3호분(裴基同 1983)도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해 둔다. 한편 제천 양평리를 끝으로 충주, 여주, 양평으로 이



어지는 남한강 중·하류지역에 적석층이 분포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양평 양근리 적석층의 발견으로 공백은 좁아졌다. 특히 양평 양근리 적석층은 여러 계기의 지표조사에서도 인지되지 않다가 최근에야 확인되었고,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 적석층 역시 수몰된 상태에서 재확인되었다(정치영 외 2018, 2019). 화천 위라리 적석층 역시 마찬가지이다(심재연 2010). 따라서 지금까지 잘 알려진 적석층의 분포상을 전체 양상인 양 인식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기인한 오해일 뿐이다.

임진강 유역의 장학리, 횡산리, 삼곶리, 학곡리 적석층 간의 직석거리는 각각 약 13km, 3km, 22km 이다. 삼곶리와 학곡리 사이에 삼거리, 우정리, 동이리 등 3개소의 적석층이 비등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있으므로 각 적석층 간의 평균 거리는 4.25km로 산정된다. 북한강 상류의 위라리, 원천리, 신매리, 중도 적석층은 각각 약 9km, 11km, 6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제천 도화리와 양평리는 7km, 양평 양근리와 양수리 적석층은 15km 거리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3~5km마다 적석층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천 도화리와 양평리 사이에 지표조사로 확인되었으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리 적석층과 새로 인정한 읍하리 적석층이 분포하므로 그 이격거리는 2~3km로 좁혀진다.



도 3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 적석층(좌), 양평 양근리 적석층(우)

## IV

### 중도문화권 적석층의 구조와 개념

한강 유역 적석층은 자료가 희소하고 발굴조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타 유적에 비해 그 구조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 따라서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도 의문점이 해

소되지 않고 있다(최병현 2013). 이 점은 조사 당시의 한계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최근 거의 완전한 형태로 노출되어 전모가 드러난 곤지암리 적석총에 비추어 미궁으로 남은 점들의 실마리를 찾고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주요 적석총의 구조 再考

### 1) 광주 곤지암리 적석총과 정선 여미리 아우라지 적석총

곤지암리 적석총은 나지막한 사구에 축조되었는데, 기초 성토 없이 모래면 위에 축조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80개에 달하는 묘곽이 연접된 중앙부 외곽에 적석부를 두어 경계지은 구조이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130~660cm, 너비 115~340cm로 일정치않은데, 가로쌓기 수법으로 벽을 세우고 지지석을 기대어 보강하였다. 내부는 돌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함몰된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무덤방 외곽에 얇게 구를 파고 돌을 쌓아 올려 분구를 조성하였다. 관옥, 환옥, 유리구슬, 타날문 단경호, 청동방울, 철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벽석 사이에서 잘게 부서진 화장인골이 다수 확인되었다(김진영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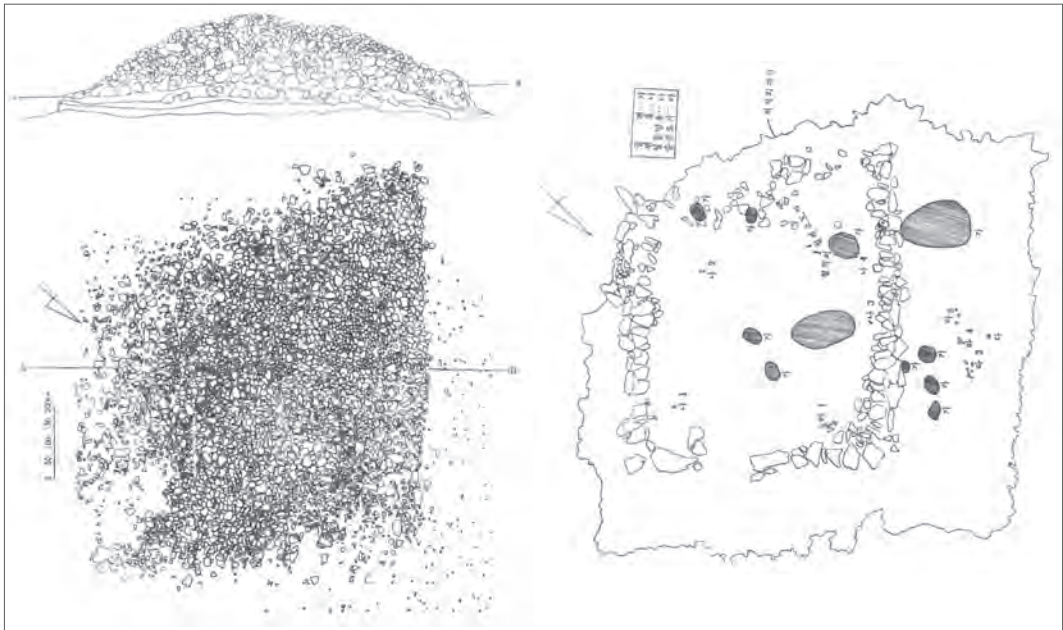
정선 여미리 아우라지 적석총은 기초 성토 없이 적석을 시공한 점, 확인된 것만 51개에 이르는 다수의 묘곽을 연접하여 확장한 점, 지지석 수립 등 곤지암리 적석총과 거의 동일한 구조와 축조법을 보이는 유적이다. 인골편이 출토되었지만 동물에 의해 훼손된 흔적이 있어 매장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도 4 광주 곤지암리 적석총 (좌, 김진영 2019), 정선 여미리 아우라지 적석총 (우, 정상민 2018)

### 2) 양평 문호리 적석총의 매장 구조

문호리 적석총은 강안 사구 위에 황갈색 점토, 청회색 점토, 황갈색토를 각각 40cm, 30cm, 40cm 두께로 성토한 후 강들을 쌓아 축조한 한번 11m의 방형 적석총으로 보고되었다. 기초



도 5 양평 문호리 적석총

성토 후 큰 강돌을 한변 길이 10m의 방형 평면으로 깔고 그 안에 편마암과 화강암을 세워 6×7m의 묘곽 구역을 설치하고 매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묘곽 구역 내에서 크기 2~3cm 정도의 바스러진 인골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인골은 길이 2m, 폭 50cm 구역에 걸쳐 출토되었고 사방에서 관옥이 1점씩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두개골을 포함한 인골이 넓게 산포되어 있었다. 특히 묘곽 구역으로 인식한 범위 외곽에서도 3개 구역에 걸쳐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물층 위에 지름 50cm 내외의 강돌을 1m 두께로 한변 8.4m 평면으로 쌓았다. 이 적석을 보호시설로 인지할 만큼 매우 정연하게 쌓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에 강돌과 편마암 잡석을 각각 30cm, 50cm 두께로 덮어, 전체 높이는 2.7m에 달했다고 한다(黃龍渾 1984).

최근 발굴된 광주 곤지암리 적석총의 조사 성과에 문호리 적석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문호리 적석총 보고서는 한쪽 길이가 11m에 달하는 방형 적석고분으로 기술하였지만, 이는 잔존 크기일 뿐 본래는 더 큰 규모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 성토와 강돌 부석으로 기초를 놓은 것은 곤지암리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방형 묘곽으로 이해한 할석 열은 벽체라기 보다는 벽체의 지지석일 가능성이 크다. 1m 높이의 방단은 곤지암리의 예와 같이 묘곽의 벽석 및 묘곽 내에 석재가 정연하게 채워진 상태의 현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작게 파편화된 인골의 출토상황이 흡사한데, 문호리의 방형 묘곽 외에도 인골이 산포한 양상은 묘곽이 연결되어 있었던 원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상 상부 적석층의 실측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석렬이 열상으로 배치된 양상과 함께 묘곽으로 볼 수 있는 단위들이 감지된다. 즉 문호리 적석총은 중소규모의 방형 단일 적석묘가 아니라 곧지암리와 같이 다수의 묘곽이 잇대어 연결된 적석총의 일부만 잔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연천 삼곶리 적석총의 방단과 제의시설

하안 단구의 상면과 사면에 걸쳐 축조되었다. 정상면을 삭평하고 성토 없이 40-50cm의 강돌을 깔아서 기초를 놓은 후 그 위에 적석총을 구축하였다. 보고자는 서분과 동분이 연결된 쌍분으로서 평면 사다리꼴의 장면이 맞붙은 형태이고 묘곽도 인접되어 있다. 보고자는 부석 기초 위에 조성된 2단의 방단면에 묘곽이 조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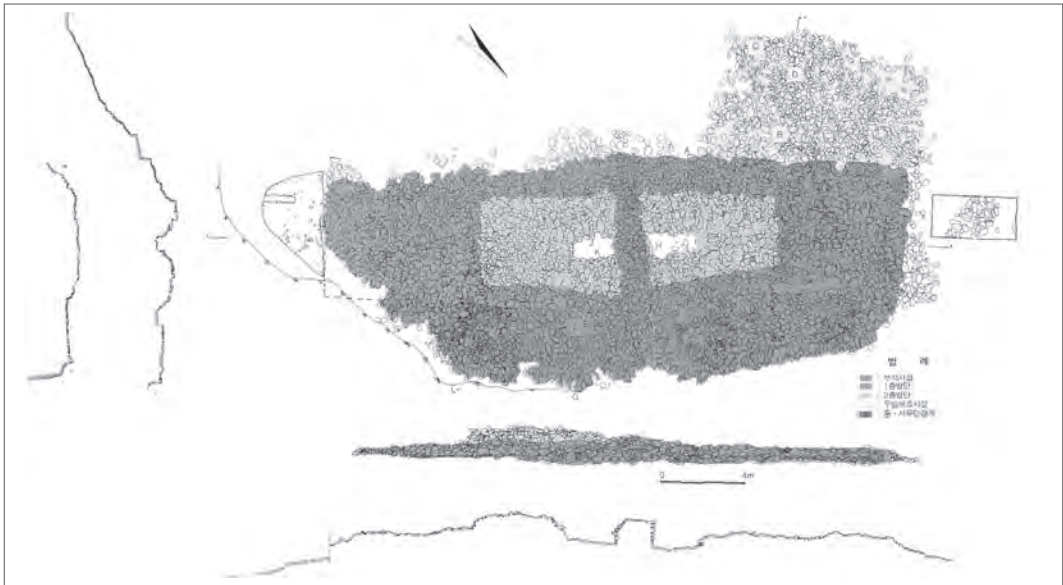


도 6 연천 삼곶리 적석총 서분 부석유구

방단의 기단에 해당하는 석렬이 부분적으로는 정연하나 전체적으로 일직선이 아닌 점, 동분 묘곽 서벽이 서분의 것을 그대로 활용한 점은 묘곽의 연결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사 당시 남아 있는 현상은 상당한 훼손이 진행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동분과 서분의 적석부 북편에 반타원형으로 배치된 부석시설을 의례시설(제사유구)로 본 점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보고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시설과 묘곽의 위치가 부합하지 않는 점은 물론이고, 일부에만 옹색하게 마련된 점, 큰 돌로 테두리를 둔 점, 부석시설이 테두리 석재보다 먼저 축조된 점, 테두리 가까운 지점에는 부석층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묘곽의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면에서 유물이 다수 출토된 점 역시 묘곽 내부의 상황을 반영한다. 동분과 서분 묘곽의 바닥이 흩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외곽에만 부석으로 기초를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부석 기초는 문호리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요컨대, 연천 삼곶리 적석총은 방단과 의례공간을 갖춘 적석총이 아니라 다수의 묘곽이 연결된 적석총이 골재 채취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사단이 인식하지 못한 묘곽이 다수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 7 연천 삼곡리 적석총(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2)

#### 4) 연천 학곡리 적석총의 동·서 경계시설

연천 학곡리 적석총은 입지와 구조가 흡사하다. 훼손이 심하였지만 다수의 묘곽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밝힌 첫 사례이다. 보고자는 적석총의 구조를 묘곽이 있는 적석부와 사면의 층석부로 구분하고 후자를 삼곡리의 무덤보호시설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곤지암리 적석총과 비교해 볼 때 학곡리 적석총 역시 다수의 묘곽이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도 8 연천 학곡리 적석총의 구조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다. 묘곽은 4개만 인정하였지만, 1·2·3호곽과 4호곽 사이의 ‘동·서 적석부의 경계시설’이나 2호곽 동편의 평탄한 적석부도 매장곽이며 이 외에도 다수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 2 개념화

지금까지의 고찰한 적석총의 구조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고 이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분포와 입지

중도문화 적석총은 한강 수계 중상류 권역에 분포하며, 하천을 따라 강안 또는 이에 매우 인접한 지점에 축조되었다. 자연 제방에 자리잡은 것이 많으나 연천 동이리 적석총은 하안 단구에,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 적석총은 구릉의 말단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이나 높은 지점을 선정한 것은 마찬가지다.

### 2) 축조 위치

적석총의 축조 위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적석총은 강안의 정상부와 사면에 걸쳐 있는 것이다. 연천 삼꽃리, 학곡리가 대표적이며, 개성 장학리도 이에 속한다. 둘째, 강안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으로 연천 황산리가 대표적이며 연천 동이리, 화천 위라리, 최근 확인된 양평 양근리도 이와 같다. 셋째 강안에서 약간 이격된 평지에 세워진 것으로, 광주 곤지암리, 정선 아우라지를 거론할 수 있다. 본래 이 세 가지는 의도적인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즉 적석총의 붕괴, 퇴적과 침식작용으로 인한 하천 유로의 변경에 의한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둘째의 경우 高大한 분구가 잔존한 것이 많다. 개성 장학리의 경우 사면부 적석에 약간의 단을 둔 양상이 보이는데, 이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기획일 것으로 보인다.

### 3) 축조 방법

중도유형 적석총은 주로 자연사구를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되었다고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고대한 분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앞서 살핀 문호리 적석총은 사구 위에 1m에 이르는 두께로 성토한 후 부석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묘곽을 축조하고 매장한 다음 강돌을 채워 봉하고 그 위에 할석을 쌓는 축조법을 갖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초 성토를 두텁게 하지 않더라도 기초부 위에 바로 묘곽을 축조한 것은 광주 곤지암, 정선 여량리에서 확인되어 연천 삼곶리에서도 검증한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분구묘라기 보다는 봉석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매장 이후의 적석이 상당량에 이르기 때문에 ‘즁석’이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다.

연천 황산리 적석총은 석재가 대부분 상실되었지만 고분의 地臺가 높게 남아 있다. 밑면이 넓고 상면이 좁은 형상으로 길이 58m, 폭 28m 높이 5.8m의 거대한 地臺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성토 또는 삭토 공법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 지대 상부에서 신석기시대 야외노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성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대신 절개면에서 수평 퇴적된 모래사구를 삭토한 양상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 위에 묘곽을 포함한 적석의 높이가 1.5m 이상이었으니 그 위용이 대단하였을 것이다. 양평 양근리 적석총도 황산리 적석총과 흡사한 형상이면서 더욱 거대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상부와 사면의 적석 매우 잘 보존된 상태이며 하부에서는 대형석을 이용한 계획적 구축양상도 보인다(정치영 외 2019). 석재의 양과 잔존 양상만 1m 내외인 적석층의 두께를 볼 때 ‘즁석’이 아닌 적극적인 의미의 적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용인 마평동 적석총은 할석을 주로 쓴 점 외에 [대지조성→1차 성토→1차 적석→2차 성토→2차 적석]으로 총 5단계의 공정으로 거대한 분구를 형성한 후 상부에 매장주체부를 구성하여 여타의 적석

총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념상으로는 ‘적석분구묘’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마평동의 사례 뿐이다.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 적석총은 대형 적석 분구 위에 할석으로 외곽을 쌓고 내부에 강돌을 채운 두개의 분봉이 마주서 있는 양상을 보인다.



도 9 광주 곤지암리 적석총(김진영 2019)



도 10 용인 마평동 적석총  
(이건총 외 2018)



도 11 연천 황산리 적석총 地臺 단면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 4) 매장주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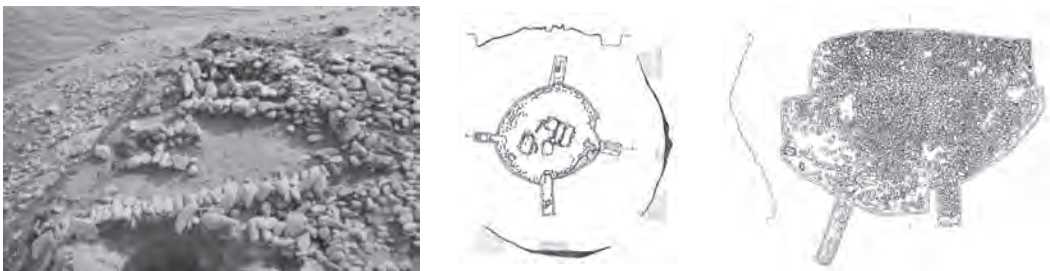
광주 곤지암리와 정선 여량리 적석총은 고분 상면 전체에 빈틈없이 매장주체부를 연접하여 조성되었다. 곤지암리 적석총은 1,800㎡에 80기의 묘곽을 마련하였다. 선축 묘곽의 벽에 잇대어 확장해나간 양상을 띠는데 외벽에 기댄 지지석이 연접된 묘곽 내부에 묻히게 된 것을 보면 매장은 시차를 두고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수십 명이 묻힐 수 있는 거대 무덤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마을에 정주한 집단의 공동묘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종래 방형 적석묘로 인식되어 온 양평 문호리 적석총도 이와 같은 적석총이 일부만 잔존한 것이다. 方壇 위에 동분과 서분 묘곽이 연접한 양곽식 적석총으로 확정되어온 연천 삼곶리 적석총도 같은 형식의 고분이 파괴된 것이란 점을 앞서 밝혔다. 학곡리 적석총 역시 조사단에게 인식된 4기 이외에 훨씬 많은 수의 묘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sup>

중도 적석총 역시 석곽에 결부된 공간을 축실로 이해하였지만 실상 연접된 다수의 묘곽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제천 도화리와 제원 양평리 1호, 2호 적석총도 모두 같다.

용인 마평동 적석총의 분구 상부에서 석곽 2기가 연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위치가 가장자리로 치우친 점, 분구 상부의 잔여 공간이 넓은 점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의 묘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성 장학리 적석총은 2기의 묘곽이 격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다수의 석곽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

요컨대, 중도문화의 적석총은 묘곽을 연접하여 다수 인을 매장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적석총이다.<sup>2</sup>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묘곽연접적석총’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도 12 춘천 중도, 제원 양평리, 제천 도화리 적석총

1 연천 삼곶리 적석총과 학곡리 적석총 등 임진강유역 적석총의 적석부 전체에 묘곽이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김성태 2018)

2 방형의 적석 위에 판석형 할석으로 개별 묘실을 축조한 ‘양평 신원리 적석총’(유태용 2007)이나 판석 덮개가 있는 개별 묘곽을 가진 적석묘 8기가 밀집된 ‘성남 야탑동 적석총’(金基雄 1991, 유태용 2007)은 원삼국기 또는 백제 적석총으로 이해할 수 없다.

### 3 葬法

묘곽연접적석총의 매장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목관 결구재와 인골이다. 양평 문호리에서 꺾쇠가 확인되었고 못은 중도 적석총(1개), 개성 장학리(1개), 제천 도화리(3개) 적석총에서 출토되었다.

인골은 연천 삼꽃리의 동·서 묘곽, 양평 문호리, 제천 양평리 2호분, 제천 도화리 적석총에서 출토되었다. 최근 광주 곤지암리 적석총의 묘곽에서 잘게 부쉬진 화장뼈



도 13 광주 곤지암리 적석총 화장인골(김진영 2019)

가 다량 출토되었다. 문호리 적석총의 묘곽에서는 크기 2~3cm 정도로 작은 골편이 아주 바스르린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두개골 파편도 있으나 원위치를 알 수 없게 흐트러져 있었다고 한다(黃龍潭 1984: 347-348). 잘게 부스러진 인골은 화장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화장된 뼈는 분골 과정을 거쳐 매장되거나 화장시 근육과의 장력으로 발생한 균열로 인해 잘게 부쉬지기 쉽기 때문이다(하대룡·이준정 2019).<sup>3</sup>

최근 석촌동 고분군 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에서 다량의 화장인골이 고온에 뒤틀린 기와, 목탄 등 소각 잔재물과 함께 매립된 상태로 출토되어 적석총과 화장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한성백제박물관 2019). 석촌동 3호분 동쪽에서 확인된 ‘화장유구’에서도 불탄 인골이 목탄과 뒤섞여 다량 출토된 바 있다(金元龍·林永珍 1986). 고구려 적석총에서는 기와와 불에 탄 뼈, 고온 화염에 의해 생성된 용석(鎔石) 등을 포함하여 불태운 흔적이 확인되는 적석총이 60%에 이른다고 한다(강현숙 2013: 232-235). 적석총과 화장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묘곽연접적석총의 장례법은 화장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그런데, 못과 꺾쇠가 출토된 것을 보면 일부 묘곽에는 목관에 시신을 안치하여 매장하였거나 목재 납골함이 안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필자가 진행 중인 서울 석촌동 고분군의 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에서 화장인골이 다량 출토되었다. 수천 점의 파편 중 길이 7cm를 넘는 것은 단 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 V

# 중도문화 묘제의 성립과 전개

### 1 적석총의 계통 문제

한강 중상류의 적석총이 묘제 자체로는 고구려와 비슷한 전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고구려의 무기단식 적석총이나 중도문화의 적석총이 강안에 축조된다는 점 역시 유사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무기단식 적석총은 주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복수의 피장자가 매장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중도문화 적석총처럼 집단매장묘는 아닌 것이다. 특히 기단과 제단 등 연천 삼곶리 적석총의 구조 측면에서 고구려 적석총과 관련성의 근거로 거론된 점들은 誤認에 기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도문화의 적석총으로 인정되는 적석총들은 모두 묘곽연접적석총으로서 남한강 최상류인 정선부터 경안천 유역의 광주 곤지암까지 같은 구조의 적석총이다. 시간적으로는 제원양평리 적석총이 축조된 3세기 후반부터 백제 한성기에 진입한 4세기대까지 이어진다. 거점 취락에 상응하는 분포, 거대한 고분의 축조, 한식계 토기의 부장 등은 적석총의 축조 세력이 재지에 기반을 두고 한사군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던 정황을 반영한다. 중도문화 묘곽연접적석총의 분포양상에서 파악되는 離隔性은 토착 취락과의 상관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少數性은 집단 매장묘라는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히 경안천 유역에서 4세기 대까지 취락을 영위하면서 이와 상응하는 적석총을 축조한 점은 백제 건국 이후에도 나름의 전통을 담지해가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용인 마평동 적석총이다. 이 적석총은 여타의 묘곽연접적석총과 달리 주로 할석을 사용하고 성토와 적석을 겸비한 분구를 축조하고 상부에 연접묘곽을 조성한 적석총이다. 향후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재래의 묘제에 석촌동 적석총의 축조기술을 영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즈석분구묘를 조영하던 백제가 석촌동의 적석총을 축조하게 된 배경에 중도문화 적석총이 일정한 동기를 부여하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두고자 한다.

### 2 적석총 이전의 묘제에 대한 단상

중도문화의 묘제로서 적석총 이외에 거론되는 것이 원주 법천리 유적이다. 원주 법천리 유적에서는 옹관묘와 함께 자갈바닥 토광묘, 나무바닥 토광묘, 석실묘 등이 확인되어 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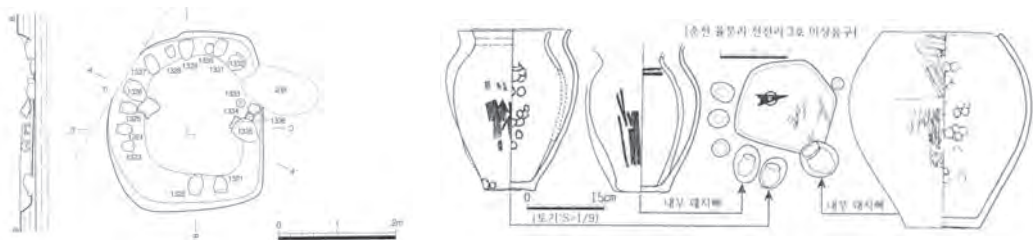


의 묘제와 새로운 묘제가 복합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갈바닥 토광묘에서는 경질무문 토기 심발이 출토되었는데, 적석층 이전 또는 동시기의 묘제로 보아 한당 중상류역의 재래 묘제로 이해하기도 한다(이동희 2008). 하지만, 경질무문토기를 부장한 자갈 부석 토광묘는 진천, 충주지역의 단수토광묘의 일환으로 다수 확인되고 있다. 남한강 동쪽의 충주 장태산 유적에서 주구토광묘가 확인된 점, 남한강 동쪽의 음성 월정리 적석층의 존재를 상기하면 남한강 유역은 (주구)토광묘와 적석층 분포권의 접이지대(박경신 2018)라 할 수 있다. 즉 원주 법천리의 자갈 부석 토광묘는 중원의 묘제가 남한강 루트를 통하여 확산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영서지역의 재래 묘제로 보기 어렵다.

결국, 적석층을 제외하면 중도문화의 분묘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적석층 이전의 분묘 역시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두 가지의 단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정선 아우라지 유적에서 출토된 옹관이다. 경질무문토기 옹에 두개골을 납골하여 斜置 매납한 것으로 현지의 葬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평 달전리에 낙랑의 목관묘가 들어왔지만 주 묘제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심재연 2010) 재래의 전통이 강하였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옹관묘는 세골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세골 후 의외의 장소에 매장 또는 매납하였을 수도 있다.

둘째는 화장이다.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는 화장수혈이 발견되었는데, 구덩이 주변에 10개의 경질무문토기를 매납한 모습이다. 춘천 울문리·천전리 유적에서 토기 매납유구로 해석되는(박경신 2018) 수혈이 확인된 바 있는데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화장이 주된 장법이었다면 묘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납득되며, 적석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적석층의 기원과 계통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葬法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화천 원천리(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춘천 울문리·천전리 3호 유구 (박경신 2018재인용)

도 14 추정 화장 관련 유구

## VI

### 맺음말

한강 중상류역의 적석총의 연대와 성격에 대한 논의는 백제 건국세력의 출자에 대한 고고학적 논증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적석총 축조 집단의 출자에 대해서는 고구려계와 濊係로 보는 학설로 크게 나뉘어 있고 백제 지방세력과 마한계 주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유적의 구조와 성격을 담아내고자 하는 명칭 또한 적석총, 무기단식 적석총, 좁석총, 좁석식 적석묘, 좁석묘, 적석묘, 적석분구묘 등으로 다양하다.

중도문화의 묘제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자료가 많지 않아 진전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적석총에 대한 연구는 백제의 국가 형성 문제와 맞물려 조영세력의 정체를 두고 이견이 있다. 특히 고구려계설과 예계설은 백제 건국세력의 출자 문제와 맞물려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지만 접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고고학 자료의 모호함에 기인한 바 크다. 한강 중상류지역에 분포하는 적석총은 강들을 위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매장주체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선제적으로 발굴된 춘천 중도와 제천 양평리, 도화리 적석총, 양평 문호리 적석총 등은 그 본연의 구조를 찾는데 실패하였다. 연천 삼곶리 적석총은 묘곽과 기단, 제의시설을 갖춘 구조로 알려졌지만 그 진정성을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재발되고 있다. 구조론이 계통론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검증할 수 없는 주장만 공전해 왔던 것이다.

발표자는 최근 전모가 확인된 광주 곤지암리 적석총의 양상을 참고하여 이전에 발굴된 적석총을 다시 살펴본 바, 구조가 동일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석총이 현지 토착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백제 한성의 적석총과도 상호 작용의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아울러 적석총의 葬法과 火葬의 관련성도 짚어 보았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방치된 적석총들의 현상이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소중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적은 하루하루 훼손되어 가는데 검증 불가능한 주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치된 적석총의 보존, 의사 적석총에 대한 분별, 논란을 안고 있는 적석총의 재발굴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첩경이 아닐까 한다.

## 참고문헌

- 江原文化財研究所, 2019, 「정선 아우라지 유적 II」
- 江原大學校 博物館, 1984, 『中島遺蹟地表調査 報告書』.
- 姜仁求, 1989a, 「漢江流域 百濟古墳의 再檢討」, 『韓國考古學報』 22.
- 姜仁求, 1989b, 「漢江流域의 百濟古墳」, 『韓國史論』 V, 國史編纂委員會.
- 강현숙, 2001, 「한강유역 1~3세기대 묘제에 대한 일고찰」, 『동아시아 1~3세기의 주거와 고분』, 국립문화재연구소
- 강현숙, 2005, 「서울 지역의 적석총에 대하여」, 『鄉土서울』 6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232-235쪽.
- 경기도박물관, 2001, 『임진강2-문화유적』.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황산리적석총』.
- 권오영, 1986, 「初期百濟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 『韓國史論』 15, 서울 大學校 國史學科.
-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제8권 제2호, 서울 경기고고학회.
-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漣川 鶴谷里 積石塚』.
- 金基雄, 1991, 「野塔洞 積石塚 發掘調査 報告」, 『盆唐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漢陽大學校 博物館.
- 김병곤, 2007, 「臨津江 流域의 積石塚과 馬韓」, 『東國史學』, 東國史學會.
- 金聖範, 1992, 「軍事保護地域內 文化遺蹟調査報告-京畿道 漣川郡」, 『文化財』 2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金性泰, 2002, 「백제 적석총의 역사고고학적 성격과 그 의미」, 『기전고고』 2.
- 김성태, 2018,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재검토」,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 金元龍 · 林永珍, 1986, 『石村洞3號墳 東쪽 古墳群 整理調査報告』, 서울大學校博物館.
- 김진영, 2019, 「광주 곤지암리 유적」, 『2018 한국고고학저널』, 국립문화재연구소.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2,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 박경신, 2018, 「원삼국시대 중도유형 취락의 편년과 전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朴淳發, 1994, 「漢城百濟 成定期 諸墓制의 編年檢討」, 『先史와 古代』 6.
- 朴淳發, 1994, 「한성백제 성립기 제묘제의 편년검토」, 『先史와 古代』
- 박중국, 2010, 「묘자형 주거지를 통해 본 중도문화의 지역성」, 한신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박중국, 2018,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지역집단」, 『2018년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중부고고학회.

- 朴漢高·崔福奎, 1982, 「中島積石塚 發掘報告」, 『中島發掘調查報告書』, 中島先史遺蹟發掘調查團.
- 裴基同, 1982, 「堤原 陽坪里 A地區 遺蹟(第一次)」, 『'82忠州담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略報告書』.
- 裴基同, 1983, 「제원 양평리A지구 유적발굴 약보고」, 『'83忠州담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略報告書』.
- 백흥기·지현병·고동순·최희규, 1996, 「旌善郡의 先史·古墳遺蹟」, 『旌善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學校 博物館.
- 宋滿榮, 2003,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展開 過程과 韓濊 政治體의 動向」, 『講座 韓國古代史』 제10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宋滿榮,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 심재연, 2003, 「북한강유역 적석총 지표조사 보고」, 『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 심재연, 2010, 「한성백제기 한강 중·상류 지역의 적석총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X X X IX』.
- 심재연, 2017, 「한강 중·상류역의 적석총과 석촌동 적석총과의 관계」,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박물관.
- 유태용·박영재, 2006, 「百濟 積石塚의 分布와 性格에 대한 一考」, 『白山學報』第75號.
- 유태용, 2007, 「楊平 新院里 百濟 積石塚의 研究」, 『경기도의 고고학』, 최몽룡 편저, 주류성 출판사.
- 尹根一·金性泰, 1994,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發掘調查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平昌 龍項里遺蹟』.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華川 原川里遺蹟』.
- 이강호, 2018,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018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발표회』, 중부고고학회.
- 이건충·조은이·김방효, 2019, 「용인 마평동 574-1번지 유적」, 『2018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발표회』, 중부고고학회.
- 李東熙, 1998, 「南韓地域의 高句麗系 積石塚에 대한 再考」, 『韓國上古史學報』28.
- 이동희, 2008, 「最近 研究成果로 본 漢江·臨津江流域 積石塚의 性格」, 『韓國史學報』32.
- 李盛周, 2000, 「墳丘墓의 認識」, 『韓國上古史學報』32.
- 林永珍, 1995, 『百濟漢城時代古墳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林永珍, 2002, 「榮山江流域圈의 墳丘墓와 그 展開」, 『湖南考古學報』16.
- 林永珍,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先史와 古代』19.
- 장한길로, 2018, 「GPR 탐사를 이용한 강릉 하시동 추정 적석총 유구 분포 조사」,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강원연구원·강원학연구원.
- 정상민, 2018, 「정선 아우라지 유적-아우라지에서 확인된 벌집형태의 적석유구」, 『2017 한국고고학저널』, 국립문화재연구소.

- 정치영·윤정현·최진석·심재연, 2018, 「화천 원천리 鋤吳支里적석총의 현황과 구조」, 『百濟學報』 제26호.
- 정치영·윤정현·최진석·강다혜, 최재도 2019, 「새로 찾은 ‘양평 양근리 적석총’의 현황과 특징」, 『百濟學報』 제30호.
- 조동걸, 1967, 「춘천지방의 선사사회 고찰」, 『논문집』 춘천교육대학.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6, 『朝鮮遺蹟遺物圖鑑』 20.
- 朝鮮總督府, 1918, 「第六章 - 楊平郡」,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 車勇杰, 1984, 「淸風 신담 發掘調査 報告」,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綜合報告 - 歷史分野』, 忠北大學校 博物館.
-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財地表面調査報告書』.
- 崔夢龍·李熙濬·朴洋震, 1983, 「堤原 桃花里地區 遺蹟發掘 略 報告」, 『'83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略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 崔福奎·金京晉·鄭然雨·金容伯, 1987, 「平昌郡의 文化遺蹟」, 『平昌郡의 歷史와 遺蹟』, 江原大學校 博物館.
- 崔秉鉉, 1994, 「墓制를 통해서 본 4~5세기 韓國古代社會」, 『韓國古代史論叢』6.
- 崔秉鉉, 2011, 「한국 고분문화의 양상과 전개」,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서경문화사.
- 최병현, 2013, 「중부지방 적석총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성지역 백제 고분의 새로운 인식과 해석』 토 논문, 제13회 백제학회 정기발표회.
- 崔鍾奎, 2008, 「考古學文化 實踐」, 『考古學探究』 第4號, 考古學探究會.
- 崔鍾奎, 2017, 「中島文化」, 『考古學探究』 第20號, 考古學探究會.
- 崔珍碩, 2008, 「百濟 積石塚의 形式 및 編年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 하대룡·이준정, 2019, 「서울 석촌동 고분군 적석총 출토 화장(火葬) 인골(人骨)에 대하여」, 『서울 석촌동 고분군 I』.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연천 군남제 개수공사지역 시굴조사 및 삼거리고분 발굴조사 보고서」.
-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강원도의 선사문화』.
- 한성백제박물관, 2019, 『서울 석촌동 고분군 I -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1-』.
- 홍영호, 2017, 「강릉 하시동 돌무지무덤 소개와 역사성 검토」, 『국립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지』 24.
- 黃龍渾, 1984, 「양평군 문호리지구 유적 발굴보고」, 『八堂·昭陽댐 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査 報告』,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중도문화 수공품 생산경제에서  
위세품 소비의 사회적 의미

허진아

# 중도문화 수공품 생산경제에서 위세품 소비의 사회적 의미

허진아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 Contents

- I. 서론
- II. 중도문화의 '주변성'
- III. 매장의례 맥락에서 본 위세품
- IV. 수공품 생산경제에서 위세품 소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찰
- V. 결론

# I

## 서론

중도문화는 한반도 중부지역 특히 임진·한탄강, 영서·영동지역에 존재하였던 원삼국 시대 고고문화 또는 지역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김무중 2005; 박순발 2001; 박중국 2012, 2018; 심재연 2019; 송만영 2010). 주거와 묘제의 분포상 차이를 기준으로 서해안과 경기 남부 일대 중서부문화 혹은 마한 세력과는 다른 물질문화 양상을 파악하거나(박경신 2018a; 박중국 2014, 2016; 송만영 2010, 2016) 한성백제 중앙과 구분짓는 연구(김성남 2004; 심재연 2015; 유은식 2014, 2019; 정수옥 2016; 한지선 2007)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에는 외래 기술 및 문화요소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김길식 2017; 이창희 2019; 정인성 2011, 2016; 최영민 2016).

그런데, 중도문화 연구의 상당수는 물질문화를 종족성(ethnicity)과 일대일 대응하면서 주변사회와 영역적으로 구별짓거나 정체성(identity) 혹은 기원지를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다(권오영 2009; 김장석 2019 참고).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해, 최근 김장석(2019)은 종족성과 정체성의 형성은 우리와 타자를 동화하느냐(assimilation) 구별짓느냐(distinction)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정적이거나 범주화 될 수 없으며, 당연히 물질문화를 통해 종족집단의 차이와 경계를 구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대신에, 그는 중도유형만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백제국이 당시 대중국 해상교류를 주도하였던 마한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마한 동화 전략을 채택하고 그에 상응하여 실시된 중도유형집단과의 구별짓기 결과물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김장석 2019:20-4).

필자는 종족집단과 물질문화의 분포가 일대일 대응될 수 없다는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다만, 중도문화의 형성 배경 및 과정을 논하는데 있어, 백제국의 정치적 전략 같은 외부적 요인 이외에도 재지주민들이 사회 내적 역량을 고려하여 채택한 전략 즉 자발적 의사결정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동기시대-점토대토기-원삼국 단계로 이어지는 중도문화 지역성의 연속성(송만영 2018)을 고려해 볼 때, 오랜 기간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지역 내·지역 간 사회적 관계나 주변사회와 차별화된 경제 전략의 채택 등 재지집단의 의사결정이 중도문화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주지하다시피, 중도유형사회는 낙랑 관련 물질문화가 출현하는 동시에 철기생산이 급증

하는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기제로 한군현 설치를 주목하고, 낙랑과의 교역 증가 및 철기생산 집단의 이주 등 당시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설명들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철기생산과 같이 복잡하고 체계적인 생산조직과 광역의 유통망을 필요로 하는 ‘수공품 생산경제’를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합리적으로, 상당한 초기 비용과 사회조직의 재구성까지 요구될 수 있는 철기생산 경제로의 전환이 재지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배제된 채 오로지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지주민들로 하여금 수공품 생산경제를 채택하게끔 유도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그와 같은 경제 전략을 어떻게 유지·발전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는 주변성(marginality)과 수공품 생산경제의 관계, 즉 농경지 접근성이 제한되고 이주민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 수공품 생산경제와 사회통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중도문화의 철기생산 경제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적석분구묘와 위세품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문화 매장의례가 수공품 생산경제 운영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 II

### 중도문화의 ‘주변성’

‘주변’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중간·내부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경계·한계·가장자리를 가리킨다. 현대사회에서 ‘주변성’은 개인이나 집단, 사회가 중심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위를 넓히고 강화시킬 수 있는(경제적·사회적·정치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불리한 조건에 맞서 싸우는 사회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개념이다 (Andersen and Larsen 1998; Brodwin 2001; Gurung and Kollmair 2005). 다양한 규모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구들 간, 엘리트와 평민 간, 공동체들 간, 그리고 국경과 국경 사이 등 유형과 규모에 상관없이 어떠한 사회에서나 관찰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주변성이 사회변화의 수동적 결과물이 아니라 주로 집단의 리더나 대표자에 의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행위의 증거라

는 점이다. 어떠한 맥락에서 ‘주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J. Arnold 1995). 따라서 자원 불균형 또는 이념적 변화를 유발시키거나 생존 잠재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D. Arnold 1993).

이 장에서는 주변성과 수공업 생산경제의 관계, 특히 농경지 접근성이 제한되고 이주민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 수공업 생산경제와 사회통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 1 경제적 주변성: 수공업 생산경제로의 전환

중도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임진·한탄강, 영서·영동지역은 한반도 중부 내륙/산간지역이자 동해안과 서해안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형·지리적 조건 때문에 농경지의 규모나 비옥도가 서해안 일대 큰 강들과 평야지대를 확보한 마한문화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을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 농업생산성에서의 격차로 이어졌을 것이다.

농경지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Shenk et al. 2010). 생산적인 경작지는 유한한데, 생존을 위해서는 식량생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경작지가 소유되고 재배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Boserup 1965; Johnson and Earle 1987). 생산성이 높은 농경지가 풍부한 핵심지역(core area)에서는 농부들이 농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보다 나은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중도문화권처럼 농경지 핵심지역에서 벗어난 주변지역(marginal area)의 경우 식량생산에만 의존해서는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커녕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마저 어려울 수 있다(D. Arnold 1985).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건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즉 모든 가족이나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부족한 농경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임계치를 넘겨버린 농경지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면서 식량생산성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핵심지역의 경우 농경지 사유화가 진행되어 가구별 세대 전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Houston et al. 2003; McAnany 1995 참고), 새롭게 이주해 온 후발주자일수록 농경지 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메리트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은 핵심지역보다는 오히려 주변지역에 정착하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성공 여부는 역시 낮은 식량생산성에서 오는 경제적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민족지 연구(Allen 1984; D. Arnold 1985; Deal 1998; Stark 1991)에서 알 수 있듯이, 농경사회에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집단들은 생존을 위해 수공품 생산경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멕시코 테오티후아칸(Teotihuacan) 계곡의 산호세 520(San José 520) 마야인들은 생계를 위해 농업에 의존하기보다는 토기생산을 근본적인 경제활동으로 채택하여 가계소득을 높이고 그 이윤은 대부분 식량을 사는 데 사용하였다(Cabrera Cortés 2011). 특히 중도문화처럼 광역과 지역 수준에서 사회관계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박경신 2018a; 송만영 2019) 생산품 유통에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사회일수록 수공품 생산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토기 같은 수공품을 생산하는 일이 농사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더 큰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D. Arnold 1985 참고). 일반적으로 농사가 수공품 전문화보다 위험도가 낮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필요한 수공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Netting 1990). 농업 생산물은 그 자체로 생산자가 곧바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지만 수공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그 이윤을 다시 식량으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공품 생산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이 깨져 생산자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농사에 비해 위험도가 월등히 높아진다(Binford 1983; D. Arnold 1985).

하지만, 생산하는 제품이 고정적 수요가 보장된 특수한 물품이거나 많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식량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원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지역처럼 다수의 정치체들이 발호하고 도시성이 출현하는 국가단계 사회에서는 농경이나 건축, 전쟁이나 방어의 필요성으로 인해 철제품(농공구, 목재가공구, 무기 등)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철기가 원료산지 확보나 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등 토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필요로 할지라도, 개별 가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토기생산<sup>1</sup>보다 과잉공급에 따른 리스크가 적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식량생산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

1 타날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생산 단위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상용기로 제작된 경질무문토기에서는 규격화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역 단위 전문화된 공방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 2 사회적 주변성: 정체성 구축 및 통합의 필요성

앞서 논하였듯, 원삼국시대 한반도 남부 전역에서 목격되는 인구증가는 중부지역의 ‘주변성’을 가속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경쟁이 치열한 농경 핵심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sup>2</sup>. 인구증가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전략 못지않게 사회적 전략도 중요하다.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에게 적대적이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부이건 수공업 생산자이건 이주민이 많은 사회일수록 새로운 구성원들을 공동체에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은 필수적이다 (Barth 1969 참고).

정체성 구축은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정체성은 자아와 타인 사이의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늘 조작되고 바뀔 수 있는데 (Berdan et al. 2008; A. Cohen 1994; R. Cohen 1978 참고), 이러한 유동성 때문에 이주민과 같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정체성(또는 그룹 멤버십)을 획득하여 사회관계(social relations)를 맺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젠더·나이·성별·결혼·음식·언어는 대다수 사람들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Berdan et al. 2008; Brumfiel 1992; Conkey and Spector 1984; Gero and Conkey 1991; Janusek 2004; Klein 2001; Shennan 1989; Voss 2008; Watanabe 1990).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요소나 타인에게 그렇게 식별되는 요소(예: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를 통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고고학에서 그것을 식별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종족성’이라고 묘사되는 것들, 즉 문화적 행동의 기원과 유사성/차이점을 통해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Stark and Chance 2008).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위한 매장 의례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적절한 부장품(또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공유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Cabrera Cortés 2011, Gallon 2008; Johansen 2014).

많은 경우, 의례는 공유된 가치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행해지므로(McAnany 2002; Rappaport 1999), 사회통합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매장 의례에는 개인의 생물학적·사회적 측면은 물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더 넓은 사회적 구조나 집단 간의 관계까지 반영될 수 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신을 안치하는 행위나 제사, 매

---

2 외래물품이나 낙랑계토기를 사용하는 주거지들이 다수 발견된다(권도희 2017; 박경신 2018a; 박중국 2018)

장지 경관, 부장품으로 사용되는 위세품까지 모두 의례의 범주에 포함된다. 만약 거대한 무덤이 축조되는 장소가 개별 공동체들의 중심축(생산·유통의 중심지)에 해당한다면, 이곳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같은 생산경제를 채택한 공동체의 지도자들 간에 연대 혹은 유익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Elson and Abbott 2000; Fish 1996 참고). 또한 위세품 사용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부의 표시, 권력의 확대와 통제의 집중화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피장자가 권위있는 재화를 사용하여 다른 동등한 경쟁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동맹 혹은 우호적 네트워크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체 내에 안정적 사회망을 구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Mills 2000).

흥미롭게도, 중도문화처럼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고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교환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공품 생산 사회일수록 사회망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의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마야의 핵심지역 테오티후아칸은 도시 자체가 거대한 성지에 가까웠으며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사는 마야 사회의 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Millon 1981). 그러한 핵심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던 토기 생산자들은 녹색 돌이나 흑요석 같은 수입품 혹은 조각상을 부장품으로 사용하는 테오티후아칸 도시민들(소비자)의 매장행위를 모방하면서 그들과 유사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연대를 강화시켜 나갔다고 한다(Cabrera Cortés 2011). 이와 유사하게, 남인도 카나타카 북부(Northern Karnataka; 1200 - 300 BCE) 철기생산 집단은 테라스(농경지) 거주민들과 철제품을 부장품으로 사용하는 매장의례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연합을 도모하였다. 철기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특별한 멤버십을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Johansen 2014).

### III

## 매장의례 맥락에서 본 위세품

이 장에서는 적석분구묘와 위세품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문화 매장의례가 무엇이고, 수공품 생산경제의 유지·운영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적석분구묘 출토 위세품의 종류와 특징

중도문화권 주요 묘제인 적석분구묘는 발굴조사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천 학곡

리·삼곶리, 광주 곤지암, 정선 아우라지 발굴조사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무덤의 구조와 부장품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표 1, 그림 3). 주거지에서도 출토되는 토기류를 제외하면, 묘곽 내 주요 부장품은 청동기·철기·구슬이다. 크게 보아 중서부 마한문화권 무덤의 부장품 구성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청동기류를 살펴보면, 묘곽 내에서는 주로 동환과 동령이 확인된다. 제천 양평리에서는 적석부에서 한식경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팔찌 또는 반지로 추정되는 동환은 연천 삼곶리·우정리·학곡리, 양평 문호리, 춘천 중도, 제천 도화리 등 지역 구분 없이 출토되고 있어 당시 피장자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장신구로 추정되는데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강 및 경기 일대 중서부 마한문화권에서는 주로 마형대구가 부장되고 있어 청동기 위세품 사용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김기옥 2015; 성정용 2016). 이러한 청동기 위세품들은 피장자들이 북방 혹은 낙랑과 교류 관계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표 1 중도문화권 적석분구묘 출토 유물

수계	유적명	호수	토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구슬류	비고	
임진강 상류강 상류	연천 삼곶리	동곽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동환	철촉	카넬리안환옥2, 유리환옥52	인골편	
		서곽	(부석유구 출토)		철촉	카넬리안환옥6, 유리환옥35	인골편	
	연천 황산리		타날문토기		철검, 철촉, 철모	옥제품1?, 관옥3		
	연천 삼거리		타날문토기			카넬리안?		
임진강 상류강 상류	연천 우정리	1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동환		석제옥?		
		2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연천 동이리							
	연천 전곡리							
	연천 학곡리	1	낙랑계토기				토제 환옥2, 유리 환옥1, 금박1	묘곽4기
		2	타날문토기	동환			석제 환옥41, 관옥1, 카넬리안 관옥1, 환옥17, 유리 환옥12, 금박9, 골제 장신구	
		3	낙랑계토기		철검		석제 환옥8, 관옥4, 다면옥1, 카넬리안 관옥16, 다면옥1, 유리 관옥1, 금박1	
		4	낙랑계토기	동령			석제 환옥8, 관옥3, 유리 환옥7	

수계	유적명	호수	토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구슬류	비고
한강지류 (경안천)	광주 곤지암		타날문토기			카벨리안 환옥1, 관옥1? 유리환옥 295(48호 출토)	묘곽55기 동물뼈
	용인 마평동						
북한강	남양주 금남리						
	양평 문호리		타날문토기	동환, 동령	도자, 꺾쇠	석제관옥3, 카벨리안관옥1	
	양평 양수리						
	춘천 신매리						
	춘천 중도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동환	도자, 철촉, 철정		
	화천 화오지리						
	화천 위라리						
남한강강	제천 양평리	1	타날문토기	한식경	도자		적석부 출토
		2	타날문토기		환두도, 도자, 철모, 유견철부, 철촉	관옥	적석부 출토
	제천 도화리		타날문토기	동환	도자, 철모, 철검, 유견철부, 철착	관옥	
	평창 응암리						
	평창 마지리						
	평창 중리						
	평창 하안미리						
	정선 소사						
	정선 소동						
	정선 제장						
	정선 아우라지						묘곽51기

철기는 철검·철정·철부·철착 등 농공구류와 철촉·철모·도자·환두도 등 무기류가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 중도유형사회의 주요 경제가 철기생산이므로 피장자들이 철기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위세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매장 맥락에서 철제품을 소비하는 수준이 마한문화권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김포 운양동 등 엘리트 개인의 위세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철제 무기를 다량으로 부장하는 행위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기원전 3세기까지 일상용 농공구와 목재가공구는 철기로, 무덤부장품이나 의례용 그릇은 청동기로 제작하는 이원화된 생산구조를 유지하였던 중국의 경우, 철기와 청동기 모두 엘리트 통제를 받는 중요한 사회 재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기는 주로 실생활 영역에서 소비된 반면 청동기는 엘리트층을 위한 무덤부장품 혹은 의식에서 사용하는 의례용품으로 소비되었다(Lam 2015).

구슬은 카벨리안과 유리류가 주를 이루는데 원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지역에 유통되었던 전형적인 수입품에 해당한다(허진아 2018a, b). 특이한 것은 가평 대성리, 보성 석평 등 현지에서 생산된 후 마한 엘리트층에 의해 다량으로 소비되었던 석영/수정 구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기와 마찬가지로) 마한문화권에 비해 부장된 구슬의 양이 현저하게 낮아 구슬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묘곽 바닥면에서 출토되어 피장자가 착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연천 학곡리와 삼곡리 출토품을 대상으로 중도문화에 유통된 구슬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겠다.

연천 학곡리 1·2·3호 묘곽에서 출토된 금박구슬의 기원지(I. Lee 2009:188)는 서아시아 또는 이집트이다. 서산 예천(30점), 아산 탕정 명암리(50점), 천안 청당동(16점), 청주 송대(30점), 연기 석삼(1점), 고창 남산(3점)·선동(7점) 등 원삼국 단계 무덤과 삼국 단계 완주 상 윤리, 나주 북암리 등 마한문화권에서 주로 출토된다. 김해 양동리와 나주 북암리 출토 금박구슬과 유사한 조성비를 가진다. 함께 출토된 적색 유리구슬은 K<sub>2</sub>O 함유량이 다소 높은 소다유리 계열로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과 조성비가 유사하다(장경호 외 2004:159).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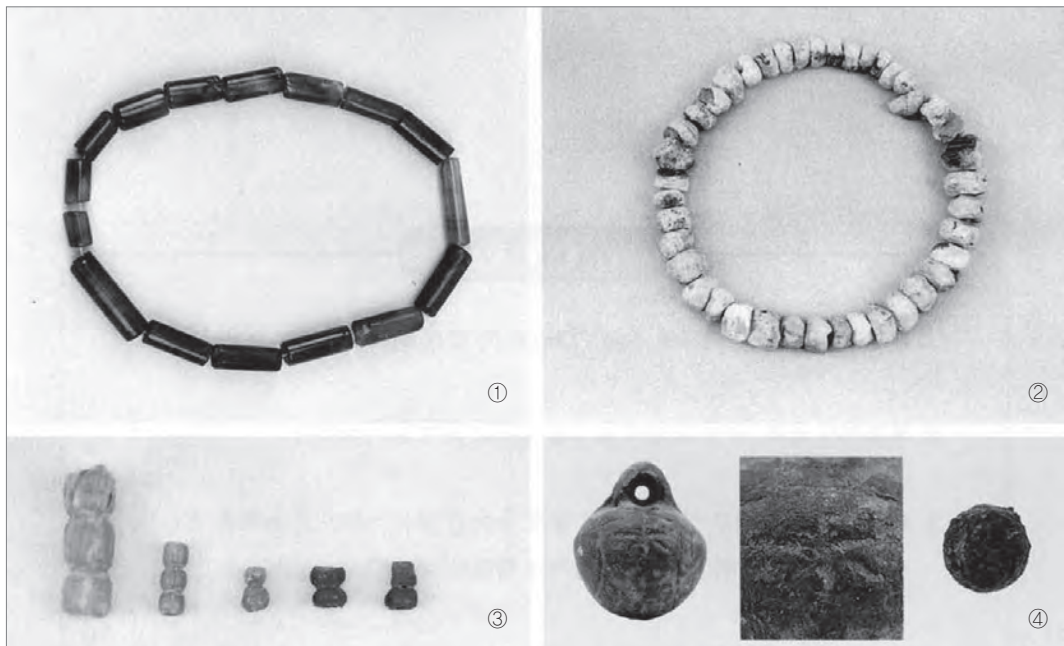


그림 1 연천 학곡리 출토 부장품 ① 3호곽 마노제 구슬, ② 2호곽 석제 구슬, ③ 연주옥, ④ 4호곽 청동방울

와의 교류가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기원후 1세기대 칼륨에서 소다 유리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Bellina 2014; Carter 2015). 이와 동시에, 한반도 남부 정치체들이 한나라 해상 교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량의 소다구슬을 수입하여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학곡리 적석분구묘의 축조 연대가 기원후 1세기를 상회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학곡리 3호곽에서 카넬리안 관옥이 16점이나 출토된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그림 1). 카넬리안 관옥이 한반도에서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구슬이 아니기 때문이다. 3-5세기에 해당하는 완주 상운리 마한 분구묘에서 1점 출토된 바 있다. 카넬리안이라는 광물 자체는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를 기원으로 하는 수입품이지만, 대롱모양 형태는 청동기시대부터 벽옥이나 경옥으로 관옥을 만들어 사용해 온 한반도 고유의 장신구 문화에 속한다. 따라서, (천공기법 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겠지만) 학곡리 출토 카넬리안 관옥은 재지기술로 제작된 현지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다.

연천 삼꽃리에서는 구슬 장신구 2점이 출토되었는데, 카넬리안 환옥과 불투명 적색 유리 환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카넬리안 구슬은 외형상 고창 만동 등 서해안 출토품과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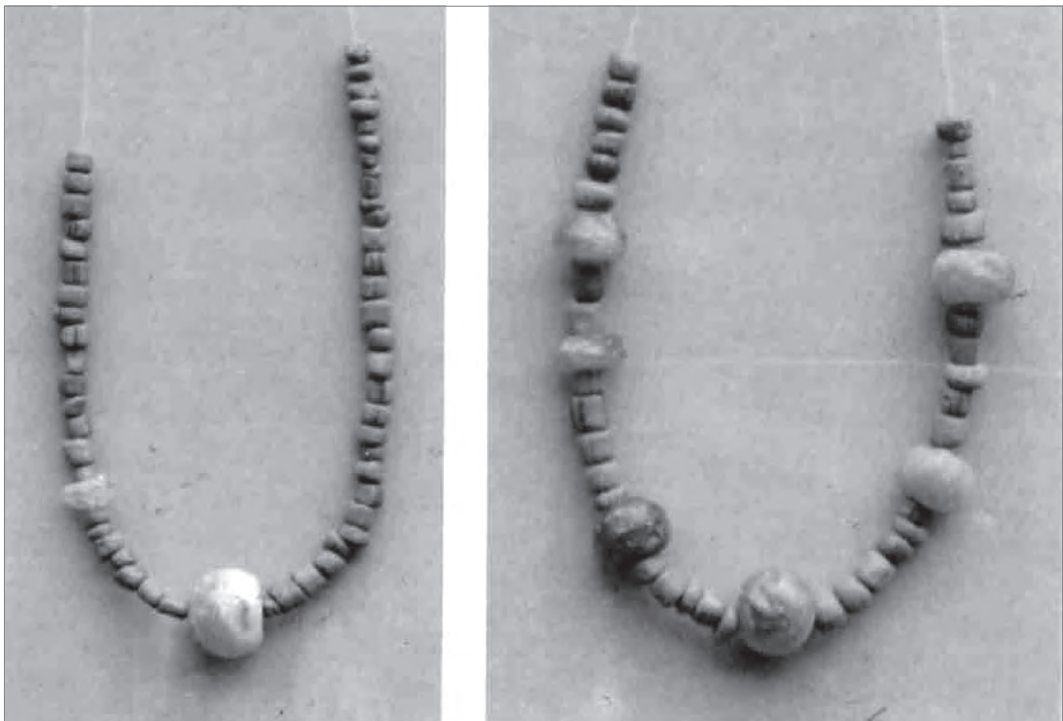


그림 2 연천 삼꽃리 출토 카넬리안 및 인도-태평양 유리구슬

당히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천공기법 조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제작기법 역시 동일하게 다이아몬드 드릴링(인도를 기원으로 하는)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허진아 2018a). 장신구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는 늘리기 기법(Drawn technique)으로 제작된 소다계열 인도-태평양(Indo-Pacific) 유리구슬이다.

인도-태평양 유리구슬은 무티사라(mutisalah)를 포함해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유리구슬을 지칭한다. ‘Trade Wind Beads’(Van der Sleen 1956:27-9)라고도 불리는데 적색·청색·녹색·노란색·오렌지색 등 다양한 색상과 작은 크기가 특징이다. 인도-태평양 유리구슬은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후 250년 사이 인도 남부 항구도시 아리카메두(Arikamedu)에서 처음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Francis 2002:27 - 41). 최근에는 LA-ICP-MS(Laser Ablation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와 같은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유리성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Bellina 2014; Carter 2015; Lankton and Dussubieux 2013)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 심지어 동남아시아 내부에서도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교역·교환망이 운영되었고 구슬 생산도 지역과 시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이 밝혀지고 있다(Carter 2015). 제작기술의 최초 기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인도-태평양 유리구슬이 기원후 1세기대부터 옥 에오 등 동남아시아 국제교역항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한나라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물품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도문화 위세품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동기·철기·구슬을 무덤부장품/매장의례품으로 사용하였다. 묘곽 내부가 아닌 적석 부나 무덤 주변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적석분구묘 출토 위세품은 피장자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매장의례에서 소비된 공공재화로서의 성격도 포함한다.

2) 중도문화권 엘리트들은 중서부 마한문화권과 구별되는 고유의 장신구 스타일(청동환+관옥)을 공유하였다.

3) 농공구에서 무기류까지 부장품으로 사용된 철제품의 구성 양상이 중서부 마한문화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4) 카넬리안이나 소다계열 인도-태평양 유리구슬은 적어도 기원후 1세기 이후에 한나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수입품에 해당한다. 카넬리안 관옥을 다량 사용하거나 석영/수정 구슬은 사용하지 않는 등 중서부 마한문화권과는 다른 구슬 소비 패턴을 가진다. 그러므로 구슬교역의 대상을 마한 해상교역 집단 하나로만 단정지을 수 없다. 중도문화 구슬은

마한뿐만 아니라 낙랑이나 북방 등 한나라와 교역을 하던 다른 집단들까지도 포함하는, 광역 수준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2 매장의례와 사회관계망

기념비적 건축물(monumental architecture)을 축조하는 행위는 해당 사회에 대규모 노동을 동원할 수 있는 구조화된 시스템 즉 정치권력의 지도와 통제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Abrams 1994; Blanton et al. 1996; Kolb 1994). 1인 내지 2인을 위한 단독 마운드를 조성하는 마한문화권의 분구묘·주구토광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가능하다. 규모면에서만 보면 적석분구묘 역시 집단 노동력이 투입된 기념비적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광주 곤지암이나 정선 아우라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적석분구묘 중 일부는 거대한 돌무지 안에 묘곽이 50여 개나 조성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무덤이라기보다 공동묘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따라서 마한문화권 고분 축조가 시사하는 ‘정치권력의 집중화’와는 다른 해석이 요구된다.

적석분구묘는 임진강·북한강·남한강·한강 하류의 충적대지상 전망이 탁월한 곳을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입지한다(표 1, 그림 3). 대하천이나 소하천 유역 구릉상에 입지하는 마한문화권 무덤들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하천 교통로 혹은 결절지의 탁 트인 대지에 조성되었다는 점은 적석분구묘가 개방성이라는 경관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천 삼곶리에서 확인된 부석시설은 적석분구묘가 매장의례에 특화된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묘곽의 바닥면과 비슷한 레벨에 한두 겹의 돌을 편평하게 깔아 만들어 그 위에서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김성태 2018). 무엇보다, 묘곽 내부에 부장품이 없거나(정선 아우라지) 적석부나 무덤 주변에서 깨진 토기편·구슬·동물뼈조각(광주 곤지암)이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매장의례가 행해진 증거라고 보고 북방문화권에서 유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매납하는 풍습과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한다(김성태 2018).

〈그림 3〉에서 보이듯, 적석분구묘는 중도문화권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기보다 수계망의 특정 지역에 밀집해 분포한다. 특히 철기생산 취락들의 중심지 및 경계지점과 중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적석분구묘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 특정 의례를 수행하는 중심지이고 각 무

3 묘곽들을 미리 설치해 두고 나중에 피장자를 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장자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연접분의 형태를 띠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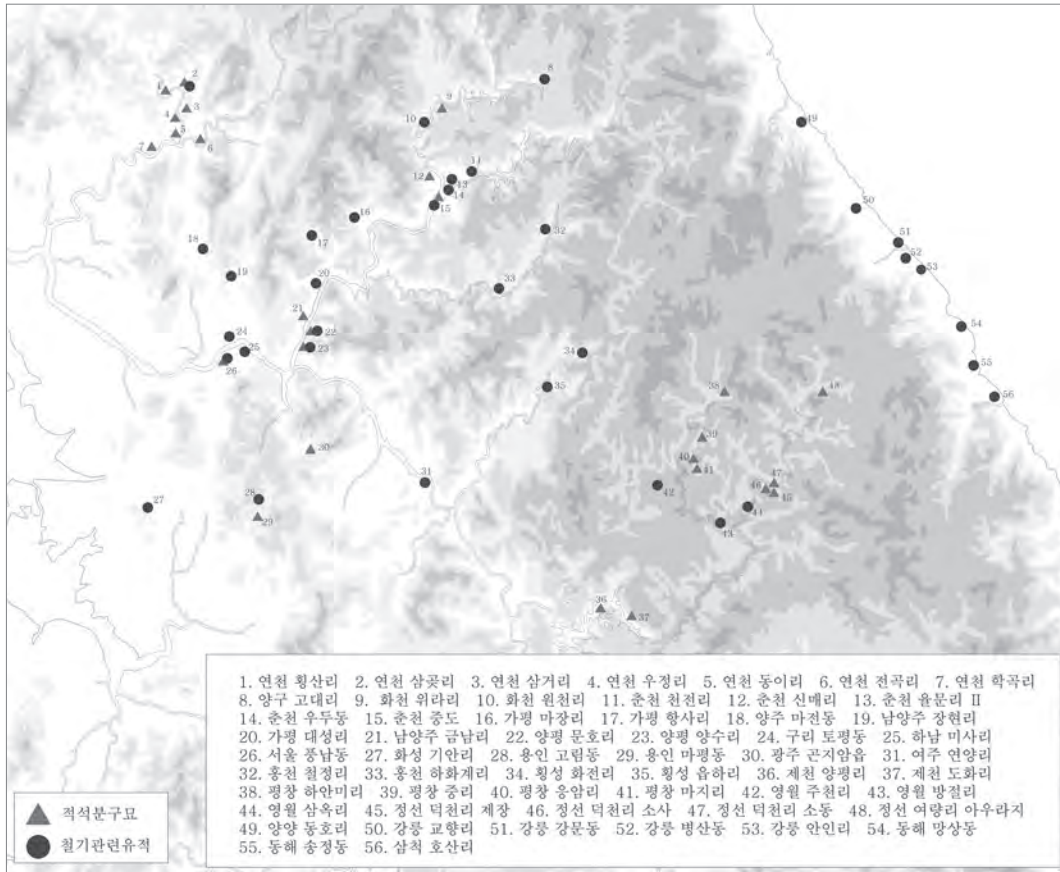


그림 3 적석분구묘 및 철기관련 취락 분포도

덤이 공동체의 중심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같은 교통로 상에 위치한 철기생산 집단들 사이에는 엘리트 연대를 토대로 사회망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Fish 1996 참고). 최근 발표된 연구(송만영 2019)에 따르면, 중부지역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요동-서북-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관계망과 세형동검문화로 대표되는 지역관계망이 구축되어 있었고 사회통합을 위해 의례를 주관하는(지역 공동) 제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게다가, 중도유형사회에 철기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를 매개로 하는 취락군 단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박경신 2018a; 박중국 2018; 최영민 2016). 철기생산(전문) 취락은 기원후 1-2세기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거점취락<sup>4</sup>과 목적

4 춘천 신매리·원천리·위라리·우두동·중도, 광주 곤지암리, 양평 양수리, 횡성 읍하리, 여주 연양리, 남양주 장현리, 연천 강내리(박경신 2018a)



취락<sup>5</sup>으로 나뉘는데, 대형의 거점취락은 유통이 편리한 결절지, 예를 들어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춘천분지와 북한강 및 남한강이 합수되는 지점에 위치하면서 철기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박경신 2018a). 그리고 생산된 철기는 주변의 소규모 취락을 포함하여 낙랑과 영남, 마한 등 외부 지역으로 유통되었다(권도희 2017; 박경신 2018b).

필자가 보기에, 이 같은 취락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철기생산 집단들 사이에 구축된 사회망을 토대로 중도문화권에 일정 수준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매장의례를 통해 사회관계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오랜 지역전통이 수공품 생산경제가 확립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IV

### 수공품 생산경제에서 위세품 소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찰

청동기시대 복합사회에서 원삼국시대 정치체 출현과 국가단계 사회로의 발전을 이루어낸 주요 원동력은 노동집약적 농업활동과 수공품 전문화 및 대외교역의 개시이다. 원삼국시대 들어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마한문화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취락의 도시성 및 지역 간 교류가 강화되어 가는 한편, 중도문화권에는 북부로부터 비농경이 주민의 지속적 유입과 철기생산(전문)취락이 출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이 구성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Heo 2018).

두 사회 모두 결과적으로 정치체/초기국가 단계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사회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구조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마한사회는 서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농경을 주요 경제로 채택하고 환황해권 해상교역망을 운용하며 필요한 자원과 물자를 확보하였던(허진아 2019a) 반면, 중도유형사회는 철기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의 수공품 생산경제를 채택하였다(박경신 2018a). 자연·환경적 조건에 따른 가용자원의 차이와 지역사회의 내적 역량을 고려하여 내린 재지집단의 의사결정 내용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Kim 2001).

---

5 가평 대성리·항사리, 춘천 울문리, 양구 고대리, 평창 천동리, 영월 주천리, 하남 미사리, 광주 장지동, 연천 삼곶리(박경신 2018a)

주지하다시피, 중도문화의 철기생산 기술은 중국과의 교류 혹은 이주민의 유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청동기와 철기(괴련철 bloomery iron) 생산 공정이 함께 이루어지다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전국시대인 기원전 4세기 후반대로 하남성 등 중국 중부 평원을 중심으로 주철(cast iron)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sup>6</sup> 주목할 점은 기원전 3세기 말 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중국 내 철기생산이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제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전국시대 각 국가에 농공구(그리고 목재가공구)를 중심으로 하는 철기생산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었고 생산된 제품은 지역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산동성 임치(臨淄) 같은 대형 도시들에 설치된 국제수공품센터(international craft centers)를 통해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유통되고 있었다(Bai and Shimizu 2007).

그런데, 한제국이 하남성과 산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철기생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기원전 8-7세기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중소 규모의 철기생산(괴련철+주철) 집단들은 사회조직이 해체되는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Lam 2015). 추정컨대, 이들 중 일부가 한반도로 이주하였거나 한군현 설치(108 BCE) 이후 증가한 철기 수요에 상응하여 서북한지역 장인<sup>7</sup>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부지역에 철기생산 기술이 유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논하였듯, 중도문화권은 농경 핵심지역의 주변부에 해당하므로 재지주민들이 철기 생산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도유형사회는 기원전 3세기대 외부로부터 철 소재나 제품을 들여와 단야과정을 거친 완제품을 생산·분배하던 사회에서 기원후 2세기 후반~3세기대 제련로에서 자체적으로 선철(pig iron)과 괴련철을 대량생산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최영민 2016:144).

6 한나라의 Zhonghang 청동+철기 생산공방 유적(375 BCE)을 예로 들 수 있다(Henan 1994; Ma 1999). 하지만 중국 내 가장 이른 주철 생산의 증거는 괴련철 생산과정에서 우연히 얻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8-7세기대 산시성 곡촌-천매(曲村-天馬; Tianma-Qucun) 유적 출토 고탄소 철편이다(Han and Chen 2013:169). 괴련철 생산기술은 서주시대 말 위신재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확립된 것으로(Chen et al. 2009; Henan and Sanmenxia 1999), 주철은 청동기를 녹이는 용도로 사용된 용선로(cupola furnace)에서 우연히 괴련철을 녹이다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Wagner 2008:119). 서한대(202 BCE-8 CE)에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주조기술(iron casting)이 성행하였다. 주조기술과 용광로(blast furnace)가 남중국에서 처음 개발(Wagner 2008:107)된 후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에 반해, 주철 혁신은 기원전 6-5세기대 비교적 짧은 기간(약 70년) 동안 중국 북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Lam 2014:520).

7 전국계 제도기술의 바탕 위에 성립되었던 서북한지역 재지의 토기 전통과 漢代 토기의 일정 요소가 혼합하여 성립된 서북한지역의 독자적 토기문화인 낙랑토기(이나경 2013:20)가 중부지역에 출현하는 것 역시 이러한 사회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화성 기안리나 평택 진위 등 마한문화권에서 괴련강 생산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기가 늦기 때문에 원삼국 단계 중부지역 철기생산은 중도문화권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중도문화권에는 괴련철을 입수하여 정련단야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내 유통망<sup>8</sup>과 다양한 철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원료 및 연료를 구입하고 생산품을 분배할 수 있는 광역의 유통망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수공품 생산경제 사회에서 네트워크 구축은 공동체의 생존을 비롯해 결혼·방어·정보의 교환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Ford 1983). 북아메리카 푸에블로(Pueblo) 인디언 사회에는 마을들끼리 서로 다른 수공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는(buffering mechanism) 사회관계망이 존재하였다. 식량 교환이 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 수공품의 수요가 좋지 않아 마을 구성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면 이 관계망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마을로부터 임시적으로 식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남아메리카 야노마모(Yanomamo) 인디언들 역시 푸에블로처럼 마을들끼리 서로 다른 수공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사회관계망을 구축하였는데, 그 목적은 약간 다르다(Chagnon 1997). 이들에게는 생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적들에 대비하는 방어적 성격의 결혼 동맹도 필요했는데, 마을들끼리 맺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갔다. 중도문화권 지역엘리트들이 전쟁 동맹을 필요로 하였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더라도, 적어도 공동체 생존을 위한 식량 구입이나 정보 교환, 원료나 유통망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역 내·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은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앞서 논하였듯, 고대사회에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상징적 의례·의식의 수행이다(Hegmon 1989; Mills 2000). 예를 들어 1) 기념비적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2) 특정 물품을 교환하면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연대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허진아 2018a, b 참고). 중도문화에 대입하여 보자면, 전자는 적석분구묘 축조에 해당할 것이다. 50여 묘곽이 설치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 엘리트층을 위한 일회성이 아닌) 다수의 피장자들이 안치될 때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공 건축이나 매장의례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사회관계망을 공고히 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적석분구묘가 가진 개방적 경관(많은 사람들이

8 가평 대성리, 여주 연양리, 횡성 읍하리, 양양 하평리, 가평 마장리, 춘천 우두동, 화천 원천리, 홍천 하화계리, 양평 대심리, 수원 서둔동, 용인 고림동, 횡성 화전리, 영월 주천리·삼옥리·팔괴리, 강릉 병산동, 동해 망상동·송정동, 양구 고대리, 양양 가평리(최영민 2016)

오고가는 중심지의 탁 트인 대지에 우뚝 솟은)은 대중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후자는 중도유형사회 엘리트들의 위세품 소비를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도유형사회 엘리트들은 주요 생산품인 철기를 위세품으로 사용하고 고유의 장신구 스타일을 공유하였다. 많은 경우, 위세품 소비는 권력의 확대와 통제의 집중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트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Blanton et al. 1996). 마한문화권 엘리트들 역시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고 동료 엘리트들과의 대화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구슬을 사용하였다(Heo 2018). 하지만, 위세품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매장의례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철기를 생산하는 집단의 엘리트는 사회적으로 습격·방어·신분 표시의 가치를 지니는 철제 무기를 부장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 엘리트들과 특정한 철제품을 공유한다(Gallon 2008; Johansen 2014). 어쩌면 중도문화 엘리트들이 중서부 마한문화권 엘리트들과의 (생산자-소비자) 관계 강화를 위해 철기부장 의례를 공유, 모방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철기가 소비된 것일지도 모른다. 향후 두 문화권의 철기 부장품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요약하면, 농경 핵심지역의 주변에 해당하는 중도유형사회는 이주민들과 철기생산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수공품 생산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 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지역엘리트들은 수공품 생산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재지주민들 간 화합을 이끌어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들 간 연대/협력 관계를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기반의 적석분구묘를 축조하고 위세품을 소비하는 매장의례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내·지역 간 사회관계망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V

### 결론

지역성의 발생은 (중족)집단의 차이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김장석 2019:32). 그러므로 중도문화권을 규정짓는 작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은 ‘중도유형’의 물질문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출현하였는지를 밝히는 것

이다. 즉, 중도문화권을 철기생산 사회/집단으로 규정한다면, 재지주민들로 하여금 수공품 생산경제를 채택하게끔 유도한 사회 내적·외적 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중도문화권 수공품 생산경제 확립에 매장의례와 위세품 소비를 통한 사회관계망 강화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제안한다. 농경 핵심지역의 주변에 해당하는 중도문화권 재지주민들이 생계전략의 일환으로 이주민들과 철기 생산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그에 따라 사회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면서, 공동체 기반의 적석분구묘를 축조하고 위세품을 소비하는 매장의례가 수행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지역 간 사회관계망이 강화되면서, 중도유형사회가 철기생산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Mills 2017)을 통해 중도유형사회의 정체성 공유와 기술 혁신의 확산이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장경호 · 김성태 · 김아관 · 김성수 · 김영화 · 이미란, 2004, 『연천 학곡리 적석총』, 기전문화재연구원.
- 권도희, 2017, 「중부지역 낙랑계 토기 및 철기에 대하여」, 『고고학』16(3), 중부고고학회.
-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8-2호, 서울경기 고고학회.
- 김길식, 2017,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지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 『백제문화』5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기욱, 2015,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마한 분구묘 비교 검토』, 학연문화사.
- 김무중, 2005, 「漢江流域 原三國時代의 土器」,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고고학회.
- 김성남, 2004, 「백제 한성양식토기의 형성과 변천에 대하여」, 『고고학』3-1, 중부고고학회.
- 김성태, 2018,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재검토」,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연구원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 김장석, 2019, 「중부지역 종족 연구경향에 대한 단상」, 제2회 강원고대문화연구 심포지엄 자료집.
- 박경신, 2018a, 「원삼국시대 중도유형 취락의 편년과 전개」,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경신, 2018b, 「원삼국시대 중부지역과 영남지역의 내륙 교역」, 『삼한·삼국시대의 교류와 교섭』, 부산고고학연구회 기획학술발표회.
- 박순발,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 박중국,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 『中央考古研究』第11號, 中央文化財研究院.
- 박중국, 2014, 「원삼국~삼국시대(백제 한성기) 중부지역의 시공적 정체성」, 『국가성립 전야의 중부지역』, 중부고고학회 2014년 정기학술대회, 중부고고학회.
- 박중국, 2016, 「중부지역 쪽구들 문화의 계통과 전개」, 『고고학』15-1, 중부고고학회.
- 박중국, 2018,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지역집단」, 2018년도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중부고고학회.
- 성정용, 2016, 「고대 북방지역 고고학 연구의 동향과 쟁점」, 『인문학지』53,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심재연, 2015, 「철기시대 중부지방의 단야공방연구시론」, 『백산학보』102, 백산학회.
- 심재연, 2019, 「쟁점-철기시대 중부지역 “정치체”의 상호작용」,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중부고고학회.
- 송만영, 2010, 「中部地方 原三國時代 住居址와 聚落」, 『馬韓·百濟 사람들의 주거와 삶』, 국립공주박물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 송만영, 2016, 「중부지역 원삼국~백제 한성기 타날문 시루의 지역성과 편년」, 『호남고고학보』52, 호남고고학회.
- 송만영, 2018,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지역집단 중부지역 물질문화와 지역성」,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중부고고학회.

- 송만영, 2019, 「중부 지역 점토대토기 사회에 대한 다른 인식」, 『인문논총』76(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이나경, 2013,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 2019, 「중도식무문토기 출현연대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103, 한국상고사학회.
- 유은식, 2014, 「한반도 북부지방 토기문화를 통해 본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의 계통-소위 ‘중도유형문화’를 중심으로-」, 『고고학』13-3, 중부고고학회.
- 유은식, 2019, 「濊文化的 형성과 확산양상-중도유형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상고사학회.
- 정수옥, 2016, 「漢城期 百濟 中央地域 土器 生産 技術의 變遷 樣相」, 『고고학』15(2), 중부고고학회.
- 정인성, 2011, 「원삼국시대 연대론의 제문제 - 낙동강유역권에서 와질토기의 성립 -」, 『원삼국시대 연대론의 제문제』, 세종문화재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자료집.
- 정인성, 2016, 「원사시대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구축과 상호작용」,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한국상고사학회.
- 최영민, 2016, 「古代 韓半島 中部地域 製鐵技術 研究」,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지선, 2007, 「중도식 경질무문토기에서 보이는 조리방법의 검토」, 『고고학』6(2), 중부고고학회.
- 한지선, 2013, 「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 : 서울·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중앙고고연구』12, 중앙문화재연구원.
- 허진아, 2018a, 「마한 원거리 위세품 교역과 사회정치적 의미-석제 카벨리안 구슬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41, 호서고고학회.
- 허진아, 2018b, 「건축에너지 관점에서 본 풍납토성 축조의 사회정치적 함의」, 『한국상고사학보』102, 한국상고사학회.
- 허진아, 2019a, 「초기철기-원삼국시대 구슬 해상교역과 환황해권 정치 경관의 변화」, 『한국상고사학보』106, 한국상고사학회.
- 허진아, 2019b, 「옥 에오의 구슬 생산과 교역, 동아시아 교류네트워크」, 『베트남 옥에오 문화: 바닷길로 연결된 부남과 백제』2019 국제교류전 도록, 한성백제박물관.

Abrams, E.M., 1994, *How the Maya Built Their World*. University of Texas Press.

Andersen, J. and Larsen J.E., 1998, Gender, Poverty and Empowerment, *Critical Social Policy* 18(2):241-258.

Arnold, D.E., 1985, *Ceramic Theory and Cultural Proc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Arnold, D.E., 1993, *Ecology of Ceramic Production in an Andean Commu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Arnold, J.E., 1992, Complex Hunter-Gatherer-Fishers of Prehistoric California: Chiefs, Specialists, and Maritime Adaptations of the Channel Islands, *American Antiquity* 57:60-84.

Arnold, J.E., 1995, Social Inequality, Marginalization, and Economic Process. In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edited by Price, T.D. and Feinman G.M.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 Allen, J., 1984. Pots and Poor Princ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Role of Pottery Trading in Coastal Papua. In *The Many Dimensions of Pottery: Ceramics i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edited by Sander E. van der Leeuw and A.C. Pritchard, pp. 407–64. University of Amsterdam, Amsterdam.
- Bai, Y. and Shimizu, Y., 2007. Shandong Sheng Linzi Qiguo Gucheng Handai jingfan de kaoguxue yanjiu. [Research on mirror casting molds from the Qin capital city in Linzi, Shandong]. Beijing
- Barth, F., 1969. Introduction. In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edited by F. Barth, pp. 9–38.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 Bellina, B., 2014. Maritime Silk Roads'Ornament Industries: Socio-Political Practices and Cultural Transfers in the South China Sea.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24(4):345–77.
- Berdan, F.F., Chance, J.K., Sandstrom, A.R., Stark, B.L., Taggart, J.M. and Umberger, E., 2008. *Ethnic Identity in Nahua Mesoamerica: The View from Archaeology, Art History, Ethnohistory, and Contemporary Ethnography*. University of Utah Press, Salt Lake City.
- Binford, L.R., 1983. *In Pursuit of the Past*. Thames and Hudson, New York.
- Blanton, R.E., Gary M.F., Stephan A.K., and Peter N.P., 1996. A Dual-Processual Theory for the Evolution of Mesoamerican Civilization. *Current Anthropology* 37(10):1–14.
- Boserup, E., 1965. *The Conditions of Agricultural Growth: The Economics of Agrarian Change under Population Pressure*. Aldine, Chicago.
- Brodwin, P., 2001. Marginality and Cultural Intimacy in a Transnational Haitian Community. Occasional Papers No. 91.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Brumfiel, E.M., 1992. Breaking and Entering the Ecosystem—Gender, Class, and Faction Steal the Show. *American Anthropologist* 94:551–567.
- Cabrera Cortés, M.O., 2011. Craft Production and Socio-Economic Marginality Living on the Periphery of Urban Teotihuacan. Ph.D. Dissertation, School of Human Evolution and Social Change, Arizona State University.
- Carter, A., 2015. Beads, Exchange Networks and Emerging Complexity: A Case Study from Cambodia and Thailand (500 BCE–CE 500). *Cambridge Archeological Journal* 25(4):733–57.
- Chagnon, N.A., 1997. Yonomamo. Case Studies in Cultural Anthropology, George and Louise Spindler, series editor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Fort Worth.
- Chen, J., Yang, J., Sun, B., and Pan, Y., 2009. Manufacture technique of bronze-iron bimetallic objects found in M27 of Liangdaicun site, Hancheng, Shaanxi. *Science in China Series E: Technological Science* 52(10):3038 - 45. (Chinese)
- Cohen, A., 1994. *Self Consciousness: An Alternative Anthropology of Identity*. Routledge, London.
- Cohen, R., 1978. Ethnicity: Problem and Focu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7:379–403.
- Conkey, M.W. and Spector, J.D., 1984. Archaeology and the Study of Gender. In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7, edited by M. B. Schiffer, pp. 1–38. Academic Press, Orlando, Florida.
- Deal, M., 1998. Pottery Ethnoarchaeology in the Central Maya Highlands. In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 edited by Price, T.D. and Feinman G.M.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 Elson, M.D. and Abbott, D.R., 2000. Organizational Variability in Platform Mound - Building Groups of the American Southwest. In *Alternative Leadership Strategies in the Prehispanic Southwest*, edited by B.J. Mills, pp. 117–35.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Fish, S.K. 1996. Dynamics of Scale in the Southern Deserts. In *Interpreting Southwestern Diversity: Underlying Principles and Overarching Patterns*, edited by Paul R. Fish and J. Jefferson Reid, pp. 107–14. Arizona State University Anthropological Research Paper no. 48. Tempe.
- Ford, R.I., 1983. Inter-Indian Exchange in the Southwest. In *Handbook of North America Indians*, Vol. 15, edited by William C. Sturtevant,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 Francis, P., 2002. *Asia's Maritime Bead Trade 300 B.C. to the Present*,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 Gallon, M. 2008. The Political Economy of Iron in Late Prehistoric South India, *Antiquity* 82.
- Gero, J.M. and Conkey, M.W., 1991. Engendering Archaeology: Women and Prehistory. Basil Blackwell, Oxford.
- Gurung, G.S. and Kollmair, M., 2005. Marginality: Concepts and Limitations. Individual Projects 6 Working Paper 4. Development Study Group,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Zurich, Zurich, Switzerland.
- Han, R. and Chen, J., 2013. *Casting iron in ancient China*, edited by Humphris, Jane and Rehren, Thilo, pp. 168–177. London: Archetype publications.
- Hegmon, M., 1989. Reduction and Variation in Agricultural Economies: A Computer Simulation of Hopi Agriculture. *Research in Economic Anthropology* 11:89–121.
- Heo, J., 2018. Urbanism and Polity Interaction in Mahan: A Study of Early State Formation in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C. 100 BCE–300 CE), South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Henan, 1994. Warring States coin molds recently discovered in Xinzheng. *Huaxia Archaeology* 4:14 - 20. (Chinese)
- Henan and Sanmenxia, 1999. *Guo state tombs at Sanmenxia*. Beijing: Cultural Relics Press. (Chinese)
- Houston, St., Escobedo, H.L., Scherer, A., Child, M., and Fitzsimmons J.L., 2003. Classic Maya Death at Piedras Negras, Guatemala. In *Anthropología de la eternidad: La muerte en la cultura maya*, edited by A. Ciudad, M.H. Ruz, and M.J. Iglesias, pp. 113–43. Sociedad Espanola de Estudios Mayas y Centro de Estudios Mayas, Madrid.
- Hung, H. and Chao, C., 2016. Taiwan's Early Metal Age and Southeast Asian trading systems. *Antiquity* 90(354):1537–1551.
- Janusek, J.W., 2004. *Identity and Power in the Ancient Andes: Tiwanaku Cities through Time*, Routledge, New York.
- Johansen, P.G., 2014. Early ironworking in Iron Age South India: New evidence for the social organization of production from northern Karnataka.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39(3):256–275.

- Johnson, A.W. and Earle, T., 1987.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Kim, J., 2001. Elite strategies and Sprea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pread of Iron in The Bronze Age Societies of Denmark and Southern Kore.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0.
- Klein, C.F., 2001. Gender in Pre-Hispanic America. Dumbarton Oaks, Washington, D.C.
- Kolb, M., 1994. Monumentality and the rise of religious authority in precontact Hawai'i. *Current Anthropology* 35:521-47.
- Lankton, J. and Dussubieux, L., 2013. Early Glass in Southeast Asia. In *Modern Methods for Analysing Archaeological and Historic Glass*, edited by Koen Janssens, Wiley and Sons.
- Lam, W., 2014. EVERYTHING OLD IS NEW AGAIN? Rethinking the Transition to Cast Iron Production in the Central Plains of China.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70.
- Lam, W., 2015. Production of Commodities and Iron Economy in Early China: A Case Study of a Western Han Iron Foundry at Taicheng.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Harvard University.
- Lee, I., 2009. Characteristics of Early Glasses in Ancient Korea with Respect to Asia's Maritime Bead Trade. In *Ancient Glass Research along the Silk Road*, edited by G. Fuxi, R. H. Brill, and T. Shouyun,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Ma, J., 1999. A preliminary analysis on the spatial layout of the capital of the Zheng and Han states.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Geography* 2:115 - 29. (Chinese)
- McAnany, P.A., 1995. *Living with the Ancestors: Kinship and Kingship in Ancient Maya Society*. University of Texas, Austin.
- McAnany, P.A., 2002. Rethinking the great and little tradition paradigm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ritual. In *Domestic Ritual in Ancient Mesoamerica, Monograph*, Vol. 46, edited by Plunket, P.,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p. 115 - 119.
- Mills, B.J., 2000. *Alternative Leadership Strategies in the Prehispanic Southwest*.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 Mills, B.J., 2017. Social Network Analysis in Archae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6:379-97.
- Millon, R., 1981. Teotihuacán: City, State, and Civilization. In *Archaeology* vol. 1 (Supplement), edited by J. A. Sabloff, pp. 198-243.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 Netting, R.M., 1990. Population, Permanent Agriculture, and Polities: Unpacking the Evolutionary Portmanteau.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Systems*, edited by Steadman Upham, pp. 21-61. School of American Research Advanced Seminar Series, Douglas W. Schwartz, general edit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Rappaport, R.A., 1999.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henk, Mary K, Mulder, M.B., Beise, J., Clark, G., Irons, w., Leonetti, D., Low, b.s., Bowles, S., Hertz, S., and Piranio, P., 2010.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mission among Agriculturalists: Foundations of Agrarian Inequality. *Current Anthropology* 51(1):65-83.
- Shennan, S., 1989.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Stark, M.T., 1991. Ceramic Production and Community Specialization: A Ceramic Ethnoarchaeological Study, *World Archaeology* 23():64–7.
- Stark, B.L. and Chance, J.K., 2008. Diachronic and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Mesoamerican Ethnicity. In *Ethnic Identity in Nahua Mesoamerica: The View from Archaeology, Art History, Ethnohistory, and Contemporary Ethnography*, edited by F. F. Berdan, J. K. Chance, A. R. Sandstrom, B. L. Stark, J. M. Taggart and E. Umberger, pp. 1–37. University of Utah Press, Salt Lake City.
- Van der Sleen, W.G.N., 1956. *Description of a lot of beads known as the Gardner Collection from Johore Lama Malaysia: surface finds*. Manuscript, On file,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Cambridge University.
- Voss, B.L., 2008. *The Archaeology of Ethnogenesis: Race and Sexuality in Colonial San Francisc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Wagner, D.B., 2008.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Chemistry and Chemical Technology*. Part 11: Ferrous Metallurgy, Vol. 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anabe, J., 1990. From Saints to Shibboleths: Image, Structure, and Identity in Maya Religious Syncretism, *American Ethnologist* 17:131–150.

•

# 1~3세기 한반도 중서부지역 정치체의 동향

김창석

# 1~3세기 한반도 중서부지역 정치체의 동향\*

김 창 석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 Contents

- I. 머리말
- II. 眞番의 형성과 위치
- III. 眞番郡의 변천과 주변 정치체
- IV. 원삼국시기 예성강~한강 유역의 정세
- V. 맺음말

\* 2020년 6월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학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 심포지엄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의 일부가 『韓國古代史研究』99에 실린 바 있다. 이 글은 위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 머리말

한반도 중부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이래 한강과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하천의 유역에 사람들이 정착하였으며, 태백산맥에서 동서로 뻗어 내린 산악의谷間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청동기시대로 접어들면 취락이 성장·분화하여 聚落群이 형성되며 몇 개의 취락군이 연계를 맺은 邑落이 출현한다. 기원전 시기부터 확인되는 眞番, 臨屯과 같은 정치체는 이러한 읍락집단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되는 원삼국시대가 되면 濊, 沃沮, 그리고 馬韓이 등장한다. 이들은 한반도 중부의 공간에서 다시 중서부에 자리 잡은 마한의 북부 소국들, 영서의 예족 정치체, 영동의 동예와 옥저로 지역별 구분이 가능하다. 동예와 옥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축적되어<sup>1</sup> 그 성립과 변천, 소멸 과정에 관해 큰 이견이 없다.

영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른바 ‘貊國’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춘천에 맥국이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 唐代 賈耽의 『古今郡國志』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쓰는 것은 사료의 성립과정에 대한 이해와 고고학 자료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필자는 이에 관해, 이른바 ‘맥국’이 臨屯에 속한 대읍락으로서 현재의 춘천 우두동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주민은 예족 계통이었고 임둔이 고조선에 복속되었다가 漢의 군현이 설치되면서 樂浪郡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삼국과 교류·전쟁을 벌이다가 5세기 들어 고구려에게 멸망했다고 보았다. 이후 신라인이 6세기 중엽 춘천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간 150여 년 고구려가 지배했던 이곳을 맥족의 나라라고 하여 ‘맥’국이라고 인식했고 이것이 당나라 사신 韓朝彩를 거쳐 가담에게 전해져 영동濊國-영서 貊國說이 『고금군국지』에 수록되게 되었다고 보았다.<sup>2</sup>

그런데 강원 영서지역의 예족(嶺西濊 - 필자. 이하 동일)의 문화요소로서 거론되는 평면

---

1 三上次男, 1966 「穢人とその民族的性格」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金基興, 1985 「夫租葳君에 대한 고찰 - 漢의 對土着勢力 施策의 一例」 『韓國史論』12,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李賢惠, 1997 「동예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70.

2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韓國古代史研究』51; 同, 2015 「3세기 이전 춘천 지역의 취락 양상과 정치체의 형성」 『新羅文化』46; 同, 2018 「『삼국사기』 소전 ‘貊國’의 실체와 傳承 경위」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

묘·凸字形 주거지, 경질무문토기, 증석식적석묘(적석분구묘)는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경기 북부~영서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집단이 유사한 생활문화를 영위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에서는 경기 북부에 마한의 문화가 혼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韓濊의 혼용을 주장하기도 했다.<sup>3</sup>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문헌자료를 꼼꼼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중서부지역에는 眞番, 朝鮮, 馬韓 소국이 문헌에서 확인되며 고조선 멸망 후 중국 세력이 설치한 眞番郡, 樂浪郡 南部都尉, 帶方郡은 이곳 주민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변천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재지세력의 消長이 발생하고 이웃 정치체와의 교류, 주민 이주가 일어났을 것이다.

百濟의 성립과 건국세력의 出自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부여계의 고구려 주민집단이 남하하여 선주 집단과 결합하여 건국되었다는 것이<sup>4</sup> 통설이다. 이 글은 백제 건국집단의 기원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즉 고대국가 백제의 성립 前夜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 말기~대방군 설치라는 400여 년의 기간에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 벌어진 정치·군사적 변동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진번계 집단이 중국 郡縣의 지배체제 변천과 마한 소국의 확장을 배경으로 하여 한강 하류역의 伯濟國으로 편입되었고 고대국가로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試論을 제기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진번계 또는 舊진번계 주민이라고 부른 것은 眞番이라는 정치체의 주민과 그 후예들을 중심으로 하고 위씨조선과 중국 군현의 지배를 지나오면서 진번 지역으로 혼입된 原古朝鮮 주민 및 토착화한 중국 移民을 포괄하여 가리킨다.

해방 이후 휴전선 이북의 경기도, 황해도 지역에 대한 고고학 조사가 그리 진전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 조사 성과에 대한 정보 입수도 여의치 못해 자료의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諸賢의 질정과 조언을 바란다.

3 宋滿榮, 2003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展開 過程과 韓濊 政治體의 動向」 『강좌 한국고대사 10』, (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4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로 양기석,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노중국,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와 쟁점에 관해서는 노중국 외, 2013 『백제, 누가 언제 세웠다』, 한성백제박물관을 참조할 것.



## II

### 眞番의 형성과 위치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4개의 군을 설치했다. 낙랑군은 고조선의 王都를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현토군은 나중에 고구려로 발전하는 정치체가 형성되던 압록강 중류역에 그 郡治가 자리 잡았다.<sup>5</sup> 임둔군과 진번군은 각기 臨屯과 眞番이라는 정치체가 있던 곳에 설치되었다.

惠帝와 高后의 치세가 되어 천하가 비로소 안정되었다. 요동대수는 衛滿을 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위만으로 하여금) 塞外의 오랑캐가 변경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랑캐의 군장이 天子를 뵈고자 하면 막지 않도록 했다. 황제가 (요동대수의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하니, 위만은 군사의 위엄과 재물을 얻어 주변의 小邑들을 쳐서 항복시켰다. 眞番과 臨屯도 모두 와서 항복하니 (고조선의 권역이)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史記』卷115, 朝鮮列傳55

기원전 2세기 초에 漢의 郡縣제는 위만을 外臣으로 삼았다. 위만은 이로써 입수한 한나라의 문물과 병기를 활용하여 주변의 정치체를 복속시켰다. 그 대상 중에 眞番과 臨屯이 들어있다. 고조선이 망하고 설치되는 眞番郡과 臨屯郡은 그 전부터 있던 정치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이들이 언제 발흥했는지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眞番은 관련 자료를 통해 성립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史記』朝鮮傳의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전성기에 진번과 조선을 공략했음을 전한다. 燕將 秦開가 고조선을 친 것이 BC 3세기 초이므로 이즈음 眞番 역시 정치체로서 엄존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번의 성립 시기는 BC 4세기 이전으로 올려 잡을 수 있다.

먼저 진번의 위치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재론하는 이유는 진번과 중국 郡縣의 관계, 나아가 백제 건국에 미친 영향을 다루려면 그 위치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眞番이 고조선보다 북쪽, 그리고 나중에 漢이 여기 설치한 眞番郡이 樂浪郡보다 북쪽에 있

5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pp.321~329.

다는 주장이 있었고,<sup>6</sup> 위 『사기』의 기사가 그 근거의 하나로 제기된 바 있다. 즉 燕이 복속시킨 대상이 진번, 조선의 순서로 적혀있으므로 진번이 고조선보다 연과 가까웠다고 본 것이다. 衛滿이 고조선의 왕이 될 때도 “稍役屬眞番·朝鮮”이라고 하여<sup>7</sup> 진번을 조선보다 앞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성급하다는 것은, 같은 책의 貨殖列傳에는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라고 되어있으므로 서술 순서와 지리적 위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으로<sup>8</sup> 충분히 알 수 있다.

진번의 위치가 북방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했다거나, 玄菟郡, 樂浪郡처럼 퇴축 당한 다음 중국 관내로 僑置되어<sup>9</sup> 이것이 나중에 역으로 진번군 혹은 진번이 원래 북쪽에 있었다는 오해를 낳은 것도 아니다. 진번의 위치는 뒤에 그곳에 설치된 진번군의 屬縣의 위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茂陵書(에 이르기를 - 필자. 이하 동일) “臨屯郡은 치소가 東曉縣인데 長安으로부터 6,138里 떨어져 있고 15縣이다. 眞番郡은 치소가 靄縣인데 長安으로부터 7,640里 떨어져 있고 15縣이다.” 『漢書』 卷6, 武帝紀6 元封3年

臣 瓚이란 인물이 한사군의 위치에 관해 주석하면서 인용한 『무릉서』의 기록이다. 『무릉서』는 漢代의 저술로서 현재는 산일되어 전하지 않는다. 한나라의 제도를 기술한 책이라고 추정된다.<sup>10</sup> 이를 따르면, 진번군에 치소인 잡현을 포함하여 15개의 현이 있었다. 잡현이 현재의 서울 강북 지역에 있었다는 견해가 있으나<sup>11</sup> 위 기록에 나오는 장안으로부터 떨어진 里數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등 근거가 취약하다.

6 稻葉岩吉, 1913 「漢代の滿洲」 『滿洲歴史地理 第壹卷』, 丸善株式會社; 白鳥庫吉, 1913 「漢代の朝鮮」, 同書.

7 『史記』 卷115, 朝鮮列傳55.

8 李丙燾, 1987 「眞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103.

이 글은 이밖에도 진번군의 在北說을 주장한 조선후기의 학인 金崙, 南九萬, 그리고 일본의 那珂通世 등의 견해를 在南說의 견지에서 비판했다. 다만, 진번이 고조선의 중심지보다 남쪽에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로서 『사기』 조선전이 전하는 “右渠王이 진번 옆에 있는 辰國이 한나라에 조공하는 길을 막았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宋本의 기록이고, 같은 내용이 武英殿本 등 다른 판본에는 “眞番旁衆國”이라고 되어 있어 재남설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9 『資治通鑑』 卷88, 晉紀10 孝愍皇帝에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 帥其民千餘家歸虜 虜爲之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라고 하여, 313년 낙랑군이 멸망한 후 그 태수가 慕容虜에게 귀부했고 내지로 이치되어 僑郡이 되었음을 전한다.

10 神田信夫·山根幸夫 編, 1989 『中國史籍解題辭典』, 燎原書店, p.326.

11 李丙燾, 1987, 앞의 논문, p.124.

그렇다면 나머지 14현은 어떻게? 뒤에 상술하듯이 진번군은 BC 82년에 폐지되어 통치 지역이 낙랑군으로 이관되었다. 이때 낙랑군의 郡勢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록이다.

樂浪郡은 武帝 元封 3년에 두었다. 王莽은 樂鮮郡이라 개칭했다. 幽州에 속한다. 戶는 62,812 口는 406,748이다. 雲鄣이 있다. 縣은 25개이다. 朝鮮, 誦郡. 溟水는 물이 서쪽으로 增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왕망이 樂鮮亭이라고 불렀다. 舍資는 帶水가 서쪽으로 帶方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黏蟬, 遂成, 增地는 왕망이 增土라고 불렀다. 帶方, 駟望, 海冥은 왕망이 海桓이라 불렀다. 列口, 長岑, 屯有, 昭明은 南部都尉의 치소이다. 鏤方, 提奚, 渾彌, 吞列은 黎山에서 갈라져[分黎山] 列水가 시작되는 곳이다. 서쪽으로 黏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820리를 흘러간다. 東眡, 不而是 東部都尉의 치소이다. 蠶台, 華麗, 邪頭昧, 前莫, 夫租이다.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낙랑군 관하에 25개의 현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昭明縣은 남부도위의 치소이고 不而縣은 동부도위의 치소였다. 낙랑군에 이 2개의 部都尉가 설치된 것은 BC 75년이었다고 보인다.<sup>12</sup> 따라서 위의 기록은 BC 75년으로부터 남부도위와 동부도위가 폐지되는 AD 30년에 이르는 시기의 상황을 전한다. 新 王莽의 개칭 사실이 기록된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 낙랑군 남부도위가 관할한 지역은 어디일까? 동부도위의 치소인 不而縣은 <광개토 왕릉비문>의 碑利城, 신라 진흥왕 때의 比列忽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금의 함남 安邊이다. 원래 임둔군이 관할하던 지역이다. 夫租縣은 나중에 옥저라고 불린 곳으로 역시 임둔군 소속이었다. 후술하듯이 임둔군 폐지 후 현토군으로 이속되었다가 BC 75년에 현토군이 內地로 축출된 뒤 낙랑군으로 다시 이관되었다. 東眡·不而·蠶台·華麗·邪頭昧·前莫·夫租縣은 낙랑군이 東部都尉를 두어 다스린 옛 임둔군의 영동 7현이었다.

그렇다면 南部都尉는 낙랑군이 眞番郡의 고지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래 임둔군의 치소였던 東眡縣이 낙랑군 치소인 朝鮮縣의 동쪽에 있었으므로 그 통치기구를 ‘동부’도위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부’도위가 관할한 진번군의 옛 땅은 현재의 평양 토성동 지역에 해당하는 조선현보다 남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왕의 진번군 재복설이 맞는다면 그 명칭은 낙랑군 ‘북부’도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부도위의 치소가 있던 昭明縣은 일제강점기에 황해도 信川郡 북부면에서 ‘太康四年三

12 김창석, 2014 「4세기 이전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정세 변동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13-2, p.37.

月昭明王長造'의 명문전이 발견되어 지금의 신천에 있었다고 추정된다.<sup>13</sup> '逸民舍資王君博' 명 벽돌이 황해도 안악군 안악읍에서 발견되어 이곳에 舍資縣을 비정하는 견해가 있으나,<sup>14</sup> 위의 『한서』 지리지에 "(함자현에서) 대수가 서쪽으로 대방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방현이 鳳山이므로 여기서 帶水는 서흥강(재령강의 지류)이고 함자현은 황해도 서흥에 비정된다는 의견이<sup>15</sup> 타당하다.

한편 신천군 봉황리의 王卿墓에서 '守長岑長王君君諱卿' 명문전이 출토되었다.<sup>16</sup> 이것은 長岑縣長을 역임하고 正始 9년(248)에 죽은 왕경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므로 장잠의 위치를 신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천(소명현), 서흥(함자현)에 남부도위 관하의 현이 설치되었다면, 신천 지역에 그 치소가 있었으므로 이곳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황해도 일대를 남부도위가 통할했으리라 일단 짐작된다.

AD 30년에 동부도위와 남부도위가 폐지되었다.<sup>17</sup> 남부도위 관하의 縣은 이후 다시 낙랑군에 직속되었다가, 3세기 초 公孫氏의 帶方郡이 이곳에 설치되었다.

帶方郡은 公孫度가 두었다. 縣 7개를 통할했고 戶가 4,900이다. 帶方. 列口. 南新. 長岑. 提奚. 舍資. 海冥이다. 『晉書』 卷14, 志4 地理 上

帶方·列口·南新·長岑·提奚·舍資·海冥의 7개 현 가운데 남신현을 제외하면 모두 낙랑군의 25개 현에 포함되어 있다. 대방현이 수현이었는데 그 위치는 이견이 있으나 智塔里土城과 帶方太守 張撫夷의 무덤이 발견된 鳳山郡 文井面 일대로 보는 것이<sup>18</sup> 다수 의견이다. 뒷 시기의 자료이지만, 672년 신라와 당이 황해도 서흥 부근에서 石門 전투를 벌일 때 신라군이 '帶方之野'에 진을 쳤다는 기록도<sup>19</sup> 참고가 된다.

13 李丙燾, 1987, 앞의 논문, p.126.

이를 따르면 1928년에 신천군에서 '元興三年三月廿日昭明王口口'라는 명문전도 발견되었다고 했으나, 재조사 결과 이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元興三年三月廿日王君造' 명문전이 있다고 한다(林起煥, 1992 「塋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Ⅰ』,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386).

14 藤田亮策·梅原末治, 1946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養徳社.

15 李丙燾, 1987 「眞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117

16 전주봉, 1962 「신천에서 대방군 장잠장 왕경의 무덤 발견」 『문화유산』1962-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7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歲.

18 關野貞, 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이병도, 1987, 앞의 논문; 오영찬, 2003 「帶方郡의 郡縣支配」, 『강좌 한국고대사 10』, (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附 元述.

대방현과 함자현이 현재의 황해도 방면에 있고 이들은 낙랑군 남부도위 소속의 현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5현 역시 대방현, 함자현 주변, 즉 현재의 황해도 일대에 있었고 이들 7개 현을 남부도위가 관할했다고 여겨진다. 진번군 → 낙랑군 남부도위 → 대방군의 기본적인 계승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남부도위 시절의 昭明縣이 사라지고 대방군에서 南新縣이 새로 등장한 내력은 알기 어렵다.

대방군과 그 전의 낙랑군 남부도위가 관할하던 지역이 대략 중복되어 있었고, 따라서 『한서』 지리지에 열거된 낙랑군의 속현 중 舍資, 帶方, 海冥, 列口, 長岑, 昭明, 提奚의 7개 현은 낙랑군 직속이 아니라 남부도위에 속한 현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폐지되기 전 진번군의 속현이었으므로 현재의 황해도 지역이 진번군에 속했음은 분명하다.

古朝鮮 멸망 이전의 眞番 세력도 이곳을 포괄하여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팽이형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대동강 유역과 황해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황해도의 황주천 유역 침촌리 및 사리원시 황석리 일대와 정방산 차일봉 주변에 지석묘가 1,100여 기 있다. 황해북도의 연탄군 두무리와 오덕리에도 각각 150여 기, 230여 기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大型 支石墓가 서북한 지역에 4기 있는데, 평남 속천군 평산리 지석묘보다 큰 개체가 황해도에 3기(은율군 관산리, 안악군 노암리, 연탄군 오덕리) 있다.<sup>20</sup>

BC 5세기 무렵부터 초기 세형동검문화가 시작되는데 황해도 재령군 고산리, 황해북도 신계와 서흥에서 요동지역 출토품과 유사한 세형동검이 발견되었다. 이 시기의 石槨墓, 土壙墓가 평양시, 남포시, 평남 대동군과 더불어 황해도 봉산군, 서흥군, 신계군, 배천군, 황주군, 은파군, 재령군, 은율군 등에 분포하며, 일부에서 주조철부 등의 철기가 발견되었다.<sup>21</sup> 황해도 일대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이래 초기 철기시대의 물질문화가 바로 眞番 세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앞서 든 『漢書』 地理志 기록의 낙랑군 소속 현 가운데 靄縣은 찾을 수 없다. 『茂陵書』에 의하면 진번군의 首縣이 잡현인데, 낙랑군이 진번군 영역을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랑군 소속, 즉 남부도위의 속현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漢郡縣의 변천과정을 통해 알아보자.

20 송호정, 2020 「청동기시대 대동강 유역 팽이형토기문화와 고조선」 『다시 쓰는 고조선사』, 서경문화사.

21 송호정, 2020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 『다시 쓰는 고조선사』, 서경문화사, pp.457~484.



### III

## 眞番郡의 변천과 주변 정치체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진번과 임둔의 故地에 한나라는 각각 眞番郡과 臨屯郡을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된 지 20여 년 만에 한사군의 지배체제에 변동이 발생한다. BC 82년에 진번군과 임둔군이 폐지되었다.

昭帝 시원 5년에 이르러 臨屯과 眞番을 혁파하여 樂浪과 玄菟에 병합했다.

『後漢書』卷115, 東夷列傳75 濊

군이 폐지된 뒤에 진번과 임둔 지역은 방기된 것이 아니라 각기 낙랑군과 현토군에 이관되어 漢의 지배가 유지되었다. 진번군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낙랑군의 남쪽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낙랑군에 통합되었다. 임둔군은 낙랑군의 동쪽에 있었지만 BC 128년에 설치된 滄海郡이 수년 후 폐지된 다음<sup>22</sup> 임둔의 주민이었던 濊族 집단이 확산되면서 임둔군의 통제 대상지역이 확대된 상태였다. 따라서 임둔군은 분할되어 낙랑군과 현토군이 각각 일부 지역을 흡수한 듯하다.

낙랑군은 BC 82년에 임둔군의 대부분과 진번군 지역을 흡수함으로써 관할 지역이 전보다 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BC 75년에는 夫租 지역까지 관할하게 되었다.<sup>23</sup> 이때 東部都尉를 두어 영동 7현을 나누어 다스리게 한 것은 이처럼 낙랑군의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졌기 때문이다. 南部都尉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BC 75년에 동부도위와 함께 설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종래의 낙랑군 지역과 임둔군 관할지역 중 單單大領以西에 있어 낙랑군과 가까운 지역은 낙랑군이 직할하고, 영동의 7현은 동부도위가, 진번군이 지배하던 지금의 황해도 지역은 남부도위가 관장하는 체제로 바뀌었다.<sup>24</sup>

그렇다면 진번군은 황해도 지역만을 관할했을까? 남부도위는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방군의 속현을 볼 때 7개의 현을 관할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7개 현 가운데는 『茂陵書』

22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2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沃沮

24 이상 진번군의 치폐 및 낙랑군 部都尉 체제 성립까지의 내용은 김창석, 2014, 앞의 논문, pp.36~37을 정리하여 서술했다.

가 전하는 진번군의 수현인 雋縣이 빠져있다. 『무릉서』의 기록을 따르면 진번군의 속현이 15개였으므로 잡현을 포함한 8개의 현이 낙랑군 남부도위로 이관되지 않은 셈이 된다. 아니면 『무릉서』의 기록을 부정하고 진번군이 원래 7개의 속현만을 갖고 있었다고 볼 것인가?

이에 대하여 2006년에 보고된 「初元四年 樂浪郡 戶口簿」(이하 호구부로 약칭)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구부는 前漢 초원 4년인 BC 45년에 작성되었다. 이 시점은 낙랑군 남부도위와 동부도위가 존속한 BC 75~AD 30년의 기간에 속하여 이른바 大樂浪郡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절호의 자료이다.

표 1 「初元四年 樂浪郡 戶口簿」의 현별 호구 현황

구역	현 명	호		구		비고
		戶數	증가	口數	증가	
1	朝鮮	9,678	93	56,890	1,862	
	誦邯	2,284	34	14,347	467	판독문의 口數는 14,337
	增地	548	20	3,353	71	
	黏蟬	1,039	13	6,332	206	
	駟望	1,283	11	7,391	278	
	屯有	4,826	59	21,906	273	
	소계	19,658	230	110,219	3,157	
2	帶方	4,346	53	28,941	574	
	列口	817	15	5,241	170	
	長岑	683	9	4,932	161	
	海冥	338	7	2,492	91	
	昭明	643	10	4,435	137	
	提奚	173	4	1,303	37	
	含資	343	10	2,813	109	
	소계	7,343	108	50,157	1,279	
3	遂成	3,005	53	19,092	630	
	鑊方	2,335	39	16,621	343	
	渾彌	1,758	38	13,258	355	
	泚水	1,152	28	8,837	297	
	吞列	1,988	46	16,330	537	呑은 원문에 '艸+呑'의 자형임.
	소계	10,238	204	74,138	2,162	
4	東隴	279	8	2,013	61	
	蠶台	544	17	4,154	139	
	不而	1,564	5	12,348	401	
	華麗	1,291	8	9,114	308	
	邪頭昧	1,244	0	10,285	343	戶數 '如前'
	前莫	534	2	3,002	36	
	夫租	1,150	2	10,076	08	口: 불명자
	소계	6,606	42	50,992	1,346	口數와 그 증가분은 추정치임.
총계		43,845	584	280,261		원문에 '·凡'으로 표시됨.
其戶		37,034		242,000		말미에 불명자가 더 있음.

(권오중 외, 2010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에 실린 판독문과 집계표를 기준으로 작성)

호구부의 25개 현은 『漢書』地理志에 실린 낙랑군 소속의 현과 그 이름, 숫자가 일치한다. 원 木牘에는 조선현~부조현까지 구분 없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대방~함자의 7개 현이 나중에 설치된 대방군의 속현과 일치하고, 4구역의 동이~부조에 이르는 7개 현이 東部都尉가 관할하던 영동 7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up>25</sup>

영동 7현의 내역은 사실 문헌에 나와 있지 않다. 다만 AD 30년 동부도위를 폐지하고 不耐·華麗·沃沮 등 여러 縣의 渠帥를 縣侯로 삼았다고 했으므로<sup>26</sup> 위 표의 4구역에 나오는 동이 이하 7현이 바로 영동 7현이라 할 수 있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의 속현 명단 중 말미에 적힌 “東曬, 不而, 蠶台, 華麗, 邪頭味, 前莫, 夫租”가 그것이다. 이 호구부는 BC 45년에 낙랑군이 관할하고 있던 25개 현의 호구 현황을 남부도위, 동부도위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2구역에 속한 7개의 현은 BC 45년 현재 낙랑군 남부도위가 다스리고 있고, BC 82년 전에는 진번군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도 『한서』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靄縣이 빠져있고 진번군의 嶺縣이었다는 15개 현 가운데 7개만 기록된 것이 주목된다. 나머지 8개 현은 원래 없던 것일까, 아니면 위 표의 다른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1구역은 朝鮮縣이 낙랑군의 치소가 있던 곳이므로 원래 낙랑군이 관할하던 현 6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3구역에 진번군의 나머지 현이 들어 있을까? 우선 遂成, 鏤方, 渾彌, 涓水, 呑列의 5개 현이 있어 8개와 차이가 있다. 『한서』 지리지를 따르면, 패수현에서 물이 흘러 서쪽으로 증지현에서 바다로 들어가고, 탄열현은 열수의 발원지로서 서쪽으로 820리를 흘러 점제현에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다.<sup>27</sup> 패수, 열수는 어느 강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서쪽으로 흐르며, 入海處인 증지현, 점제현이 모두 원낙랑군 소속이다. 따라서 패수현, 탄열현은 1구역의 동쪽에 있었다. 3구역의 수성, 누방, 혼미 역시 원낙랑군의 동편에 있던 현이었을 것이다.<sup>28</sup>

25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손영중, 2006 「락랑군 남부지역(후의 대방군지역)의 위치 - 《락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 다소口口》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역사과학』2006-2; 윤용구, 2010 「낙랑군 초기의 군현 지배와 호구 파악」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沃沮.

27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樂浪郡 “涓水 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 …… 呑列 分黎山 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行八百二十里”.

28 마크 바잉턴, 2014 「기원전 45년의 낙랑군 호구부와 패수의 위치 비정」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세계적 절은 패수를 청천강, 열수를 대동강에 비정하고, 1구역이 이들 강의 하류역인 저지대, 3구역이 상류역에 분포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BC 82년 임둔군이 폐지되고 그 故地가 현토군과 낙랑군으로 이관된 사실을<sup>29</sup>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BC 75년에 영속관계를 개편하면서 임둔군 고지 지배를 낙랑군으로 일원화하고 그 통할지역 중 단단대령 동쪽이 원격지이므로 영동 7현이라 하여 동부도위를 신설하여 다스리게 했다. 임둔군 고지는 영서와 영동에 걸쳐 있었고 BC 75년 이래 영동은 동부도위 관할, 영서는 낙랑군 직속으로 영속관계가 개편되었다.<sup>30</sup>

그렇다면 3구역에 있던 5개 현은 원래 임둔군의 속현이었을까? 낙랑군이 확대 개편된 뒤의 속현 25개는 그 숫자와 이름을 알 수 있으나, BC 82년에 진번군과 임둔군을 통폐합하기 전 원낙랑군의 현 숫자와 현명은 전하는 자료가 없다. 임둔군의 속현도 영동 7현의 이름을 추정할 수 있을 뿐 나머지 현의 정확한 숫자와 이름, 위치는 불명이다.

따라서 영서에 있던 임둔군 속현의 행방에 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3구역의 5개 현이 원래 임둔군의 속현이었고 이것을 낙랑군이 계승하였다. 둘째는, 5개 현이 원래 낙랑군의 속현이었고 영서에 있던 임둔군의 현은 소멸하여 여기에 흡수되었다. 필자는 첫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戶口簿의 서술 순서 때문이다. 만약 이 5개 현이 원래 낙랑군의 속현이었다면 1구역에 포함시켰어야 한다. 비록 임둔군의 領西 고지를 통합했지만 원래 낙랑군 소속의 현이었다면 1구역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縣治가 원낙랑군 시절의 위치로부터 이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새로 확보한 영역이 포함된 것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낙랑군의 현이 흡수한 곳이므로 2구역으로 구분하여 1구역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3구역의 5개 현은 원래 임둔군에 속해 있다가 BC 82년 이후 낙랑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인다. 그 과정에서 縣名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나 여하튼 遂成, 鏤方, 渾彌, 淇水, 吞列의 5개 현은 임둔군의 故縣의 일부라고 파악되된다.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2구역의 7개 현 역시 진번군의 故縣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낙랑군의 속현은 朝鮮, 誦邯, 增地, 黏蟬, 駟望, 屯有의 6개였을 것이다.

호구부의 2구역에서도 雥縣은 찾을 수 없다. 『茂陵書』에 의하면, 잡현은 진번군의 치소가 있던 수현이다. 『무릉서』에 나오는 진번군과 임둔군의 속현이 각각 15개라는 숫자까지 믿

29 『後漢書』卷115, 東夷列傳75 濊.

30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韓國古代史研究』51; 윤선태, 2010 「한사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부’」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金在弘, 2015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韓國古代史研究』79.

으려면 방증자료가 필요하지만 치소가 있던 현의 존재와 이름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임둔군의 수현인 東隴縣이 『한서』 지리지와 호구부에서 확인되는 것이 『무릉서』의 사료로서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진번군 영역을 이관 받은 낙랑군은 BC 82년 시점에는 잡현을 포함한 진번군의 모든 속현을 흡수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BC 75년 남부도위를 신설하면서 7개 현만 여기에 소속시키고 잡현을 포함한 나머지 진번 故縣은 제외했다고 보인다.

임둔군에 대해서는 영서의 속현을 낙랑군이 직할하고, 수현이었던 동이현을 포함한 영동의 현은 동부도위 소관으로 승계했다. 이런 방식을 진번군에 적용한다면 원낙랑군과 접한 지금의 황해도 지역은 낙랑군이 직속하고 잡현을 포함한 나머지를 남부도위가 관할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남부도위 관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기한 이유는 전략적 중요도가 떨어지고<sup>31</sup> 위치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잡현이 현재의 서울 강북 지역에 있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sup>32</sup> 그러나 이를 포함한 나머지 현이 황해도보다 더 남쪽 방면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남부도위 소속 현 중에 위치 비정이 가능한 곳이 신천(소명현), 서흥(합자현), 봉산(대방현)이므로 남부도위가 방기한 진번군의 현은 그보다 더 남쪽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대략 예성강~임진강~한강 하류에 이르는 지금의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위씨조선이 멸망하기 전 진번 세력은 황해도와 경기 북부에 걸쳐 자리 잡고 있었고, 중심지는 나중에 靺縣이 설치된 경기 북부였다. 이어지는 진번군, 낙랑군 역시 황해도와 경기 북부를 포괄했다. 그러나 낙랑군의 남부도위는 昭明縣을 새로운 수현으로 삼고 황해도 지역의 7현만을 통제했으며 그 남쪽의 경기 북부는 방기했다.<sup>33</sup> 『무릉서』의 진번군 15현 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나중에 낙랑군 남부도위에 이관된 7현보다는 다수였고 그 중심이 경기 북부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제 남부도위 설치 후 방기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뒤의 추이를 살펴보자.

31 진번군의 전체 영역을 승계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낙랑군의 지배 여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임둔군 故地의 경우 滄海郡 이래 북부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한 경험이 있고, 당시 현토군을 축출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던 高句麗를 영동지역을 요충으로 삼아 배후에서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고려했다고 보인다.

32 李基東, 1999 「馬韓史 序章 - 西海岸 航路와 馬韓사회와 黎明」 『百濟史研究』, 一潮閣, pp.69~71은 충남 내포 지역에 백제 때 寺浦, 沙平이란 지명이 있었고 삼교천의 '삼'이 '靺'과 유사하다고 하여 잡현을 이곳에 비정하기도 했다.

33 李丙燾, 1987, 앞의 논문, pp.121~122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 IV

### 원삼국시기 예성강~한강 지역의 정세

#### 1 경기 북부 지역의 상황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 철기시대로 진입한 시기는 AD 1세기 무렵이나 지역 정치체로서 ‘國’의 존재는 이미 BC 2세기부터 확인된다.

(우거왕은) 漢에 들어와 朝覲하지 않았다. 眞番의 주변에 있던 여러 國(衆國)이 글을 올려 천자를 뵈고자 했으나 (고조선이) 이를 막아서 들어오지 못했다.

『史記』卷115, 朝鮮列傳55

진번의 주변에 있던 ‘국’들은 지금의 황해도와 경기 북부에 있던 진번의 위치를 고려하면 대략 한강 이남과 강원 북서부 지역에 분포했다고 보인다. 이들이 『사기』의 기록처럼 실제 漢과의 교섭을 시도했을지는 의문이다. 위의 기록은 한나라가 위씨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은 고조선 측이 진번을 복속시킨 뒤에 이를 매개로 하여 그 주변에 있던 복수의 정치체를 통제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통제방식은 한나라에게 계승되었다. BC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漢은 진번 세력이 있던 지역에 眞番郡을 설치했다. 舊진번 지역은 郡縣을 통해 직접 통치하고 그 주변 정치체를 책봉-조공관계를 이용하여 조종하고자 했다. 선진문물과 위세품의 확보가 긴요했던 주변 정치체의 수장들에게 진번군을 통한 漢과의 교섭은 중요했을 것이다.

BC 82년에 진번군이 폐지되면서 그 관할지가 낙랑군에 이관되었다가 BC 75년에 南部都尉를 두어 舊진번의 북부지역을 다스렸다. 韓 정치체에 대한 책봉은 이제 남부도위가 관장했다.<sup>34</sup> 廉斯鏑 설화가 이 시기의 상황을 전해준다.

왕망의 地皇 연간에 이르러 廉斯鏑가 辰韓의 右渠帥가 되었다. 樂浪의 토지가 기름지고 인민이 풍요롭게 산다는 말을 듣고 망명하여 항복하고자 했다. 그 읍락을 나와 밭에서 참새를 쫓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말이 韓인의 것이 아니었다. 물어보니 남자가 말하길, “우리는 漢人이고 (저의) 이름은 戶來입니다. 무리 1,500명이 벌목을 하다 韓의

3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두 머리를 깎이고 노예가 된 지 3년입니다.”고 했다. 鑑가 말하길, “내가 이제 漢의 낙랑에 항복하려 하니 당신도 가려는가?” 하니, 호래가 말하길,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염사치가 호래를 데리고 탈출하여 舍資縣에 이르렀다. 縣에서 郡에 보고하니, 군은 염사치를 통역으로 삼고 수초 사이[峇中]를 따라 큰 배를 타고 辰韓에 들어갔다. 호래를 맞이하고 그의 무리 1,000명을 쇠환했으나 나머지 500명은 이미 죽은 뒤였다. ……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魏略』의 기록을 인용한 위의 설화는 지황 연간, 즉 AD 20~23년 경 한반도 중서부 지역 정세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위략』의 편자인 魚豢은 염사치를 ‘진한’의 수장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어환이 활동하던 3세기 후반 西晉代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위의 사건이 일어난 新나라 때는 삼한이 각기 연맹체로서 분화·성립되기 전이라고 생각된다. 韓이라고 불린 종족집단이 한반도 중·남부에 분포하며 다양한 규모와 수준의 정치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였다.

염사치가 나중에 辰韓이 되는 지역의 수장인 것은 인정할 수 있다. 『後漢書』 韓傳에 “廉斯人 蘇馬謨”가 나오므로 廉斯는 辰韓의 한 지명이라 생각되지만 『三國志』에 실린 진한 소국의 명칭 중에 유사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위치 비정은 어렵다. 鑑가 ‘진한의 우거수’였으므로 진한의 권역 가운데 서쪽 편에 있었으리라<sup>35</sup> 짐작할 뿐이다.

‘낙랑’은 낙랑 本郡을 가리키지만 당시는 南部都尉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자료에 나오는 보고체계는 <舍資縣 - 낙랑군 남부도위(昭明縣) - 본군(朝鮮縣)>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을 것이다. 1,500명에 이르는 낙랑군 주민은 ‘진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벌목을 했을 것이다. 당시 진한 세력이 소백산맥을 넘지 못했을 것이므로 소백산맥 이북의 삼림지대를 후보지로 상정할 수 있다. 이곳은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서해로 나갈 수 있고<sup>36</sup> 다시 예성강을 거슬러 올라 함자현(서흥)으로 들어가거나 연안항로를 이용해서 황해도로 진입할 수 있다.

낙랑군 남부도위가 우수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중부지역을 관통하여 진한 인근까지 인원을 파견한 것이다. 이들이 이동한 교통로는 위의 경로를 따랐을 것이다. 육로를 이용하더라도 한강 이남의 韓, 강원 영서의 濊 세력 중 책봉관계를 맺지 않은 정치체를 피하려면 <개성-과주-서울 강북·의정부-남양주-양평-여주-충주> 방향을 택했으리라 보인다. 이 방면

35 李丙燾 1987 「眞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128.

36 那珂通世, 1958 「三韓考」 『外交譯史』, 岩波書店; 尹善泰, 2001 「馬韓의 辰王과 臣漬沽國 - 領西濊 지역의 歷史의 推移와 관련하여」 『百濟研究』34.

에서 유의해야 할 지역이 경기 북부이다. 남부도위가 관할하던 황해도에서 충북 내륙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지역을 경유해야 한다. 수상교통로를 이용하더라도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성강-서해의 강화만-한강 하류-남한강> 루트를 항해해야 하므로 경기 북부를 피할 수 없다.

당시 황해도와 경기 북부에는 옛 진번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 예성강~한강 지역은 남부도위 설치 이후 靺靺과 같은 기왕의 현이 폐지되었고, 고조선, 진번군, 낙랑군으로 이어지는 지배를 받던 진번 유민들의 자체 정치체도 아직은 성립되지 못했다. 남부도위와 韓, 濊의 정치체 사이에서 일종의 정치적 공백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남부도위가 1,5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노동력을 경기 북부 지역을 경유하여 원거리까지 파견할 수 있었다.

AD 30년에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漢 광무제 건무 6년에 邊郡을 줄이고 이로 인해 都尉를 없앴다. 그 뒤로 縣의 渠帥로써 縣侯를 삼고 不耐·華麗·沃沮縣은 侯國을 삼았다. 오랑캐들이 다시 서로 攻伐을 벌였는데 오직 不耐濊侯만이 지금까지 功曹·主簿 등 관직을 두고 모두 濊民을 이에 임명했다.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沃沮

이때 한나라는 낙랑군의 동부도위를 폐지하고 불내(不而. 지금의 안변), 화려(지금의 금야=영흥), 옥저(부조. 지금의 함흥)의 侯國을 중심으로 하여 영동 7현에 대한 통제체제를 개편했다. 종래의 현을 侯國으로 바꾸어 간접지배 방식으로 통제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BC 108년 이래 140년에 이르는 한나라의 지배에서 이때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다고 보인다. 동부도위 폐지 후 “오랑캐들이 다시 서로 攻伐을 벌였다.”는 것은 한의 지배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AD 30년에 남부도위도 폐지되었다. 이 때 남부도위 치하 주민들의 동요, 離散이 발생했을 것이다. 연사치 설화에서 벌목 徭役에 동원된 인원의 대다수는 진번군, 그리고 이어 낙랑군의 지배를 받던 舊진번 출신의 고조선 유민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 韓人の 것이 아니었다.”고 하므로 이들은 辰韓과 종족적 차이가 있었고 장기간 漢郡縣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漢人’이라고 여길 정도로 중국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벌목과 같은 중노동을 부과하고 접경지에서의 위험한 노역에 동원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군현의 수취가 무거웠다. 남부도위의 폐지와 같은 통치기구의 변동을 틈탄 진번계 주민의 遊離를 예상할 수 있고, 그 대상지는 남부도위 설치시 방기되었던 진번군의 남부, 즉 경기 북부가 유력하다. 1

세기 초의 시점에 이곳은 정치적 공백상태가 유지되고 진번계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남부도위가 관할하던 황해도 지역은 동부도위의 사례와 달리 낙랑군에 직속되었다.

樂浪郡은武帝가 두었다. 雒陽의 동북쪽 5,000리에 있으며, 18城에 戶가 61,492이고 口가 257,050이다. 朝鮮. 訥郡. 溟水. 含資. 占蟬. 遂城. 增地. 帶方. 駟望. 海冥. 列口. 長岑. 屯有. 昭明. 鏤方. 提奚. 渾彌. 樂都이다. 『後漢書』志23 郡國5

18城은 대낙랑군의 25현에서 동부도위 관하 영동 7현을 뺀 숫자이다. 현 가운데 영동 7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남부도위 관하 7현은 모두 실려 있다. 임둔군의 속현이었다고 추정되는 5현 중吞列만 樂都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남부도위는 폐지되었으나 영동의 侯國化와 달리 황해도 지역은 낙랑군이 직할하는 형태로 지배가 지속되었다.

## 2 백제 건국집단의 出自와 이주

그러나 낙랑군의 지배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王調의 반란이 建武 6年(30) 가을에 진압되었는데,<sup>37</sup> 왕조는 낙랑군의 ‘土人’ 출신으로 태수 劉憲을 죽이고 대장군 낙랑태수를 자칭했다.<sup>38</sup> 원낙랑군 지역에서조차 태수가 살해될 정도로 고조선 유민과 한군현 세력의 갈등이 심각했으므로 남부도위가 관장하던 舊진번 지역에서 그것도 都尉가 폐지된 상황에서 後漢의 통제력이 전처럼 관철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 100여 년이 넘게 낙랑군이 지배하던 원낙랑군, 舊임둔 영서 지역, 그리고 舊진번 북부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변동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王調의 난이 진압된 이후 낙랑군의 지배체제는 회복되었다고 여겨진다.

桓帝·靈帝의 치세 말년에 韓과 濊가 강성하여 군현이 제어하지 못하고 많은 인민이 韓國으로 흘러들어갔다.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桓靈之末’은 2세기 후반인데, 후한의 말기로서 중앙에서 宦官이 득세하고 지방의 호족이 할거하며 黃巾賊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등 전국이 혼란으로 빠져드는 시기였다. 그 여파는 邊郡에도 미쳐 낙랑군의 주민이 주변에 있던 ‘韓’의 정치체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유

37 『後漢書』卷1下, 光武帝紀1下.

38 위의 책, 卷76, 循吏列傳66 王景.

출된 낙랑군의 주민 역시 이전에 남부도위가 지배하던 황해도 지역의 주민이었을 것이다. 원 낙랑군 지역이나 구임둔군의 영서지역보다 황해도 지역이 지리적으로 韓과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주민의 유출 대상으로 들고 있는 濊, 濊의 세력이다. 濊를 먼저 살펴보면, 영동 7현 중 부조 지역은 東沃沮로 성장했으나 1세기 후반 太祖王 때 고구려에게 복속되었다.<sup>39</sup> 나머지 6개의 현 지역은 不耐를 중심으로 東濊를 형성했으나, 후한이 三國으로 분열되는 3세기 초에 역시 고구려에 복속되었다.<sup>40</sup>

고구려는 舊임둔의 영서 지역, 즉 지금의 평안남도 동부 지역으로도 진출했다.

樂浪郡(漢이 설치했다. 縣 6개를 이끌었고 戶는 3,700이다.) 朝鮮. 屯有. 渾彌. 遂城. 鏤方. 駟望이다. 『晉書』 卷14, 志4 地理 上

이는 3세기 후반 西晉代 낙랑군의 상황을 전해준다. AD 30년 이래 속현이 18개였는데, 6개로 감소했다. 내역을 보면, 조선·둔유·사망현은 원낙랑군 소속이고 혼미·수성·루방현은 옛 임둔 소속이었다. 황해도 지역의 7개 현은 이미 帶方郡 소속으로 바뀌었고, 원낙랑군의 3개 현과 임둔군의 영서에 있던 溟水·吞列縣은 고구려에 흡수된 것이다.<sup>41</sup>

고구려의 동남방 진출은 이미 태조왕 때 동옥저 복속으로 결실을 거뒀으니 2세기에 평남 동부 지역을 장악한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임둔군의 치폐-현토군, 낙랑군 기관-동부도위 치폐-고구려의 진출’이라는 일련의 영속관계 변동을 거치면서 옛 임둔의 주민인 예족 집단이 남·서 방향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 강원도 영동의 해안로를 따라서 남진하고 楸哥嶺構造谷과 강원도 영서의 교통로를 따라 서남진했다. 3세기 중엽 이전의 상황을 전해주는 『삼국지』 예전에 “濊는 남쪽으로 辰韓, 북쪽으로 高句麗·沃沮와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大海에 닿았으니 오늘날 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라고 기술된 것은 임둔군 설치 이래 예족이 유리·확산된 결과이다.<sup>42</sup>

강원 영서지역의 경우 청동기시대 이래 여러 지역 정치체가 성립되어 臨屯에 속해 있었으나, 임둔이 소멸한 뒤 화천 원천리, 춘천 우두동 등에 대형 邑落이 형성된 것은 AD 2세기 무

39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王 4年 “秋七月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拓境東至滄海 南至薩水”.

40 김창석, 2014, 앞의 논문, pp.40~41.

41 李丙燾, 1987 『樂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p.137~138.

42 김창석, 2018 『『삼국사기』 소전 ‘貊國’의 실체와 傳承 경위』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 pp.90~92.



렵이라고 추정된다. 예족 집단이 새로이 확산되어 왔고 이들은 樂浪郡, 高句麗의 선진문물을 경험했으므로 선주민 집단에게 문화적·정치적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이로써 『三國志』 濊傳이 전하는 領西濊의 모체가 형성되었다.<sup>43</sup>

앞서 본 『茂陵書』에는 임둔군이 수현인 東曉를 포함해서 15현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 조에는 원래 임둔군의 속현이었던 沮水, 遂成, 鏤方, 渾彌, 吞列, 東曉, 不而, 蠶台, 華麗, 邪頭昧, 前莫, 夫租의 12개만 나오고 「초원4년 낙랑군 호구부」에도 같은 이름이 확인된다. 『무릉서』의 기록을 따른다면 임둔군 소속의 3개 현이 군이 폐지되면서 낙랑군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廢縣된 것이다. 진번군이 폐지된 후 모든 속현이 남부도위로 포괄되지 못하고 靑縣 이외 여러 현이 방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즉 3개의 현이 낙랑군이 직할하거나 동부도위가 관할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원격지에 자리 잡고 있어 방기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보지로 황해도 동남부와 강원도의 영서 북부를 상정할 수 있다. 이곳은 임둔군 시기 중심이었던 東曉縣이 원산만 부근에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나 추가령구조곡, 태백산맥의 서편 기슭을 잇는 영서의 교통로, 그리고 北漢江 수계를 통해 연결이 가능하다. 3개 현의 이름과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임둔군의 주요 거점이 될 정도였다면 臨屯 시절부터 예족 집단이 集住했을 것이다. 2세기 들어 낙랑군의 지배 체계가 동요하고 고구려가 침투해오면서 평안남도 동북부로부터 남서쪽 방향으로 流離해간 예족 집단이 이주 대상지로서 황해 남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선택한 것은 이곳이 임둔故地의 일부였고 임둔군의 방기된 현이 있던 곳이라는 역사적 환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환령지말’의 시기인 2세기 후반에 낙랑군이 지배하던 황해도 주변에서 강성했던 濊가 바로 황해도 동남편과 강원 영서 북부의 예 집단이었다.

韓의 상황은 어땠을까? BC 2세기 후반인 右渠王 때 眞番의 주변에 ‘衆國’이 있었다. 진번의 남쪽 권역이 경기 북부까지 미쳤으므로 衆國 가운데 韓의 정치체가 속해 있었음이 틀림없다. 한반도 남서부에 있던 지역 집단들은 세형동검문화를 기반으로 戰國系 철기문화를 도입하면서 각기 小國으로 성장하고 점차 ‘馬韓’이라고 불리는 연맹체를 형성해나갔다.<sup>44</sup> AD 2세기 후반에 황해도 주변에서 강성했다는 韓은 따라서 마한을 구성하고 있던 소국 중 북부에 있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三國志』 韓傳에 실린 50여 소국은 중국 군현과 가까운

43 김창석, 2015 「3세기 이전 춘천 지역의 취락 양상과 정치체의 형성」 『新羅文化』46.

44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소국의 순서로 기재되었다.<sup>45</sup> 爰襄國, 牟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 臣瀆沽國, 伯濟國, 速盧不斯國 등이 그 대상이 되겠다. 그러나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 자체가 전부터 있던 사실을 3세기 중엽의 시점에 정리해 놓은 것이어서 50여 국이 2세기에 존재했는지, 國名이 그대로였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소국 중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것은 伯濟國 정도이다. 즉 나중에 百濟의 王城이 되는 풍납토성,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을 핵심으로 한 현재의 서울 송파구·강동구 일원에 백제국이 있었다. 그렇다면 爰襄國으로부터 臣瀆沽國에 이르는 7개 소국은 백제국의 서쪽이나 한강 이북 지역에 자리 잡았다고 추정된다. BC 75년 낙랑군 남부도위가 설치된 이래 방기되었던 진번군의 남부 故地, 즉 예성강~한강에 이르는 지역에 韓이 진출하여 지역 정치체를 성립시킨 것이다. 그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AD 30년에 남부도위가 폐지되는 등 樂浪郡의 지배체제가 개편되면서 황해도 이남 지역에 대한 통제가 이완된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늦어도 2세기 중엽부터 韓 세력의 잠식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예 세력 역시 황해도 동부와 강원도 영서 북부에 있던 집단의 일부가 철원, 연천, 포천, 양주, 파주 방면으로 다시 확산되어 왔다. 철원 와수리, 가평 이곡리·마장리, 파주 주월리, 포천 자작리·영송리·성동리 등에서 확인된 凸·呂字形 주거지와 취락,<sup>46</sup> 연천 삼꽃리·학곡리 유적의 葺石式積石墓,<sup>47</sup> 러시아 연해주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硬質無文土器가 임진강 중·상류역에서 확인되는 것은<sup>48</sup> 이러한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韓과 濊 세력은 일부 중복되기도 했을 터이므로 그 분포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지만<sup>49</sup> 경기 북부를 둘러싸고 마한은 北進, 예는 西進하는 양상을 이상의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45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pp.373~376.

46 송만영, 2013 「중도식 주거 문화권의 주거지와 취락」 『崇實史學』31; 박중국, 2011 「중도문화의 지역성 - '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11; 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송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한지선, 2018 「임진강 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의 동향」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중부고고학회.

47 朴淳發, 1994 「漢城百濟成立期 諸墓制의 編年檢討」 『先史와 古代』6; 강현숙, 2005 「서울 지역의 적석총에 대하여」 『鄉土서울』65.

48 盧熾眞, 2004 「中島式土器의 由來에 대한 一考」 『湖南考古學報』19; 유은식, 2018 『극동의 초기철기문화 연구』, 송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9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8-2는 경기도 화성-부천-김포를 잇는 선을 경계로 그 서남부와 동북부의 주거지와 묘제가 달리 나타난다고 보았고, 박경신, 2018 「북한강 상류역 원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 『고고학』17-2는 경기도 양평,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원삼국기의 문화양상이 달리 나타난다고 하여 그 서쪽을 마한계, 동쪽을 濊系 문화권이라고 규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북한계선은 임진강선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예성강 이북의 황해도 지역은 낙랑군이 직접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예성강~임진강 사이 공간을 완충지대로 삼고 낙랑군, 마한, 영서예가 각각 북, 남, 동쪽에서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형세라고 할 수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옛 진번 주민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으며 진번군 북부 권역의 진번계 주민들이 군현 치폐과정의 혼란상, 가혹한 수취를 겪으면서 단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낙랑 본군에서 土人の 반란이 일어날 정도였으므로 AD 30년 이후 유출된 주민집단의 정치적 결집도는 상대적으로 강해졌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한 韓, 濊 세력은 이들을 장악하거나 결합함으로써 중국계 문물을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삼국지』 동옥저전의 “韓과 濊가 강성하여 군현이 제어하지 못하”는 현상이 출현했다. 이는 다시 황해도 지역에 영향을 끼쳐 ‘韓國’이 군현민을引入하게 됨으로써 낙랑군에게는 악순환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한국’은 일차적으로 경기 북부에 자리 잡은 마한 소국을 가리킨다. 이로써 종래 남부도위의 관할지는 황폐화 되었다. 낙랑군 호구부의 2구역이 남부도위가 관할하던 지역인데 BC 45년에 戶數가 7,343이었으나, 『晉書』地理志에 의하면 같은 지역에 설치된 대방군의 호수가 4,900이어서 약 35%가 감소했다.

建安 연간에 公孫康이 屯有縣 남쪽의 荒地를 나누어 帶方郡을 두었다. 公孫模, 張敞 등을 파견하여 遺民을 모으고 군대를 일으켜서 韓과 濊를 정벌하자 옛 주민들이 차츰 돌아왔다. 이 뒤로 倭와 韓은 드디어 帶方에 속하게 되었다. 『三國志』魏書30, 東夷傳 韓

3세기에 들어서자 遼東에 자리 잡고 있던 公孫氏 정권이 낙랑군을 장악하고 새로이 대방군을 설치했다. 둔유현은 戶口簿의 1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원낙랑군의 속현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황해도 황주에 비정된다. 황주와 봉산(대방현)·서흥(함자현) 사이에는 慈悲嶺이 있어 자연적 경계를 이룬다. 따라서 ‘둔유현 남쪽’은 자비령 이남의 황해도 지역으로서 기왕에 낙랑군 남부도위가 관할하던 지역과 일치한다.<sup>50</sup> 이곳에 204년 무렵 공손강이 帶方郡을 두고 帶方縣 이하 7개의 현을 영속시켰다.<sup>51</sup>

50 李丙燾, 1987 「眞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p.118~125.

이를 따르면, 낙랑군과 대방군이 慈悲嶺을 경계로 나뉘었고, 낙랑군은 청천강으로부터 자비령 이북에 미쳐 지금의 평남과 황해 북부를 관장했다고 한다.

51 『晉書』 卷14, 志4 地理上 帶方郡.

문제는 대방군을 설치한 지역을 ‘荒地’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2세기 후반에 황해도 지역의 진번계 주민들이 대거 韓 소국으로 이탈한 결과이다. ‘황지’는 이 지역이 황무지처럼 폐허가 되었다는 뜻과 함께 일부 주민들이 세력을 결집한 것을 가리킨 듯하다. 백제의 건국 주체로 알려진 ‘온조’ 또는 ‘비류’가 이끄는 집단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진다. 東部都尉가 폐지된 후 侯國 체제 아래서 옥저와 동예가 자립했던 양상을 상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낙랑군은 엄존해있었으나 후한 말의 혼란기에 그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된 틈을 타 舊진번계 주민의 정치적 결집이 이뤄졌고 이러한 현실을 공손씨 정권을 비롯한 漢人들은 황제의 教化로부터 벗어난 化外の 땅으로 인식한 것이다.<sup>52</sup>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공손씨 정권은 대방군을 신설하고 公孫模, 張敞 등을 파견하여 遺民을 모으고 군대를 일으켜서 유출된 주민을 쇠환했다. 그러나 그 지배체제는 공고하지 못하여 이후 고구려와 예맥의 침공,<sup>53</sup> 魏의 낙랑·대방 2군 평정이 이어졌다.<sup>54</sup>

伯濟國의 성장은 이상에서 살펴 본 진번 멸망 이래 고조선-진번군-낙랑군-남부도위-환령지말의 혼란-대방군 설치와 같은 일련의 정치·군사적 격동 속에서 진번계 주민 집단이 遊離하고 波狀的으로 韓으로 유입되어 온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본거지의 일부이면서 BC 75년 남부도위가 설치되면서 방기된 예성강~한강 지역을 최우선 이주 대상지로 삼았을 것이다. 2세기 중엽 경 경기 북부의 임진강선까지 북상한 마한 소국들은 이들을 흡수했다. 백제국은 한강 남쪽에 자리 잡아 마한 북부 소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배후에 있었으나, 진번계 주민들은 장기간의 이동을 통해 백제국을 포함한 韓의 여러 소국 또는 동부의 濊族 정치체로 유출되어 갔을 것이다.

246년에 卍丘儉이 이끄는 魏軍이 고구려와 濊貊을 공략했다.

봄 2월에 幽州刺史 卍丘儉이 高句麗를 쳤다. 여름 5월에 濊貊을 쳐서 모두 깨트렸다. 韓那奚 등 수십 국이 각기 읍락[種落]을 이끌고 항복했다.

『三國志』卷4, 魏志4 三少帝紀4 正始 7年

가을 8월에 魏의 유주자사 卍丘儉이 낙랑태수 劉茂 및 삭방태수 王遵과 더불어 高句麗를 쳤다. (고이)왕이 그 틈을 타서 左將 眞忠을 보내 낙랑군 변방의 인민을 습취했다. 유

52 김창석, 2014, 앞의 논문, pp.46~47.

53 『册府元龜』卷413, 將帥部 禮賢 “又高句麗濊貊與淵為仇 並為寇鈔”.

5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무가 이를 듣고 노하니 王이 토벌을 당할까 두려워 그들을 돌려보냈다.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古尔王 13年

『삼국사기』 기년을 따르면 고이왕 13년이 246년이어서 『삼국지』의 정시 7년 조 기사와 일치한다. 따라서 양 기사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위나라와 백제 양 측의 견지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양자를 종합해보면, 위나라 군사가 고구려와 예맥을 치자 그 틈을 타서 ‘백제’의 고이왕이 낙랑군의 邊民을 습취했으며, 이에 대해 낙랑태수가 위협을 가하자 백제 측은 군현민을 송환하고 그 과정에서 韓那奚 등 여러 정치체가 魏 측에 항복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三國史記』 기사에는 ‘樂浪邊民’이라 되어 있으나 당시 대방군이 실재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帶方郡의 변방 주민을 가리킬 것이다. 伯濟國이 3세기 중엽에는 대방군과 근접하여 충돌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마한의 북부 諸小國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의 주변에 ‘韓那奚’를 비롯한 수십 개의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나해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당시 韓의 군소 정치체이거나 위군의 진공로 상에 있던 領西濊의 정치체라고 생각된다. 예성강~임진강~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기 북부의 공간에는 3세기 중엽까지도 다양한 규모와 사회 복잡도를 가진 韓과 濊의 정치체가 흩어져서<sup>55</sup> 선주민인 舊진번 주민과 낙랑군, 대방군으로부터 유출되어 오는 진번계 주민을 수용 또는 습취하고 있었다.

백제는 옛날 馬韓의 속국이였다. 夫餘의 별종이다. 仇台라는 자가 처음 帶方에 나라를 세웠다. 『周書』卷49, 列傳41 百濟

東明의 후예인 仇台는 매우 어질고 신망이 있었다. 처음 帶方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漢의 요동태수 公孫度가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니 드디어 東夷의 강국이 되었다.

『北史』卷94, 列傳82 百濟

『주서』와 『북사』는 백제가 대방군의 故地에서 건국되었다는 내용을 실었다. 6세기 후반에 백제 국왕이 北朝 왕조로부터 받은 책봉호에 ‘帶方郡公·王’이 새로 등장하고, 661년에 唐 조정이 劉仁軌를 백제에 파견할 때 ‘檢校 帶方州刺史’로 임명한 것도<sup>56</sup> 이와 관련 된다.

55 윤용구, 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 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45는 『삼국지』에 실린 마한 소국명이 帶方郡과의 교섭로 상에 있던 소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마한 소국 전체를 망라하지 못했다고 추정한다.

56 『舊唐書』卷84, 列傳34 劉仁軌.



북조 왕조들은 百濟를 帶方郡과 관련 지워 인식했을 뿐 아니라 백제가 帶方故地에서 건국되었다고 하여 백제사의 출발부터 대방군과 백제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중원 왕조는 공손씨가 설치한 帶方郡이 동방의 最前線에서 한반도 남부와 倭에 대한 책봉-조공관계를 관장했으므로 이를 동방정책을 수행하는 일종의 Frontier 기구로 인식했고, 백제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한 결과라고 여겨진다.<sup>57</sup>

대방군은 황해도 지역을 관할한 데 비해서 伯濟國, 그리고 비류 혹은 온조 집단이 정착한 곳은 한강 하류역이어서 위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건국 집단의 초기 정착지를 서울 강북, 경기 북부로 상정하더라도 이곳은 대방군이 아니라 진변군의 영역이어서 ‘진변고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들이 대방군이 있던 지역의 주민, 즉 眞番系 유이민이었던 사실이 대방고지 건국설의 성립에 작용했다고 보인다. 백제 건국집단이 대방군이 관할하던 지역 출신임이 北朝 정권에 알려졌고, 이를 백제와 대방군을 연결 짓는 소재로 활용하여 대방고지 건국설이 고안되었다. 여기에 당시 백제인이 시조로 내세운 부여 출자의 구태와 연결시켜 위와 같은 인식이 나온 것이라고 여겨진다.<sup>58</sup>

주지하듯이 『三國史記』에 실린 百濟 건국설화를 보면, 시조인 溫祚 또는 沸流가 고구려에서 南來해온 것으로 되어 있다. 『周書』와 『隋書』 百濟傳은 시조 仇台說을 신고 있는데 夫餘의 別宗 혹은 東明의 후손으로 전한다. 일본 측 자료에서 백제 시조가 都慕라고 한 것도<sup>59</sup> 東明, 朱蒙을 가리키므로 부여 또는 고구려에서 그 出自를 찾는 전승이다. 건국 시조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설이 있으나 모두 기원을 북방에서 찾는 것은 공통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고구려 계통설의 고고학적 근거로서 거론되었던 서울 석촌동고분군의 적석총은<sup>60</sup> 그 조영 시기와 형식이 고구려의 초기 적석총과 차이가 있음이 일찍이 지적되었다. 특히 基壇式 적석총은 4세기 후반 경으로 비정되며, 고구려와 백제라는 대등 정치체간 교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하는 견해가<sup>61</sup> 주목된다. 지리적으로도 부여-고구려 계통보다는 백제국과 가까운 舊진

57 金昌錫, 2010 『羅州 伏岩里 木簡의 作成 時期와 帶方州의 性格』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pp.150~154.

58 近肖古王이 仇台이고, 그가 실제 부여계로서 백제에 들어와 4세기 중엽에 즉위한 것을 전하는 기록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강종훈, 2009 『백제왕실교체설의 재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출판사).

59 『續日本紀』 卷40, 桓武天皇 延曆 8年 12月 및 9年 7月 條.

60 근래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林永珍,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先史와 古代』 19를 들 수 있다. 이를 따르면, 압록강 남안의 자강도 초산 운평리고분군, 자성 송암리고분군 등의 축조 집단이 AD 2세기 말~3세기 초 무렵 임진강 유역으로 남하했고, 다시 3세기 중엽에 서울의 강남 일대로 이주하여 선주민과 결합했다고 한다.

61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pp.210~215.

번 지역에서 찾는 것이 순리이다. 이곳에 대한 영속관계가 변동하고 경기 북부 지역은 방기 되면서 황해도 지역의 진번계 주민이 이를 경유하여 韓 지역으로 유출되고, 한편으로는 마한 소국이 북상하여 진번계 주민을 흡수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력한 집단이 백제국의 선주민과 결합하여 백제 건국의 주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 시조 전승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복수의 집단이 유입되었음을 시사해준다.

근래의 보고에 의하면, 황해도 黃州의 土城里에서 출토된 28점의 토기(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는 高杯, 뚜껑, 시루, 盤, 壺, 長卵形土器 등 다양한 기종으로서 초기 백제토기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과반을 차지하는 壺類는 토기질이나 태토, 문양 등이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토기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하다.<sup>62</sup> 다만 보고자는 이를 4세기 중엽~후반으로 편년하여 진번계 주민의 유입 시점과 차이가 있다.

경기도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출토된 송풍관은 낙랑 기와의 제작 기술을 사용한 것이고 다량의 낙랑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중심 연대는 3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어 백제로 낙랑의 製鐵技術이 전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sup>63</sup> 황해도 지역은 진번군을 거쳤고, 남부도위 시기를 포함하여 낙랑군의 통제를 받았으니 이 지역 기술자 집단이 기안리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지탑리토성은 대방현의 치소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판축과 유사한 성토 방법과 土塊를 사용한 축성법이 풍납토성과 유사하다.<sup>64</sup> 또 경기도 파주 갈현리 출토 短頸壺와 白色瓮, 김포 양촌 출토 백색옹은 3세기 전반의 황해도 봉산군 양동리 출토 품과 유사하다고 하는데,<sup>65</sup> 3세기 전반이면 황해도 지역은 대방군이 통치하고 파주 지역은 마한의 북부 소국이 진출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양 지역 주민집단의 문화적 親緣性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철기, 기와, 횡혈식 석실묘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백제와 낙랑군의 문물의 상관성이 지적되어 왔다. 아직은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물질문화의 유사성은 양 지역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그 배경으로서 백제의 건국집단

62 崔鍾澤, 1990 「黃州出土百濟土器例」 『韓國上古史學報』4.

63 金武重, 2004 「華城 旗安里製鐵遺跡 出土 樂浪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40.

64 권오영, 2017 「고대 성토구조물의 성토방식과 재료에 대한 시론」 『漢江考古』5, pp.81~88.

65 권도희, 2017 「중부지역 낙랑계 토기 및 철기에 대하여 - 북한강유역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고고학』16-3, p.141 ; 권도희, 2018 「타날문토기,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여명기 물질문화」 『접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여명』,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pp.67~68.

을 포함하여 진번계 주민의 이동에 따른 문물의 전래와 변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V

### 맺음말

백제의 건국시조에 대해 각각 濞祚, 沸流, 都慕, 혹은 仇台라는 전승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건국의 주체 세력이 북방에서 이주해온 외래 집단이었음을 반영한다. 단, 부여-고구려계가 아니라 眞番系 주민이라고 여겨진다. 부여 또는 고구려 出自라는 의식은 백제 왕족이 당시 발흥하던 신흥 강국인 고구려의 支派이고, 나아가 그 원류인 부여를 계승했음을 표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진번 주민은 위씨조선에게 복속될 무렵 지금의 황해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분포했고, 진번군의 설치와 폐지-낙랑군 이관-남부도위의 설치와 폐지-대방군의 지배라는 수차례의 영속관계 변동을 겪었다. 특히 BC 75년 낙랑군 남부도위가 설치될 때 진번군의 영역 중 남부에 해당하는 예성강~임진강~한강 하류역이 방기된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경기 북부 지역은 중국 군현, 마한, 영서예의 틈에 낀 정치적 공백지대이자 완충지대였지만 한편으로 舊진번 주민의 정치체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AD 30년의 남부도위 폐지와 2세기 후반 낙랑군의 지배체제 동요가 이에 일조했다.

이 가운데 유력한 집단이 3세기 초 帶方郡이 설치되기 까지 이어진 영속관계의 변동과 혼란 속에서 파상적으로 남하하여 伯濟國으로 편입되었다. 2세기 후반~3세기 초가 백제 건국 집단이 이주해 온 시기로서 가장 유력하다. 이들은 BC 4세기 경 성립된 진번이라는 정치체의 후예이지만 BC 108년에 진번군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래로 최소 130여 년 동안 漢 문화, 그 중에서도 樂浪郡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획득한 製鐵, 建築, 製陶 기술은 물론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이라고 일컬어지는 漢文字의 사용, 印章을 이용한 보안,<sup>66</sup> 도량형, 행정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들은 伯濟國의 선주민을 포섭해갔고 백제국을 마한의 맹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66 『三國志』 韓傳의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이라는 현상은 韓 사회에 중국의 服式과 印章制가 보급·확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 참고 문헌

『史記』 『漢書』 『三國志』 『後漢書』 『晉書』 『舊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三國史記』  
『續日本紀』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노중국 외, 2013 『백제, 누가 언제 세웠나』, 한성백제박물관

노중국,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

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송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양기석,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유은식, 2018 『극동의 초기철기문화 연구』, 송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關野 貞, 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藤田亮策·梅原末治, 1946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養德社

神田信夫·山根幸夫 編, 1989 『中國史籍解題辭典』, 燎原書店

강중훈, 2009 「백제왕실교체설의 재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출판사

강현숙, 2005 「서울 지역의 적석층에 대하여」 『郷土서울』65

권도희, 2017 「중부지역 낙랑계 토기 및 철기에 대하여 - 북한강유역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고고학』  
16-3

권도희, 2018 「타날문토기.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여명기 물질문화」 『접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여명』,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8-2

권오영, 2017 「고대 성토구조물의 성토방식과 재료에 대한 시론」 『漢江考古』5

金基興, 1985 「夫租葦君에 대한 고찰 - 漢의 對土着勢力 施策의 一例」 『韓國史論』12, 서울大學校 國史  
學科

- 金武重, 2004 「華城 旗安里製鐵遺跡 出土 樂浪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40
- 金在弘, 2015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韓國古代史研究』79
-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韓國古代史研究』51
- 金昌錫, 2010 「羅州 伏岩里 木簡의 作成 時期와 帶方州의 性格」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김창석, 2014 「4세기 이전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정세 변동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13-2
- 김창석, 2015 「3세기 이전 춘천 지역의 취락 양상과 정치체의 형성」 『新羅文化』46
- 김창석, 2018 「『삼국사기』 소전 ‘貊國’의 실체와 傳承 경위」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
-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盧焮眞, 2004 「中島式土器의 由來에 대한 一考」 『湖南考古學報』19
- 마크 바잉턴, 2014 「기원전 45년의 낙랑군 호구부와 패수의 위치 비정」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 박경신, 2018 「북한강 상류역 원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 『고고학』17-2
- 朴淳發, 1994 「漢城百濟成立期 諸墓制의 編年檢討」 『先史와 古代』6
- 박종국, 2011 「중도문화의 지역성 – ‘중도유형문화문’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11
- 손영종, 2006 「락랑군 남부지역(후의 대방군지역)의 위치 – 《락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 다소 口口》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과학』2006-2
- 宋滿榮, 2003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展開 過程과 韓濊 政治體의 動向」 『강좌 한국고대사 10』, (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송만영, 2013 「중도식 주거 문화권의 주거지와 취락」 『崇實史學』31
- 송호정, 2020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 『다시 쓰는 고조선사』, 서경문화사
- 송호정, 2020 「청동기시대 대동강 유역 팽이형토기문화와 고조선」 『다시 쓰는 고조선사』, 서경문화사
- 오영찬, 2003 「帶方郡의 郡縣支配」, 『강좌 한국고대사 10』, (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尹善泰, 2001 「馬韓의 辰王과 臣濱沽國 – 嶺西濊 지역의 歷史的 推移와 관련하여」 『百濟研究』34
- 윤선태, 2010 「한사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부」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 2010 「낙랑군 초기의 군현 지배와 호구 파악」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 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 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45
- 李基東, 1999 「馬韓史 序章 – 西海岸 航路와 馬韓社會의 黎明」 『百濟史研究』, 一潮閣
- 李丙燾, 1987 「樂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丙燾, 1987 「眞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丙燾, 1987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賢惠, 1997 「동예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70
- 林起煥, 1992 「塼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Ⅰ』,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林永珍,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先史와 古代』19
- 전주농, 1962 「신천에서 대방군 장삼장 왕경의 무덤 발견」 『문화유산』1962-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崔鍾澤, 1990 「黃州出土百濟土器例」 『韓國上古史學報』4
- 한지선, 2018 「임진강 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의 동향」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중부고고학회
- 
- 那珂通世, 1958 「三韓考」 『外交繹史』, 岩波書店
- 稻葉岩吉, 1913 「漢代の滿洲」 『滿洲歴史地理 第壹卷』, 丸善株式會社
- 武田幸男, 1989 「舊領域の支配形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白鳥庫吉, 1913 「漢代の朝鮮」 『滿洲歴史地理 第壹卷』, 丸善株式會社
- 三上次男, 1966 「穢人とその民族的性格」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

#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와 한성 별도의 건설

여호규

#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와 한성 별도의 건설

여 호 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 Contents

- I. 머리말
- II.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진출과 지배 양상
- III. 고구려의 漢江 水路와 西海 海路의 활용
- IV. 水路 활용을 위한 漢城 別都의 건설
- V. 맺음말

## I

### 머리말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석권했다. 대체로 이때부터 551년까지 고구려가 한강유역 등 중부지역을 영유했다고 이해하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이와 상반된 기사가 다수 보인다. 475년 이후에도 백제가 한강유역을 영유하고 임진강-예성강 일대에서 고구려와 각축전을 벌였다는 기사들이다. 이에 고구려가 중부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차산 일대와 임진강 유역 등에서 고구려 성곽이 다수 조사되었지만, 중대형 산성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소형 보루가 밀집 분포한다. 이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고구려가 중부지역에 대해 영역지배를 시행하지 못하고, 거점지배나 간접지배를 시행했다고 이해한다. 반면 『삼국사기』 지리지의 한주·삭주조에는 ‘본고구려 △△군·현’ 명칭이 다수 나오는데, 고구려가 지방 지배를 시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관련한 각 자료 사이에는 매우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간극이 있다. 자료의 취사선택에 따라 고구려의 중부지역 점유 시기나 지배 양상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사와 고고학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가 수로를 이용해 한강유역 등 중부지역에 대해 지방 지배를 도모하던 양상을 고찰하고, 중대형 산성을 축조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漢城 別都의 건설을 중부지역 지배와 연관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 II

###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진출과 지배 양상

일반적으로 고구려가 475-551년에 한강유역 등 중부지역을 영유했다고 이해하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이와 상충되는 기사가 다수 나온다. 백제가 웅진-사비 시기에도 한강

유역을 영유했다는 이른바 ‘백제의 한강영유 기사’이다.<sup>1</sup> 이에 최근 여러 연구자가 551년 이전에 백제가 한강유역을 수복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sup>2</sup>

그렇지만 이들 기사의 지명은 대부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1-4세기의 지명과 중복되며, 전투양상도 유사하다. 더욱이 548년(성왕 26)의 獨山城 전투기사는 ‘漢北’이라 하여 한강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것처럼 기술했지만, 실제로는 차령산맥 북방의 예산 일대를 둘러싼 각축전이다.<sup>3</sup>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한강영유 기사’는 종전의 기사를 중복 게재했거나<sup>4</sup> 조작·부회했을<sup>5</sup>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고구려와 백제가 512년과 548년에는 천안과 예산 일대, 487년과 550년에는 미호천 유역에서 각축전을 벌인 양상이 확인된다. 475년 이후 551년 직전까지 양국의 국경선이 한강유역보다 남쪽인 아산만 일대와 미호천 유역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가 한강을 넘어 임진강-예성강까지 진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설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sup>6</sup>

고구려가 한강유역 등 중부지역을 장기간 영유했던 것은 거의 명확한데, 지방 지배 양상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sup>7</sup> 문헌사료에 입각한 연구는 한강유역을 16개 전후의 郡城으로 편성해 영역지배를 시행했다는 견해,<sup>8</sup> 주요 전략적 요충지나 교통로를 중심으로 거점지배를 시행했다는 견해,<sup>9</sup> 군사적 거점지배를 시행하다가 점차 영역지배로 전환했다는 견해<sup>10</sup>

1 여호규, 2013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131쪽

2 연구사는 양기석, 2008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김현숙, 2009 「475~551년 한강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향토서울』 73; 윤성호, 2017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58-64쪽 참조.

3 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 일조각, 244-246쪽

4 노태돈, 2005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185쪽; 강종훈, 2006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26쪽; 임기환, 2008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백제문화』 37, 6-20쪽

5 김영심, 2003 「웅진·사비기 백제의 영역」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문화사, 116-118쪽; 이도학, 2009 「백제 웅진기 한강유역 지배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 『향토서울』 73

6 이상의 서술에 대한 논증은 여호규, 2013 앞의 글, 130-144쪽 참조.

7 기존 견해는 신광철, 2015 「고구려의 ‘中原 地域’ 진출에 대한 小考」 『고구려발해연구』 51, 33쪽 〈표 1〉에 잘 정리되어 있다.

8 노태돈, 2005 앞의 글, 185-188쪽

9 임기환, 2002a 「고구려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7-10쪽 및 27-28쪽; 임기환, 2007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53-63쪽

10 김현숙, 2008 「고구려의 한강유역 영유와 지배」 『백제연구』 50, 44-47쪽



등으로 나뉜다.

고고자료에 입각한 연구에서는 문헌사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한강유역에 대해 영역지배를 관철했다고 보기도 한다.<sup>11</sup> 그렇지만 대다수 고고학자들은 지방행정의 治所로 비정할 만한 중대형 산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역지배를 구현하지 못하고 거점지배나 간접지배를 시행했을 것으로 파악한다.<sup>12</sup>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을 둘러싸고 영역지배설[직접지배설]과 거점지배설[간접지배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분분한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설까지 제기되면서 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삼국사기』 지리지 漢州 소속의 ‘본고구려 군현명’<sup>13</sup> 가운데 內, 奴, 忽 등<sup>14</sup> 고구려 계통의 語尾를 가진 지명이 다수 확인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sup>15</sup> 임진강-한강-금강 유역에만 국한하더라도 內나 奴와 관련한 지명은 仍斤內(괴산), 今勿奴(진천), 仍伐奴(서울 시흥), 骨衣奴(남양주 진접) 등이 확인된다. 忽과 관련한 지명은 仍忽(음성), 奈兮忽(안성 시 소재지), 沙伏忽(안성 양성), 貫忽(화성 봉담), 貫召忽(인천 남구), 上忽(평택 안중), 首尔忽(김포 대곶), 童子忽(김포 하성), 述尔忽(파주), 馬忽(포천 군내), 冬比忽(개성) 등 광범위하게 확인된다.<sup>16</sup>

또한 임진강이나 한강 유역에서는 ‘馬忽(포천 반월산성),<sup>17</sup> ‘仍伐內’(서울 호암산성),<sup>18</sup> ‘主

11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 47, 152-154쪽; 양시은, 2010a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56-58쪽

12 심광주, 2002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483-490쪽; 서영일, 2002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문화사학』 17, 73-78쪽; 서영일, 2007 「高句麗의 百濟攻擊과 南進路」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98-104쪽;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고구려발해연구』 36, 90쪽; 신광철, 2011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면제」 『한국상고사학보』 74, 173-177쪽; 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 51, 94-96쪽

13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계통 지명의 현황은 임기환, 2007 앞의 글, 54-57쪽의 <표 3> 및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진출사』 경인문화사, 31쪽의 <표 3>에 잘 정리되어 있다.

14 內나 奴는 ‘川, 壤’, 忽은 ‘城’을 뜻하는데, 백제의 夫婁나 신라의 火·伐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15 고구려 계통의 지명 語尾에 대해서는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293-324쪽 참조.

16 지명의 위치 비정은 정구복 외, 1997 『譯註 三國史記(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2-270쪽 참조.

17 ‘馬忽’은 통일신라 堅城郡에 해당하는 本高句麗郡의 명칭으로 지금의 포천 군내로 비정됨(『삼국사기』 지리지2 漢州조; 정구복 외, 1997 앞의 책, 251쪽; 서영일, 1996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解空口單銘’ 기와의 考察」 『사학지』 29).

18 ‘仍伐內’는 통일신라 栗津郡(과천) 穀壤縣의 本高句麗 지명인 ‘仍伐奴縣’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서울 시흥동 일대로 비정됨(『삼국사기』 지리지2 漢州조; 정구복 외, 1997 앞의 책, 242쪽).

夫吐’(인천 계양산성)<sup>19</sup> 등 고구려계 지명 語尾가 새겨진 통일신라기의 명문기와가 출토되고 있다.<sup>20</sup> 하남 선동[광주 선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기의 명문기와에서도 ‘馬忽’(포천 군내), ‘今万奴[今勿奴, 진천], ‘買召忽’(인천 남구),<sup>21</sup> ‘買省’(양주 주내), ‘童子△’(童子忽, 김포 하성) 등 고구려계 지명 어미가 다수 확인되었다.<sup>22</sup>

이처럼 고구려계 지명 어미가 통일신라기의 기와에 새겨진 것은 장기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선동의 명문기와에는 757년(경덕왕 16년)에 고구려계 지명인 奈兮忽(안성)을 개칭한 ‘白城’, 買忽(화성 봉담)을 개칭한 ‘水城’, 冬比忽(개성)을 개칭한 ‘開城’ 등도 확인된다. 고구려계 지명이 경덕왕대에 개칭한 지명과 병용된 것인데,<sup>23</sup> 경덕왕대의 지명 개칭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정도로 강하게 뿌리내렸음을 시사한다.

광개토왕이 공취한 「광개토왕릉비」 영락 6년조의 58성은 당시 백제의 지명으로 추정되는데,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이와 직접 연관된 지명을 찾기 힘들다. 백제계 지명이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거의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고구려가 475년에 한강유역을 점령한 다음 종전의 백제계 지명을 자국의 지명으로 개칭했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지명 개칭은 행정구역이나 治所에 대한 재편을 수반했을 것이다.

고구려가 한강유역 일대를 점령한 이후 종전의 백제 지방행정구역을 재편해 지방통치를 시행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고구려가 이러한 지방통치를 80여년 가까이 시행한 결과, 고구려계 지명이 백제계 지명을 대체하여 통일신라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조나 삭주조에 백제계 지명은 거의 전하지 않고, 고구려계 지명과 신라가 개칭한 지명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漢州 지역의 경우, 거의 전역에서 고구려 계통 지명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고구려

19 ‘主夫吐’는 통일신라 長堤郡에 해당하는 本高句麗郡의 명칭으로 인천시 북구 일대로 비정됨(『삼국사기』 지리지2 漢州조; 정구복 외, 1997 앞의 책, 244쪽).

20 박성현, 2008 「신라 성지 출토 문자자료의 현황과 분류」 『목간과문자』 2, 106~108쪽.

21 최근 買召忽로 비정되는 인천 문학산성 동북쪽의 구릉지(선학동 58-2번지)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다량 출토된 건물지 유적이 발견되었다(수도문물연구원, 2020 「인천 선학동(58-2번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22 서울대 박물관, 2002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 김규동·성재현, 2011 「선리 명문와 고찰」 『고고학지』 17, 564-567쪽의 도표 참조; 윤성호, 2017 앞의 논문, 283쪽

23 김규동·성재현, 2011 앞의 글, 575-577쪽에 따르면 ‘今万奴’, ‘買召忽’, ‘買省’, ‘童子△’ 등의 명문이 있는 기와는 757년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한다.

가 지방 지배를 시행했다고 파악된다.<sup>24</sup> 551년 나제연합군의 한강유역 점령 상황을 기술한 다음 사료는 고구려의 지방지배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한다.

①-㉔ 十二年 辛未年(551년)에 王이 居柒夫에게 명하여 (중략) 百濟와 함께 高句麗를 침공했다. 百濟人이 먼저 공격하여 平壤을 격파하니, 居柒夫 등이 승리를 틈타 ‘竹嶺以外 高峴 以內’의 十郡을 공취했다. 『삼국사기』 열전4 거칠부전<sup>25</sup>

①-㉕ 이 해(551년)에 百濟의 聖明王이 몸소 무리와 두 나라의 병사를 거느리고(두 나라는 新羅와 任那를 일컫는다.) 고구려(高麗)를 정벌하러 가서 ‘漢城之地’를 획득하고 또 진군하여 ‘平壤’을 토벌했다. 모두(무릇) ‘六郡之地’로 마침내 故地를 수복했다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일본서기』 흠명기12년 시세조

②-㉔ 十四年(553년) 7월에 百濟의 東北 지역을 공취하여 新州를 설치하고 阿漚 武力을 軍主로 삼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sup>26</sup>

②-㉕ 이 해(552년)에 백제가 漢城과 平壤을 포기했다. 이에 新羅가 漢城에 入居했는데, 지금 新羅의 牛頭方과 尼彌方이다(地名은 未詳이다).

『일본서기』 흠명기13년 시세조

상기 사료는 551년에 나제연합군이 한강유역을 분할 점령했다가, 553년에 신라가 한강유역 전체를 석권하던 양상을 전하고 있다. ①-㉔에 따르면 백제가 먼저 (고구려의) 평양을 공파하자, 신라도 ‘竹嶺以外 高峴 以內’의 10郡을 공취했다고 한다. 이 기사의 竹嶺은 현재의 죽령, 高峴은 철령으로<sup>27</sup> 비정된다. 신라가 551년에 점령한 죽령에서 철령에 이르는 한강 중상류 일대를 ‘10군’이라고 총괄하여 표현한 것이다.

24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조나 명주조에는 한주조에 비해 고구려 계통의 지명어미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삭주조에는 冬斯忽(금화 창도)과 比列忽(안변), 명주조에는 也尸忽(영덕)과 達忽(고성) 등이 확인될 뿐이다(장창은, 2014 앞의 책, 30-34쪽). 이는 각 지역별 점령 기간의 장단이나 인문·자연 환경의 차이에 따라 고구려가 시행한 지방통치의 양상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5 이와 관련한 사료가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조(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 및 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 9월조(新羅來攻取十城)에도 나온다.

26 이와 관련한 사료가 『삼국사기』백제본기4 성왕 31년 7월에도 나온다(新羅取東北鄙, 置新州).

27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671쪽. 高峴의 위치를 황해도 谷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정구복 외, 1997 앞의 책, 240쪽).

①-⑥는 백제의 점령 현황을 기술한 것인데, 문장해석과 점령지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가령 괄호 안의 밑줄 친 구절을 ‘漢城之地’와 ‘六郡之地’로 대비한 다음, 6郡의 범위를 ‘漢城之地’를 획득한 이후에 ‘平壤’으로 진격하면서 점령한 지역이라고 상정하기도 한다. ‘六郡之地’는 백제 도성이 위치했던 한강 하류보다 북쪽에 위치한 임진강-예성강 나아가 재령강 유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28</sup>

그렇지만 이 구절의 ‘凡’은 ‘모두’나 ‘총계’라는 뜻으로 앞에 열거한 ‘漢城之地’와 ‘平壤’ 등을 총괄한 표현이며,<sup>29</sup> ‘六郡之地’는 ‘漢城之地’와 ‘平壤’을 합한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sup>30</sup> ①-④에서 신라가 점령한 한강 중상류 지역을 ‘10군’으로 총괄했다면, ①-⑥에서는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 지역을 ‘6군’으로 총괄해 표현한 것이다.

②-⑥의 ‘牛頭方’과 ‘尼彌方’도 551년 신라와 백제의 점령지역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①의 ‘10郡’ 및 ‘6郡’에 상응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sup>31</sup> 신라가 점령한 10군은 죽령-고현(철령) 일대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②의 ‘牛頭方’에 대응된다. ‘牛頭方’은 신라의 ‘牛首州’를 백제의 5方に 견주어 표현한 것으로<sup>32</sup> 통일신라기의 ‘朔州’에 해당한다. 실제朔州 가운데 죽령-철령 지역의 郡(주치, 소경 포함)은 모두 10개이다.<sup>33</sup>

이처럼 ②-⑥의 ‘牛頭方’이 ①의 ‘10郡’에 상응하므로 ‘尼彌方’은 ‘6郡’에 상응할 가능성이 높다. 종래 ‘尼彌方’을 臨津·臨江縣(과주)이나<sup>34</sup> ‘內尔米’로 불린 신라의 沙川縣(동두천)<sup>35</sup> 등으로 비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牛頭方’이 ‘牛首州’로 백제의 5方に 상응하므로 ‘尼彌方’도 신라의 광역행정구역인 ‘州’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尼彌方’은 신라가 백제의 동북방 곧 한강 하류일대를 점령한 다음 설치한 ‘新州’(②-④), 또는 이를 개편한 漢山州나 南川州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尼彌

28 이 견해는 다시 경기도 양주 이복설(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34~35쪽), 황해도 예성강-재령 일대설(양기석, 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 충남남도 역사문화연구원, 193-194쪽 각주) 등으로 나뉜다. 6군의 위치 비정에 관한 제반 견해는 윤성호, 2017 앞의 논문, 108쪽 ‘표 3’ 참조.

29 『광개토왕릉비』 무훈기사 말미에 나오는 ‘凡所攻破 城六十四, 村一千四百.’ 구절의 ‘凡’은 앞에 열거한 것을 합친 총계라는 뜻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30 노태돈, 2005 앞의 글, 184-185쪽;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2)』 동북아역사재단, 371쪽

31 사료 ②-⑥는 552년 사건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53년에 해당한다.

32 노태돈, 1999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천」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270쪽

33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77-178쪽. 10군의 위치 비정에 대한 제반 견해는 윤성호, 2017 앞의 논문, 111쪽 ‘표 4’ 참조.

34 김현구 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 연구(II)』 일지사, 258쪽

35 전덕재, 2009a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향토서울』 73, 109-110쪽

方’은 ‘尼彌’와 음이 유사한 ‘南買(南川: 이천)’에 治所를 두었던 568-604년경의 新州나<sup>36</sup> 660-662년경의 南川州로<sup>37</sup> 추정되는데, 牛頭州(牛首州)가 637년(선덕여왕 6)에 설치되었으므로<sup>38</sup>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660-662년경의 南川州는 통일신라의 漢州에 해당하는데, 관내 郡의 수가 6郡보다 많으므로 ①-⑥의 ‘6郡’은 그 중 일부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후술하듯이 ①-⑥의 漢城은 백제 도성이었던 몽촌토성-풍납토성 일대, 平壤은 고구려의 남평양으로 신라의 북한산군이 설치되었던 아차산 일대로 비정된다.<sup>39</sup> ‘6郡’은 백제가 종전 도성이었던 한강 하류 일대까지 진격하며 점령했던 북한산 이남지역에 해당한다.<sup>40</sup>

이와 관련해 양주분지나 포천분지 등 임진강-한탄강 유역에서 6세기 중반경의 신라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sup>41</sup> ‘六郡之地’에 임진강이나 예성강 유역이 포함된다면, 신라가 553년에 이곳까지 점령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는 6세기 중반경의 신라 유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553년에 신라가 이곳까지 진격했다고 보기 어렵고, ‘六郡之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처럼 ‘6郡’은 한강-임진강의 분수령인 북한산 이남지역을 지칭하는데, 신라가 新州를 설치한 다음 북한산에 定界碑의 성격이 강한 ‘진홍왕순수비’를<sup>42</sup> 건립한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전술했듯이 백제와 고구려는 551년 직전까지 아산만 일대와 미호천 유역에서 각축전을 벌였는데, 미호천 유역은 양국의 각축전을 틈타 신라가 장악했다. 그러므로 백제는 551년에 아산만 일대를 출발해 한강 하류로 북상했을텐데, 경부고속도로 라인과 탄천을 따라 진격했다고 추정된다.

백제가 획득한 6郡은 이 과정에서 점령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漢州 가운데 550년 이전에 신라 영역으로 편입된 진천-괴산 일대를 제외하면 북한산 남쪽의 군은 주치(하남-광주), 백성군(안성 소재지), 수성군(화성 봉담), 당은군(화성 남양), 율진군(과천), 한양군(북

36 임기환, 2002a 앞의 글, 13쪽

37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태종무열왕 7년(660) 5월에 南川停, 8년 12월에 南川大監, 문무왕 1년(661) 7월 17일에 南川州總管, 2년 8월에 南川州摠管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38 강봉룡, 1994 「신라 지방통치체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14쪽; 전덕재, 2009b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江原文化研究』 28, 91-97쪽

39 여호규, 2002a 「한성시기 백제의 도성제와 방어체계」 『백제연구』 36, 7쪽

40 서영일, 1999 앞의 책, 231-235쪽; 임기환, 2002a 앞의 글, 18~19쪽

41 김진영, 2020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7-201쪽

42 박성현, 2011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현실』 82, 83~85쪽.



한산군=평양), 기천군(여주), 장구군(안산), 장제군(인천 계양) 등 총 10개이다. 이 가운데 백제의 진격로에서 떨어진 기천군, 개차산군,<sup>43</sup> 장구군, 장제군 등을 제외하면 ①-⑥의 ‘6郡’과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료 ①의 ‘10郡’과 ‘6郡’은 551년에 신라와 백제가 한강 중상류와 하류 일대를 분할 점령한 지역을 지칭한다. 그런데 ①-④는 『삼국사기』, ①-⑥는 『일본서기』 등 다른 사서에 나오는데, ‘몇 개 郡’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했다. 더욱이 ①-⑥에서는 백제가 ‘신라, 임나’의 병력과 함께 ‘漢城의 땅’과 ‘平壤’을 획득했다고 했는데, ①-④에서는 백제인들이 먼저 ‘平壤’을 공파하자 신라도 ‘10郡’을 공취했다고 기술했다. 두 사료는 기술 방식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전거도 같다고 생각된다.

백제와 신라는 551년 9월에 한강유역에 대한 분할 점령을 마무리했는데,<sup>44</sup>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552년 5월에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sup>45</sup> 552년 5월 이후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료 ①-④·⑥는 551년 나제연합군이 한강유역을 분할 점령한 직후에 공유했던 戰況 보고서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10군’이나 ‘6군’은 양국의 한강유역 점령 당시 고구려의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중부지역에 최소 16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설치했다고 추정되는데,<sup>46</sup> <충주고구려비>의 ‘古牟婁城守事’는 지방관의 실제 사례이다.

다만 ‘郡’이 당시 고구려의 행정구역 명칭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고구려의 ‘郡制’ 시행 여부는 불분명한 반면, 신라와 백제는 州郡制와 方郡制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①-④의 ‘10郡’은 ‘10城’으로도 나오며,<sup>47</sup> ‘古牟婁城守事’에서 보듯이 ‘城’을 단위로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다. 551년 당시 고구려가 ‘城’을 단위로 행정구역을 편성했는데, 백제와 신라가 ‘郡’으로 표기했을 수 있다. 백제계 사료인 ②-⑥에서 신라의 ‘州’를 백제의 ‘方’으로 표현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43 여호규, 2013 앞의 글, 145-146쪽에서는 개차산군이 ‘6郡’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개차산군은 안성군 죽산면 이동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증전 견해를 수정해 ‘6郡’의 후보 지역에서 제외한다.

4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 9월조 : 新羅來攻取十城.

45 『일본서기』 흥명기13년 : 十三年(552) 五月戊辰朔乙亥, 百濟·加羅·安羅(중략) 奏曰, 高麗與新羅, 通和并勢, 謀滅臣國與任那. 故謹求請救兵, 先攻不意. 軍之多少, 隨天皇勅.

46 노태돈, 1999 앞의 책, 269-270쪽; 2005 앞의 글, 185-188쪽

4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 9월조 : 新羅來攻取十城.



지도 1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분포 현황(최종택 2016, 33쪽 도면 20)

표 1 경기남부와 금강유역의 고구려 성곽 현황<sup>48)</sup>

명칭	입지	유형/규모	축성방식	유물
안성 도기동산성	안성분지 서남부 안성천 南岸의 독립 구릉(해발 78m)	내외 복곽성 내성 1.4km 전체둘레 2km	토루+외목책열 (한성시기 백제) 木柵塗泥城壁+외면석축 +안쪽 溝狀시설 (고구려) <sup>49)</sup>	백제 토기편 <sup>50)</sup> 고구려 토기편
진천 대모산성	진천분지 서남부 백곡천 西岸의 독립 구릉(해발 101m)	내외 복곽성 외곽 1,259m 내성벽 200m	영정주+판축토벽 내외면 할석보강	백제 토기편 고구려 토기용 1점 (내성 북측 수로).

48 이 도표는 각 유적의 보고서 및 양시은, 2010b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 106쪽; 백종우, 2014 「中原地域 高句麗 遺蹟 遺物の 検討」 『고구려발해연구』 50, 223-237쪽; 신광철, 2015 앞의 글, 34-40쪽; 이정범, 2015 앞의 글, 76-92쪽; 최종택, 2016 「湖西地域 高句麗遺蹟의 調査現況과 歷史的 性格」 『百濟研究』 63, 4-28쪽; 김진영, 2017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고구려발해연구』 58 등을 참조해 작성했다.

명칭	입지	유형/규모	축성방식	유물
청주 정북동토성	미호천·무심천 합류 지점 일대 평야 한북판의 평지	방형 평지성 둘레 675m	영정주+판축토벽 바깥에 해자설치	한성시기 백제토기, 고구려 대형직구옹, 앙이부호 등. 통일신라 토기.
청원(세종) 남성골산성	금강·미호천 합류지점 동북쪽 산줄기 서남단 구릉 (해발 약 100m)	내외 복곽성 전체 둘레 700m(추정)	木柵塗泥城壁 +외면 토석혼축보강. 동문지 바깥 외황	고구려 금제이식 1점, 토기 213개체분, 철기 77점 <sup>51</sup>
연기(세종) 나성리토성	금강·제천 합류지점 서쪽의 독립 구릉. 주변은 분지형 평야.	길쭉한 타원형 330m 길이의 토벽 확인.	판축 또는 성토 토축성벽.	백제 토기편. 고구려 토기편.
대전 월평동산성	대전분지 중앙의 도솔산 산줄기 북단의 구릉산(해발 137m)	둘레 745m	백제 사비시기의 석심토축 성벽.	백제 성벽 아래에서 고구려 토기 23개체분 출토 <sup>52</sup>
대전 월평동유적	월평동산성 남쪽의 구릉산 경사면	1열식 목책 殘長 85m. 석축성벽2의 殘長 130m.	1열식목책+外濠 (백제 한성시기). 2열식목책→ 석벽1+外濠(고구려). 석축성벽2(?) <sup>53</sup>	한성시기 백제토기, 고구려토기 19개체분 이상, 철기류, 사비시기 백제토기.

고구려의 지방지배 양상은 경기 남부와 금강유역의 고구려 성곽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서는 총 7기의 성곽(유적)이 조사되었다(<지도 1> 참조). 이 가운데 청원 남성골산성이나 대전 월평동산성에서는 고구려 유물에 선행하는 백제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sup>54</sup> 다른 5기의 성곽에서는 한성시기의 백제 유물이나 유구가 출토되었다. 이는 고구려가 경기 남부나 금강유역으로 진출한 다음, 종전의 백제 성곽을 재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안성 도기동산성에서는 토루와 목책열로 구성된 한성시기의 백제 성벽이 고구려에 의해 2중 목책열로 이루어진 木柵塗泥城壁(외면에는 석축보강시설, 안쪽에는 溝狀시설 구비)으로 개축되

49 도기동산성 성벽의 구조와 편년은 김진영, 2017 앞의 글, 58-85쪽에 따름.

50 도기동산성에서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의 백제시기 수혈유구와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었다.

51 남성골산성에서는 온돌을 갖춘 주거지 8기, 원형수혈 251기, 수혈유구 25기, 토기 가마 14기, 목곽고 1기 등 많은 고구려 시기 유구가 확인되었다.

52 사비시기의 백제 성벽 아래에서는 주혈과 원형수혈유구도 확인되었다.

53 월평동유적 성벽의 편년은 박태우, 2006 「月平洞山城 城壁 築造技法과 時期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 35, 78-92 쪽; 최종택, 2016 앞의 글, 17-20쪽에 따름. 다만 석축성벽2의 연대에 대해 박태우는 6세기 후반으로 보았지만, 최종택은 6세기 전반의 흥련봉 1보루와 비슷할 것으로 보았다.

54 남성골산성에서는 백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월평동산성에서는 고구려 유물보다 후행하는 사비시기의 백제 성벽이 확인되었다.

던 상황이 확인되었다.<sup>55</sup> 또한 대전 월평동유적에서도 목책과 외호로 구성된 한성시기의 백제 성벽이 고구려에 의해 처음에는 2열식 목책, 그다음에는 외호를 갖춘 석축성벽으로 개축되었다.<sup>56</sup>

진천 대모산성, 연기 나성, 청주 정북동토성 등도 한성시기 백제 유물과 함께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백제 성곽을 재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모산성 북쪽의 송두리유적에서는 백제 토기와 함께 고구려의 장동호, 장동웅, 동이 등이 출토되었고,<sup>57</sup> 나성리토성 서북쪽의 대평리 유적에서도 백제 주거지와 함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sup>58</sup> 이는 대모산성이나 나성리토성 부근의 한성시기 백제 취락이 고구려에 의해 점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성 도기동산성, 진천 대모산성, 연기 나성리토성 등은 넓은 분지나 소규모 평야 내부의 독립 구릉에 자리 잡고 있다. 대전 월평동 유적은 대전분지를 향해 기다랗게 뻗은 산줄기 말단부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고, 청주 정북동토성은 미호천-무심천 합류지점 일대의 평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이들 성곽이 군사방어뿐 아니라 지방지배를 위한 거점성의 기능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구려가 군사방어와 지역거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백제 성곽을 선정해 재활용했던 것이다. 물론 고구려와 백제의 각축전 양상으로 보아 미호천 하류나 금강 남쪽에 위치한 청원 남성골산성, 연기 나성리토성, 대전 월평동유적은 장기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주 정북동토성이나 진천 대모산성도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미호천 연안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sup>59</sup>

55 김진영, 2017 앞의 글, 74-85쪽. 남쪽구역에서는 4세기 후반-5세기경의 백제시기 수혈을 파괴하고 고구려시기의 2중 목책열이 조성된 양상도 확인되었다(김진영, 2017 앞의 글, 71-73쪽).

56 박태우, 2006 앞의 글, 78-92쪽; 최종택, 2016 앞의 글, 17-20쪽

5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진천-진천 I·C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松斗里遺蹟 발굴조사 보고서』; 최종택, 2016 앞의 글, 6-7쪽

58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및 생활권2-4구역 내 저습8유적(북쪽) 연기 나성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최종택, 2016 앞의 글, 16-17쪽

59 고구려의 금강유역 진출 루트에 대해서는 한성 함락 이후 그 여세를 몰아 금강유역까지 진격했다는 견해(양시은, 2011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 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101-131쪽) 및 충주 방면에서 미호천 유역으로 진출했다는 견해(정운용, 2013 「淸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築造와 運用」 『동북아역사논총』 39, 53-91쪽; 이정범, 2015 앞의 글, 95쪽; 신광철, 2015 앞의 글, 61쪽; 백종오, 2014 앞의 글, 244쪽)로 나뉘는데, 후자는 고구려가 금강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고구려가 494년 남한강 지류인 달천 상류로의 진출을 시도한 사실을 고려하면 충주 방면에서 미호천 유역으로 진출했다고 추정된다. 다만 청원 일대로 비정되는 爾林이 487-550년에 고구려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미호천 동북방 일대는 고구려가 장기간 점유했을 가능성이 높다(여호규, 2013 앞의 글, 140-144쪽).

그렇지만 안성 도기동산성은 512-548년에 양국의 각축전이 벌어진 천안-예산보다 북쪽에 위치했다. 도기동산성은 늦어도 고구려가 천안 일대까지 진출한 512년을 전후해 점유한 다음 551년 직전까지 장기간 사용했다고 파악된다. 도기동산성은 차령산맥의 서운산(해발 548m)에서 안성천을 향해 뻗은 산줄기 말단부의 독립 구릉에 위치했는데, 평택평야에서 안성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을 공제할 수 있는 지점이다.

도기동산성의 이러한 입지조건은 요동지역의 고구려 성곽에서도 많이 찾아진다. 요동지역의 고구려 산성은 대부분 포곡식 산성으로 대평원에서 遼河 지류의 河谷平地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했다. 고구려가 이러한 입지조건을 선정한 것은 대평원에서 요하 지류 방향으로 침공하는 적군을 막는 군사방어와 함께 그 안쪽의 하곡평지 일대를 지배하기 위한 거점성의 기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sup>60</sup>

이로 보아 도기동산성도 군사방어와 함께 거점성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추정된다. 도기동산성은 안성분지 일대를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거점성으로 안성시 소재지로 비정되는 奈兮忽(白城郡)의 치소일 가능성이 높다. 도기동 산성을 통해 고구려가 경기남부 일대에 거점성을 설치해 지방지배를 도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성남 판교동고분,<sup>61</sup> 용인 보정동고분,<sup>62</sup> 화성 청계리고분,<sup>63</sup> 등 고구려 고분도 다수 확인되었다.<sup>64</sup> 각 고분군마다 석실봉토분 1기나 2기가 분포한다. 청계리고분 1호 석실에서는 고구려의 흑색마연호 1점이 출토되었다. 보정동고분 1·2호분에서도 판교리·관정과 함께 고구려의 적갈색 연질토기와 흑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판교동고분 1호-②호 석실에서는 쇠칼[鐵刀子] 1점이 출토되었다.

경기 남부에서 조사된 고구려 고분에 대해 수량이 적고, 축조방식도 정연하지 못하므로

60 여호규, 1999 『고구려 성(II)』 국방군사연구소, 59-61쪽

6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성남 판교동 유적(Ⅰ·Ⅱ)』

62 이희수·배기동·이한용·김기룡, 2009 『용인 보정동 고분』 (한양대 문화재연구소총서 제16집)

63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화성 청계리 유적(Ⅰ-Ⅳ)』

64 양시은, 2010a 앞의 글, 42-45쪽; 안신원, 2010 앞의 글, 74-81쪽; 최종택, 2014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69-88쪽. 그밖에 성남 창곡동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성남 창곡동 유적』), 용인 신갈동 유적(서경문화재연구원, 2017 『용인 신갈동 유적』), 용인 동천동 유적(현남주·김호진, 2019 「용인 동천동 고구려 석실묘」 『충주고구려비의 어제와 오늘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 등에서도 고구려계 석실분이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광명 소하동고분군, 용인 보정동 청자요지의 석실분, 용인 창덕동유적, 광주 선동리고분군, 화성 반송동유적, 화성 금곡동유적, 용인 어비리유적, 이천 이치리유적, 음성 문촌리유적 등도 고구려 고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진영, 2020 앞의 논문, 23-46쪽). 전체적으로 한강 이남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고고조사 성과가 기대된다.



장기 거주나 영역지배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고구려가 남진하거나 퇴각하면서 단발성으로 조성한 물질문화의 흔적이라는 것이다.<sup>65</sup> 그렇지만 고구려는 6세기 전반에 아산만 일대에서 백제와 장기간 대치했고, 안성천 일대에서는 영역지배를 도모하던 양상도 확인된다. 경기 남부의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영역화한 고고학적 증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66</sup>

### III

## 고구려의 漢江 水路와 西海 海路의 활용 양상

이상과 같이 고구려가 475-551년에 한강유역 등 중부지역을 장기간 점유하며 지방 지배를 시행한 것은 명확하다. 그럼 왜 군사방어나 지방지배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형 산성을 축조하지 않았던 것일까? 고구려가 중부지역에 중대형 산성을 축조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대외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는 355년 이래 중원왕조와의 외교교섭을 통해 서북방 국경지대를 안정시킨 다음 남진정책을 추진했다. 고구려는 475년경에도 북위와의 교섭을 통해 서북방을 안정시킨 다음,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중부지역을 석권했다. 그 이후에도 고구려가 북위와의 우호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한강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sup>67</sup>

그렇지만 북위가 472년 백제에 보내려던 외교문서에서 고구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475년에는 물길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협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에서 보듯이<sup>68</sup> 국제정세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었다. 정세변화로 중원대륙이나 몽골초원에 적대 국가가 등장한다면 고구려의 국가적 안위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

65 안신원, 2010 앞의 글, 88-91쪽

66 최종택, 2008 앞의 글, 151-152쪽; 양시은, 2010a 앞의 글, 52-53쪽. 특히 보정리 고분 주변의 삼막곡과 마북동 유적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는데(양시은, 2010a 앞의 글, 45쪽), 고분 피장자가 이 지역에 체류한 집단의 상위 계층일 가능성을 시사한다(최종택, 2014 앞의 글, 87-88쪽).

67 고구려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여호규, 2019 「제4장 고구려 외교의 전개」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68 『魏書』 권100 百濟傳 및 勿吉國傳

다. 고구려로서는 중원왕조와의 우호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서북방의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국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sup>69</sup>

반면 남쪽의 백제나 신라는 고구려의 안위에 덜 위협적이었다. 특히 고구려는 이들과 국경을 이루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을 천혜의 방어벽으로 삼아 남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의 북상을 저지할 수 있었다.<sup>70</sup> 이에 고구려는 서북방에 비해 중부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해 방어체계나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고구려가 한강-임진강 유역에 소형 보루를 축조해 방어체계를 구축하거나 경기남부-금강유역에 종전의 백제 성곽을 재활용해 지방 지배를 도모하던 양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 결과 요동이나 서북한 지역과 달리 중부지역에는 중대형 산성을 거의 축조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645년 당군은 요동의 개모성과 요동성을 함락시킨 다음 곡식 10만석과 50만석을 노획했다.<sup>71</sup> 요동지역의 고구려 성곽에는 막대한 양의 비상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안시성의 軍民은 이러한 비상식량을 바탕으로 당군과 3개월이나 싸울 수 있었다. 고구려가 중원왕조나 유목국가의 침공에 대비해 요동지역에 중대형 산성을 대거 축조하는 한편, 막대한 양의 비상식량을 비축했던 것이다. 이로 보아 중부지역에는 중대형 산성을 거의 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稅穀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수취한 물자 가운데 상당량을 도성으로 운송했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가 國原城과 南平壤 등을 조영한 사실이 주목된다. 國原城은 지금의 충주지역으로 비정되는데, 도성과 평지를 뜻하는 ‘國’자와 ‘原’자를 합친 합성어이다.<sup>72</sup> 國原城은 명칭상 都城을 모방해 건설한 평지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충주고구려비>의 원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립했을 것이다. 충주비의 주요 독자층이 國原城 주민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sup>73</sup> 원위치는 國原城 내부이거나 외곽에 해당할 것이다.

---

69 고구려가 475년에 백제 한성을 함락한 다음 곧바로 퇴각한 것은 북위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노태돈, 2005 앞의 글, 178-179쪽). 고구려는 479년 유연과 함께 지두우 분할을 시도하며 북위의 대응을 탐색한 다음, 481년에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도성 북쪽까지 진격했다.

70 여호규, 2007 「고구려의 성과 방어체계」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313쪽

7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9 보장왕 4년 4월 및 5월조

72 이도학, 1988 「永樂6年 廣開土王之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02-106쪽

73 이용현, 2000 「中原高句麗碑와 新羅 碑와의 比較」 『고구려발해연구』 10, 451-490쪽

또한 중앙탑이 위치한 탑평리 일대에서 일찍이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발견된 바 있다.<sup>74</sup> 2010년에는 중앙탑 동북쪽의 남한강 좌안 평지에서 고구려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주거지는 백제시대 1호주거지 상부의 동북쪽에 조성했는데, 쌍고래의 쪽구들 시설이 확인되었다. 고구려 토기와 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5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된다.<sup>75</sup> 이로 보아 국원성은 남한강 좌안의 탑평리 일대의 평지에 조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國原城’은 명칭과 같이 도성에 모방해 남한강변에 조성한 평지성인 것이다.

南平壤의 위치는 한강하류 일대로 비정된다. 전술했듯이 사료 ①-⑥에서는 백제 도성이었던 한강 하류일대를 ‘漢城之地’와 ‘平壤’으로 구분했다. 553년 신라가 한강 하류유역을 점령하던 상황을 묘사한 ②-⑥에서도 ‘漢城과 平壤’으로 구분했다. 이들 사료의 ‘平壤’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에 설치했다는 ‘南平壤’에 해당하는데, 漢陽郡=北漢山郡에 비견되므로<sup>76</sup> 그 위치는 백제 도성의 맞은편인 漢江 북안으로 비정된다.<sup>77</sup>

고구려가 백제 도성 맞은편의 한강 북안에 남평양을 건설했다면 한강 하류일대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파악된다. 또한 ‘平壤’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도성을 모방해 평지에 건설했다고 추정된다. 고구려가 한성시기의 백제 도성을 활용하던 양상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성시기의 백제 도성은 한강변의 평지성인 風納土城과 구릉성인 夢村土城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夢村土城에서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대거 확인된 반면, 風納土城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고구려가 475년 이후 風納土城을 폐기하고 夢村土城만 활용했던 것이다. 이로보아 상기 사료의 ‘漢城’은 남쪽의 夢村土城을 지칭한다고 파악된다. 몽촌토성은 표고 45m의 구릉에 위치하여 군사방어 기능이 뛰어났고, 양재천이나 탄천 방향에서 북진하는 적군을 공제할 수 있었다. 고구려가 몽촌토성을 군사방어성으로 재활용한 반면,<sup>78</sup> 평지성인 風納土城을 폐기

74 장준식, 1998 『新羅中原京研究』 학연문화사, 23~108쪽

75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3 『중주 탑평리유적(중원경 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89-96쪽; 최중택, 2016 앞의 글, 27-28쪽

76 『三國史記』 地理志 : “漢陽郡, 本高句麗北漢山郡(一云平壤),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楊州舊墟.”

77 고구려가 도성 방면에서 하천을 渡河한 지역을 점령한 다음, 그 맞은편에 새로운 거점을 건설한 사례로는 渾河 南岸 제3현도군 맞은편(北岸)의 新城(撫順 高爾山城), 압록강 하류 靺河 西岸 西安平 맞은편(동안)의 泊灼城(寬甸 虎山山城), 대동강 남안 낙랑군 맞은편(북안)의 평양성 등이 있다.

78 여호규, 2002a 앞의 글, 최중택, 2002 「夢村土城 內 高句麗遺蹟 再考」 『韓國史學報』 12에서는 夢村土城을 ‘남하하던 고구려군의 중간 거점성’으로 파악했는데, 토기 편년을 통해 고구려군이 475년 이후 6세기 이전까지 주둔했다고 보았다.

하고 한강 북안에 남평양을 건설했던 것이다. 따라서 남평양은 풍납토성처럼 평지에 위치했고, 평상시 거점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파악된다.<sup>79</sup>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한강유역에 중대형 산성을 축조하지 않았지만, 한강변에 국원성과 남평양 등 평지거점을 조영했다. 남평양은 광진구 일대로 비정되는데, 아차산 일대의 보루성은 그 외곽 방어시설로 파악된다.<sup>80</sup> 남평양이 위치했던 광진구와 아차산 일대는 신라의 新州 치소인 ‘北漢城’이 설치되는 등 고려 초까지 한강 하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sup>81</sup> 국원성이 설치된 충주 일대도 남한강 유역의 중심지로 신라가 국원소경을 설치했다가 증원경으로 재편했다. 고려나 조선은 德興倉이나 可興倉을 설치해 각지에서 거둔 稅穀을 한강 수로를 이용해 도성으로 운송했다.

한강은 유역 면적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상류까지 항행할 수 있었다. 남한강의 경우 단양까지 상시 운항이 가능했고, 重水期(雨期)에는 영월까지도 항행할 수 있었다. 북한강도 춘천까지 상시 운항이 가능했고, 중수기에 화천(본류)과 양구(소양강)까지 항행할 수 있었다. 홍천강도 홍천까지 상시 운항이 가능했다.<sup>82</sup> 중부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한강유역이 수로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강 수로망은 백제 시기부터 활발하게 이용되었고,<sup>83</sup> 고려나 조선도 이를 이용해 조운체계를 정비하는 등<sup>84</sup> 20세기 초까지도 기간 물류망으로 활용되었다.<sup>85</sup> 따라서 고구려가 한강변에 남평양과 국원성 등의 평지거점을 조영한 목적은 한강 수로를 활용해 지방 지배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강 수계의 중심지로 고구려 고분이

79 구체적인 논증은 여호규, 2002a 앞의 글, 7-9쪽 참조. 남평양을 둘러싼 제반 논쟁과 운영 양상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남평양’ 건설과 운영」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공간이동과 경관 변화』(2020 역사도시, 서울-평양 학술대회 자료집, 2020년 10월 15일)에서 상론하였다.

80 최장열, 2002 「한강 북안 고구려보루의 축조시기와 그 성격」 『한국사론』(서울대 국사학과) 47, 34-50쪽;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역』 서경문화사, 261-276쪽

81 『三國史記』 地理志: “漢陽郡, 本高句麗北漢山郡(一云平壤),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楊州舊墟.”

82 朝鮮總督府, 1920 『治水及水利踏査書』, 368-382쪽; 朝鮮總督府, 1929 『朝鮮河川調査書』, 397-400쪽; 강석오, 1971 『신한국지리』 새글사, 107쪽

83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147-165쪽 및 서영일, 2003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문화사학』 20; 2005 「남한강 수로의 물자유통과 흥원창」 『사학지』 37, 195-202쪽

84 최완기, 1976 『朝鮮前期 漕運試考』 『백산학보』 20; 한정훈, 2013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173-180쪽

85 최영준, 1987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 35, 63-79쪽; 2004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증보판 재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66-73쪽. 1894년 4월에 남한강 수로에 1일 평균 75척이 운항했다고 한다(이사벨라 버드 비숍(이인화 옮김),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98쪽).

다수 조사된 춘천이나<sup>86</sup> 본래 고구려의 平原郡으로 신라의 北原京이 설치되었던 원주<sup>87</sup> 등에도 평지 거점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고구려는 요동지역과 달리 한강유역에 중대형 산성을 거의 축조하지 않았지만, 강변에 평지거점을 다수 조영했다. 고구려는 한강유역 각지에서 수취한 稅穀이나 물자를 한강 수로를 이용해 평지거점에 集荷한 다음, 일부는 이 지역의 지방지배나 군사방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성으로 운송했을 것이다. 고구려가 군사방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한강유역 등 중부지역을 도성의 배후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다만 경기 남부나 아산만 일대는 한강 수계가 아니어서 西海 海路를 활용해야 각종 물자를 운송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와 백제의 熊川城[百合野塞] 전투가 주목된다. 종전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552년에 밀약을 맺은 다음, 고구려는 한강 북쪽으로 퇴각하고, 신라가 한강하류와 경기 서해안 일대를 석권했다고 이해했다.

그런데 신라가 한강 하류일대로 진격한 시점은 553년 7월이고,<sup>88</sup> 고구려와 백제의 熊川城[百合野塞] 전투는 553년 10월에 일어났다.<sup>89</sup> 신라가 553년 7월에 경기 서해안 일대까지 모두 석권했다면, 그보다 늦은 이해 10월에 고구려와 백제가 웅천성에서 전투했다는 기사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sup>90</sup> 553년 7월에 신라는 서울지역까지만 점령하고, 그 서쪽인 경기 서해안 일대로는 진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가 벌어진 熊川城을 공주 공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sup>91</sup> 백제 초기에 마한과 경계를 이루었던 熊川으로 안성천 일대로 파악된다.<sup>92</sup> 고구려가 552년 신라와

86 (지도 1)의 유적 이외에 최근 춘천 중도에서 고구려계 귀고리가 출토된 석곽묘(예맥문화재연구원, 2016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C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춘천 군자리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횡혈식석실분(예맥문화재연구원, 2019 「춘천 군자리(1097-5번지)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등이 조사되었다.

87 『삼국사기』 지리지2 삭주 북원경조

88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7월조

89 웅천성 전투기사는 『삼국사기』에는 554년 10월로 나온다(고구려본기7 양원왕 10년 겨울조 및 백제본기5 위덕왕 1년 10월). 그렇지만 웅천성 전투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서기』 흘명기 14년(553년) 10월조의 百合野塞 전투와 동일한 사건으로 553년 10월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여호규, 2013 앞의 글, 146-148쪽 참조).

90 이에 고구려가 海路를 통해 진격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김주성, 1998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충남대 백제연구소, 188쪽). 또한 신라의 동 의 아래 신라 영토를 경유해 웅천성으로 진공했다고 보기도 한다(장창은, 2014 앞의 책, 200쪽).

91 정구복 외, 1997 『譯註 三國史記(3)』, 524~525쪽.

92 이병도, 1976 앞의 책, 247~248쪽.



밀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 남부로 진격해 백제와 공방전을 벌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553년 10월에 어떻게 안성천 방향으로 진격할 수 있었을까?

전술했듯이 백제는 551년에 북상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연변의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지역의 ‘6郡’만 점령하고, 인천과 안산 등 서해안 일대를 거의 점령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서해안 일대를 계속 점령했고, 553년 10월에는 이곳을 발판으로 안성천 일대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553년에 신라가 단독으로 백제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함께 협공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한강 중상류에서 하류의 서울지역으로 진공했다면, 고구려는 경기 서해안 일대에서 안성천 방향으로 진격했던 것이다.

백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지역으로 진공하는 신라보다 사비도성에 더 가까운 안성천 방향으로 진격하는 고구려가 훨씬 더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이에 백제는 한강 하류일대에서 자진 퇴각한 다음,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거국적으로 병력을 동원해 왕자 餘昌이 출정했다. 이로 인해 신라는 한강 하류로 무혈 입성한 반면, 고구려는 웅천성(백합야새) 전투에서 백제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패배했다. 마침내 고구려가 한강 이남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 것이다.<sup>93</sup>

그런데 경기 서해안 일대나 안성천 유역은 한강유역과 수계를 달리하며 여러 소하천이 서해로 흘러드는 양상을 띤다. 경기 서해안 일대는 한강 수계와 구별되는 권역으로 서해 해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로 보아 고구려가 551년 이후 경기 서해안 일대에 계속 잔류하고, 553년 10월에 안성천 방향으로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서해 해로를 이용해 이 지역에 대한 지방 지배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IV

### 水路 활용을 위한 漢城 別都의 건설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서북방 지역에는 중대형 산성을 축조하고 막대한 양의 稅穀을 비축하여 군사방어태세를 강화한 반면, 중부지역에서는 최소 비용을 투입하여 방어체계와 지방 제도를 정비했다. 다만 한강변에 평지거점을 구축해 한강 수로를 이용해 각종 물자를 集荷

93 여호규, 2013 앞의 글, 146-148쪽

했고, 서해안 방면에서도 해로를 활용해 지방 지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요동지역에서 수취한 稅穀은 거의 대부분 현지에 비상식량으로 비축한 반면,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稅穀은 상당량을 도성으로 운송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稅穀이나 稅布 등 각종 물자를 어떻게 도성인 평양까지 운송했을까? 중부지역에서 평양까지 물자를 운송한 사례로는 662년(문무왕 2) 1월에 김유신이 수레 2천 여 대에 쌀 4천석,租 2만 2천석을 싣고 七重河(임진강)를 건넌 다음 獐塞(수안)를 경유해 평양 부근에 주둔한 唐軍에게 전달한 사실을 들 수 있다.<sup>94</sup> 김유신이 고구려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멸악산맥을 통과하는 여러 교통로 가운데 가장 험준한 新溪-隧安路를 택했던 것이다.

다만 김유신처럼 육로를 이용해 물자를 운송할 경우, 수로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sup>95</sup> 이에 근대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주로 수로를 이용했는데, 고려나 조선 시기의 漕運制度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고구려도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평양으로 운송할 때 주로 수로를 이용했을 텐데, 수로만 이용한다면 황해도 연안의 海路를 경유한 다음 大同江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런데 황해도 연안 海路 가운데 長山串 일대는 海難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sup>96</sup> 이에 고려나 조선시기에 漕運制를 시행하면서 장산곶을 피하고자 했다. 고려는 13漕倉制를 정비하면서 海州 서쪽 지역의 稅穀을 운반하기 위해 長淵縣 海葦浦에 安瀾倉을 설치했다.<sup>97</sup> 안란창의 위치를 장산곶 북쪽의 南大川 유역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sup>98</sup> 일반적으로 장산곶 남쪽인 大東灣의 廣灘川 하구나<sup>99</sup> 漢川 하구로<sup>100</sup> 비정한다. 장산곶 일대의 해난 사고를 피하기 위해

94 『삼국사기』 신라본기6 문무왕 2년 1-2월조

95 唐은 교통수단에 따른 운임 규정을 제정했는데, 河南道 등의 평지에서 육로로 馱 100근을 100리 운송하는데 100문이 들었지만, 黃河나 洛水의 수로를 이용할 경우 하류 방면으로는 6문, 상류 방면으로는 16문이 들었다(김택민 주 편, 2003 「권3 尙書戶部」 『역주 당육전(상)』 신서원, 348-3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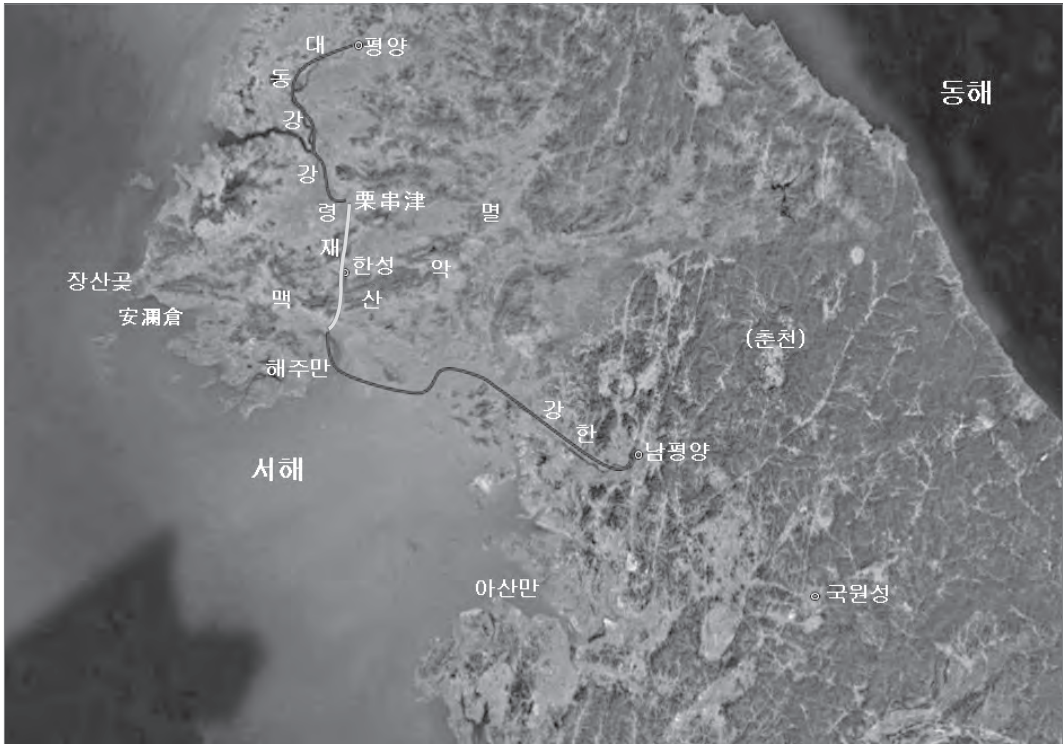
96 『세종실록』 권34 세종8년 12월 갑술; 『선조실록』 권39 선조26년 6월 7일 경인; 『효종실록』 권14 효종6년 3월 22일 정미; 『영조실록』 권116 영조47년 3월 7일 무신; 『순조실록』 권13 순조10년 2월 1일 을유 등 참조. 『星湖僊說』 권8 인사문 해운에도 장산곶 때문에 평안도와 황해도의 풍요한 물품을 한양으로 운송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7 『고려사』 권79 지33 食貨志2 漕運

98 吉田光男, 1980 「高麗時代の水運機構「江」について」 『社會經濟史學』 46-4, 422-432쪽에서는 장연군 해안면 구진리 덕동(일원), 문경호, 2014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해안, 111-114쪽에서는 남대천의 고암포로 비정했다.

99 北村秀人, 1979 「高麗時代の漕倉制につい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 朝鮮歴史論集(上)』 용계서사, 45쪽; 한정훈, 2013 앞의 책, 205쪽

100 정요근, 2014 「고려~조선전기 漕倉의 분포와 입지」 『韓國史學報』 57, 137-138쪽



지도 2 평양-중부지역의 자연지형과 주요 지명

그 남쪽에 안란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sup>101</sup>

조선 세종 때도 장산곶 동북쪽의 阿郎浦와 동남쪽의 大串 등 2곳에 창고를 설치한 다음, 두 창고 사이는 육로로 세곡을 운반했다. 그런 다음 평안도에 급한 일이 있으면 阿郎浦에서 세곡을 실어가고, 京畿에 급한 일이 있으면 大串에서 운송하도록 했다.<sup>102</sup> 장산곶을 거치지 않고 세곡을 운송하는 조운체계를 확립한 것이다.<sup>103</sup> 또한 장산곶 남쪽 대동만의 廣灘川은 조선 후기에 西別江이나 湄灘으로 불렸는데, 창고를 설치해 장산곶 이북의 田稅를 거두어 두었다가 한양으로 조운했다고 한다.<sup>104</sup>

101 안란창의 위치를 장산곶 북쪽의 대동만 일대로 비정한 문경호도 안란창의 稅穀은 본래 개경이 아니라 북쪽의 서경으로 운송하거나 유사시에 북방에 조달했다고 파악했다(문경호, 2014 앞의 책, 111-114쪽). 장산곶을 경유하지 않기 위해 그 북쪽인 대동만에 안란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102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2월 15일 갑술

103 한정훈, 2013 앞의 책, 209쪽

104 『증보문헌비고』 권34 관방10 황해도 장연 서별강; 한정훈, 2013 앞의 책, 205쪽

이처럼 고려나 조선 시기에는 長山串을 거치지 않는 조운체계를 정비했다. 고구려도 중부 지역에서 수취한 물자를 평양 도성으로 운송할 때 長山串을 경유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1592년 6월에 尹斗壽가 의주까지 몽진한 宣祖에게 長山串 근처는 뱃길이 험난하다며 배를 이용해 황해도 安岳까지 간 다음 육로로 올라 海州를 지나 牙山으로 가는 방안을 건의한 사실이 주목된다.<sup>105</sup> 윤두수가 대동강-재령강 수로 및 안악-재령-해주의 육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던 것이다.

윤두수의 건의처럼 대동강과 재령강은 연결되어 있어서 배를 타고 서해와 대동강을 경유해 재령강 유역의 안악까지 곧바로 갈 수 있었다. 대동강은 20세기 초에 평양까지 소형 기선이 운항할 수 있었고, 木船은 상류인 덕천까지 운항할 수 있었다. 재령강도 20세기 초에 본류는 재령군 삼지강면 靑柳浦(靑龍里), 서흥강은 於之屯湫 하류, 서강은 신천군 三街浦까지 운항할 수 있었다.<sup>106</sup> 재령강과 대동강이 하나의 수로망으로 연결되어 서북한의 간선 물류망을 이루었던 것이다.

육로로 서북한에서 중부지역으로 나아가려면 멸악산맥을 통과해야 했는데, 수안-신계로, 서흥-평산로, 재령-해주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산간 내륙의 수안-신계로는 재령강 유역을 거치지 않고 대동강과 임진강 유역을 연결하는데, 662년 김유신이 이 루트를 이용했다. 서흥-평산로는 해발 170m에 불과한 지소고개를 통과하는데, 두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코스로 정의선이 지나가고 있다. 재령-해주로는 가장 평탄하지만, 연백평야를 우회하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 중부지방으로 갈 때는 많이 이용되지 않았다. 이 루트는 북쪽으로 재령강 본류와 잇닿아 있고 남쪽으로 해주만과 연결되어 재령강-대동강 수로와 서해 해로를 동시에 이용하기에 편리했다.<sup>107</sup>

이에 尹斗壽가 의주에서 서해 해로와 대동강-재령강 수로를 이용해 安岳까지 간 다음, 재령-해주로를 통해 海州까지 가고, 다시 해로를 이용해 충남 아산으로 나아가자고 건의한 것이다.<sup>108</sup> 실제 趙應祿(1538-1623년)은 윤두수의 건의처럼 1593년 6월 15일에 경기 부평을 출발해 육로와 수로를 이용해 6월 21일에 海州에 당도했고, 7월 1일 해주를 출발해 재령-해주

105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106 朝鮮總督府, 1920 앞의 책, 502-509쪽 및 572-575쪽; 朝鮮總督府, 1929 앞의 책, 394-395쪽; 강석오, 1971 앞의 책, 107쪽.

107 서영일, 2006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43-45쪽; 정요근, 2008 「고려-조선 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56쪽

108 선조는 이듬해인 1593년 8월에 한양으로 환도하면서 載寧-海州路를 이용하여 멸악산맥을 넘어 해주에 도착했다(『선조실록』 권41권, 선조 26년 8월 17일 무술 및 8월 18일 기해).

로를 거쳐 7월 2일에 載寧 栗串에<sup>109</sup> 도착한 다음, 재령강-대동강 수로를 이용해 7월 3일에 대동강 연안의 江西 艾浦에<sup>110</sup> 도착했다.<sup>111</sup>

조선시기에 재령-해주로를 활용해 서해 해로와 재령강-대동강 수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활발히 이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도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평양으로 운송할 때 해난사고가 잦은 長山串을 경유하지 않기 위해 재령-해주로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고구려 후기에 平壤, 國內城 등과 함께 3京을 이루었던 漢城 別都이다.<sup>112</sup>

漢城 別都는 ‘都會之所’라고 불린 만큼,<sup>113</sup> 많은 인구가 集住하였고, 도시기반 시설을 잘 갖추었다고 추정된다. <丙戌銘 平壤城石刻>을 통해 漢城 別都가 566년에는 조영되어 있었고, 도성을 모방해 ‘後部’ 등의 5부 행정구역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漢城 別都는 명칭 그대로 도성을 모방해 조영한 ‘또 다른 도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漢城 別都도 국원성이나 남평양처럼 평지거점으로 조영되었을 텐데, 1984년에 재령강 상류에서 漢城 別都로 비정되는 신원 도시유적이 발견되었다.<sup>114</sup>

신원 도시유적은 장수산성 남쪽의 재령강 양안에서 확인되었다. 도시유적은 남북 4.5km, 동서 4km 범위에 걸쳐 형성되었고, 북단은 장수산성 외성 남문 부근, 남단은 아양리 입문과 월당리 입암동, 동북단은 월당리 반송동, 서단은 아양리 사직동과 대추산 일대라고 한다. 아양리 소재지, 동산동, 반송동, 입암동 등에서 격자형 가로구획이 확인되었는데, 동북-서남은 약 66m, 서북-동남은 약 78m라고 한다(<지도 3>).<sup>115</sup>

109 栗串津은 載寧과 鳳山의 경계로 재령 북쪽 20리, 봉산 서남쪽 40리의 三支江 아래에 위치했다(『輿地圖書』 하 黃海道 載寧 道路 및 鳳山 山川). 거리상 재령강 본류의 가항종점으로 1930년대에 재령강교가 가설된 재령군 삼지강면 靑龍里(靑柳浦) 일대로 비정된다.

110 艾浦는 龍崗에서 발원한 西川이 대동강으로 흘러드는 곳으로 20세기 초에 艾堂浦로 불렸는데, 북한 남포시 월강동 일대로 비정된다.

111 『竹溪日記』(한국사료총서 제35집) 권1 癸巳年(宣祖26년) 6월 15일-7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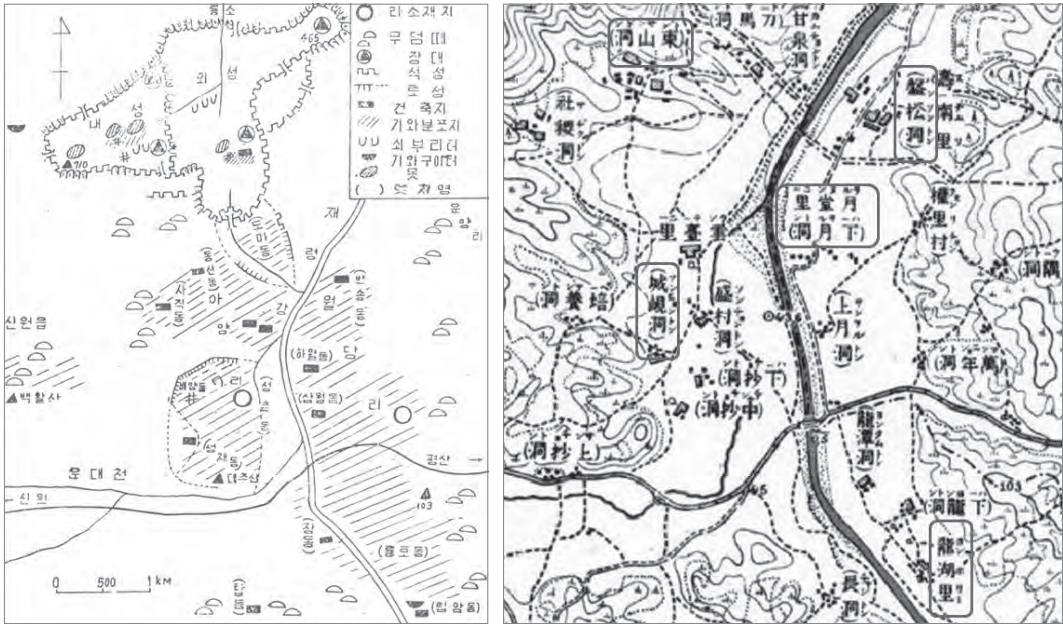
112 『周書』 권49 異域列傳 고려전 : “其外有國內城及漢城, 亦別都也.”

113 『隋書』 권81 東夷傳 고려전 : “復有國內城·漢城, 並其都會之所, 其國中呼爲三京.”

114 최창빈, 1985 『학계소식』 신원에서 고구려 시기의 큰 도시유적의 발견 『역사과학』 1985-4; 손영중, 1990 「남평양의 건설과 고구려 남부 지방의 공고화」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안병찬, 1990 「장수산성 일대의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최승택, 1991a 「장수산성 1호 건물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 최승택, 1991b 「장수산성의 축조연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1 「남평양의 건설과 후방의 강화」 『개정판 조선전사』 3(고구려사)

115 최창빈, 1985 앞의 글, 46-47쪽





지도 3 신원 도시유적 분포도(「조선전사(3)」, 72쪽) 및 지형도

신원 도시유적은 각 지구별로 유적의 분포나 문화층의 구성이 조금 다르다. 재령강 서쪽의 아양리 소재지(성현동) 일대에서는 재령강 기슭을 따라 축조한 토성이 확인되었는데,<sup>116</sup> 서벽 길이는 1,100m에 이르고 북벽은 서북 모서리로부터 140m 정도 남아 있었다. 토성 중심부에서 동서 76m, 남북 67m의 건물 기반부를 조사했는데, 동서 방향으로 건물 두 채가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안에서는 기와, 벽돌, 토기, 도장 등 많은 유물이 드러났는데, ‘영가7년’(313년)명 벽돌도 출토되었다.<sup>117</sup>

아양리 일대에서는 동서 1.5km, 남북 3.5km에 걸친 넓은 범위에서 기와층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아양리 토성 내부의 성현동 일대에서는 청회색 기와층(두께 10cm), 붉은색 기와층(두께 20cm), 회색 기와층(두께 15cm) 등 3개 문화층이 조사된 반면,<sup>118</sup> 강촌동 일대에서는 붉은색 기와층과 회색 기와층 등 2개 문화층만 확인되었다.<sup>119</sup>

116 최창빈, 1985 앞의 글, 46-47쪽

117 안병찬, 1990 앞의 글, 8-9쪽

118 안병찬, 1990 앞의 글, 9-10쪽; 최승택, 1991b 앞의 글, 17쪽

119 안병찬, 1990 앞의 글, 9-10쪽

장수산성 외성 남문 앞의 刀馬洞에서도 둘레 2km의 토성이 확인되었는데,<sup>120</sup> 외성 남문으로 가는 甘泉洞<sup>121</sup> 지구의 문화층은 두께 15-20cm 전후의 붉은색 기와층과 회색 기와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sup>122</sup> 이에 비해 재령강 동쪽 월당리 일대의 반송동, 상월동, 용호동 등에서 동서 1.2km, 남북 4.5km 범위에 걸쳐 기와층이 확인되었는데, 붉은색 기와로 이루어진 단일 문화층이었다고 한다.<sup>123</sup>

신원 도시유적은 지구별로 문화층 구성이 달랐던 것이다. 가장 아래쪽의 청회색 기와층은 아양리 토성 일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들은 1-3세기 고조선 유민들의 문화내용과 관련 깊다며 고구려 진출 이전으로 편년했다.<sup>124</sup> ‘영가7년’(313년)명 벽돌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대방군이나 그 유민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붉은색 기와층은 재령강의 양안에서 널리 확인되었는데, 고구려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위쪽의 회색 기와층은 아양리 일대나 장수산성 외성 남문 외곽 등 재령강 서쪽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신원 도시유적 일대가 조선 초기까지 재령군의 郡治였다는 점을 고려하면<sup>125</sup> 고려-조선시기의 문화층으로 추정된다.

신원 도시유적의 범위가 시기에 따라 달라졌던 것이다. 가장 이른 청회색 기와층은 재령강 서쪽의 아양리 토성 일대에서만 확인되는 반면, 고구려 시기의 붉은색 기와층은 재령강 양안에서 모두 확인되며, 회색 기와층의 분포는 다시 재령강 서쪽으로 좁혀졌다. 신원 도시유적의 범위는 대방군 시기에 가장 좁았고, 고구려시기에 크게 확장되었다가 다시 좁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고구려 시기의 도시유적은 남북 4.5km, 동서 4km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都會之所’라 불린 漢城 別都로 비정된다.

고구려가 신원 도시유적을 조성한 시기에 대해 북한학자들은 ‘영가7년(313)명’ 벽돌을 근거로 4세기 초로 편년한 다음,<sup>126</sup> 장수산성과 함께 고구려의 남평양을 이루었다며 371년에 고국원왕이 전사한 평양성도 이곳이라고 비정했다.<sup>127</sup> 그러면서 고구려가 신원 도시유적을

120 안병찬, 1990 앞의 글, 9-10쪽

121 도마동은 장수산성 외성 남문 바로 앞의 마을이고, 감천동은 도마동과 재령강 사이의 마을이다.

122 최승택, 1991b 앞의 글, 17쪽

123 안병찬, 1990 앞의 글, 9-10쪽; 최승택, 1991b 앞의 글, 17쪽

124 최승택, 1991b 앞의 글, 18쪽

125 재령군 소재지는 본래 신원 도시유적 일대였다. 조선 중종 14년(1519년)에 舊邑에 역병이 자주 일어나 지금의 소재지로 옮겼는데, 두 읍치의 거리는 60리이다(『輿地圖書』하 黃海道 載寧 建置沿革).

126 최창빈, 1985 앞의 글, 46-47쪽; 최승택, 1991b 앞의 글, 18쪽

127 안병찬, 1990 앞의 글, 10-11쪽; 최승택, 1991a 앞의 글, 34-38쪽

거점으로 삼아 재령강 수로를 통해 서북한 일대를 왕래하는 한편,<sup>128</sup> 황해도 지역의 통치거점이자 남방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았다고 보았다.<sup>129</sup>

이에 남한학계에서도 고구려시기의 신원 도시유적은 4세기 초부터 건설되기 시작해 4세기 말에는 큰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고, 대방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중심지 내지 지방 지배의 거점으로 기능했다고 파악했다.<sup>130</sup> 신원 도시유적이 남방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옛 대방군 지역인 황해도 일대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중심지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신원 도시유적이 황해도 일대에 대한 지배 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재령강 각지에서 수취한 물자를 도성으로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그런데 신원 도시유적은 20세기 초 재령강 분류의 가항중점이었던 靑柳浦보다<sup>131</sup> 훨씬 상류로 멸악산맥에 근접한 산간지대이다. 재령강 중하류 각지에서 수취한 물자를 상류인 신원 도시유적으로 운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재령강 각지에서 평양으로 갈 경우 신원 도시유적을 경유할 필요도 없다. 신원 도시유적의 입지조건은 고구려가 재령강 유역 일대를 지배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32</sup>

신원 도시유적 일대는 해주만이나 연백평야로 나아가는 재령-해주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고구려가 일찍부터 남방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33</sup> 다만 군사기지일 경우, 장수산성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므로 대규모 도시유적을 조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원 도시유적은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재령-해주로를 이

128 안병찬, 1990 앞의 글, 10-11쪽; 최승택, 1991b 앞의 글, 14쪽

129 최창빈, 1985 앞의 글, 46-47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91 앞의 책, 72-74쪽. 특히 손영중, 1990 앞의 책, 183-187쪽에서는 신원 도시유적 조영의 역사적 의미를 황해도 일대 정치적 중심지 건설, 황해도 지방 경제발전 촉진, 전후방 군사기지 건설 등으로 요약했다.

130 임기환, 2002b 「고구려의 부도 한성과 지방통치」 『한국 고대 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집문당, 14-17쪽

131 靑柳浦는 신원 도시유적보다 하류인 재령군 삼지강면 靑龍里에 위치했는데, 1930년대에 재령과 봉산을 연결하는 재령강교가 가설되었다(朝鮮總督府, 1931 「載寧江橋鋼桁製作工事設計二關スル」).

132 帶方郡 郡治는 재령강 지류인 서흥강 유역의 봉산군 지탑리토성으로 비정되는데, 서흥강의 유량이 풍부하여 서흥강-재령강 수로를 이용하여 황해도 각지와 내왕할 수 있고, 서흥-평산로를 통해 한반도 중부지역으로도 쉽게 나아갈 수 있었다.

133 고구려는 369년에 예성강 서쪽에 위치한 백제의 雉壤[배천]을 선제공격했는데, 재령-해주로를 통해 멸악산맥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광개토왕릉비> 영락14년조에는 倭가 帶方界로 침공하였을 때 선박이 동원되었고, 광개토왕이 平穰을 출발하여 왜군을 격퇴했다고 한다. 帶方界는 대방군이 설치되었던 황해도의 남쪽 지역을 지칭하는데, 선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해주만일 가능성이 높다. 광개토왕이 평양을 출발해 재령-해주로를 통해 해주만으로 진격했다고 추정된다. 고구려가 일찍부터 재령-해주로를 통해 남진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용해 재령강 수계까지 운송하기 위해 건설했다고 추정된다.

고구려가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長山串을 경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성인 평양까지 운송하기 위해 신원 도시유적 곧 한성 별도를 건설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조선시기에 재령-해주로를 활용해 서해 해로와 재령강-대동강 수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 것처럼, 고구려도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한강 수로와 서해 해로를 이용해 해주만까지 운송한 다음, 재령-해주로를 통해 한성 별도까지 운송하고, 다시 재령강 연안의 육로나 수로를 이용해 평양까지 운송했다고 추정된다.<sup>134</sup>

漢城 別都가 처음에는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평양 도성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中間 集荷場의 기능을 했던 것인데, 이를 위해 도로와 나무, 창고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영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물자가 集荷되자, 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송을 위해 많은 사람이 이주해왔을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이주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겠지만, 중부지역에 경제기반을 보유한 지배세력도 물자의 운송이나 관리, 각종 원료의 가공 처리 등을 위해 다수의 사람을 이주시켰을 것이다.

이로써 한성 별도는 많은 인구가 집주하여 중부지역으로부터 운송한 각종 물자를 관리·비축하거나 소비하면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회지로 발전했을 것이다.<sup>135</sup> 그러므로 한성 별도는 고구려가 한강유역 전체를 석권한 47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영되었고,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평양 도성으로 운송하기 위한 중간 집하장으로 출발했다고 추정된다. 한성 별도는 한강 수로와 서해 해로를 활용해 중부지역에 대한 지방 지배를 시행하기 위해 건설했던 것이다. 다만 한성 별도는 집하되는 물자가 증대함에 따라 평양이나 국내성에 버금가는 도회지로 발전했는데, 재령강 양안에 펼쳐진 대규모 도시유적 및 그 주변에 산재한 무수한 고분은<sup>136</sup> 이를 잘 보여준다.

134 일제시기 1/5만 지형도에는 신원 도시유적보다 상류에 倉村洞, 신원 도시유적과 재령강·箭灘의 합류지점 사이에 新昌里(倉村), 재령강·箭灘의 합류지점 對岸에 西倉里 등의 지명이 있는데, 재령강 수로나 연안 육로를 이용해 각종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창고가 설치되었던 마을로 추정된다.

135 신라도 소백산맥 외곽에 소경을 건설하여 각지에서 수취한 물자를 수로를 이용해 소경까지 운송한 다음, 일부는 소경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소백산맥 고갯길을 이용해 도성인 경주로 운송했다(여호규, 2002b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 『강좌 한국고대사(제7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31-152쪽).

136 최창빈, 1985 앞의 글, 46-47쪽; 안병찬, 1990 앞의 글, 10쪽

## V

### 맺음말

이상을 통해 고구려가 한강유역 등 중부지역을 지배하던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가 475년부터 5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중부지역을 점령했고, 최소한 16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설치해 지방통치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구려가 종전의 백제 성곽을 재활용해 군사방어와 함께 지방지배를 도모하던 양상도 파악했다.

고구려는 서북방으로 막강한 중원왕조나 유목국가와 접경했기 때문에 이 방면의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국력을 집중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중부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군사방어체계와 지방제도를 정비해야 했다. 고구려가 임진강-한강유역에 주로 소형 보루를 축조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종전의 백제 성곽을 재활용해 지방 지배를 도모한 사실을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는 한강 수로와 서해 해로를 활용해 중부지역에 대한 지방 지배를 도모했다. 한강변에 남평양이나 국원성 등의 평지거점을 구축해 한강 수로를 통해 각종 물자를 集荷한 다음, 도성인 평양으로 운송했다. 다만 중부지역에서 평양으로 나아가는 서해 해로 가운데 장산곶 일대는 해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고려나 조선 시기에도 장산곶을 경유하지 않는 조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고구려도 장산곶을 경유하지 않기 위해 멸악산맥의 재령-해주로를 활용해 서해 해로와 재령강-대동강 수로를 연결하는 물류망을 구축했다. 이 물류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재령강 상류에 물류의 중간 집하장으로 한성 별도를 건설하였다. 한성 별도는 본래 한강 수로와 서해 해로를 활용해 중부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했던 것이다. 그 뒤 한성 별도는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양과 국내성에 버금가는 도회지로 발전하여 3경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sup>137</sup>

---

137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울교대 임기환 교수께서 발표문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셨고, 岐陽考古學研究所 김무중 소장께서 인천 선학동유적 등 최신 고구려 유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셨다. 많은 도움을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강봉룡, 1994 「신라 지방통치체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강석오, 1971 『신한국지리』 새글사
- 강종훈, 2006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3 『충주 탐평리유적(중원경 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 吉田光男, 1980 「高麗時代の水運機構「江」について」 『社會經濟史學』 46-4
- 김규동·성재현, 2011 「선리 명문과 고찰」 『고고학지』 17
- 김영심, 2003 「웅진사비기 백제의 영역」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문화사
- 김주성, 1998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충남대 백제연구소
- 김진영, 2017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고구려발해연구』 58
- 김진영, 2020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 일조각
- 김택민 주편, 2003 『역주 당육전(상)』 신서원
- 김현구 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 연구(Ⅱ)』 일지사
- 김현숙, 2008 「고구려의 한강유역 영유와 지배」 『백제연구』 50
- 김현숙, 2009 「475~551년 한강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향토서울』 73
- 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 노태돈, 1999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천」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노태돈, 2005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 문경호, 2014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해안
- 박성현, 2008 「신라 성지 출토 문자자료의 현황과 분류」 『목간과문자』 2
- 박성현, 2011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현실』 82
- 박태우, 2006 「月平洞山城 城壁 築造技法과 時期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 35
- 백중오, 2014 「中原地域 高句麗 遺蹟 遺物の 檢討」 『고구려발해연구』 50
- 北村秀人, 1979 「高麗時代の漕倉制につい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 朝鮮歴史論集(上)』 용계서사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1 『개정판 조선전사』 3(고구려사)
- 서영일, 1996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解空口單’銘 기와의 考察」 『사학지』 29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서영일, 2002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문화사학』 17
- 서영일, 2003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문화사학』 20

- 서영일, 2005 「남한강 수로의 물자유통과 흥원창」 『사학지』 37
- 서영일, 2006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 서영일, 2007 「高句麗의 百濟攻擊과 南進路」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서울대 박물관, 2002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 손영중, 1990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수도문물연구원, 2020 「인천 선학동(58-2번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 신광철, 2011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한국상고사학보』 74
- 신광철, 2015 「고구려의 ‘中原 地域’ 진출에 대한 小考」 『고구려발해연구』 51
- 심광주, 2002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 안병찬, 1990 「장수산성 일대의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고구려발해연구』 36
- 양기석, 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 충남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양기석, 2008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양시은, 2010a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 양시은, 2010b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
- 양시은, 2011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 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 여호규, 1999 『고구려 성(Ⅱ)』 국방군사연구소
- 여호규, 2007 「고구려의 성과 방어체계」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 여호규, 2002a 「한성시기 백제의 도성제와 방어체계」 『백제연구』 36
- 여호규, 2002b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 『강좌 한국고대사(제7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여호규, 2013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 여호규, 2019 「제4장 고구려 외교의 전개」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2)』 동북아역사재단
- 윤성호, 2017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도학, 1988 「永樂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 이도학, 2009 「백제 웅진기 한강유역 지배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 『향토서울』 73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인화 옮김),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 이용현, 2000 「중원고구려비와 신라 비와의 비교」 『고구려발해연구』 10
- 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 51
- 임기환, 2002a 「고구려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 임기환, 2002b 「고구려의 부도 한성과 지방통치」 『한국 고대 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집문당
- 임기환, 2007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 임기환, 2008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백제문화』 37
- 장준식, 1998 『신라중원경연구』 학연문화사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진출사』 경인문화사
- 전덕재, 2009a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향토서울』 73
- 전덕재, 2009b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江原文化研究』 28
- 정구복 외, 1997 『譯註 三國史記(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요근, 2008 「고려-조선 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요근, 2014 「고려-조선전기 漕倉의 분포와 입지」 『韓國史學報』 57
- 정운용, 2013 「清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築造와 運用」 『동북아역사논총』 39
- 朝鮮總督府, 1920 『治水及水利踏査書』 (<https://dl.ndl.go.jp/info:ndljp/pid/957074>)
- 朝鮮總督府, 1929 『朝鮮可川調査書』 (<https://dl.ndl.go.jp/info:ndljp/pid/1218357>)
- 朝鮮總督府, 1931 「載寧江橋鋼桁製作工事設計二關スル件」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26967064>)
- 최승택, 1991a 「장수산성 1호 건물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
- 최승택, 1991b 「장수산성의 축조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3
- 최영준, 1987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 35
- 최영준, 1997 「남한강의 수로와 수운」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 최영준, 2004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증보판 재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최완기, 1976 「朝鮮前期 漕運試考—그 運營形態의 變遷過程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20
- 최장열, 2002 「한강 북안 고구려보루의 축조시기와 그 성격」 『한국사론』(서울대 국사학과) 47
- 최종택, 2002 「夢村土城 內 高句麗遺蹟 再考」 『韓國史學報』 12
-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 47
-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 최종택, 2014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 최종택, 2016 「湖西地域 高句麗遺蹟의 調査現況과 歷史의 性格」 『百濟研究』 63
- 최창빈, 1985 「학계소식: 신원에서 고구려 시기의 큰 도시유적의 발견」 『력사과학』 1985-4
- 한정훈, 2013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 현남주·김호진, 2019 「옹인 동천동 고구려 석실묘」 『충주고구려비의 어제와 오늘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

# ● 종합토론 녹취록



## 종합토론 참여자

좌장 노태돈 / 서울대학교

발표 김무중 / 기양고고학연구소

박경신 / 송실대학교

무라카미 야스유키(정중호) / 에히메대학교

정치영 / 한성백제박물관

허진아 / 전남대학교

김창석 / 강원대학교

여호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정인성 / 영남대학교

박중국 / 한강문화재연구원

김상민 / 목포대학교

김재홍 / 국민대학교

박준영 / 서울대학교

오영찬 / 이화여자대학교

임기환 / 서울교육대학교



**노태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장 6시간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힘든 상황에서 오늘 시간을 함께 인내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청중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종합토론 진행을 맡아서 앞으로 90분간 오늘 심포지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시고 일곱 분이 토론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일곱 분 다 발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교수, 전남대학교 허진아 교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발표내용은 무라카미 교수께서 정종호 선생이 대독을 하였고, 허진아 교수의 발표는 종합토론 순서에 맞춰 박준영 선생께서 간단하게 허진아 선생의 발표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도문화 중에서 토기, 집자리 등을 중심으로 다섯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먼저 중도문화 토기의 기원과 전개에 대해서 김무중 선생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인성 선생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인성** 영남대학교 정인성입니다. 오늘 김무중 선생께서 중도문화 토기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어쨌거나 중도식 토기, 내지는 중도토기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토기입니다. 이게 소위 익숙한 무문토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 토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소위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로 이제 변화가 되고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무문토기이고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점토대토기, 무문토기인데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그 다음 시기쯤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토기가 중도식 무문토기인데 이게 의외로 초기철기시대 토기와 닮아있지 않고 청동기시대 토기와 닮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역사에 토기의 메인 흐름과 역전되는, 혹은 닮아있지 않은 이 중도지역의 토기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지금까지 중도식 토기문화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자체발생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유은식 선생을 중심으로, 물론 그 이전에 노혁진 선생도 계셨습니다만은 외부의 영향이 보이는, 연해주 지역의 단결-크로노브카, 그리고 이후의 불로치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동해안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보이는 문화의 공통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무중 선생님이나 박경신 선생님이나 전부 다 하는 이야기, 정치영 선생도 최근에 중도식 문화의 연구 흐름은 지역성을 강조하자라는 것, 영서, 영동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단위에서의 토기문화의 정립으로 필요하

다라고 하는 것이 김무중 선생님의 주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을 썼습니다만, 연대와 이제 전개과정에서의 초기단계입니다. 박순발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처음에 중도식 무문토기, 즉 무문토기가 있고 가마에서 구운 토기가 복합된 토기문화이거든요.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 시기의 연구자들이 중도식 무문토기 단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느 시기가 경과하게 되면 회색토기, 즉 가마에서 구운 토기가 추가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시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 처음에 기원전 2세기까지 연대를 올리는 설들이 유력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시기를 낮춰서 기원후 1세기 정도를 상한으로 보는 이야기가 있다 최근에는 박경신 선생의 주장은 즉 연대가 비교적 분명한 삼각형 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원전 2세기 혹은 그 이전으로 시기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은 무문토기 단순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연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김무중 선생님께서는 과연 최근에 박경신 선생님이 주장하는 중도식 토기문화권에서 나오는 일부 점토띠를 가지는 토기들을 영남지역의 삼각형점토대토기로 인정을 하시는지 라고 질문을 살짝 던져서 두 분의 싸움을 일단 붙여놓고, 또 하나는 이야기는 과연 점토대토기가 맞다고 했을 때에도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기원전 3세기까지 올리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최근에는 기원전 2세기 발현 이야기가 주요설이 되고 있고 또 혹자는 기원후 1세기까지 이 토기가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도토기문화에서 이 토기가 한 점이 있다고 해서 시기가 기원전 1세기나 2세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도 토기 전체의 흐름과 상대편년 속에서 시기를 가늠해야되는데 과연 김무중 선생님께서는 최근의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결론에서는 김무중 선생님은 기원후 1세기 상한선에 접근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회색가마에서 구운 토기는 서북한을 주목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소라리토성(所羅里土城), 철기도 있고 토기도 있는데 동해안 지역에 이런 토기가 나오는 유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몇군데. 이와 관련해서 군현 설치와 배치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건 초창기에 타날문토기의 기원 문제를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전에 들 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먼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무중**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경신 선생님하고 싸움을 붙이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싸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결국 단순기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중도

식 토기가 타날문 토기와 같이 출토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하는 문제인데 저는 단순기 인정 안하구요, 왜냐하면 지금 논의에서는 빠져있습니다만 제 도면에 자료집 <도 8> 맨 위에 보면 화분형토기하고 평저호, 단경호하고 큰 항아리하고, 이 단계는 사실 무문토기 비슷한 동체부 파편이 보이는데 점토대토기인지 중도식토기인지 애매합니다만 아래쪽을 봤을 때 점토대토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미 영남지역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중부지역에서는 이 사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토기의 존재, 타날문 토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원후 1세기 이후에 영서·영동의 1,2단계의 중도식 토기가 공반되는 낙랑계 토기들이 충실한 부장품과 같이 제작되는, 현지 생산이 돼서 같이 출토되는 사례를 보면 필요성은 없었을지 몰라도 생산체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는 기원전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박경신 선생님의 원고 <도 11> 이게 송정동 3-1-7호 주거지인데요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낙랑토기가 보입니다. 이게 가장 동해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토기가 봉산(鳳山) 지탑리(智塔里)에 있습니다. <낙랑> 특별전 도록에 실려 있는데요, 아마 이런 기법이 꼭 황해도에서 영동지역으로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슷한 토기의 기술이 동서 양쪽에서 확인이 되고 이게 소라리토성이나 영동 7현이 폐기된 이후에, 어느 시기에 영동 지역으로 반입이 되었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중도식 문화의 타날문토기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도가 이미 확인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라리토성의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전에 정인성 선생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파편들밖에 없어서 영동지역에 있는 토기들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타날문토기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생산에는 큰 제약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돈** 네, 김무중 선생님은 어쨌던 중도식토기의 상한선이 기원후 1세기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정인성 선생님?

**정인성** 발표문을 보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공백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 단계가 저는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고 어쨌거나 중간에 공백기가 있고 기원후 단계 1세기 후반 혹은 2세기가 되어서야 새로운 토기문화가 이제 확산이

되고 중도식토기문화의 상한은 이즈음에 있다는 것이 결론이지요? 그런데 계속 말씀 중간 중간에는 그 이전 단계의 타날문토기가 있고 의식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섞으신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 안 맞는건데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전 단계의 토기 문화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선생님 말씀이 논리적입니다.

**김무중** 아 그렇진않죠. 왜냐하면 타날문토기 기법을 완전히 알았다고 해서 알고 있지만 초기에 노지 구조라던가 주거 구조, 생활 방식에서 타날문토기가 굳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만들지 않았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제작하는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문화적인 연속성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 이후에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인지하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일단 설명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러면 일부 기술적인 속성이 빠진 것과 만약 현지 제작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뭘까

**정인성** 잠시만요, 그러면 김무중 선생님은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박경신 선생님의 점토대토기, 기원전 1세기 설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김무중** 그렇죠

**정인성** 분명히 그 이전 이야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이전의 타날문토기나 가마에서 구운 회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 토기문화는 기본적으로 낙랑토기문화하고 같다 다르다 했을 때 다르다는 이야기를 선생님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 단계의 타날문토기하고 중도식토기단계의 충실 낙랑토기 보관품 이것을 1단계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무중** 단순기 문제를 저는 설명하려는 건데요, 단순기가 있다 없다 문제와 단순기가 있다면 시기가 언제이느냐 문제인데, 단순기를 인정하지 않고 같이 동시에 나오지만 중도식 토기의 상한을 기원후 1세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박경신 선생님이 얘기했던 양수리에서 중도식토기와 비슷한 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 토기의 기원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노태돈** 네,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나누시구요,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 다음 순서로 박경신 선생님의 <중동부문화권 원삼국시대 주거의 기원과 전개> 발표내용에 대한 박중국 선생님이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박중국** 네, 1번 질문은 건너뛰고 2번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후벽부 쪽구들이라고 하는 것과 측벽부 쪽구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간성도 다르고 지역성도 다르고 계통도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박경신 선생님은 이번에 약간 수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서 어떻게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주거지를 한번 세어 보았습니다. 영동지역은 뺐습니다. 영동지역은 구들이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빼도 될 것 같구요, 직접 세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취락 내에서 여(呂)자형 주거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소형의 원형이나 방형 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박경신 선생님은 시간적으로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대체로 취락 내에서 여(呂)자형 주거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성을 파악할 때 여(呂)자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소형 주거지는 주변에 부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구들은 후벽부가 북한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측벽부나 I 자형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북한강 유역도 I 자형 쪽구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 1> 오른쪽의 합계를 보면 북한강 유역에서 확인된 여(呂)자형 주거와 여러 주거의 합이 거의 영동지역의 전체 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0% 이상이 북한강에 몰려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대의 인구밀도나 취락분포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개발에 따른 우연일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본의 규모가 다른 점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 1>을 다시 보면 경기도를 보면 노지 주거지가 8~14%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다 쪽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형 주거지를 뺀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한강, 남한강, 영동지역을 보면 78~85%가 경기지역하고 영서지역의 구들의 비율과 노지의 비율은 거의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분포 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의견을 따른다면 단결-크로노브카 문화지역에서 유래된 후벽부 쪽구들은 확실히 북한강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측벽부 구들이 북한 지역 내에서 모종의 변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가장 이르게 보이는 곳은 북한강 유역 화천 거례리 유적입니다. 한 동 있거든요 측벽부 쪽구들이. 그래서 거기서 유입되고 다시 경기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강 지역으로 먼저 유입되었는데 왜 소멸되고 계속 노지 주거지가 삼국시대까지 이어지고 경기지역에서는 뒤늦게 유입되었는데 정착에 성공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3번 질문입니다. <표 2>를 보면 경기북부·남부, 밑에 안성천 계가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박경신 선생님도 이주, 외부로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한강, 남한강, 낙동강을 붙여놨고 영동, 울진 이남을 쓰셨는데, 원래 제지역의 주거문화가 따로 있는데 북쪽의 중도문화를 제외한 여(呂), 철(凸)자형 주거지가 이주한 사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성천, 낙동강, 울진 이남을 보면 노지나 쪽구들의 비율이 안성천은 인근에 있는 경기지역의 양상과 유사하고, 낙동강 지역은 북한강, 남한강, 영서지역과 유사하고, 울진 이남은 당연히 영동지역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신 선생님은 경기도와 영서지역을 같이 묶어서 중도유형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저는 두 개를 구분하는 입장이구요. 안성천과 낙동강, 울진 이남 등 외부로 이식된 비율의 유사성을 봤을 때 쪽구들이나 노지 주거지의 기원지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질문입니다. 선생님 챗터 중에 중도지역의 외래유물의 유입과 주거에 관한 챗터가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주거에 대한 것은 없고 출토 유물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중도 지역의 외래유물이 유입이 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주거의 유형 등에 변화가 보인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박경신** 네 박경신입니다. 일단 질문이 좀 많아서 어떤 걸 먼저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발표문을 좀 부실하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정확하게 개념을 말씀드릴 것은 방형 주거가 시간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구요, 그 다음에 I자형 쪽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뚜막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줄구들과 저는 부뚜막을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박중국 선생님의 질문의 내용의 핵심은, 저하고 다른 점은 일단 통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나눠보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지역적 분포를 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을 해 본다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퍼센트(%)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후벽부와 측벽부 같은 경우에는 1세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봤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은 필

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주거유형이 어떻게 외래문화에 의해서 변화했는가 하는 부분은 아까 주거지 평면 형태를 제시하고 외래 유물들이 유입되면서 그런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해서 그게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할 것뿐이죠. 그런데 단지 기원후 2세기 변화, 기원후 3세기 변화 이 시기의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외래 유물이 유입되는 시기, 그리고 외래 유물이 소멸되는 시기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순히 유물이 왔다갔다하고 평면형태가 어떤 시대가 변화를 했다, 뭔가 이런 사회 경제를 유통한 힘이 형성이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주거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 하는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지역과 영서지역, 이곳이 어떻게 똑같느냐? 하는 것은 질문은 안하셨지만 5번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것을 중도유형으로 하나로 통으로 묶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후백부가 나오는 북한강 유역과 한강이죠, 그리고 임진·한탄강에서 나오는 측백부의 중심이, 출토 지역의 양상으로 봤을 때 두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형과 문화는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지역색이라고 봅니다. 외쪽구들이라는 공통점이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것을 저는 철령(鐵嶺)과 추가령(楸哥嶺) 이쪽에서 양분해서 볼 수도 있다고 제시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외래 유물 똑같고, 여(呂), 철(凸)자 주거지 유형 변화양상 똑같고,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제가 가평리 유형권과 중도 유형권으로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무덤이 없고 그 다음에 주거 구조가 다르고, 외쪽구들이 없기 때문에 유형을 나눈 거예요. 유형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역구를 계속 나누면, 여기 토론문을 한번 볼까요. 박중국 선생님이 제시한 <표 3>을 보면 풍납동 유형, 강내리 유형, 우두동 유형, 반곡 둔내 유형, 안인리 유형. 제가 반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고고학적으로 이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진·한탄강과 북한강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이 두 개의 지역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합리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대라 하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르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경기북부와 북한강 유역은 아직까지는 동일 유형권으로 묶어야 된다는 정도로 발표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돈 네, 박중국 선생님 미진한 것들 더 질문하시고 싶어하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추가로 하시구요, 지금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걸 계속하면 더 재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도문화에서의 철기의 수용과 전개, 무라카미 야스유키 교수님의 발표를 정종호 선생님께서 대독하셨고 토론은 김상민 선생께서 맡으셨는데 진행해 주세요.

김상민 네 김상민입니다. 사실 제가 에히마에 있을 때 무라카미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어찌다보니 토론을 맡아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무라카미 선생님의 발표에 토론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중도문화를 포함해서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선생님의 고견을 직접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편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중도문화권역, 중도문화이전단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가장 이른 단계의 철기에 대해서 가평 대성리 B지구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무라카미 선생님께서는 크게 시기를 두 단계로 구분을 하셨고 I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앞선 단계와 뒤 단계 두 개의 단계로 세분을 하셨습니다. 대성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I 단계의 후기 정도로 보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성리 B지구의 시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구기촌 유적 편년과 관련된 내용은 방금 발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므로 생략하구요, 두 번째로,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무라카미 선생님께서는 단결-크로노브카, 그동안 중도문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봤던 문화가 적어도 철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단결-크로노브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계보를 달리한다 정도로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 낙랑 또는 한식계 주조철기의 수용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발전한다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부지역, 중도문화권으로 철기문화를 전해준 주체, 어떻게 보면 정치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에 대한 인식의 해방’ 아마도 다른 지역은 부장품으로 주로 출토되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부장품이 아닌 실용기로 주로 출토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태돈 여기에 대한 무라카미 선생의 답변서를 정중호 선생이 대독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중호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평 대성리 B지구의 연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무라카미 선생님의 글에서는 1단계의 후기로 본다고 표현되었는데 B지구 수혈에서 출토된 쌍합법으로 제작된 전국계주조철부를 통해 1단계 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반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2세기 전반에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도 쌍합법으로 제작된 주조철부가 출토된 예가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 전반이라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도지역에 전해준 주체에 대한 가설인데요, 기본적으로 서북한 아니면 단결-크로노브카의 영향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결-크로노브카의 문화의 단결문화에서는 한(漢)민족계 철기문화가 확인되고 크로노브카 문화에서는 한(漢)민족계의 주조철기편과 단조철기편의 재가공이 보입니다. 또한 철기 생산도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도문화 철기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결-크로노브카 문화의 물질문화와 중도문화의 물질문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검토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철기의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중부지역 정치체에 대한 생각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서북한 지역에 위치한 한(漢)민족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에 대한 인식의 해방’에 대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한국 중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고고학적 양상은 분묘에서 확인되는 철기가 매우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분묘에서 확인되는 철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고학적 양상으로 해석한다면 아마도 철기에 대한, 다른 지역에 비해 중부지역에서 부장용 철기가 많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고학 양상에는 ‘철에 대한 인식의 해방’이라 가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태돈 사실 이런 고고학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그것도 바다 건너에 있는 분하고 강원도 춘천에 계신 분들 사이에 토론을 하고 계시니 더욱 난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사태가 만들어 낸 것이, 그만큼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한다고 여러분들도 경험 자체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라카미 교수님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정치영 선생님이 발표한 <중도문화 묘제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서 김재홍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재홍 네, 김재홍입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고고학에서 적석총에 대한 개념, 기존 발굴에 대한 해석 등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적석총의 분포, 입지, 장법, 계통 등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장점은 토론자 개인적으로 중도문화의 많은 맹점은 실증적 연구, 그러니까 구체적인 유적, 유물에 대한 검토보다는 정해진 기원과 계통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영 선생님은 그에 비해서 기본적인, 가장 실증적 보고를 위주로 하시고 중간 중간 발표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제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구요, 2,3,4번 질문에서 고고학적 질문을 위주로 드리고자 합니다. 계통과 구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발표자는 여기서 나온 묘곽연접적석총, 소위 말하는 적석분구묘에 대해서 고구려와는 다른 것이라고 보셨고, 백제 적석총과도 다르지만 영향을 미쳤다는, 지금까지와 비슷하지만 좀 더 다른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시간폭도 대폭 압축해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 선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곧지암리 적석총은 80여기가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발표문에는 없지만 상당한 시기 폭도 아마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요소들이 여러 지역에서, 하천이라던지 분구묘라는 특성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묘곽연접적석총을 기존과 다르게 고구려, 백제와 바로 연결이 안 된다면 계통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요소가 들어있는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통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법에 대해서,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새로운 견해를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고구려 적석총에는 번소, 화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고구려에서는 번소라 하는 것과 관련짓고 있습니다. 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관의 결구에서 관못과 꺾쇠가 실질적으로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에선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뼈의 상태가 대부분 서편 쪽에 부서진 상태로 나와서 과연 제대로 된 시신 매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특히 고구려에서 나타나는 것과 백제에서 나타나는 관못, 꺾쇠와의 관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못, 꺾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신다면 화장 등 장법과 관련한 이 지역의 특성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현재 발표자께서 발굴하고 있고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이 관심 있는 것은 중도문화의 묘곽연접적석총과 기존 석촌동에 현재 있는 우리



가 말하는 전형적인 백제 적석총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 중에서 석촌동 백제 적석총이 중도문화의 묘곽연접적석총의 영향을 받아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 적석총에 대한 연대는 안나옵니다만, 이걸로 봐서는 적어도 4세기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종족적인, 국가적인 것을 알기 전에 실증적 차원에서 이 두 적석총이 선생님이 보셨을 때 구조적 차이나, 축조 기법 등 순수한 기술사적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오늘 논의에서 좀 더 진전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돈** 네 사실은 토론자가 말씀하시는, 백제의 석촌동 적석총의 그것과 중도문화의 적석총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막연한 경험입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마 강변에 있는 적석총들, 줍석총이라고 그랬죠. 그것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영 선생님 답변주시죠.

**정치영** 네, 정치영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시작하셨는데 결국은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을 해주신 뼈아픈 토론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운 것이 저도 아직 연구를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람되지만, 우리 학계에서 어느 선생님도 이 부분을 다 짚어서 말씀하실 분은 아직까지 안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던져봤는데요, 근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계통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세 번째 석촌동과의 관련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고구려 유이민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고구려 계통의 적석총이 중도문화의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결국 백제 적석총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면 석촌동은 고구려 중앙쪽에서 바로 내려왔고, 파급된 지방 형식이 중도의 적석총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매장의 형식 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고구려계로 직결시키는 데에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것이 모래를 쌓은 분구인지 아니면 사토에서 만든건지, 하지만 모래 토대 위에 적석을 하면서 매장주체부를 만들고 그걸 매위가면서 계단식으로 만든 적석총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자료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일단 고구려와 직결시키는 데에는 좀 주저하고 싶구요, 다만 장법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화장이

런 문제와 같이 거론을 시킨다면, 우리가 고구려 적석총의 원류, 이런 것도 이제 요서 지역과 연결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연접적석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백지구의 관구자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기원전 3세기까지도 올려보기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어렵지만, 관구자에서 이야기하는 장법이 화장입니다. 주변에서 화장을 해서 습골(拾骨)을 하고, 묘곽에다 안장을 하는 2차장적인 형태인데요, 재미있게도 중심부에 원형 적석총에서 시작해서 사방을 반달모양으로 붙여나가는 사방확장형이어서 고구려의 연접적석총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문화의 묘곽연접적석총은 하나에서 붙여 나가는 형식에서는 비슷합니다만은 똑같이 연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석묘, 석묘에서 공통적으로, 화장이라는 장법이라는 공통적인 의식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일단은 고구려와 직결시키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가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서 토기의 전래를 들었고, 한반도의 동북지역을 볼 때 이게 요서에서 관구자까지만 오고 안 왔을 것 같지는 않구요 함흥 이북 동북지역의 묘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후한서 열전을 보면 옥저는 분명히 세골장이어서 가족이 세골을 해서 거대한 목곽에 넣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적석묘와 직결시키기는 어렵지만 함흥 일대에서 대규모 적석묘곽들이 관련된 걸로 지목되기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 관련해서 다만 못과 껍쇠가 나온다는 말씀, 저도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발굴된 묘곽, 적석총에서 내부가 다 발굴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것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쇠와 못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아주 적고, 그래서 고민을 하나 해보는 것이 그러면 그 안에서 껍쇠와 못이 나오면 반드시 이걸 목관과 동일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묘곽의 한쪽 벽면 쪽에 화장된 뼈들이 널려있으면 정성 들어서 잘 안장하지 않은 양상이라고 지적하셨는데, 하나의 껍쇠와 못을 쓴 목재 납골함에 잘 넣어 매장했을까에 대한 반론을 하신 셈인데요, 그것도 열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서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는 경우에, 화장 시설이라고 할까요 제의와 연동된 화장 시설 등을 같이 쓸어다가 안에 매장, 매납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석촌동과의 관련성에서는 제가 오늘 논의가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발표문에 한 줄도 안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역시 한 줄을 쓰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촌동의 적석총, 제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 연접적석총, 기 발굴된 1호분과

도 연결되는 걸로 지금 밝혀져서 조사 중인데요, 길이가 100m에 이릅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확장형의 적석층인데 이것은 사실 이와 같은 묘곽연접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석도 하지만 기가 막히게 성토를 해서, 그야말로 마한(馬韓)이라고 할까요 그쪽의 토축 전통과 이북지역의 적석 전통이 같이 혼재된, 교묘하게 결합시킨 아주 특이한 적석층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련성을 말씀드린 것은 석촌동이 중도문화권의 적석층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기존에는 이쪽의 기층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석촌동의 집석분구묘지요, 그것이 등장한 시기와 맞물려서 소멸된 것으로, 예전에 박순발 선생님도 이런 설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유적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어느 시기까지는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도문화로서의 적석층이 한순간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를 건국한 세력과 아울러 지내다가 적석층 전통이 새로운 석촌동의 적석층을 만드는데 일정정도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돈** 네 고맙습니다. 사실 묘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중도문화의 족속, 집단이 누구이냐 하는 문제로 또 비슷한 형태의 묘제가 보이느냐, 그러나 그런 과정을 어차피 다시 한번 또 밝혀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허진아 선생이 발표에 대해서 허진아 선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박준영 선생이 간단하게 허진아 선생의 발표를 요약, 소개해 주시고 토론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영** 네, 방금 소개받은 박준영입니다. 허진아 선생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고 저도 참석을 해도 되나 싶었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라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토론문만 읽으면 청중분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이해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 간단하게 발표문을 브리핑 하고 제 질문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발표문의 주 내용은 중도사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위세품의 소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로서 ‘핵심-주변’이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했는데, 핵심지역이라 함은 마한 사회로 설정을 했고, 마한 사회는 폭발적인 인구를 갖고, 광대한 경작지가 있으며, 노동 집약적 문명을 이루면서 이와 더불어 환황해권의 해상교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변 문화로는 중도문화를 설정을 했는데, 경작지가 상

당히 부족한 지역이라 식량생산경제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체로서 수공업 생산경제체제를 채택했다는 것이 이 ‘핵심-주변’ 이론의 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 주변성으로 중도문화를 보게 되면 그동안 중도문화권역을 백제 아니면 낙랑으로 보았던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재지세력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 허진아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소모품 생산경제로서 선택한 것은 철기인데 그도 그럴 것이 원삼국, 삼국 아니면 철기시대에 보통 우리가 국가형성기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에 토목, 건축, 빈곤한 전쟁 등 때문에 물질문화로서 철기가 상당히 수요가 높다는 점 때문에 중도문화권에 대해서는 수공업 생산경제체제로서 철기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수공업생산경제, 철기생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하고 그 결속하는 방법은 역시 정체성에 대한 구축인데, 이 중도문화권역 내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유입, 그에 대한 재지세력들과의 연대, 결속, 문화 이런 과정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요소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의례와 위세품입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은 분구묘이고, 위세품으로서는 구슬과 청동제품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 두 가지를 정체성 형성의 주요 요소로 든 이유는 의례와 같은 경우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통합의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여기서 위세품의 사용은 공동체의 안정성까지 기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의례로서는 적석분구묘, 위세품은 구슬과 청동제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적석분구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망이 탁 월한 충적대지에 위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독립적인 위치는 마한의 분구묘와는 확실하게 다른 점을 지적했고, 이와 더불어 적석분구묘의 위치가 교통로에 있어서 중앙결절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었던 사회통합, 그리고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이런 시점에서 의례행위의 결과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문화권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적석분구묘가 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점을 통해서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의 경우 외부에서 수입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특히 유리구슬 같은 경우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유리구슬이 마한 권역에서 해양을 통한, 해상 교역을 통해 입수되었을 것으로 보며, 또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석제구슬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동제품과 관련해서는 결국 마한이 마형대구라면, 중도문화권역 청동환을 중심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에는 마한은 구슬과 청동제 마형대구, 중도에서는 구슬과 청동환으로 조합구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합 구성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오래 소비된 어떤 공공재로서의 성격, 그러니까 의례로서 서로 공통되고, 공유되고, 소비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주변성을 띄는 중도문화권역, 수공품 생산경제체제 거기에 채택된 것이 철기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집단적인 철기생산을 위해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 요소로서 의례로서는 적석분구묘, 위세품으로는 구슬과 청동환으로서 작용을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순환적으로 중도문화권역의 정체성의 형성과 위세품의 소비의 의미가 되었다고 발표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2번 ‘핵심-주변’에 대한 적용입니다. 핵심과 주변이라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적용을 시켰는데, 마한의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하였고, 거기에 광대한 농경지를 확보한 핵심지역으로 설정하셨고, 그리고 중도문화는 농경지 핵심지역에서 벗어난 주변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중도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주변’이라는 틀을 적용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시도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도문화라는 큰 권역을 주변성 하나로서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도문화 권역으로 묶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을 이룬 형태인데, 이것을 주변성이라는 하나의 틀로 과연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가 핵심과 주변, 사실 중앙과 지방이라는 표현이 제 입장에서는 더 익숙했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한은 식량, 중도문화권역은 철기가 부각 되어서 설명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성을 봤을 때 사실상 이 두 권역의 관계가 상호보완적, 유기적인 관계처럼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농경의 핵심지역인 마한과 철기를 생산하는 수공업 생산경제를 갖춘 중도문화가 실제적으로 유기적인 관계, 그런 교환한 사례가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교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제작주문에서 유통되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이해를 해서 과연 그 정도의 유통체제를 갖췄을까 하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핵심과 주변이라는 이론적 틀을 마한 권역이나 중도문화권 내에서 적용하면, 또는 접경 지역과의 관계 내에서 보면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슬은 다양한 곳에서 입수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유리구슬 같은 경우는 해양을 통해서 유통되었다, 특히 마한을 통해서 입수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중도문화권역에서 마한을 거치



지 않고 유리구슬을 입수한, 그렇게 볼 수는 없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계속 유리구슬 등 위세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유리구슬이 해양을 통해서 유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의하지만, 사실 동남아시아나 인도, 스리랑카 이런 유리구슬이 유통되는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치,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유리가 유통이 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해양을 통해서 유통되긴 하지만요. 근데 중도문화권역 자체의 지역적 위치로 봤을 때 낙랑과 대방 그리고 마한 중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굳이 마한을 통해서 입수했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토론자(박준영)의 토론문에 대한 발표자(허진아)의 답변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 분들과 국립춘천박물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남대학교는 6월 1일부로 대면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내 모든 구성원이 6월 26일 종강까지 집합 장소 방문을 자제하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번 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회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1. 중도문화의 개념

**문** 먼저 여쭙어보고 싶은 것은 논지를 전개하는데 주요 개념인 ‘중도문화’에 대해서입니다. 중도문화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뿔(凸)자형 주거지 그리고 적석총(적석분구묘)으로 대표되는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기층문화(박순발 1996)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연구자는 큰 틀에서는 수용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최종규 2008, 박중국 2011, 박경신 2018).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중도문화(시공간적 틀)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발표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중도문화라 함은 한반도 중부지역 특히 임진·한탄강, 영서·영동지역에 존재하였던 원삼국시대 고고문화 또는 지역성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한이나 변한, 진한 같은 고대 정치체 혹은 국가단계 사회의 출현과 연결지어 보자면, 당연하게도 청동기 후기 재지사회의 변동(점대대문화의 유입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중도유형 물질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본 발표에서는 원삼국시대 개시로 이야기되는 기원전 100년을 상한으로 하

고, 하한 역시, 중도유형 물질문화가 지속되는 기원후 3-4세기까지로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적 분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필연적으로 원삼국시대 중도유형 물질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여러 논의들이 있을 수 있으나, 박순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여자 및 철자형 주거지-적석분구묘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물질요소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중도문화의 중심지라면 중심지일 것이고, 그 외곽이나 경계에서는 다른 문화나 집단과의 접변으로 인해 물질요소의 구성이 달라진다거나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중도유형사회가 마한 중심권보다 세대구성원에서 평균 2배 정도 큰 확대가족 형태를 띠고 있으며 취사의 방식이나 취락의 경관에서 분명한 지역성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중도문화의 중심지와 주변 또는 경계 지역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물질문화 분석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 2. ‘핵심-주변’의 적용

**문** 발표자께서는 마한을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광대한 농경지를 확보한 핵심지역, 중도문화는 농경지 핵심지역에서 벗어난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중도문화권역은 농경 핵심지역에 진입하지 못한 이주민들이 정착한 곳으로, 이들이 선주민과의 관계 내에서 채택한 생업경제가 곧 철생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도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이론적 틀인 ‘핵심-주변’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나, 중도문화권역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도문화는 지역이 넓은 만큼 다양한 지역성이 보이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성에는 공간적인 특성(적석분구묘의 형태, 주거지의 형태와 내부시설 등)과 더불어 시기에 따른 변화양상 등 단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역의 중도문화를 ‘주변성’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답**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고민은 ‘주변성’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였습니다. 주변성을 공간성이나 중요도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거나, 제가 중도문화를 마한의 주변이나 백제국의 주변 정도로 치부한다고 오인하실까봐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marginality라는 용어의 쓰임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만, 이 발표문에서는 농경사회에서 수공품 생산경제가 어떻게 출

현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고자 이 용어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원삼국시대 폭발적 인구증가를 가져온 요인이 식량생산의 증가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석축 등 수렵도구가 출토되지 않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렵채집을 하지 않고도 가구가 생존할 수 있는 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경(수도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이라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던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가 있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역 수준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한의 모든 지역이 수도작에 최적화되어 있고 중도문화권 모든 지역이 수도작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해당 사회가 주요 경제활동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지, 실제 수도작이 있다 없다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성은 농업경제가 중심이 아닌 지역에서, 가구와 지역사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생계 방식을 설명하는 틀이지, 공간적 측면에서 중심지와 주변을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문** 만약 마한권역을 핵심지역으로, 중도문화권역을 주변지역으로 설정한다면 서로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식량→철기 교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경의 핵심지역인 마한과 철기를 생산하는 수공업생산경제를 갖춘 중도문화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교환한 사례가 있는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중도문화권역에는 철기생산거점과 지역거점 그리고 소비취락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도문화 네트워크 안에서 생산된 철기는 내부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영민 2017). 오히려 철소재를 마한권역인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받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최영민 2016). 이 외에도 분묘, 주거지 등의 물질자료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두 권역은 배타적인 관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답** 이 질문은, 일단 두 사회 간에 교환망이 존재하였는지 파악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한과 중도사회 간 철기 교환망에 대한 것은, 원고에서도 언급하였듯, 저 역시 궁금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철기처럼 고부가 소비재를 중도문화권 내에서만 소비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철기 생산품의 상당수는 농공구입니다. 농경이 활발한 지역에서 소비되는 고부가 소비재이지요. 그런데, 중도문화권에서는 가구 내 철기 소비의 흔적보다 생산의 흔적이 더욱 쉽게 확인됩니다. 중도문화권 내에서만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였다면, 철기 수요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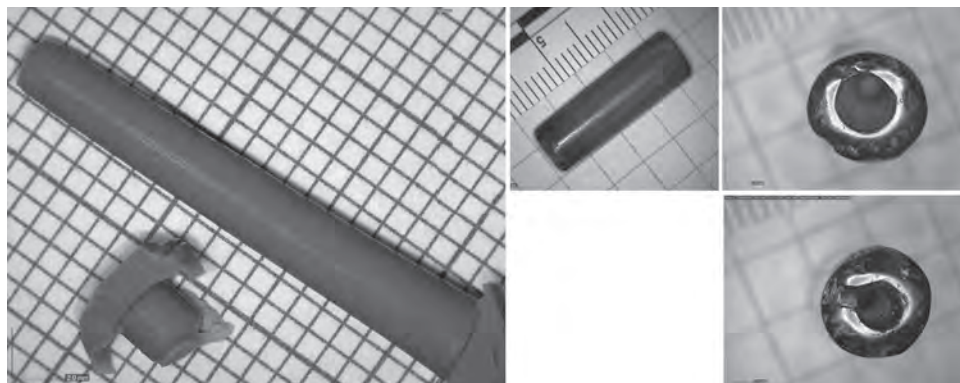
도사회에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현자료상 분명치 않습니다. 수공품 생산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량생산을 하지 않고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비축되어 있거나, 교환이나 교역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어떤 방식으로건, 해당 사회에는 수공품 생산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중도문화권에서 생산된 철제품이 농경이 활발한 지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마한의 어느 지역이다라고 특정지을 수 없고, 식량이 오고간 것을 증명해 낼 방법 역시 없습니다. 다만, 철소재를 화성 기안리 등 마한 권역에서 들여와 철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히려, 당시 마한사회와 중도사회 사이에 교환망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3. 구슬의 제작과 구성 그리고 유통

**문** 흔히 유리제 환옥(丸玉)이라고 불리는 소형의 유리구슬은 제작기법(Drawn기법)으로 보아 외부에서 제작된 뒤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석재로 만들어진 구슬은 충분히 한반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청동기시대부터 천하석으로 제작된 구슬, 특히 대롱구슬(管玉)이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삼국시대 수정제 구슬(다면옥 등) 또한 한반도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투공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연구(박유림 2019)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석제 구슬은 한반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넬리언(Carnelian, 홍옥수) 구슬의 경우 대부분이 인도의 다이아몬드 천공기술로 제작된 외래 수입품으로 추정(허진아 2018)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공방식을 직접 보아야 알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형태에 따라 현지(한반도)제작을 추정하시는 것이라면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예시가 있을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넬리언 제작지에서는 대롱모양의 구슬이 제작되지 않는지도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답** 제가 관찰, 분석하였던 카넬리언 관옥은 완주 상운리(라1-28\_158) 출토품입니다. 철이나 구리 같은 메탈 소재 드릴과 연마제를 사용해 거의 한쪽 방향에서 투공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감처리 하였습니다. 즉, 남아시아 전통의 다이아몬드 드릴링이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볼 사항은 관옥 끝 단면의 마감처리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둥글게 마연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카넬리언 관옥이 제작되지만, 아주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소재를 샤프하게 절단한 면을 마연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학곡리 출토 카넬리안 관옥 분석이 이루어져, 제작기법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완주 상운리(라1-28\_158) 출토품 현미경 관찰

**노태돈**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학술회의 발표장에서 여러 가지의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한분은 코로나로 인해 못 올라오시고, 또 한분은 못 올라오신분을 대신하여 토론문 내용, 다시 그 토론문을 보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다시 대독하는 이런 어떤 의지의, 학문적인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헌사학에서 두 분이 계시는데요 김창석 선생과 여호규 선생이 방금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 한 주제당 10분 안에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석 선생 발표에 대해서 오영찬 선생님 진행해주세요.

**오영찬** 토론문을 중심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석 선생님은 한국 고대 주요 정치체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정치체와 그 동향에 대해 최근 여러 성과들을 많이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간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번군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더불어 초기 백제의 건국세력을 쫓진번 유민으로 제기한 연구입니다. 발표자의 주요 논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피피티 정리를 잘 정리해주셔서 일부 생략하고 문의를 하겠습니다. 세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서 진번군과 임둔군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신 것도 돋보이지만 무엇보다 백제의 건국 세력을 고구려 또는 부여계로 보는 학계의 통설에 반하여 ‘진번계 유이민’으로 파악한 것은 매우 흥미롭고 독창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세기 한반도 중서부 지역의 역사적 동향에 대한 발표자의 創見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진번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표자의 전반적인 견해는 진번군의 위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번군 위치문제는 재남설과 재북설이 오랜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일단 오늘 토론에서는 제하겠습니다. 다만 진번군 15현의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무릉서(茂陵書)에 따라 진번군 15현 중 7현은 황해도, 대방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현을 비롯한 8현, 8개가 되는지의 여부는 발표자도 회의적이셨는데, 경기 북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번군은 황해도의 '舊진번 북부'와, 경기 북부의 '舊진번 남부'로 구분됩니다. 문제는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 사이에는 지형적인, 일종의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두 지역 사이에는 멸악산맥도 있고 또 예성강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장벽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시기나 한사군 설치시기에 진번군이라는 하나의 정치 단위가 설정될 만큼의 동질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의 경기도 북부에 만약에 8개, 진번군의 수현인 잡현을 중심으로 해서 8개를 설치하고, 황해도에 7개, 그것이 이제 낙랑군 남부도위가 되고 그 시기에 대방군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황해도 쪽이 공간이 더 넓다는 겁니다. 훨씬 넓고,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는 공간이 좁아서 8개의 현이 들어가기에 공간적으로 비좁은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제 건국집단이 대방군에 있던 지역의 주민, 즉 진번계 유이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와 대방군을 연결시킨 北朝의 인식과 초기 백제와 대방군의 물질문화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방군과 초기 백제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서 물질문화의 친연성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늘 학술대회 내내 중도문화와 관련해서 관련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주민이 남하하여 초기 백제에 합류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대세론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조'와 '비류'로 제시된 백제의 건국 집단이 과연 대방군 지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통설에서 온조, 비류 집단을 백제 건국설화, 적석총 등 여러 가지 논거들을 들어서 온조, 비류 집단이 고구려, 부여계로 보는 것이 통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에서는 기존의 통설을 뒤엎을 만큼 구체적인 논거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원4년 낙랑군 호구부」의 3구역, 4구역을 발표자는 임둔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구역의 5현을 만약에 어디에 비정할 것인가가 논란일텐데, 최근에 Mark Byington 박사가 비정한 청천강과 그 이남 일대로 보는 것이 저는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임둔군이 평안남도 북부와 동해안 일대로 쪼개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랑군 호구부」 3구역의 위치를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석**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번 세력권이라고 설정한 것이 너무 넓은 말씀이시고, 중간에 자연적인 장벽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데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지어서 낙랑군 지역에도 대동강과 같은 큰 대하천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큰 권역으로 묶여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진번군 내에서도 사실은 멸악산맥이나 예성강보다 장벽은 낮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구분선 역할을 하는 지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령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번의 내부의 동질성을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무능서에 나오는 잠현이 남부도위의 통치영역에서 빠져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번군에 원래 있던 현 중에서 일부는 제외가 되었다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그 현들이 있었던 위치는 황해도 남부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백제 건국집단하고 진번세력은 황해도 지역하고의 연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지적을 하셨는데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찾아 봐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주로 온조나 비류 건국 설화에 입각해서 백제의 건국을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사실은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 하류지역 사이에는 낙랑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올 수는 없고 그래서 개마고원을 넘어서 옥저 지역으로 일단 간 다음에 그 집단이 다시 한강 하류지역으로 들어왔다, 그 루트 상에서 여러 가지 적석총들을 조성했다 이런 식의 설명도 있었는데, 사실 대단히 큰 설명 방식이긴 합니다만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런 방식보다는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겠고 또 그 속에서 건국집단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는다면 역시 고구려, 부여계통보다는 한군현의 시대를 진번군이나 남부도위, 대방군의 시대를 맞던 그 지역에서 원류를 찾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둔의 문제인데요, 제가 호구부에서 창사구역 전부 임둔군이었을 것이라고 설정을 한 것은, 일단 자료상으로 그렇지요. 임둔군이 폐지가 된 다음에 그걸 현토군으로 이관을 했다가 다시 낙랑군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낙랑군이 이관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통치방식을 세우나하면 일단은 임둔군을 흡수를 하긴 하는데 하

지만 영동지역은 너무 멀어서 따로 동부도위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도위가 지배하는 구 임둔군 지역이 있고 낙랑군이 직속시킨 임둔군 지역이 있는거죠. 그 경계선이 태백산맥이나 낭림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되었다고 본 것이고 그랬을 때 3구역에 나오는 5개의 현이 바로 원래 임둔군이었는데 낙랑군으로 직속된 그런 대상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평안남도 북동지역에 있었다고 봐도, 제 논지하고는 큰 충돌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노태돈** 네, 임둔군과 관련한 논의 부분에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해주시구요, 다음은 여호규 발표에 대해서 임기환 선생님이 토론해주시겠습니까.

**임기환** 네 임기환입니다. 간단하고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호규 선생님께서 발표문이 깊지만 발표를 잘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발표의 핵심 내용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여호규 선생님은 영역지배를 관철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해서,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한강유역, 서해안 일대의 수취된 많은 조세물들을 평양으로 옮기는데 해주로부터 재령강 사이를 넘어가는 그 루트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 한성 별도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한성 별도의 성격 접근은 아주 독창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강지역의 영역지배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호규 선생님하고 답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지리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십니다. 한성 별도도 그렇게 파악한 것도 여선생님만의 독특한 의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성별도의 독자적인 성격을 접근했다라도 궁극적으로는 한강의 지배 문제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양하고 국원성, 특히 한강 하류와 상류에 두 개의 거점을, 평양과 구분을 하면서 문헌기록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성에 준하는 도시가 조성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명 자체가 거의 도성급의 지명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충주라는 도시에 도성급의 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까, 만약에 조성된다면 그걸 지키는 관방시설이 있어야하는데 확인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에 준하는 방어망이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결국 지명에서 유추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주도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그 지명의, 명칭의 문제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원이라는 지명을 쓸까, 평양은 다른 지역입니다만 그런 명칭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의 지명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한성과 관련시켜서요, 한강 유역의 여러 가지 조세들을 운반시키는 통로에 하나의 거점으로서 재령강과 해주를 연결시키는 한성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강유역 상실 기사에 보이듯이 한강 이북에 평양이 있고 한강 이남에 한성지, 평양지를 빼앗을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고구려 시대에도 백제에 한성이 있지만 한성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성이라는 지명이 한성 남쪽에도 있고 황해도 신원에도 있게 되는데 재령강에 있는 별도로서의 한성은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론문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점 하나가 6세기 중후반에 한강유역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성 별도의 핵심적인 기능이 한강 유역과 서해안 일대의 조세들을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건데 한강 유역을 잃어버리면 한성 별도의 기능도 쇠퇴하기 마련인데 문헌기록을 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성 별도로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제가 한성지역을 회복할 때 서해안 일대의 고구려 영역은 빼앗지 못했다 그래서 553년 10월 웅천성 전투가 고구려가 서해안 쪽으로 남하하면서 벌어진 전투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백제가 고구려군을 격퇴함으로써 완전히 고구려는 한강 일대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이때 한강 유역에 대한 공격을 고구려와 신라가 협공을 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구려 신라 밀약설을 염두해 두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아님 서로 협의해서 말씀했다는 협공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전개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신라와 고구려가 같이 협의를 통한 협공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백제 대신 신라를 선택했다는 뜻으로 읽히지게 되는데요, 그 점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서해안 루트를 고구려가 이때 백제의 웅천성 전투의 패전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적어도 서해안 일대는 백제가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라가 오히려 서해안 일대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호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쟁점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지배와 관련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자료상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되는 자료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견해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은 탑평리 일대에서 고구려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만은 도성에 준하는, 평지 거점이라고 할 만한 유적은 발견이 안됐고 마찬가지로 한강 하류지역에서도 아차산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구려 보루 유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은 평지 거점이라고 할 만한 유적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원성과 평양이라는 지명으로 유추한 견해입니다. 다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지형 상으로 보면 이걸 평지 거점을 설치하는 게 거의 명확하고 특히 한강 하류의 평양 같은 경우는 백제 풍납토성에 대한 대응관계에 있는 것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반면 요동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고구려 성들이 확인되었습니다만은 중국의 군현성을 제외하고는 고구려가 자체적으로 평지 거점성을 구축한 상황은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한강 유역은 동시의 상황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특수한 상황이고, 이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원성이나 평양성을 한강 유역 경영과 관련해서 평지 거점으로 구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명칭의 중복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도 해결하기 간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서기 기사에 551년 시점에 한성이 나오는 게 맞구요 6세기 후반에 수서나 신·구당서에 한성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정착되는 시점, 그리고 각각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551년에 보이는 한성지지의 한성의 의미는 역시 근초고왕대의 백제가 이도한산 했다고 했고 한산으로부터 유래한 명칭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1년 시점에 한산에서 유래한 성곽의 명칭으로서 한성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구요, 다만 수서부터 등장하는 재령으로 비정되는 한성 별도의 경우에는 실제 그것이 551년 이전 시점에 어떤 명칭으로 불렸는지는 현재로서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이후에 문자라는 형태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성이고, 어쨌든 동일한 명칭이라 하더라도 유래한 의미와 기록된 시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따져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51년 한강유역 상실 이후에 그러면 한성 별도가 계속 기능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사실은 고구려가 551년에서 553년에 최종적으로 한강을 상실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라와의 국경을 보면 대체로 임진강과 한강의 분수령 지대에서 국경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유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부지역을 상실했습니다만, 임진강과 예성강, 그리고 멸악산맥 남쪽의 연대평야 일대를 여전히 고구려가 장악한 상황이고요, 역시 그런 지역에서는 임진강, 예성상 수로와 해로를 통해서 물자들을 평양으로 운송하는 과정은 계속 지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은 제 생각에 일본서기에 나오는 552년에 백제가 왜 고구려와 신라가 통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일단 존중을 한다면 552년 시점에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553년 10월 웅천성의 위치비정에 대해서 백제사 연구자들은 한강 이북으로 많이들 비정을 하시는데 그건 553년 7월 시점에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치비정은 대단히 어렵다, 결국 이 웅천성은 백제본기 초기 기록에 백제의 온조왕기의 영역을 얘기하면서 남쪽은 웅천에 이르렀다고 나오고 그 웅천은 마한과 백제의 경계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웅천은 안성천이 되고 비정이 되는 게 학계의 통설이구요, 그 견해를 따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구요, 그래서 553년 10월 시점에 안성천 일대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전투를 벌인 것은 실제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551년에 상황들을 설정해서 대체로 이천, 안산 일대에 잔존했던 고구려 세력이 신라와의 밀약을 통해가지고 백제에 대한 협공 작전을 벌이게 되고 그렇지만 웅천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고구려가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지역을 백제가 왜 장악을 못했느냐 이것은 그 이듬해 554년에 일어나는 관산성 전투를 가지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할 정도로 대패를 하면서 결국 백제로서는 자연경계선인 차령산맥을 경계로 해서 신라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성지역까지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태돈** 네, 역사 지명에 관해서는 계속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오늘은 이정도로 하시구요, 두 분의 논리를 바꿔가면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토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토론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학술총서 16

##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

文獻 考古資料 古代 江原

인쇄 2020년 12월 28일

발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강원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강원학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Gangwon Studies

 국립춘천박물관  
Chuncheon National Museum

인쇄처 도서출판 산책

ISBN 978-89-5705-814-5

# Ancient Gangwon in Literature and Archaeological Data



비매품/무료



9 788957 058148  
ISBN 978-89-5705-814-5